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f Determinants and Indicators of
Happiness among Koreans

김승권 · 장영식 · 조흥식 · 차명숙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8-13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김승권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인쇄처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예원기획
가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498-8 93330

머 리 말

「행복」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은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인가? 행복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체 지구촌 가족의 행복, 개별가족의 행복, 개인의 행복은 서로 동일한 것인가? 이와 같이 행복과 관련한 많은 의구심이 있음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현대사회는 많은 변화와 혼란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로 특징 지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잡성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높은 실업률, 인구고령화, 소득격차의 심화, 개인주의적 가치관, 이념적 충돌, 기상이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갈등을 겪고, 끊임없이 자연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만족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주관적으로도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이 사실이다.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행복의 개념, 행복의 결정요인, 행복공식, 행복수준 등에 대한 연구가 최근 시작되었다. 혹자는 행복해지는 길이 의외로 간단하다고도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행복은 반드시 ‘삶의 질’ 또는 ‘생활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에 따라 행복기준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고, 행복결정요인을 개발 및 분석하여, 행복지수를 측정하여 보다 행복해지기 위한 개인적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미리 밝혀두면, 첫째, 외국과의 비

교가 어렵고, 둘째, 행복지수의 시계열적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수준 측정을 위한 가치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당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원내·외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전체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체적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연구기획 및 총괄 (김승권)

제1장 서론(김승권)

제2장 행복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김승권·조흥식·장영식)

제3장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안) 개발(장영식·차명숙)

제4장 행복결정요인별 한국인의 행복수준(김승권)

제5장 한국인의 행복지수(김승권)

제6장 종합논의 및 행복수준 향상방안(김승권)

본 연구를 위하여 추진된 델파이 조사와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관련 전문가 및 일반국민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의 원내 검토자인 당원의 변용찬 선임연구위원과 오영희 부연구위원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이 배가되기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한국인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인의 행복증진이 국가경쟁력 향상, 국력(國力) 증대, 더 나아가 지속적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하

목 차

Abstract	17
요 약	19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제3절 행복결정요인 개발 및 행복수준 측정 실태조사 특성	31
제2장 행복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38
제1절 행복관련 제 개념	38
제2절 행복관련 제 이론	49
제3절 행복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50
제4절 관련 기존지표	65
제5절 행복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93
제3장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안) 개발	97
제1절 행복결정요인(안) 개발	97
제2절 행복관련 영역 및 지표의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00
제3절 영역 및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26
제4절 행복결정요인 선정	238

제4장 행복결정요인별 한국인의 행복수준	244
제1절 행복결정요인별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244
제2절 한국인 특성 및 지표별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253
제5장 한국인의 행복지수	298
제1절 행복결정요인의 영향도	298
제2절 전체 한국인의 행복지수	301
제3절 한국인의 특성별 행복수준	304
제6장 종합논의 및 행복수준 향상방안	322
제1절 종합논의	322
제2절 행복수준 향상방안	337
참고문헌	341
부 록	345

표 목 차

〈표 1- 1〉	텔레파이조사 응답자의 특성	33
〈표 1- 2〉	전국 및 시·도의 연령대별 인구수	35
〈표 1- 3〉	전국 및 시·도의 성별·연령대별 인구수	35
〈표 1- 4〉	표본추출된 전국 및 시·도의 연령대별·성별 인구수	36
〈표 1- 5〉	응답자 특성	37
〈표 2- 1〉	영국 BBC다큐멘터리의 행복지수 설문조사	60
〈표 2- 2〉	사회경제적 보장의 지표들	73
〈표 2- 3〉	사회응집력의 지표들	74
〈표 2- 4〉	사회적 포용의 지표들	75
〈표 2- 5〉	사회적 역량강화 지표들	76
〈표 2- 6〉	전체 표본의 성과 연령: 도시별 백분율	79
〈표 2- 7〉	지역별 행복도: 지역에서의 백분율	81
〈표 2- 8〉	지역별 매우 또는 꽤 행복하다고 응답한 백분율	81
〈표 2- 9〉	런던에서의 경제 보장	82
〈표 2-10〉	런던에서의 사회 응집력	82
〈표 2-11〉	런던에서의 사회통합	83
〈표 2-12〉	런던에서의 사회적·문화적 역량강화	84
〈표 2-13〉	10개의 세계 주요도시들: 객관적, 주관적인 변수들	90
〈표 2-14〉	수정 결정계수	90
〈표 2-15〉	10개 주요 도시에서 각 분면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백분율	91
〈표 3- 1〉	행복결정요인 1차안	99
〈표 3- 2〉	영역별 우선순위	101
〈표 3- 3〉	「심리적 안정」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103

〈표 3- 4〉 「심리적 안정」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105
〈표 3- 5〉 「가족·결혼」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106
〈표 3- 6〉 「가족·결혼」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107
〈표 3- 7〉 「개인적 관계」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108
〈표 3- 8〉 「개인적 관계」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109
〈표 3- 9〉 「지역사회」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110
〈표 3-10〉 「지역사회」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110
〈표 3-11〉 「일상생활」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111
〈표 3-12〉 「일상생활」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112
〈표 3-13〉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114
〈표 3-14〉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117
〈표 3-15〉 「경제적 안정」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118
〈표 3-16〉 「경제적 안정」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119
〈표 3-17〉 「일」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120
〈표 3-18〉 「일」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122
〈표 3-19〉 「건강」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123
〈표 3-20〉 「건강」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124
〈표 3-21〉 「주거」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125
〈표 3-22〉 「주거」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125
〈표 3-23〉 「심리적 안정」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26
〈표 3-24〉 「가족·결혼」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28
〈표 3-25〉 「개인적 관계」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29
〈표 3-26〉 「지역사회」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30
〈표 3-27〉 「일상생활」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31
〈표 3-28〉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32
〈표 3-29〉 「경제적 안정」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33

〈표 3-30〉 「일」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34
〈표 3-31〉 「건강」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35
〈표 3-32〉 「주거」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36
〈표 3-33〉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38
〈표 3-34〉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39
〈표 3-35〉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41
〈표 3-36〉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42
〈표 3-37〉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	143
〈표 3-38〉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	144
〈표 3-39〉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46
〈표 3-40〉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47
〈표 3-41〉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48
〈표 3-42〉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49
〈표 3-43〉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51
〈표 3-44〉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52

〈표 3-45〉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53
〈표 3-46〉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54
〈표 3-47〉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56
〈표 3-48〉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57
〈표 3-49〉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58
〈표 3-50〉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59
〈표 3-51〉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61
〈표 3-52〉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62
〈표 3-53〉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	164
〈표 3-54〉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	165
〈표 3-55〉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66
〈표 3-56〉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68
〈표 3-57〉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69
〈표 3-58〉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70

〈표 3-59〉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72
〈표 3-60〉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73
〈표 3-61〉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	174
〈표 3-62〉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	175
〈표 3-63〉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	176
〈표 3-64〉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	177
〈표 3-65〉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79
〈표 3-66〉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80
〈표 3-67〉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	181
〈표 3-68〉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	182
〈표 3-69〉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	183
〈표 3-70〉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	184
〈표 3-71〉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	186
〈표 3-72〉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	187
〈표 3-73〉	성(Gender)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89
〈표 3-74〉	성(Gender)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90
〈표 3-75〉	연령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91
〈표 3-76〉	연령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92
〈표 3-77〉	혼인상태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93
〈표 3-78〉	혼인상태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94
〈표 3-79〉	취업여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95
〈표 3-80〉	취업여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96
〈표 3-81〉	종사상 지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97
〈표 3-82〉	종사상 지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198

〈표 3-83〉	직업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199
〈표 3-84〉	직업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00
〈표 3-85〉	개인소득 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01
〈표 3-86〉	개인소득 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02
〈표 3-87〉	가구소득 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03
〈표 3-88〉	가구소득 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04
〈표 3-89〉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	206
〈표 3-90〉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	207
〈표 3-91〉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08
〈표 3-92〉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10
〈표 3-93〉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11
〈표 3-94〉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12
〈표 3-95〉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13
〈표 3-96〉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15
〈표 3-97〉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17
〈표 3-98〉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18
〈표 3-99〉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19

〈표 3-100〉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21
〈표 3-101〉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22
〈표 3-102〉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23
〈표 3-103〉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24
〈표 3-104〉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26
〈표 3-105〉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	227
〈표 3-106〉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	228
〈표 3-107〉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29
〈표 3-108〉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30
〈표 3-109〉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31
〈표 3-110〉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32
〈표 3-111〉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233
〈표 3-112〉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234
〈표 3-113〉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	236
〈표 3-114〉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	237
〈표 3-115〉	행복결정요인(안)의 우선순위와 영향정도 평균값	239
〈표 3-116〉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242
〈표 4- 1〉	『심리적 안정』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245

〈표 4-2〉 「가족·결혼」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246
〈표 4-3〉 「개인적 관계」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	247
〈표 4-4〉 「지역사회」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	248
〈표 4-5〉 「일상생활」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	249
〈표 4-6〉 「경제적 안정」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	250
〈표 4-7〉 「일」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	251
〈표 4-8〉 「건강」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252
〈표 4-9〉 「주거」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	253
〈표 4-10〉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254
〈표 4-11〉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지표의 행복수준 ..	256
〈표 4-12〉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258
〈표 4-13〉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	260
〈표 4-14〉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	262
〈표 4-15〉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264
〈표 4-16〉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266
〈표 4-17〉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	268
〈표 4-18〉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	270
〈표 4-19〉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272
〈표 4-20〉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274
〈표 4-21〉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지표의 행복수준	276
〈표 4-22〉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행복수준	279
〈표 4-23〉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행복수준	281
〈표 4-24〉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283

〈표 4-25〉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285
〈표 4-26〉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288
〈표 4-27〉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의 행복수준	290
〈표 4-28〉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의 행복수준	292
〈표 4-29〉 ‘규칙적인 운동여부’ 지표의 행복수준	294
〈표 4-30〉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296
〈표 5- 1〉 영역의 우선순위 평균값	299
〈표 5- 2〉 영역의 영향도	299
〈표 5- 3〉 개별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300
〈표 5- 4〉 개별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행복수준	302
〈표 5- 5〉 개별 행복결정요인이 전체 행복지수에 주는 영향도	304
〈표 5- 6〉 행복결정요인의 거주지역별 행복수준	305
〈표 5- 7〉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거주지역별 행복수준	306
〈표 5- 8〉 행복결정요인의 성별 행복수준	308
〈표 5- 9〉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성별 행복수준	309
〈표 5-10〉 행복결정요인의 연령별 행복수준	310
〈표 5-11〉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연령별 행복수준	311
〈표 5-12〉 행복결정요인의 혼인상태별 행복수준	313
〈표 5-13〉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혼인상태별 행복수준	314
〈표 5-14〉 행복결정요인의 최종학력별 행복수준	315
〈표 5-15〉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최종학력별 행복수준	316
〈표 5-16〉 행복결정요인의 취업여부별 행복수준	317
〈표 5-17〉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취업여부별 행복수준	318
〈표 5-18〉 행복결정요인의 가구소득별 행복수준	320
〈표 5-19〉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가구소득별 행복수준	321

〈표 6- 1〉	행복결정요인의 중요도와 가중치	323
〈표 6- 2〉	행복결정요인의 중요도와 실제 행복수준	324
〈표 6- 3〉	거주지역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326
〈표 6- 4〉	성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327
〈표 6- 5〉	연령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329
〈표 6- 6〉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330
〈표 6- 7〉	최종학력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331
〈표 6- 8〉	취업여부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333
〈표 6- 9〉	월평균 가구소득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	334
〈표 6-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336

그림 목차

[그림 2-1]	사회적 질 모델	42
[그림 2-2]	삶의 질 결정모형	49
[그림 2-3]	상정된 사회적 질의 역할	69
[그림 2-4]	사회적 질 모델	72
[그림 2-5]	사회적 질의 지표들	80
[그림 2-6]	행복과 연관된 사회적 질의 지표들	85
[그림 2-7]	사회적 질의 지표: 분면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86
[그림 2-8]	사회적 질의 지표들: 결정계수	88

Abstract

A study on determinants of happiness and happiness index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on happiness through understanding elements of human happiness, analyzing factors that impact on happiness, and measuring happiness level. To do so, literature review, Delphi method, and survey were used.

As a result of literature review, 10 areas and 41 indexes were selected as factors that determine happiness. Afterwards, 21 indexes among 41 were finally selected through Delphi method. The questionnaire was used to figure out the level of Korean's happiness and the survey showed that the average grade of Korean's happiness was 67.8 out of 100. This score infers that Koreans are relatively, if not much, happy.

More specifically, people who lived in metropolitan area were happier (scored 68.4) than those who lived in small towns (scored 65.1). In terms of gender difference, the female felt happier (scored 68.2) than male (scored 67.5). Also, the thirties marked the highest score as 69.4, comparing the least score 66.0 of the fifties or more.

Lastly, married people were found to be much happier, scoring 68.3, than single people (including the divorced, the widowed, and the separated), who scored 59.5.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happines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In the personal aspect, firstly, people should be able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their needs and expectations. Secondly, individuals's efforts are also needed in understanding family members, exercising regularly, empowering themselves, and getting along with the others. Also taking pride in job and high self-esteem were also critical to increasing one's happiness. In the societal aspect, developing stable employment, providing enough working opportunities, enhancing social services and polices for families, eliminating potential problems that make families in danger, and supporting families play important role in impacting human happiness. Also,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enough health care services and strengthen policies in order to protect people from various diseases.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행복의 개념, 행복의 결정요인, 행복공식, 행복수준 등에 대한 연구가 최근 시작됨.
 - 경제적으로는 윤택해 지고 있으나, 인간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 더 높아지는 이유는, 행복은 반드시 ‘삶의 질’ 또는 ‘생활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에 따라 행복기준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임.
- 이에 우리사회도 이제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은 무엇이며, 행복지수는 어떠한가를 파악하여 정책결정에 주요한 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고, 행복결정요인을 개발 및 분석하여, 행복지수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행복해지기 위한 개인적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 행복의 개념에 대한 이론과 실제 고찰

20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 행복결정요인 및 행복지수의 연구자별 비교
- 한국인의 행복개념과 행복결정요인 개발 및 분석
-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 개발
- 한국인의 행복지수 증대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

□ 연구방법

- 기존 문헌연구: 행복과 관련한 이론, 선행연구 등 국내·외 기존문헌에 의한 검토
- 델파이조사: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복결정요인을 개발하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전문가 200명, 일반인 100명)
- 실태조사: 일반국민(만20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개발된 행복결정요인별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궁극적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함

제2장 행복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 행복이란?

- 행복(happiness)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정짓는 안녕(安寧)의 상태”임.
- 영어에서 행복을 의미하는 “happy”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인 “happ”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행운”이라고 함.

□ 행복주의(Eudemonism)

- 행복주의는 행복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더욱 세분화됨.
 -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이 지향하는 최고선(最高善)인 행복은 덕(德)을 쫓는 영혼의 탁월한 활동이라 생각하였으며, 쾌락과 동일시하지는 않음.
 - 에피쿠로스 학파나 공리주의자는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함. 행복의 대상이 자기·타인·사회의 성원 전체 중 어느 편인가에 따라 행복주의는 이기적·이타적 또는 공리주의적 성격을 가짐.

□ 행복지수란?

- 행복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임.
 - 미국 미시간대 사회연구소는 1981년부터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의하여 확보됨.
 - 세계 각국 국민 1,000~2,000명에게 설문을 돌려 각자가 느끼는 ‘행복도’와 ‘생활 만족도’ 점수를 매긴 다음 평균을 내서 산출함.
 - ‘행복지수’는 편의상 번역이고 원래 명칭은 ‘주관적 웰빙 순위(Subjective Well-being Rankings)’임.

□ 사회적 질(social quality)과 행복

-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을 위한 유럽 재단(EFSQ)에 의하면 사회적 질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well-being)과 개인적 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임.

□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행복

-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삶의 질의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나 행복(happiness)을 ‘삶의 질’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
 - 삶의 질이란 개인이 만족감과 기쁨을 얻고, 불만족과 걱정을 피하는데 있어 성공한 것을 의미(Shin et al., 1983)함.
 -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란 특정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 사고정향을 의미함(Myers & Diener, 1995).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 벤담은 개인생활의 목표는 행복이고, 따라서 개인의 기계적 총화(總和)인 사회에 있어 행복이라는 것은 최대다수가 그것을 향수(享受)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함.

□ 행복의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 스테판 폴란과 마크 레빈(Stephen M. Pollan & Mark Levine)의 연구
- BBC 행복위원회’의 행복 10계명
- 리처드 스티븐스의 행복요소
-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에 대한 종단적 탐색(현경자, 2004)
- 한국인의 행복과 복: 유사점과 차이점(이지선 외, 2004)
-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김명소 외, 2003)

□ 행복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 미국 미시간대 연구
- 영국의 로스웰(Rothwell)과 코언(Cohen)
- 영국 BBC 다큐멘터리 행복
- 한국인의 행복수준 공식개발(김명소·한영석, 2006)
- 개인의 행복지수 수준과 결정 요인(추홍규, 2005)
-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김명소 외, 2003)

제3장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안) 개발

□ 행복결정요인(안) 개발의 과정

-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제1단계로 영역을 개발하였으며, 제2단계로 각 영역별 행복결정요인(안)을 개발함.
- 각 단계의 작업과정에서 특히 고려한 점은 국내 선행연구, 주요 외국의 행복관련 연구, 행복관련 이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이었으며, 행복결정요인 개발의 제3단계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최종 행복결정요인을 선정함.

□ 행복결정요인 1차안 개발결과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하는 행복결정요인 1차안으로 10개 영역의 41개 지표 개발

- 심리적 안정은 6개 지표,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일상생활, 일상생활 등의 영역은 4개 지표, 경제적 안정, 건강 등의 영역은 3개 지표, 지역사회, 주거 등의 영역은 2개 지표가 개발됨.
-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9개 지표를 제시함.

□ 영역별 우선순위

- 텔파이 조사 결과, 행복결정요인 1차안으로 선정된 10개 영역을 평균으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나타냄.

□ 영역별 개별지표의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 텔파이 조사 결과, 행복결정요인 1차안으로 선정된 41개 지표에 대하여 각 영역 안에서의 우선순위와 영향정도에 대하여 기술함.

□ 영역 및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 10개 각 영역 및 41개 개별지표의 우선순위, 영향정도가 성,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어떤 특성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을 중심으로 제시함.

□ 행복결정요인 선정

- 행복결정요인(안)에 대한 텔파이조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최종 선정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행복결정요인(안)의 10개 분야, 41개 지표에 대한 분야별 우선순위의 평균값과 각 지표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설명함.

- 41개 지표에서 행복지표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에 따라 선정된 21개 지표를 제시함.

제4장 행복결정요인별 한국인의 행복수준

□ 행복결정요인으로 선정된 21개 지표별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측정

- 21개 지표별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0~10점까지의 11점 척도를 사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한국인의 특성별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 한국인의 거주지역, 성,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등 특성별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봄.

□ 우선순위를 적용 후의 한국인의 특성별 행복수준

- 행복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적용한 후의 한국인의 거주지역, 성,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등 특성별 행복수준을 논의함.

제5장 한국인의 행복지수

□ 행복결정요인의 영향도

- 선정된 21개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에 의하여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결정요인(지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본 절에서는 가중치 결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함.

□ 전체 한국인의 행복지수(가중치 적용후)

-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가중치 적용 후 100점 기준으로 67.8점이었다. 따라서 한국인은 ‘비교적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됨.

□ 한국인의 특성별 행복수준

- 대도시 거주자(68.4점)가 중소도시 거주자(67.8점) 및 군지역 거주자(65.1점)보다 행복한 상태에 있었으며, 중소도시 거주자가 군지역 거주자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68.2점)이 남성(67.5점)보다 근소하게 행복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음.
- 연령별로는 30대(69.4점)가 가장 행복하였고, 50세 이상(66.0점)이 가장 덜 행복하였지만 미미한 차이를 보였음.
-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자(68.3점)는 행복감이 가장 높았으나 이혼·사별·별거자(59.5점)는 낮은 행복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음.

제6장 종합논의 및 행복수준 향상방안

□ 종합논의

-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인이 행복결정요인으로 우선시하고 있는 것과 그 지표의 실제 행복수준을 비교함.
- 아울러 한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행복결정요인의 행복수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중치 적용후의 한국인의 행복지수에 대하여 기술함.

□ 개인적 측면에서의 행복수준 향상방안

- 자기의 능력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대수준과 욕구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생활철학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함.
- 가족생활과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원을 이해하고 상호 협조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알맞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자아 존중감을 가지며,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을 항상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친구 및 동료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전공선택과 구직(求職)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인의 행복수준 향상방안

-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 개발과 제공이 적극 이루어져야 함.
- 가족정책을 강화하여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응집력을 강화하며, 위기가족의 발생요인을 제거하는데 정책을 집중시켜야 할 것임.
-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부터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강화되고,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많은 변화와 혼란이 뒤섞여 있는 복잡한 사회로 특징 지워진다. 국가와 사회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에서는 높은 실업률, 고령사회로의 지속적 이행, 소득격차의 심화, 깊게 뿌리 내린 개인주의, 각종 가치관의 충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갈등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아닌가 판단된다.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행복의 개념, 행복의 결정요인, 행복공식, 행복수준 등에 대한 연구가 최근 시작되었다. 혹자는 행복해지는 길이 의외로 간단하다고도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행복은 반드시 ‘삶의 질’ 또는 ‘생활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에 따라 행복기준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고, 행복결정요인을 개발 및 분석하여, 행복지수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행복해지기 위한 개인적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미리 밝혀두면, 첫째, 외국과의 비교가 어렵고, 둘째, 행복지수의 시계열적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 행복의 개념에 대한 이론과 실제 고찰
 - － 검토한 이론과 실제로부터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 행복결정요인 및 행복지수의 연구자별 비교
 - － 일부 이용가능한 경우는 국가별 비교
- 한국인의 행복개념과 행복결정요인 개발 및 분석
 - － 지역, 성, 연령 등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행복결정요인 차이 규명
-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 개발
 - － 지역, 성, 연령 등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 규명
- 한국인의 행복지수 증대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
 - － 개인적 방안과 정책적 방안으로 구분 제시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연구이다. 행복과 관련한 이론, 선행연구 등을 국내·외 기존문헌에 의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행복결정요인을 개발하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전문가 200명과 일반인 100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조

사되었다.

셋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는 개발된 행복결정요인별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궁극적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함이다. 전국표본의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화조사 방식에 의하여 추진하였다.

넷째, 정책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위원은 행복에 대하여 관심과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 3 절 행복결정요인 개발 및 행복수준 측정 실태조사 특성

1. 행복결정요인 개발을 위한 델파이조사

가. 델파이조사 개요

1960년대 이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적 수준의 증가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 및 행복감을 항상 높여주는 요인이 아니라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행복의 개념, 행복의 결정요인, 행복수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행복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며, 구체적인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에 대한 개념정의와 지표개발 역시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념 확립과 행복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조사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행복 구성요인들을 파악하고,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 및 행복지수 지표를 개발, 측정하여 한국인들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한 개인적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년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일반인 및

전문가 응답자의 견해를 분석하여 향후 전화조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10개의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각 영역별 세부요인에 대한 우선순위와 영향정도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일반인 133명, 전문가 189명으로 총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완료 된 설문지는 본 원에서 회수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나. 델파이조사 응답자 특성

조사대상자 중 전문가는 189명으로 58.7%, 일반은 133명으로 41.3%가 응답하였으며, 여자가 181명, 56.2%로 조금 더 많았다. 연령대에서는 20대가 111명(3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84명, 26.1%)와 40대(79명, 24.5%)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1〉 델파이조사 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	
	특성	빈도	%
전문가 여부	전문가	189	58.7
	일반인	133	41.3
성별	남자	141	43.8
	여자	181	56.2
연령	20대	111	34.5
	30대	84	26.1
	40대	79	24.5
	50대	42	13.0
	60대 이상	6	1.9
교육수준	고졸	10	3.1
	대재	34	10.6
	대졸	84	26.1
	대학원졸	5	1.6
	대학원졸 이상	189	58.7
직업	연구원 및 교수	158	49.1
	회사원	64	19.9
	교사 및 강사	10	3.1
	주부	16	5.0
	학생	64	19.9
	상업	3	0.9
	기타	7	2.2
거주지역	서울	253	78.6
	경기	52	16.1
	기타	17	5.3
전체		322	100.0

학력은 대학원졸 이상(박사)이 189명으로 58.7%이며, 이는 전문가 응답자의 비율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대졸이 84명으로 26.1%였다. 직업의 경우 연구원 및 교수가 158명으로 49.1%이며, 회사원과 학생이 각각 64명으로 39.8%였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253명 78.6%로 지방 소재 교수들을 제외하고 응답자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2.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 특성

가. 실태조사 개요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할당표본 추출(Quota Sampling) 방식에 의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 조사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전화조사는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표본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행복에 관한 의식 및 의견에 대해 추출된 표본들이 모집단(전체국민)을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와 관련되기 때문에 할당추출에서는 할당변수로 어떤 것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남녀간 행복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아울러 연령(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에 따라서도 인식과 태도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거주지, 성, 연령 등의 3개 변수에 의하여 층화비례할당 방식에 의하여 표본추출을 실시하였다.

<표 1-2>는 일반국민 조사의 거주지별, 성별, 연령대별 할당표이다. 할당을 위한 기초자료원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 제외 주민등록인구현황』(통계청)을 활용하였다. 20대 이상 인구는 약 3,719만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1,26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약 867만명, 40대 약 853만명, 20대는 약 732만명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0만명 많았다. 연령대별 남녀인구를 살펴보면, 20~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표 1-2〉 전국 및 시·도의 연령대별 인구수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전국	7,322,025	8,671,404	8,534,081	12,660,533	37,188,043
서울	1,726,667	1,926,303	1,714,179	2,576,136	7,943,285
부산	564,716	567,767	632,811	1,037,573	2,802,867
대구	371,422	423,637	448,978	625,991	1,870,028
인천	401,606	478,686	504,798	593,252	1,978,342
광주	219,351	248,817	235,674	311,712	1,015,554
대전	230,937	266,788	255,822	328,844	1,082,391
울산	159,968	198,239	213,414	224,184	795,805
경기	1,585,717	2,157,089	2,023,261	2,371,357	8,137,424
강원	200,299	232,395	257,093	461,406	1,151,193
충북	213,095	244,357	252,817	422,511	1,132,780
충남	277,176	319,521	317,095	604,525	1,518,317
전북	252,362	281,616	293,380	579,930	1,407,288
전남	241,444	269,916	300,983	669,502	1,481,845
경북	365,971	416,288	437,741	853,114	2,073,114
경남	436,276	544,739	553,220	854,296	2,388,531
제주	75,018	95,246	92,815	146,200	409,279

〈표 1-3〉 전국 및 시·도의 성별·연령대별 인구수

(단위: 명)

구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전국	3,774,520	4,411,930	4,345,519	5,812,341	18,344,310	3,547,505	4,259,474	4,188,562	6,848,192	18,843,733
서울	858,114	983,929	846,280	1,199,281	3,887,604	868,553	942,374	867,899	1,376,855	4,055,681
부산	292,030	286,024	308,879	481,698	1,368,631	272,686	281,743	323,932	555,875	1,434,236
대구	193,838	209,402	222,055	284,977	910,272	177,584	214,235	226,923	341,014	959,756
인천	207,103	242,415	258,172	278,333	986,023	194,503	236,271	246,626	314,919	992,319
광주	111,227	124,021	117,351	141,256	493,855	108,124	124,796	118,323	170,456	521,699
대전	117,994	133,039	127,959	153,442	532,434	112,943	133,749	127,863	175,402	549,957
울산	85,088	98,510	110,487	107,920	402,005	74,880	99,729	102,927	116,264	393,800
경기	806,031	1,086,009	1,052,584	1,109,048	4,053,672	779,686	1,071,080	970,677	1,262,309	4,083,752
강원	108,027	120,734	132,316	210,600	571,677	92,272	111,661	124,777	250,806	579,516
충북	112,951	125,520	131,264	192,548	562,283	100,144	118,837	121,553	229,963	570,497
충남	148,568	168,843	166,558	274,308	758,277	128,608	150,678	150,537	330,217	760,040
전북	135,054	145,860	150,649	259,148	690,711	117,308	135,756	142,731	320,782	716,577
전남	131,729	144,304	160,056	293,928	730,017	109,715	125,612	140,927	375,574	751,828
경북	196,457	216,721	226,739	380,546	1,020,463	169,514	199,567	211,002	472,568	1,052,651
경남	231,497	277,777	285,707	380,894	1,175,875	204,779	266,962	267,513	473,402	1,212,656
제주	38,812	48,822	48,463	64,414	200,511	36,206	46,424	44,352	81,786	208,768

전술한 2007년 세별 주민등록 기준 인구수에 의거하여 본 조사(2,000명의 표본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 비례할당 세부내역은 <표 1-4>와 같다. 16개 시도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시 431명이었으며, 제주도는 21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시·도별 주민등록인구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6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466명, 40대 459명, 20대 394명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013명으로 남성 987명보다 26명이 많았다. 이 또한 시·도별 주민등록인구의 성별 차이에 의한 것이다.

<표 1-4> 표본추출된 전국 및 시·도의 연령대별·성별 인구수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국	394	203	191	466	237	229	459	234	225	681	313	368	2,000	987	1,013
서울	94	47	47	104	53	51	93	46	47	140	65	75	431	211	220
부산	31	16	15	30	15	15	34	17	17	57	26	31	152	74	78
대구	20	10	10	23	11	12	24	12	12	33	15	18	100	48	52
인천	21	11	10	26	13	13	27	14	13	32	15	17	106	53	53
광주	12	6	6	14	7	7	12	6	6	17	8	9	55	27	28
대전	12	6	6	14	7	7	14	7	7	17	8	9	57	28	29
울산	9	5	4	10	5	5	12	6	6	12	6	6	43	22	21
경기	85	43	42	116	58	58	108	56	52	130	61	69	439	218	221
강원	11	6	5	12	6	6	14	7	7	24	11	13	61	30	31
충북	11	6	5	13	7	6	14	7	7	22	10	12	60	30	30
충남	15	8	7	17	9	8	17	9	8	33	15	18	82	41	41
전북	13	7	6	15	8	7	16	8	8	31	14	17	75	37	38
전남	13	7	6	15	8	7	17	9	8	36	16	20	81	40	41
경북	20	11	9	23	12	11	23	12	11	45	20	25	111	55	56
경남	23	12	11	29	15	14	29	15	14	45	20	25	126	62	64
제주	4	2	2	5	3	2	5	3	2	7	3	4	21	11	10

나.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가 가장 많았고(47.2%), 여성(50.7%)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50세 이상(34.1%)이 가장 많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72.2%)가 많았으며,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56.2%)가 많았고, 취업자(61.2%)가 많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1~300만원(21.7%)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1~200만원(18.2%)이었다(표 1-5 참조).

〈표 1-5〉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수	비율
거주구분	대도시	943	47.2
	중소도시	876	43.8
	군	181	9.1
성	남자	987	49.4
	여자	1,013	50.7
연령	20대	394	19.7
	30대	466	23.3
	40대	459	23.0
	50세 이상	681	34.1
혼인상태	미혼	463	23.2
	유배우	1,443	72.2
	이혼·사별·별거	94	4.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125	56.4
	2~3년 제대졸	269	13.5
	4년제 대졸 이상	600	30.1
취업여부	취업	1,225	61.3
	미취업	648	32.4
	학생	127	6.4
월평균 가구소득	100 만원이하	198	9.9
	101~200만원	364	18.2
	201~300만원	433	21.7
	301~400만원	271	13.6
	401~500만원	258	12.9
	501만원 이상	239	12.0
	무응답	237	11.9
계		2,000	100.0

제 2 장 행복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행복관련 제 개념

1. 행복이란?

표준국어사전에서는 행복의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복된 좋은 운수”이다. 둘째,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이다. 행복(happiness)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정짓는 안녕(安寧)의 상태”이다. 영어에서 행복을 의미하는 “happy”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인 “happ”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행운”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행복의 정의에 대하여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Veenhoven(1991)의 정의가 현재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주관적 안녕을 크게 전반적 개념과 세부적 개념이 구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전반적인 개념에는 생활만족, 욕구충족, 그리고 기쁨 수준을 포함시켰고, 세부적 개념에는 직무만족, 자긍심, 그리고 통제신념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정동섭, 2002 재인용).

2. 행복주의(Eudemonism)

행위의 기준, 즉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근거를 행복에 두는 윤리적 입장이다. 넓은 의미에서 목적론(目的論)의 한 형태이며, 원칙의 윤리, 행복의 실현에 대한 부정(시레네), 행복의 경시(니체) 등의 입장과 대립되고 하겠다.

행복주의는 행복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이 지향하는 최고선(最高善)이라고 하는 행복은 덕(德)을 쫓는 영혼의 탁월한 활동이라 생각하였으며, 쾌락과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나 공리주의자는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하였다. 행복의 대상이 자기·타인·사회의 성원 전체 중 어느 편인가에 따라 행복주의는 이기적·이타적 또는 공리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

3. 행복지수란?

행복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이다. 미국 미시간대 사회연구소는 1981년부터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의하여 확보된다. 세계 각국 국민 1,000~2,000명에게 설문을 돌려 각자가 느끼는 ‘행복도’와 ‘생활 만족도’ 점수를 매긴 다음 평균을 내서 산출한 것이 ‘행복지수’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편의상 번역이고 원래 명칭은 ‘주관적 웰빙 순위(Subjective Well-being Rankings)’다.¹⁾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상담사 코언(Cohen)이 2002년 발표한 행복공식이 대표적인 행복지수라 할 수 있는데, 행복이 인생관·적응력·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ersonal), 건강·돈·인간관계 등 생존조건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자존심·기대·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 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4. 쾌락과 행복

‘쾌락’은 주로 자연적으로 도취된 기분을 지칭하며, 동물적인 감각이 순

1) ‘주관적~’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이 조사가 빈부의 순서 등과 같이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행복한 국민’ 또는 ‘마음이 불행한 국민’의 순위를 매겨놓은 것임을 뜻함.

간적으로 왔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다. 쾌락을 경험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뿐이며, 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극의 정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자극원을 찾게 되는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행복은 잘 살고 있다는 내적 감정을 오랫동안 갖는 느낌을 의미한다.

인간은 일시적 쾌락보다는 지속적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느낌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스티븐스는 “자신의 의지대로 감정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정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기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았던 일’을 떠올려보는 습관이 행복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5. 사회적 질(social quality)과 행복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을 위한 유럽 재단(EFSQ)²⁾ 프로그램은 사회적 질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도록 하는 이론적 골격을 발전시키려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행복·만족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만족간의 관련성을 꾸준히 고찰해 왔던 것이다. EFSQ에 의하면 사회적 질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well-being)과 개인적 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사회적 질 접근은 “the social(사회의)”이론에 기초한 삶의 질 접근과는 다르게, 매일의 삶의 사회적 환경의 질을 측정한다. 이 접근법은 독립된 개인을 궁극적 실체로 본다. 사회적 질 접근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개인을 사회 상황의 발전 속에서 생활하는 활동적인 주체로써 파악한다. ‘the social(사회의)’은 집합적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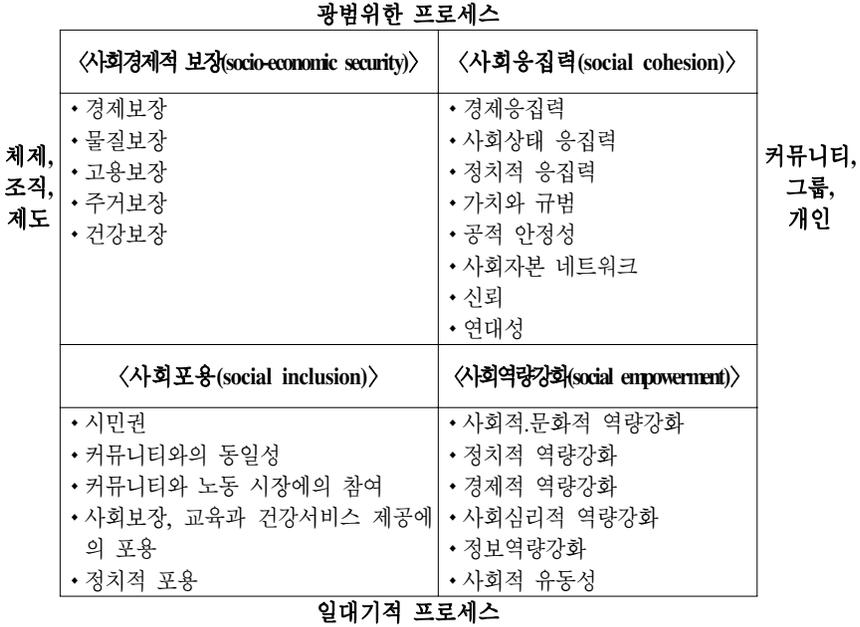
2)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EFSQ)는 1997년 6월에 설립되었음. 유럽에서 경제나 화폐의 연합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에 대해 사회나 기타의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질 개념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해 오고 있음.

성의 형성과 인간 주체로서의 자기-실현(self-realization) 사이의 대립 관계의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는 사회적 질이 활동할 수 있는 'social space(사회 공간)'은 네 가지 구조적 요인들, 즉 사회경제적 보장(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응집력(social cohesion), 사회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역량강화(social empowerment) 속에서의 요인들 간에서 이해된다(그림 2-1 참조). 다시 말하여, 사회구조는 어느 정도의 힘을 부여하거나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사회역량강화). 이러한 지지에 의해 기관과 집단들은 어느 정도 접근가능하게 될 것이고(사회포용), 사람들은 참여에 필요한 물질, 환경, 자원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사회경제적 보장). 또한 그들의 사회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응집력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사회응집력).

따라서 사회적으로 응집되어 있는 사회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자원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지지에 의해 기관과 집단들은 어느 정도 접근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사회적 질의 네 가지 영역 간의 상호 관련 속에서 사회적 질 접근은 사회적 구조들과 시민들의 행동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질 접근에서는 인간 주체가 (개인적 주체가 아닌)사회적 주체로서의 상태로 반영되며, 사회적 존재들의 역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된다.

[그림 2-1] 사회적 질 모델



또한 이 접근법은 행동주체의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분석하며, 집합적 동일성의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 접근은 존재하는 환경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끝없는 (주관적, 객관적)지표 목록들을 발전시키는 반면에, 사회적 질 접근은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개인적 주체에 초점을 둔다. 즉, 힘과 구조 간 대립과 순환관계를 고려하고, 어떻게 사회의 사회적 질이 발전할 수 있으며,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공한다. 이 접근법은 욕구와 행위 및 정책 간의 필수적인 관계를 제공한다. 사회적 질 접근은 경제와 사회 발전을 결합시킨다. 이것은 허용 가능한 기준 생활을 고려하고,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 제도들을 고려하는 일상생활의 질을 측정한다. 이것은 구조적 요인들과 개인-수준의 요인들을 통합시킨다.

6.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행복

가. 개념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삶의 질의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나 행복(happiness)을 ‘삶의 질’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이란 개인이 만족감과 기쁨을 얻고, 불만족과 걱정을 피하는데 있어 성공한 것을 의미(Shin et al., 1983)한다. 그리고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란 특정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 사고정향을 의미한다(Myers & Diener, 1995).

삶의 질에 대한 연구자들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주관적 지표들을 구축해 왔다. 서구에서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만족하고 행복해 하며, 삶의 만족과 행복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주관적 행복과의 핵심 관련요소들은 가족 관계, 재정 상황, 고용 상태, 커뮤니티 유대, 친구를 가지는 것, 건강, 개인적 자유 신념, 개인적 가치 등이다. 사람들은 경제 성장과 소득의 수확체감만큼이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이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실제로, 서구 유럽에서의 만족은 이 나라들의 낮은 경제적 불평등과 높은 수준의 세금으로부터 지급되는 강한 복지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비서구 국가의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덜 행복하거나 덜 만족하며, 심지어 그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만족도는 떨어지므로, 일반적 행복과 일반적 만족의 상관관계는 서구에 비해 낮다. 행복은 일반적으로 인지적인 만족에 비해 좀 더 변덕스러우며 감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연적 환경들이 주관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조금은 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 수행된 제한적인 연구에서, 사람들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행복에 비해 사회적 질에 대한 만족이 더 적다고 제시한다. 이는 사회와 사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

의 침식을 나타내며, 신뢰의 결여와 생활의 민영화의 결과이다. 특별히 경제 변화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는 전통적 가치들의 붕괴, 가족 네트워크들의 파괴, 과도한 소비자 중심주의에 의한 결과로써 이해된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삶의 질이 그들의 삶에 대한 개인적 만족이나 행복보다 더 많은 것들과 관련되며, 시민으로서 그들의 모든 잠재력을 번창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Esping-Anderson (1999)은 사회경제정책(복지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한 좋은 삶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capabilities(가능성)’ 접근은 Sen의 연구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는 functioning(기능)과 capability(가능성)의 중요한 구분(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한 개인이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한다. 그는 1993년도 그의 글에서 “시민들의 삶의 상태의 주관적 이해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생활상태의 기술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보장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스타일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의 범위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우리는 시민들의 생생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는 기능(개인들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환경들, 수급권, 기회와 권리, 그들 사회에서의 집합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성취하기에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Sen에게 발전은 인간 가능성의 확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Sen의 연구는 여전히 꽤나 실용주의적인 개인의 개념 속에 있으며 인간 가능성의 정의와 성취와 관련된 문화적 특성에 대해 중립적이다. Nussbaum(2000)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비판하고, 정책과 사고의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수정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기능’적 가능성들의 더 많은 리스트를 제공하는 비특이성 이론(non-specific theory)을 발전시켜 왔다.

한편, 삶의 질의 정의는 다음의 세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을 외부의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하는 것이다. 개인의 삶의 질이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구매능력·교육수준·여가시간·건강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비교한다. 둘째,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수입, 건강, 사회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삶의 객관적 상황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의 삶의 질이 물질적·환경적 외부 요인을 대하는 내적인 태도나 정서 등의 성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개념 규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용어로 삶의 질이라고 할 때는 경제수준·복지·의료·교통·범죄율 등 사회의 객관적인 지표와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 심리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는 ‘즐거움 지수’와 ‘복지지수’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즐거움 지수’는 주관적인 지표로 만족감·행복감 등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적·심미적 만족과 사랑과 존경에의 욕구의 실현에 관한 것이고, ‘복지지수’는 객관적인 지표로 경제적·물질적 조건과 관련된 주택·이웃·건강·재정형편·자녀양육·친구·여가·정부·교육 등과 관련된 것이다.

나. 삶의 질의 결정요인

1) 경제적 요소

경제적 요소와 관련하여 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즉 우선, 경제적 조건(개인소득 또는 GDP) 개선이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반론들도 많다. 첫째, 경제적 조건과 삶의 질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호를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선호체계는 주어진 것이 아닌 시간, 국가, 개인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수입이 동일한 만족정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en, 1979). 둘째, 경제적인 조건은 일정한 정도까지만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Frey & Stutzer(2002)의 연구에 의하면 GDP가 연간소득 US \$10,000달러 이상이면 소득증가에 대비한 주관적 안녕감의 증가분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Diener 등(1993)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간소득 US \$15,000 이하인 집단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조건 보다 직업유무, 가족관계, 건강, 교육, 사회적 연대, 제도의 질, 소득 불평등 등과 같은 비경제적 변수들이 오히려 더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2) 사회관계적 요소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Rudnick & Kravetz, 2001). 가족, 친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관계가 많을수록 건강(Myers & Diener, 1995)하며, 한국사회에서도 공식적 단체가입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 가입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박길성, 2002).

3) 사회 심리적 요소

행복한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높고, 삶에 대한 자기통제감이 높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외향적 성격을 가진다(Myers & Diener, 1995)는 것이다. Campbell(1981)은 심리적인 인간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욕구가 감소 또는 증가할 때 행복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고

유한 문화가 행복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집단주의 보다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Diener & Suh, 1999).

4) 제도적 요소

사회주의적 복지체제(레짐)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다른 체제(자유주의, 보수주의)에 비해 실업자와 비실업간에 ‘주관적 복리(subjective well-being)’에서 격차가 없다는 연구(Lapinski et al., 1998)와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연구(Michalos, 2003)들이 이러한 제도적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Inglehart(1990)는 단순히 국부뿐만 아니라 특정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지속연수가 전체적인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5) 환경적 요소

Bubolz 등(1982)은 생태론적 시각에서 삶의 질이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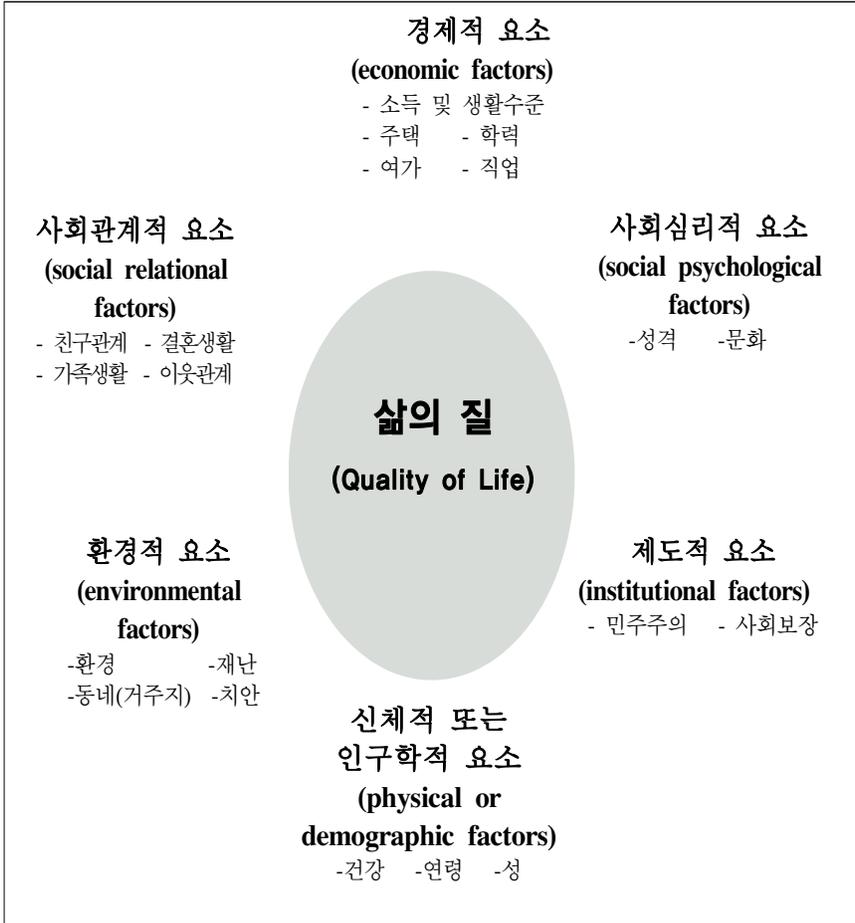
6) 신체적 요소

건강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도 연령이나 애착(affect)에 의해 매개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George & Landerman, 1984). 또한, Kirkcaldy, Furnham & Veenhoven(2002)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수준에서 건강관련 지출비용이 많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 삶의 질의 종합모형

삶의 질에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소는 경제적 요소(economic factors), 사회관계적 요소(social relational factors), 사회심리적 요소(social psychological factors), 환경적 요소(enviromental factors), 제도적 요소(institutional factors),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physical or demographic factors) 등이다. 경제적인 것으로는 소득 및 생활수준, 주택, 학력, 여가, 직업 등이고, 사회관계로는 친구관계, 결혼생활, 가족생활, 이웃관계 등이며, 사회심리적인 것으로는 성격과 문화를 들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것에는 환경, 재난, 동네(거주지), 치안 등이, 제도적인 것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보장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로는 건강, 연령, 성 등이 포함된다.

[그림 2-2] 삶의 질 결정모형



제 2 절 행복관련 제 이론

행복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19세기 유럽 Durkheim의 연구로부터 유래된 강한 사회학적 전통이 있으며, 그것은 ‘좋은 사회’의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다.

1.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이 학설은 일찍이 계몽철학자 F.허치슨과 J. 프리스틀리 등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벤담의 저서 『도덕 및 입법의 제 원리』(1789)에서 공리주의 철학의 근본원리로서 이론화되어 이 학설은 더욱 유명해졌다. 벤담은 이 책에서 개인 생활의 목표는 행복이고, 따라서 개인의 기계적 총화(總和)인 사회에 있어 행복이라는 것은 최대다수가 그것을 향수(享受)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2. 쾌락설

J. S. 밀은 벤담의 쾌락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쾌락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사람은 때로는 보다 낮은 쾌락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통적 사회의 행복의 조건: 건강, 가족, 재물, 일, 친구들+나눔의 문화

3.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서의 행복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처음 사용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보다 개인의 강점과 미덕 등 긍정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학의 새로운 연구동향이다.

제 3 절 행복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1. 행복의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가. 스테판 폴란과 마크 레빈(Stephen M. Pollan & Mark Levine)의 연구

스테판 폴란과 마크 레빈(Stephen M. Pollan & Mark Levine)은 저서 『행복

한 인생 설계를 위한 소중한 지혜』에서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이 여덟 가지는 나이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비교함정, 자격지심, 개인주의, 미루기, 강박증, 막연한 기대감 등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지난 일을 대할 때는 쿨해져라, 남이 아닌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말라, 도움을 청할 줄 알라, 망설이지 말라, 최고보다 최선을 택하라, 현재를 중요시 하면서 살아라 등을 제시하였다.

나. 'BBC 행복위원회'의 행복 10계명

‘BBC 행복위원회’의 위원 6인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복연구에 근거하여 실천하기 쉬운 「행복현장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BBC 행복위원회의 「행복현장 10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운동을 하라. 일주일에 3회, 30분씩이면 충분하다. • 둘, 좋았던 일을 떠올려보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당신이 감사해야 할 일 다섯 가지를 생각하라. • 셋, 대화를 나누라. 매주 온전히 한 시간은 배우자나 가장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자. • 넷, 식물을 가꾸라. 아주 작은 화분도 좋다. 죽이지만 말라! • 다섯, TV 시청시간을 반으로 줄이라. • 여섯, 미소를 지으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인사를 하라. • 일곱, 친구에게 전화해라.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하라. • 여덟, 하루에 한 번 유쾌하게 웃으라. • 아홉,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그리고 그 선물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라. • 열,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

다. 리처드 스티븐스의 행복요소

심리학자 리처드 스티븐스는 행복의 구성요소를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좋은 느낌과 긍정적인 마음, 둘째, 활기넘치는 생활, 셋째, 의미 부여, 즉 인생에서 가치있는 선택을 하는 길 등이다.

라.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에 대한 종단적 탐색(현경자, 2004)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1994년과 2003년에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상 65세 미만의 응답자들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서 행복의 이유로 제시한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임상사회복지실천에서 긍정적 감정의 양성을 고무하기 위해 한국 성인들에게 내재해 있는 행복의 근원과 구체적 요인인지를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탐색하고, 이들을 통해 부각되는 행복의 주제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또한 1994년과 2003년도에 수집된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종단적 탐색을 시도하여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행복의 주제는 무엇이며, 그러한 주제가 서구의 문화에서 제시되는 행복의 근원이나 관련 요인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 살펴보았다.

행복의 근원 및 요인분석을 통해 부각된 행복의 주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행복은 주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긍정적 감정- 즉, 사랑, 화목, 이해, 신뢰, 만족, 보람, 희망, 기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안정과 가족, 배우자, 자식 등 의미 있는 타인 및 일의 유무도 표집의 시점에 상관없이 한국인들의 행복에 중요하였다. 또한 두 시점 모두에서 응답자들은 욕심을 내지 않고, 문제가 없는 보통의 생활 상태나 주어진 것에서 만족을 찾으며,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과 좋은 성품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느끼는 성향

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구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마음이 편안함, 걱정이 없음, 나쁜 일이나 문제가 없는 생활, 보통의 생활, 의미 있는 타인의 존재, 자신이나 가족의 성실함과 충실한 생활태도, 순응적 가치관등이 행복의 이유로 빈번히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인의 행복관에 내재한 문화적 특성임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종단적 탐색은 한국인들이 행복에 기여하는 보편적 요인들이 그들이 느끼는 행복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 데 유용하여, 새롭게 개척되는 행복연구의 지식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한국인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개인적 또는 대인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임상현장에서 행복감의 양성이나 강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유용하리라 본다.

마. 한국인의 행복과 복: 유사점과 차이점(이지선 외, 2004)

이 연구는 서양의 행복과 유사한 복에 대한 개념이 동양사회에서도 있다고 보고 예비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행복과 복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아래의 23개 개념에 대하여 234명의 한국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행복과 복의 특징으로 장수, 건강, 명예, 돈, 사회적 안정, 집안배경, 부모, 운, 친구·애인·배우자, 낙관적 성격, 직업, 좋은 국가, 외모, 종교, 안정감, 흥미와 열정, 여가시간, 사랑, 자유, 자기만족감, 인내심, 삶의 목표, 자기조절능력 등을 제시하고, 행복한 사람과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을 각각 5개씩 선택토록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으로 자기만족감, 건강, 낙관적 성격, 사랑, 흥미와 열정이었다. 둘째,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은 건강, 돈, 친구·애인·배우자, 부모, 낙관적 성격 등이었다. 특히, 건강은 복 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더 두드러졌고, 낙관적 성격의 경우 행복의 특징으로 더 많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건강과 낙관

적 성격이 행복과 복의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행복과 복을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본다고 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긍정적인 내적 상태로,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을 긍정적인 외적 상태로 보는 공통점도 있지만, 구분점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인들이 행복과 불행이 함께 한다는 동양의 순환론적 관점을 보이는 명제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비해 행복에 대해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행복과 복에 대한 추구는 행복의 결정자, 자신의 영향력, 연령등과 종합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한 가지 요인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술적 연구이므로, 요인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와 이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행복 구성요인이 지니는 주관적 중요성 차이, 다른 행복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성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바.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김명소 외, 2003)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구성요소들을 직접 탐색, 도출하고, 이들 요인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별이 가능한 일 개념성 요인들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요인분석(탐색적 및 확인적)을 통해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평가하는 척도를 제작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과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FGI 그룹으로 이루어진 1차 조사에서 성인남녀 61명을 대상으로 행복

한 삶의 특성을 152개 도출하였고, 각 특성들 유사성에 따라 18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³⁾ 2차 조사에서 성인남녀 517명 대상으로 행복요인이 한국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6점 척도 상에서 평정, 그 결과 경제력, 성취감 및 자기수용감, 여가 및 자유, 사회적 지위, 자기계발, 자율성, 능력 및 환경지배력, 사회·정치·문화 환경, 이타심, 자녀의 올바른 성장,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외모 등에서 156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⁴⁾ 이어서 3차 조사에서 전국 성인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 척도 예비문항들과 Re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문항들을 인용해 자신의 현재 삶의 모습을 평가하였다.

18개의 요인구조에서 능력요인에 해당했던 문항들이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요인으로 포함되었고, 자기계발과 목표추구 문항들이 한 요인으로 묶여서 16개의 요인구조로 변경되었다. 이는 경제력,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자립성, 사회·정치·문화·환경, 종교, 이타심,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외모, 긍정적인 인생관, 건강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단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주관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가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그리고 부적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3) 경제력, 성취감 및 자기 수용감, 여가 및 자유,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자율성, 능력, 삶의 목표 및 추구, 사회 정치적 여건, 이타심, 자녀의 올바른 성장,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외모, 긍정적 인생관, 건강, 이성간의 사랑 및 신뢰 등임.

4) 경제력 8문항, 성취감 및 자기수용감 8문항, 여가 및 자유 7문항, 사회적 지위 7문항, 자기계발 9문항, 자율성 8문항, 능력 및 환경지배력 7문항, 사회·정치·문화 환경 15문항, 이타심 9문항, 자녀의 올바른 성장 12문항,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 7문항,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10문항, 대인관계 9문항, 외모 8문항, 종교 7문항 등임.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주관적 안녕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주관적 삶의 질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임상, 상담, 발달 심리학 등에서의 여러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그리고 개인적 성장과 같은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짐을 보여 주었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Reff, 1989).

2. 행복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가. 미국 미시간대 연구

미국 미시간대 사회연구소가 1981년부터 발표해 오고 있는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는 각국 국민 1,000~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인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의하여 기초자료가 확보된다. 개별 응답자가 느끼는 ‘행복도’와 ‘생활 만족도’ 점수를 매긴 다음 평균을 내서 ‘주관적 웰빙 순위(Subjective Well-being Rankings)’를 산출하였는데, 이를 ‘행복지수’라 하고 있다.

유럽인 가치조사(European Value Study)를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미국 미시간 대학의 Ronald Inglehart가 주도하였다. 가장 공신력 있게 인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 사회문화, 도덕, 종교, 정치에 관한 가치조사로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의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999~2001년 조사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로 나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어서 1999~2001년 조사를 업데이트한 새 자료에서는 1위 푸에르토리코, 2위 멕시코, 3위 덴마크, 4위 아일랜드 등의 순이었다. 주요 국가를 보면, 스위스 6위, 오스트리아 11위, 미국 15위, 스웨덴 18위, 싱가포르 24위, 대만 32위, 일본 42위 등이었으며, 한국은 49위를 차지하여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보

다 훨씬 개발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높은 행복지수를 보였는데, 엘살바도르 12위, 나이지리아 19위, 베트남 29위, 필리핀 31위, 중국 48위 등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행복지수를 보인 국가는 대부분 구동구권이나 구소련 국가들, 탄자니아,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정도에 불과하였다.

2005~2006년 세계가치조사는 25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 프랑스 등 99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복지수와 일인당 국민 총생산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였을 때, 빈곤선에 근접할수록 소득과 행복지수가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며 가난한 나라일수록 소득이 행복에 비교적 확실한 영향을 미치나, 일단 일인당 국민소득이 \$15,000을 넘어서면 소득과 행복지수가 별 상관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진은 현장연구를 토대로 ‘행복으로 가는 길’ 10가지를 제시했다. ① 쉽게 행복을 느끼는 유전적 성향, ② 결혼, ③ 친구를 사귀고 존중하기, ④ 욕심을 줄이기, ⑤ 좋은 일 하기, ⑥ 신념 갖기(종교적이든 아니든), ⑦ 자기 외모를 남과 비교하지 않기, ⑧ 돈을 더 많이 벌기, ⑨ 우아하게 늙기, ⑩ 천재가 아니라고 비관하지 않기 등이다.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이 10가지를 제대로 행하지 않거나 아예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중에서 가급적 많은 항목을 찾아 실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조언이다.

나. 영국의 로스웰(Rothwell)과 코언(Cohen)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상담사 코언(Cohen)이 만들어 2002년 발표한 행복공식이 대표적인 행복지수라 할 수 있다. 이들은 18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80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상황을 선택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행복은 ‘인생관·적응력·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ersonal), 건강·돈·인간관계 등 생존조건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자존심·기대·유머 등 고차

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 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3가지 조건 가운데서도 생존조건인 E가 개인적 특성인 P보다 5배 더 중요하고, 고차원 상태인 H는 개인적 특성인 P보다 3배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지수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text{Personal} + (5 \times \text{Existence}) + (3 \times \text{Higher order})$$

- P1: 당신은 사교적이고 원기 왕성하며 변화를 잘 받아들입니까?
 P2: 당신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패해도 빨리 일어섭니까, 또 삶을 스스로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E: 건강과 돈, 안전, 선택의 자유, 공동체 의식 등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되는 편입니까?
 H: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주위에 많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들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돈·인간관계 등이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중요한데, 인간이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첫째,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아라
- 둘째, 흥미와 취미를 추구하라
- 셋째,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어라
- 넷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
- 다섯째,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
- 여섯째, 운동하고 휴식하라
- 일곱째,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져라

다. 영국 BBC 다큐멘터리 행복

이 연구는 영국 BBC TV의 다큐멘터리 『슬라우 행복하게 만들기 (Making Slough Happy)』에서 얻은 성과들을 전해주는 책으로 행복전문가 6인이 밝히는 행복의 심리학이다. 심리학, 의학, 사회학 분야의 최근 조사를 통해 얻어진 새로운 행복학 이론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5년 5월부터 영국의 작은 도시 슬라우에서 3개월에 걸쳐 사회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실험의 과정을 담은 것이 BBC TV에서 4부작으로 방영되었다. 슬라우에서 행해진 프로그램에서 얻은 성과들, 즉 실험 결과 변화된 슬라우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행복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행복 전문가들이 실험 결과로 입증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복의 실천적 방법들을 심리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1부에서는 최신 연구분야인 '행복학'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사실과 이론을 논의하였고, 2부에서는 우리 삶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행복의 모습들을 조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택하였는데, 종합 행복지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항목은 <표 2-1>과 같다.⁵⁾

5)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행복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복, 불행 및 중간정도의 기분을 느끼는 시간의 비율”이 있었으나 종합행복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제외하였음.

〈표 2-1〉 영국 BBC다큐멘터리의 행복지수 설문조사

항목	설문항	척도
삶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까?	10점
일반적인 행복수준	평소에 당신은 얼마나 행복·불행하다고 느끼니까?	10점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다음 각각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직장이 없다면 무보수의 일) • 가정 • 여가생활 • 인간관계 • 가족 • 지역공동체 • 지역환경 • 식생활 • 운동 • 자기자신 	10점
슬라우 설문조사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면서 겪는 문제를 대체로 잘 처리할 수 있다 • 요즘처럼 즐거운 때는 없는 것 같다 • 남들이 나를 높이 평가한다고 느낀다 • 나는 틀에 박힌 삶을 살고 있다 •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다고 느낄 때가 많다 •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개선할 수 있다 • 나의 일상은 대체로 시시하며 중요하지 않다 •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다 • 나는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 내게 세상은 차가운 곳이다 • 내 인생은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충만하다 • 인생이 공허한 것 같다 • 주위 사람들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 내 인생을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끌기 힘들다 • 내 삶에 만족한다 • 내 인생은 미래가 별로 없다 •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린다 •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 종종 문제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 •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매우 아름답다 •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다 • 내 삶에는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다 •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 사회생활을 즐긴다 •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보다 내 스스로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 	10점
감정측정계	다음 각각의 감정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표시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25%;">• 낙관 <li style="width: 25%;">• 지루함 <li style="width: 25%;">• 사랑스러움 <li style="width: 25%;">• 긴장감 <li style="width: 25%;">• 초조함 <li style="width: 25%;">• 분노 <li style="width: 25%;">• 열정 <li style="width: 25%;">• 신경질 <li style="width: 25%;">• 의욕 <li style="width: 25%;">• 외로움 <li style="width: 25%;">• 성취감 <li style="width: 25%;">• 편안함 <li style="width: 25%;">• 시시함 <li style="width: 25%;">• 행복 <li style="width: 25%;">• 불안 <li style="width: 25%;">• 흥미 <li style="width: 25%;">• 우울 <li style="width: 25%;">• 피곤 <li style="width: 25%;">• 흥분 <li style="width: 25%;">• 위축 <li style="width: 25%;">• 즐거움 <li style="width: 25%;">• 평화로움 	10점

라. 한국인의 행복수준 공식개발(김명소·한영석, 2006)

이 연구에서는 Rothwell & Cohen(2003)이 발표한 바 있는 행복지수 산출공식은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 및 욕구가 우리와는 상이한 영국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이를 한국인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바로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하였다. 즉,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요인들과 서구문화에서 중요시 되는 행복요인들은 다를 수 있으며, 만일 유사한 요인들이 도출되더라도 그 상대적인 비중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⁶⁾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지수 공식을 개발하기 위해 FGI(61명)과 설문조사(1503명)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6개의 행복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들 요인을 Alderfer(1972)의 생존·관계·성장욕구 위계이론에 따라 3요소로 재분류 한 뒤, LISREL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에 의한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은 ‘행복= 2.5*생존+2.5*관계+5*성장’으로 나타났고, 공식에 따른 한국인의 행복점수는 평균 57.7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행복하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행복점수에 따라 상위 33%와 하위 33%를 구분하여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존과 관계요소에서의 차이보다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인 성장요소에서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장요소가 한국인의 행복감 지각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Rothwell & Cohen (2003)의 연구는 방법론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P(personal characteristics)는 문항수가 1이 아니라 2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의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개발된 4개의 문항은 심리측정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음. 또한 신뢰도나 타당도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신뢰도나 타당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없다. 따라서 제시한 공식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측정문항들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

마. 개인의 행복지수 수준과 결정 요인(추홍규, 2005)

본 연구는 개인별 행복지수 및 자가평가 건강수준과 이들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며 개인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성인남녀 1,051명(남자 501, 여자 550)이었으며, 연구도구는 Rothwell과 Cohen의 행복지수 공식과 2003년 발표된 한국형 자가평가수준도구⁷⁾를 이용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지수 평균치는 61.3점, 자가평가건강수준 중 전반적 건강상태의 평균치는 56.2점이었다. 개인특성별 행복지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성별로는 여성(62.7점)이 남성(59.2점)보다 높았고($p=0.002$),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다($p=0.151$). 또한 학력별로는 중고졸(59~60점)이 중고졸이하(63.4점), 대졸(64.0점)보다 낮았고($p=0.002$),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지수는 높았으며($p<0.001$), 그리고 흡연자($p<0.001$)와 음주자($p=0.035$), 과거 질병력이 있는 군에서 낮았으며($p=0.003$), 운동군($p<0.001$), 아침식사를 반드시 하는 군($p=0.003$),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군($p<0.001$),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군에서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p=0.010$). 다시 말해 행복지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고립감, 정서적 긴장, 수면장애, 정서적 약할 제한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중 설명력이 가장 큰 변수는 사회적 고립감이었으며, 경제적 수준,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세 가지 요인이 행복지수의 30.8%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한국인의 개인별 행복지수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

7)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건강염려, 신체적 기능상태, 신체적 역할 제한, 정서적 역할 제한, 통증의 정도와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정서적 긴장 상태, 활력, 사회적 고립감, 수면장애등 정서적 건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별로 여부와 5점 및 6점 척도로 평가한 후 점수화가 가능한 부분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과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바.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김명소 외, 2003)

이 연구는 기존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의 정도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이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1, 2차 조사를 통해 행복한 삶의 척도를 개발하였고, 3차 조사에서는 전국의 20~60대 성인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성별, 월평균소득, 학력에 따라 행복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행복한 삶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성별, 월평균소득, 학력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행복하고,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행복하며, 그리고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행복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행복한 삶의 전체 항목들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사회·정치·문화·환경,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외모, 건강에 대해 더 행복을 느끼는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인관계와 종교에서만 더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전체척도에서는 연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세부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성취 및 자기수용,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사회정치, 종교, 사회봉사, 자녀의 바른 성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긍정적인 인생관, 건강이었다. 따라서 젊은 층은 사회적 성취나 자신에 대한 수용 등의 사항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충족이 행복의 요소가

되는 반면, 비교적 나이든 집단은 보다 많은 인생의 여유, 사회 전반의 안정, 배우자 혹은 타인과의 관계와 건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다.

기혼, 미혼, 이혼-별거-사별의 집단 간에 전체평균점수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부요인에서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 계발 및 목표 추구, 사회·정치·문화·환경, 종교,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외모, 긍정적 인생관, 건강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행복의 요인이 비교적 자신에게 쏠려 있어 자신의 계발과 사회적 인정 또는 더 많은 여가생활이 행복의 요소가 되는 반면, 결혼의 경험이 없는 미혼집단은 사랑하는 상대와의 관계가 행복의 중요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복감의 전체 점수에서는 흥미롭게도 월평균 가구당 250~35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고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거의 모든 영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한 개인의 행복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더 만족하고 있어, 높은 학력이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행복한 삶을 설명하거나 예견하는 변인 중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성취 및 자기 수용감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다음으로 경제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여가 봉사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관련 기존지표

1. 인간개발지수(HDI)

인간보장(human security) 개념은 1994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개념이다. 군사감축이나 군비축소 외에도 인권, 환경보호, 사회안정, 민주주의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고, 개인의 삶에 대한 보장을 국가안보보다 우선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위협 뿐 아니라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질, 자유와 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인간보장의 구성요인은 경제보장, 먹거리보장, 건강보장, 개인보장, 환경보장, 공동체보장, 정치보장, 군사안보 등이다(<http://www.humansecuritycentre.org>).

이러한 의미에서 UNDP가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경제, 건강, 교육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하여 삶의 질·사회적 질의 측정을 제공한다. 조사는 경제적 요소들, 정치적 요소들, 좋은 건강,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해 왔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집계하여 발표하며, 평균수명, 문맹률, 교육수준, 1인당 GDP 등을 측정하여 표준화한 지수이다. 기본적으로 HDI는 인간개발의 수준별 국가의 순위를 나타내거나 국가가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저개발국가 인지도 제시하기도 한다.

HDI에서 이용하는 개별지표들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 평균수명지수 = $(\text{평균수명} - \text{최소값}) / (\text{최대값} - \text{최소값})$
- 성인비문맹률지수 = $(\text{성인비문맹률} - \text{최소값}) / (\text{최대값} - \text{최소값})$
- 총진학률지수 = $(\text{총진학률} - \text{최소값}) / (\text{최대값} - \text{최소값})$
- 교육지수 = $2/3(\text{성인비문맹지수}) + 1/3(\text{총진학률지수})$
- GDP 지수 = $[\log(\text{1인당 GDP}) - \log(\text{최소값})] / [\log(\text{최대값}) - \log(\text{최소값})]$

이러한 지표에 의하여 최종 HDI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bullet \text{ HDI} = 1/3(\text{평균수명지수})+1/3(\text{교육지수})+1/3(\text{GDP 지수})$$

2. 행복한 지구촌지수(Happy Planet Index)

신경제학 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2006년 7월에 발표한 지수로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이 지수는 행복지수 중 유일하게 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한 지수라는 것이 특징이다.

$$\text{HPI} = \frac{\text{Life satisfaction(삶의 만족도)} \times \text{Life expectancy (기대 수명)}}{\text{Ecological Footprint (생존에 필요한 면적 및 에너지 소비량)}}$$

3. 세계행복지도(A World Map of Happiness)

영국 레스터 대학의 Adrian G. White 교수가 2006년에 발표한 지수이다. 유네스코, 유엔인간개발보고서, 신경제학 재단, 미국 CIA에서 발표된 자료 중 평균수명, GDP, 교육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지수화 하였다.

4. 새로운 행복결정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질’ 지표

가. 사회적 질의 개념

사회학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대기와 역사를 연관 짓고,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조정을 실행하도록 하는 복지와 능력은 시간, 공간(지리적, 사회적), 일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적 질 접근은 “the social(사회의)”이론에 기초한 삶의 질 접근과는 다르게, 매일의 삶의 사회적 환경의 질을 측정한다. 이 접근법은 독립된 개인을 궁극적 실체로 본다. 사회적 질 접근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개인을 사회상황의 발전 속에서 생활하는 활동적인 주체로써 파악한다. ‘the social(사회의)’은 집합적 동일성의 형성과 인간 주체로서의 자기-실현(self-realisation) 사이의 대립관계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EFSQ는 사회적 질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well being)과 개인적 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질을 ‘사람들이 행복과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생활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사실상 ‘사회의 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EU)의 학자들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포착해내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바람직한 사회의 질에 대한 암스테르담 선언에 1,000명 이상의 유럽학자들이 서명하였으며, 네덜란드 보건복지부와 EU에서 사회적 의제로 채택하였다.

나. 삶의 질 지표와의 차이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정책적이며 규범적인 이슈들을 피하여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양적인 결과들을 보고해왔다.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 응답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들은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자들은 동일한 조사 프로그램으로는 방법론적으로 탐색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삼고 있다. 삶의 질이 개인적 관점을 극도로 다양하게 만드는 데 비해서 사회적 질의 개념은 독립된 개인을 궁극적인 실체로 파악한다(Barr 2005).

삶의 질 접근의 핵심적 주제인 삶의 방식, 생활 조건, 생활환경, 웰빙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개념들이다. 그들이 사회적 정황 속의 개인에 국한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주의적 개념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회적인 것은 가정될 뿐 아니라 외적 실재로써 간접적으로 정의될 필

요가 있다(Herrmann 2005).

삶의 질과 사회적 질은 모두 사회에 이득이 되는 잠재적인 긍정적 개념으로써 발전되어 왔다. 사회적 질의 접근은 미래에 대한 비전, 유럽 사람들의 사회적 질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제공한다. 사회적 질 연구의 목적은 일련의 사회적 지표들을 통해 객관적인 생활 조건들의 변화와 주관적인 웰빙을 측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이론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정책분야에서는 삶의 질의 유용성이 간과되어 왔다(Phillips, 2006). 그러나 사회적 질은 여러 영역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매우 발전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과는 다르다. 더욱이 측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질의 주된 영역, 하위 영역, 지표들은 그 기초를 이루는 이론들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정책적 적용의 측면에서, 삶의 질에 기초하여 구성된 인덱스의 내용들은 늘 질문을 받기 쉽고, 그러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좋게는 논쟁거리가 되고, 나쁘게는 특정 이익에 부합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Walker et al. 2004). 그러나 사회적 질은 일부는 본질적 특성 때문에, 또 일부는 이론에 근거한 사회경제 지표를 가진 복지의 개념, 정책, 실천의 결합 하에 매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모든 정책과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연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 사회적 질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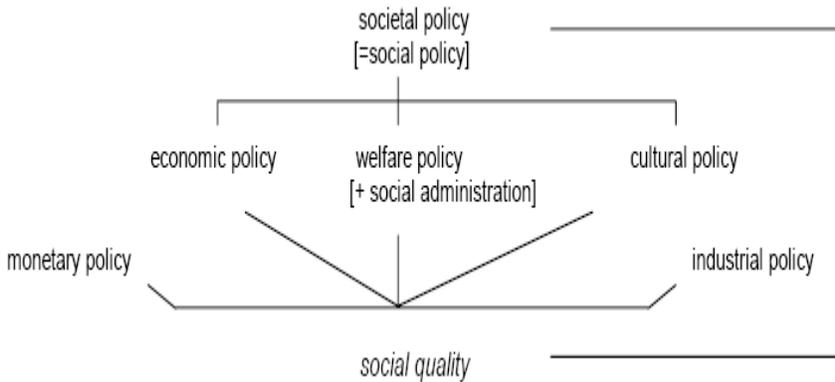
사회적 질은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는 매일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정체성에 참여하는 것과 개인의 자아실현 사이에서 일정한 긴장의 기능을 하는데, 이것은 두 개의 잘 알려진 행동의 장을 구성하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일어난다. 한편에는 개인 생애의 발달 및 사회(기관과 사회구조)의 발전 간의 대립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직 세계와 비공식적 관계를 구성하는 것 사이의 대립이 있다. 사회적

질은 사회정책에 목적을 둘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 환경, 여타의 관련 정책들에도 그 목적을 둔다.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 법률, 문화 정책들은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 속에서 ‘사회정책’은 ‘사회행정’과 동의어로 취급된다. 사회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지리·도시·커뮤니티·가족 구성과 환경 속에서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목표들을 다룬다. 사회정책은 국가와 공공 기관들, 상업적 회사들, 비영리 조직들과 재단들의 결과에 관심을 둔다. 사회정책에 대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견해에서는 사회정책을 정부에 의한 집합적인 활동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 교육, 사회 보장, 주거 등에 기초하며,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사회정책들이다.

사회적 질의 역할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 2-3] 상정된 사회적 질의 역할



자료: Laurent J. G. van der Maesen and Alan C. Walker,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Theoretical state of affairs*, 2002.

이와 같이, 사회적 질의 개념은 다양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질의 개념이 경제정책에 비해 사회정책이 경시되는 전통적인 정

책 결정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써 발전되었던 만큼, 사회적 질은 경제·문화·법률·복지정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질에 대한 논쟁과 연구를 통해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첫째, 현존하는 학문 분야들의 분열을 뛰어넘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도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정책·문화정책 간의 비평등한 관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실천적인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연구자들, 정책 결정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작용이 일상생활의 사회적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정책결정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독립적 척도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과편화된 정책적 접근을 뛰어넘을 수 있다. 따라서 발전된 사회적 질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이론적 기반은 여러 관련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사회적 질의 측정

사회적 질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간의 상시적인 긴장의 함수로서, 한편으로 개인의 생애사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가르는 축(행위자와 구조)과, 다른 한편으로 조직화된 공식성과 친밀한 비공식적 세계를 가르는 축(체계와 생활세계)을 교차하여 다양한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토대가 되는 다음 네 가지의 구성요소들(constitutional factors)로 이루어진다. 즉, ① 자원(resources), ② 연대감(solidarity), ③ 접근과 참여(access and participation), ④ 역량강화(enabling) 등이다. 각 구성요소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몇 가지 지표로 측정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 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가능한가? 이는 사회경제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측정과 관련된다.

둘째,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이는 사회응집성(social cohesion) 측정과 관련된다.

셋째,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가능한가? 이는 사회포용성(social inclusion) 측정과 관련된다.

넷째, 개인의 역량과 능력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얼마나 활성화되는가? 이는 사회역량강화(social empowerment) 측정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지표들을 종합하면 총체적인 사회의 질을 지수화(composite index of social quality)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 안전성은 사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조건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인간적 삶을 위한 물질적 환경적 자원을 사회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빈곤으로부터의 안전, 질병과 재해, 실업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빈곤율, 주택보급률, 건강보험의 수혜범위, 고용안정성, 산재피해 등의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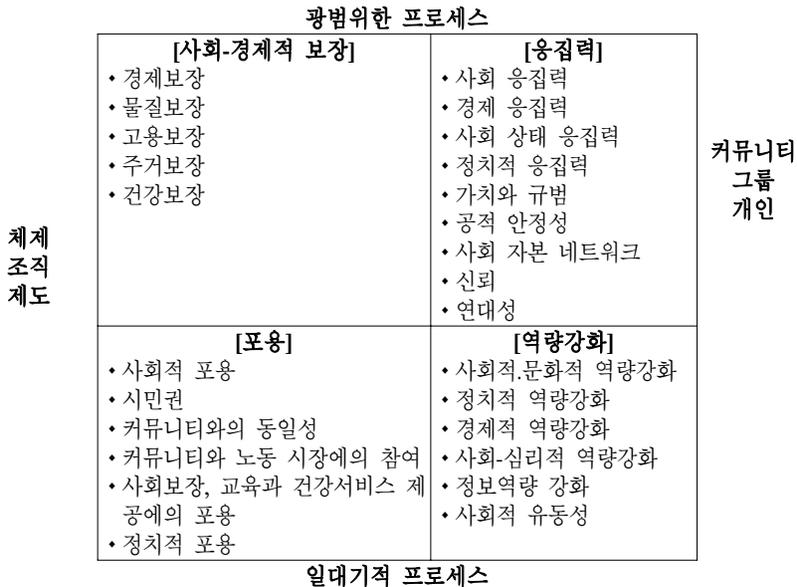
둘째, 사회응집성은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측정하는데 중요하다. 연대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신뢰의 수준, 그리고 사회의 제도나 기관에 대한 신뢰의 수준, 이타심, 시민적 참여의식, 다원주의와 관용성 등의 수준을 고려한다.

셋째, 사회포용성은 사회구성원들이 지닌 가치나 신념과 무관하게 그가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제도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포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에 대한 가입률, 남녀간 임금격차나 공직 진출률의 차이, 노동시장 내 장기실업자의 비율과 비자발적으로 차별받은 비정규직의 비율, 노숙자 수, 사회보호시설 수감자수, 이웃이나 친구, 친지와와의 접촉의 빈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사회역량강화는 사회구성원이 정치적인 의무에 따르는 권리라는 형식적 차원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정치적 과정 뿐 아니라 자기 속한 공동체 차원에서도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문자해독률, 신문, 인터넷, 문화예술시설의 활용정도, 각종 투표율과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정도,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인 의사결정기체의 존재 유무,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의 포괄성,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의 규모, 정신병 유병률이나 자살률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화하면 사회적 질의 수용 가능한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고, 그 네 가지 조건은 다음 [그림 2-3]과 같은 사회적 질의 네 가지 분면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림 2-4] 사회적 질 모델



이러한 정의에 따른 사회적 질의 측정은 사회·경제적 보장, 사회 응집력, 사회적 포용, 사회적 역량강화 등 네 가지 주요 영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네 가지 영역은 각각의 하위 영역과 구체적인 지표들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EFSQ에서 사회적 질의 측정 시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2>~<표 2-5>와 같다.

<표 2-2> 사회경제적 보장의 지표들

영역	하위 영역	지표
재정 자원	소득충족	• 건강과 의·식·주에 사용하기 위한 가구 소득
	소득보장	• 어떠한 일대기적 사건이 가구 수준에서 빈곤의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지 • 수급을 통한 이전으로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하는 가구의 비율
주거와 환경	주거보장	• 집을 소유하는 사람의 비율 • 숨은 가족 비율(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 수)
	주거조건	• 가구원 일인당 평방미터 • 기본시설(물, 위생, 에너지)이 결여된 집에서 사는 사람 비율
	환경조건 (사회적, 자연적)	• 주민 10,000명당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 • (물, 공기, 소음) 평균 오염 수준 이상의 환경인 가구의 비율
보건	건강제공의 보장	• 건강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사람의 비율(의무 혹은 자발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며, 무엇이 보험에 의해 보호되거나 보호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적 탐색을 포함)
	건강서비스	• 주민 10,000명당 의사의 수 • 시간(분)으로 측정된 병원까지의 평균 거리(미터로 측정된 것이 아님)
노동	보호서비스	• 구급차의 평균 출동 시간 • 유급과 무급에 따라 구분된 보호에 이용된 평균적 시간
	고용보장	• 고용주가 노동관계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공지해야 하는 기간의 길이 • 고용계약 종료 전에 공지하는 기간의 길이
	노동조건	• 임시직, 계약직으로 고용된 사람의 비율 • 육아휴직, 친척 간병, 병가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든 고용자의 수 • 고용인 100,000명당 노동 중 사고의 횟수 • 전일 고용자의 주중 노동 시간
교육	교육보장	•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교육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의 수
	교육의 질	• 국가 평균임금 대비 수업료 • 졸업 후에 취업을 하는 학생의 비율

자료: Keizer et al., 2003.

〈표 2-3〉 사회응집력의 지표들

영역	하위 영역	지표	
신뢰	일반화된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만한가 • 정부, 선출된 대표, 정치적 정당, 군대, 법률 체계, 방송, 노동조합, 경찰, 종교 단체, 시민 서비스, 경제 거래에 대한 신뢰 	
	특수한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 회부된 사건의 수 • 가족, 친구, 여가, 정치, 존경받는 부모들의 중요성 및 부모의 아동 양육 책임의 중요성 	
기타 통합적 규범들과 가치들	이타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시간으로 계산된 자원 활동 • 헌혈 	
	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 다원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시각 • 다른 사람들의 개성, 믿음, 행동, 생활방식의 선호에 대한 관용 •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지 또는 구조적인 것인지에 대한 믿음 • 빈민들의 상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는지 	
	사회적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간의 관점에서 노인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세금을 1% 만큼 더 낼 용의가 있는지 • 이웃이나 커뮤니티를 위해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할 용의가 있는지(예를 들어, 쓰레기 치우기, 노인·장애인·환자들을 위해 쇼핑해주기, 거리·현관·문 앞 청소하기 등) • 집안일의 남녀 간 분담(배우자와의 가사 일, 자녀 양육, 가구 수입의 분배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적이든 아니든 간에 정치적, 자발적, 자선적 조직 또는 스포츠 클럽의 회원인지 • 가족, 이웃,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는지 • 친구나 동료와 자주 접촉하는지
사회적 네트워크	네트워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 대한 자부심 • 국가적 상징들과 유럽 상징들에 대한 정체성 	
	국가적·유럽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상징들과 유럽 상징들에 대한 정체성 	
	지리적·커뮤니티적 ·지역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커뮤니티적, 지역적 정체성 	
정체성	대인관계의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친척 네트워크에의 소속감 	

자료: Berman et al., 2004.

〈표 2-4〉 사회적 포용의 지표들

영역	하위 영역	지표
시민권	헌법적·정치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을 가진 거주자의 비율 • 지역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비율과 이를 사용하는 비율
	사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에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비율 •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급여 수준
	공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법률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 •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경제적·정치적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나 개인 회사 또는 재단의 이사회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소수인종 그룹의 비율 • 의회나 개인회사 또는 재단의 이사회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여성의 비율
	노동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실업(12개월 이상) • 비자발적 시간제 혹은 일시적 고용
서비스	건강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일차 의료보호의 수급을 받는 사람의 비율 • 노숙자의 비율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택을 위해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시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참가율과 고등교육 참가율
	사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 • 돌봄서비스를 위해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시간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이 제한되는 사람의 비율 • 필요시에 금융원조 및 조언에의 접근성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 • 대중교통체계의 밀도와 도로 밀도
	시민적·문화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명의 거주자 당 공공 스포츠 시설의 수 • 10,000명의 거주자 당 시민적·문화적 시설의 공적·사적 수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과의 정기적인 접촉 비율
	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의 정기적인 접촉 비율 • 외롭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비율
	가족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척들과의 접촉 기간 • 각각 다른 유형의 가족들에 의해 받는 비공식적 지원

자료: Walker et al., 2003.

<표 2-5> 사회적 역량강화 지표들

영역	하위 영역	지표
지식 기반	지식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이동성은 지식에 기반(공식적 자격부여)하는가? • 교육을 받고 수리적 지식이 있는 사람의 백분율
	정보의 가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로 사용가능한 미디어 • 인터넷에의 접근성
	정보의 이용자 친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에서의 다채로운 언어에 대한 정보 제공 • 무료 옹호, 조언, 안내 센터의 사용
노동 시장	고용계약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사적 고용자를 구분한)노동조합 멤버의 백분율 • (공적·사적 고용자를 구분한)단체협약에 의해 보상된 백분율
	직업 이동성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기반 훈련을 받은 고용된 노동인구의 백분율 • 공적 훈련을 활용 가능한 노동력에의 백분율 • ‘노동 재진입 계획’에 참여하는 노동력의 백분율
	노동과 가족 생활의 조정 (노동과 삶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생활 균형정책을 조정하는 조직의 백분율 • 노동·삶 균형수단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고용된 노동 력의 백분율
기관의 개방성과 지지	정치적 체계의 개방성과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절차의 존재와 직접 민주주의
	경제 체제의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경제적 의사 결정에의 공식적 참여 사례의 수 • 노동상담을 하는 조직·기관의 백분율
공적 공간	집단행동에 대한 조직 지지의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으로, 비영리적으로 시민의 주도하에 확보된 국가와 지역의 공적 예산 • 최근 12개월 내에 총 데모 행진과 시위운동 중 금지 된 비율
	문화적 풍요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문화적 활동에 배분된 지역과 국가 예산의 비율 • 스스로 조직된 문화적 그룹들과 이벤트의 수 • 정기적으로 개인적 풍요로움의 다른 형태들을 경험 하는 사람들의 비율
대인 관계	신체적·사회적 독립성을 지지하는 서비스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정신적인 장애인을 위한 국가적이고 지역적 인 예산의 백분율
	개인 지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돌봄의 수준
	사회 상호작용의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와 환경 디자인 포함(회의 장소, 조명, 설계 등)

자료: Hermann, 2003.

마. 사회적 질 지표의 활용사례

1) 개요

사회적 질 지표의 대표적인 활용사례로 최근 EU에서 행한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비교연구 프로젝트는 세계의 주요 10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본의 주관적 행복에 관심이 있었다. 18세 이상의 1,000명의 사람들의 대표적 표본들은 2006년 11월에 각 10개 도시에서 직접 인터뷰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10,014(9개 도시에서 1,000명, 한 개 도시에서 1,014명)명이었다. 변수들은 대부분 5점 척도들이었으나, 낮은 수준의 범주에 있는 응답은 타당한 분석 범주에 충분한 숫자를 산출하기 위해 3점 또는 4점 척도로 결합되었다.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p><input type="checkbox"/> 귀하는 다음의 진술(1. 경제 - 8. 지역사회 생활)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1)매우 동의함, 2)동의함, 3)동의도 부정도 아님, 4)부정함, 5)매우 부정함, 6)모르겠음, 7)거부</p>
<p><input type="checkbox"/> 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서는 많은 취업기회가 있다. • 나의 도시의 생활비는 비싸다. <p><input type="checkbox"/> 문화와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서는 문화, 여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나의 도시에는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 나는 나의 도시에서의 교육의 질에 만족한다. <p><input type="checkbox"/> 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또는 가족의 위기 시, 나는 시의 공공 기관이나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나의 도시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기에 좋은 곳이다. • 나의 도시는 노인, 장애인, 빈민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 나는 나의 도시에서의 건강보호의 질에 대해 만족한다. <p><input type="checkbox"/> 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밤에 도시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 나는 교통사고, 화재, 건물 붕괴와 같은 다양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p><input type="checkbox"/>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공공으로 제공된 물을 마실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 나의 도시에서 대기오염은 심각한 문제이다.

<input type="checkbox"/> 생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서 대중교통(지하철, 열차,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은 용이하다. • 나의 주변(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에는 앉거나 쉴 수 있거나 이웃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다. • 나는 식료품들을 구입하러 쉽게 걸어서 상점에 갈 수 있다(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상점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도시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해 나의 도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다. • 시 정부는 시민의 문제와 요구를 잘 처리한다. • 시 행정은 투명하다.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나의 친구나 이웃들이 가능한 한 자주 우리 집에 들르도록 한다. • 나의 도시에는 자원 활동의 기회가 많다. 																		
<input type="checkbox"/> 일반적으로 귀하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1)매우 좋음, 2) 좋음, 3)보통, 4)나쁨, 5)매우 나쁨, 6)모르겠음, 7)거부																		
<input type="checkbox"/> 본인이 속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1)매우 자랑스러움, 2)어느 정도 자랑스러움, 3)자랑스럽지도 자랑스럽지 않지도 않음, 4)아주 자랑스럽지는 않음, 5)전혀 자랑스럽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귀하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매우 행복함, 2)어느 정도 행복함, 3) 행복하지도, 행복하지 않지도 않음 4)아주 행복하지는 않음, 5)전혀 행복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인구학적 변수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 성</td> <td style="width: 33%;">• 연령</td> <td style="width: 33%;">• 지역</td> </tr> <tr> <td colspan="3">• 교육: 1)무학, 2)초등교육, 3)중등교육, 4)직업교육, 5)대학교육 또는 그 이상</td> </tr> <tr> <td colspan="3">• 가구소득(본인의 판단): 1)매우 낮은 소득, 2)낮은 소득, 3)중간 소득, 4)높은 소득, 5)매우 높은 소득</td> </tr> <tr> <td colspan="3">• 직업: 1)농부·어부, 2)자영업, 3)사무원, 4)육체노동자, 5)숙련노동자, 6)전문직, 7)영업직, 8)학생, 9)주부, 10)무직, 11)기타(자세히 서술), 12)모르겠음, 13)거부</td> </tr> <tr> <td colspan="3">• 결혼상태: 1) 미혼, 결혼한 적 없음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기타</td> </tr> <tr> <td colspan="3">• 종교: 1)가톨릭, 2)개신교, 3)유대교, 4)이슬람교, 5)불교, 6)힌두교, 7)기타, 8)무교</td> </tr> </table>	• 성	• 연령	• 지역	• 교육: 1)무학, 2)초등교육, 3)중등교육, 4)직업교육, 5)대학교육 또는 그 이상			• 가구소득(본인의 판단): 1)매우 낮은 소득, 2)낮은 소득, 3)중간 소득, 4)높은 소득, 5)매우 높은 소득			• 직업: 1)농부·어부, 2)자영업, 3)사무원, 4)육체노동자, 5)숙련노동자, 6)전문직, 7)영업직, 8)학생, 9)주부, 10)무직, 11)기타(자세히 서술), 12)모르겠음, 13)거부			• 결혼상태: 1) 미혼, 결혼한 적 없음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기타			• 종교: 1)가톨릭, 2)개신교, 3)유대교, 4)이슬람교, 5)불교, 6)힌두교, 7)기타, 8)무교		
• 성	• 연령	• 지역																
• 교육: 1)무학, 2)초등교육, 3)중등교육, 4)직업교육, 5)대학교육 또는 그 이상																		
• 가구소득(본인의 판단): 1)매우 낮은 소득, 2)낮은 소득, 3)중간 소득, 4)높은 소득, 5)매우 높은 소득																		
• 직업: 1)농부·어부, 2)자영업, 3)사무원, 4)육체노동자, 5)숙련노동자, 6)전문직, 7)영업직, 8)학생, 9)주부, 10)무직, 11)기타(자세히 서술), 12)모르겠음, 13)거부																		
• 결혼상태: 1) 미혼, 결혼한 적 없음 2) 기혼 3) 이혼 4) 사별 5) 기타																		
• 종교: 1)가톨릭, 2)개신교, 3)유대교, 4)이슬람교, 5)불교, 6)힌두교, 7)기타, 8)무교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분포는 <표 2-6>과 같다. 응답자들의 생활의 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사회적 질 접근을 사용하여, 일련의 선형회귀분석이 시행되었다. 종속변수는 주관적 행복으로써,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사회적 질 모델을 조작하기 위해 네 묶음의 독립변수들이 사용되었다.

〈표 2-6〉 전체 표본의 성과 연령: 도시별 백분율

(단위: %, 명)

도시	18~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계(명)
서울	9.5	10.0	12.6	11.2	12.9	11.1	16.9	15.8	51.9	48.1	1,000
뉴욕	11.2	8.4	9.8	10.7	10.1	9.7	20.7	19.5	51.7	48.3	1,000
토론토	10.2	10.2	12.0	11.4	10.8	9.9	20.1	19.5	53.1	46.9	1,000
런던	13.0	13.5	9.7	9.2	10.4	10.2	17.9	16.1	51.0	49.0	1,000
파리	12.1	13.3	10.1	9.8	9.8	9.1	19.3	16.5	51.3	48.7	1,000
베를린	12.3	11.9	9.2	9.1	9.2	12.9	19.8	15.6	50.5	49.5	1,000
밀라노	8.1	9.5	10.9	9.1	9.8	10.7	22.0	20.0	50.8	49.2	1,014
도쿄	9.6	10.3	10.5	11.4	7.7	9.4	21.8	19.3	49.6	50.4	1,000
베이징	12.5	13.1	10.5	11.0	10.7	11.4	15.9	14.9	49.6	50.4	1,000
스톡홀름	11.5	9.9	10.8	12.9	10.1	9.5	18.5	16.8	50.9	49.1	1,000
전체	11.0	11.0	10.6	10.6	10.1	10.4	19.3	17.0	51.0	49.0	10,014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① 사회경제적 상태, ② 사회 응집력, ③ 사회적 포용, ④ 사회적·문화적 권능부여가 그 네 가지이다. 연령과 성별은 무의미했으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2-5] 사회적 질의 지표들

[경제 보장]	[사회 응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는 많은 취업기회가 있다. • 나의 도시의 생활비는 비싸다. • 나는 공공으로 제공된 물을 마실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 가구 소득 • 건강보호 질에 대한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는 자원 활동의 기회가 많다. • 나의 도시에는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 시 행정은 투명하다. • 나는 밤에 도시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 시 정부는 시민의 문제와 요구를 잘 처리한다. • 도시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 포용]	[사회적, 문화적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또는 가족의 위기 시, 나는 시의 공공 기관이나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나의 도시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기에 좋은 곳이다. • 나의 도시는 노인, 장애인, 빈민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 나의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용이하다. • 나의 도시에는 앉거나 쉴 수 있거나 이웃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다. • 나는 식료품들을 구입하러 쉽게 걸어서 상점에 갈 수 있다. • 나는 나의 친구나 이웃들이 가능한 한 자주 우리 집에 들르도록 한다. • 결혼상태 • 종교 •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서는 문화·여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나는 나의 도시에서의 교육의 질에 만족한다. • 인터넷을 통해 나의 도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다. • 건강 • 교육

2) 조사결과

(가) 행복과 사회적 질

<표 2-7>과 <표 2-8>은 열 개 도시에서 보고된 행복도이다. 런던에서는 32%를 약간 웃도는 수의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다고 했으며, 80%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거나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했다. 이는 런

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른 주요 도시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며, 바로 아래로 스톡홀름, 토론토, 뉴욕이 뒤따르고 있으나, 나머지 여섯 개 도시들 중 특히 베이징과 서울에 비해 월등히 높다.

<표 2-7> 지역별 행복도: 지역에서의 백분율

(단위: %)

지역	매우 행복함	어느 정도 행복함	어느 쪽도 아님	행복하지 않음
서울	07.9	48.4	34.1	09.6
뉴욕	39.9	41.6	10.8	07.7
토론토	41.4	44.0	08.2	06.4
런던	32.4	47.4	12.0	08.2
파리	25.0	50.5	18.6	05.9
베를린	26.8	45.0	21.7	06.5
밀라노	15.3	59.0	15.7	10.1
도쿄	15.5	54.5	21.5	08.5
베이징	26.2	31.3	32.8	09.7
스톡홀름	26.9	47.1	18.2	07.8

<표 2-8> 지역별 매우 또는 꽤 행복하다고 응답한 백분율

(단위: %)

서울	뉴욕	토론토	런던	파리	베를린	밀라노	도쿄	베이징	스톡홀름
56.3	81.5	85.4	79.8	75.5	71.8	74.3	70.0	57.5	87.8

경제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아래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50%에 달하는 런던 사람들이 그들의 소득이 중간이라고 했으며, 1%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1.4%)만이 매우 높은 소득을 가진다고 말했고, 20%정도의 사람들(18.8%)이 높은 소득을 가진다고 응답했다. 약 8%의 사람들(7.6%)이 매우 낮은 소득을 가진다고 했으며, 20%를 약간 웃도는 사람들이 낮은 소득을 가진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된 변수들을 보면, 72.7%가 런던에서의 좋은 취업기회에 대해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10.2%가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

답했다. 2/3 이상(68.3%)의 사람들이 물은 마시기에 안전한가에 대해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했으며 67.2%가 (복지 하부 구조의 지표인)건강보호의 질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런던은 생활하기에 비싼 장소라는 데 강한 긍정이 있었는데, 53%의 사람들이 생활비가 매우 비싸다고 했고, 43%가 비싸다고 했다.

<표 2-9> 런던에서의 경제 보장

(단위: %)

변수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부정	매우 부정
고용기회	22.6	50.1	17.1	9.2	1.0
생활비가 높음	53.1	42.9	2.3	1.4	0.3
건강보호의 질에 대한 만족	19.5	47.7	10.9	16.9	5.0
식수의 안전성	13.1	55.2	15.0	14.3	2.4
가구소득	1.4	18.8	49.9	22.2	7.6

사회 응집력과 관련하여서는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런던에서는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증거가 있었다. 90% 이상이 그들의 도시를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랑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74.6%가 런던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표 2-10> 런던에서의 사회 응집력

(단위: %)

변수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부정	매우 부정
자원 활동의 기회	15.2	57.9	19.6	6.9	0.4
자랑스럽게 방문객에게 보여줌	43.9	46.6	3.5	5.0	1.6
시 행정의 투명성	1.8	25.0	30.7	31.0	11.5
야간 안전성	13.0	37.3	13.5	24.2	12.0
시 정부가 문제들을 처리함	4.9	36.1	30.1	22.5	6.4
도시에 대한 자부심	40.1	34.5	15.5	7.8	2.1

그러나 런던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가 살기에 안전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덜 확신했는데, 단지 절반의 사람만이 밤에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시민에 대한 정치적 응답 면에서는 26.8%만이 시 정부가 투명하다고 생각했으며, 50%가 시 행정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일반적인 신뢰의 결여와 정치가들 및 정치 기관들에 대한 신뢰 결여를 시사한다.

사회통합의 면에서 보면, 65.3%의 응답자가 결혼했으며, 71.1%가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고, 64.2%가 고용상태에 있고, 64.2%가 친구들을 자주 방문한다고 말했다. 런던은 일반적으로 좋은 대중교통 체계를 가졌으며(72.2%), 상점들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88.6%), 사람들이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였다(68.2%). 응답자들은 아동을 양육하기에 좋은 곳으로써(49.2%가 긍정적으로 생각함)와 위기의 시점에서 가족을 지지하기 좋은 곳으로써(46.6%가 긍정적으로 생각함)는 덜 확신했었다(표 2-11 참조).

〈표 2-11〉 런던에서의 사회통합

(단위: %)

변수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부정	매우 부정
가족 위기 도움	11.1	35.5	30.4	18.3	4.7
아동에게 좋은 장소	11.3	37.9	18.6	25.0	7.2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	15.9	39.6	18.8	20.9	4.8
대중교통	26.6	45.6	10.1	12.1	5.6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장소	12.4	55.8	12.6	16.6	2.6
걸어서 상점에 감	28.2	60.4	2.5	7.7	1.2
자주 친구들을 방문함	7.8	56.4	10.9	23.1	1.8
	그렇다	아니다			
[기혼]	65.3	34.7			
[종교]	71.1	28.9			
[고용]	64.2	35.8			

아래 <표 2-12>은 사회적·문화적 역량강화의 지표들로서의 변수들이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고등학교 또는 그와 대등한 교육을 받았거나(42.4%) 그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50.7%). 3/4은 그들의 건강이 좋거나 (39.4%) 매우 좋다고(35.4%) 생각했다. 여가와 문화 시설에의 접근성은 좋거나 매우 좋다고(85.5%) 생각되었고 인터넷에의 접근성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것은 76.9%였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50.7%만이 런던에서의 교육의 질의 높다는 데 동의했다.

<표 2-12> 런던에서의 사회적·문화적 역량강화

(단위: %)

변수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부정	매우 부정
여가시설에의 접근성	43.4	42.1	5.3	6.3	2.9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	15.7	35.0	28.6	14.8	5.5
인터넷에 정보에 쉽게 접근함	25.1	51.8	18.3	4.5	0.3
건강	35.4	39.4	19.3	4.8	1.1
	고등학교 이하 고등·전문 더 높음				
[교육]	7.0	42.4	50.7		

종합적으로는 [그림 2-5]에서 보여 주듯이, 런던은 생활하기에 비싼 도시로 보일지라도, 런던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보장되고, 10% 이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소득이 매우 낮다고 이야기 했으며, 단지 10%만이 고용 기회가 열악하다고 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런던 사람들은 명백히 그들의 도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으며 특정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의 기회는 좋아 보이나, 장애인과 아동이 있는 가족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다. 런던사람들은 비교적 잘 교육받았고 좋은 건강을 지니고 있으며 정보와 여가 시설에의 좋은 접근성으로 인해 사회적·문화적 권능부여의 수준은 높지만, 활용 가능한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시민들에 의해

평가된 런던의 총체적인 사회적 질은 경제 보장과 사회적·문화적 권능부여의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회 응집력은 약해 보이고, 특정 그룹들은 사회적으로 포용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런던에서의 경우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또한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단지 두 가지의 사회적 질 요소들(물을 마시는 것이 안전한가와 런던이 노인·장애인·빈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가)은 행복의 주관적 보고들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그림 2-6] 행복과 연관된 사회적 질의 지표들

[경제보장]	[사회 응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는 많은 취업기회가 있다.*** • 나의 도시의 생활비는 비싸다.** • 나는 공공으로 제공된 물을 마실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NS • 가구소득*** • 건강보호 질에 대한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는 자원 활동의 기회가 많다.*** • 나의 도시에는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 시 행정은 투명하다.*** • 나는 밤에 도시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 시 정부는 시민의 문제와 요구를 잘 처리한다.** • 도시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 포용]	[사회적·문화적 권능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또는 가족의 위기 시, 나는 시의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나의 도시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기에 좋은 곳이다.*** • 나의 도시는 노인, 장애인, 빈민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NS • 나의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용이하다.*** • 나의 도시에는 앉거나 쉴 수 있거나 이웃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다.*** • 나는 식료품들을 구입하려 쉽게 걸어서 상점에 갈 수 있다.*** • 나는 나의 친구나 이웃들이 가능한 한 자주 우리 집에 들르도록 한다.*** • 결혼 상태*** • 종교*** •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서는 문화·여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나는 나의 도시에서의 교육의 질에 만족한다.*** • 인터넷을 통해 나의 도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다.*** • 건강*** • 교육***

주: *** p<0.001, ** p<0.01, *p<0.05

어떤 지표가 행복에서의 변동들을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된 사회의 사회적 질이 실제로 그 변동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모델의 각 분면을 독립적으로 고려하고, 그 후에 변수들의 총 목록을 투입함으로써 총 분산을 설명했는데 이는 어떠한 분면이 행복을 설명하는지와 어떠한 지표가 행복을 설명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분석에서 모든 변수들은 단일한 목록으로써 투입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분면을 우위에 두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주어진 지표가 한 분면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각 분면을 분리하여 고려하여, 각 분면의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약 10%의 변수들이 행복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 런던에서의 표본들에서 결정계수를 통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권능부여로써 12.2%이며, 가장 낮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은 사회 응집력으로 8%이다(그림 2-6 참조).

[그림 2-7] 사회적 질의 지표: 분면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경제보장] r^2 0.113	[사회 응집력] r^2 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는 많은 취업기회가 있다.*** • 나의 도시의 생활비는 비싸다.NS • 나는 공공으로 제공된 물을 마실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NS • 가구소득** • 건강보호 질에 대한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는 자원활동의 기회가 많다.NS • 나의 도시에는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NS • 시 행정은 투명하다.*** • 나는 밤에 도시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NS • 시 정부는 시민의 문제와 요구를 잘 처리한다.** • 도시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 포용] r^2 0.081	[사회적·문화적 권능부여] r^2 0.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또는 가족의 위기 시, 나는 시의 공공 기관이나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NS • 나의 도시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기에 좋은 곳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서는 문화·여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나는 나의 도시에서의 교육의 질에 만족한다.NS

[경제보장] r^2 0.113	[사회 응집력] r^2 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는 노인, 장애인, 빈민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NS • 나의 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은 용이하다.*** • 나의 도시에는 앉거나 쉴 수 있거나 이웃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다.* • 나는 식료품들을 구입하려 쉽게 걸어서 상점에 갈 수 있다.*** • 나는 나의 친구나 이웃들이 가능한 한 자주 우리 집에 들르도록 한다.*** • 결혼상태*** • 종교** • 고용 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해 나의 도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다.* • 건강*** • 교육 NS

주: *** p<0.001, ** p<0.01, *p<0.05

회귀분석을 사용했을 때, ‘경제보장’에 속한 변수들은 행복도 속에서 분산의 11.3%를 설명한다. 유의미한 변수는 고용 기회들, 건강보호의 질, 가구 소득이다. 사회 응집력은 행복에 대한 분산의 10.9%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변수들은 도시에 대한 자부심, 정치가에 대한 신뢰(또는 신뢰의 결여)이다. 사회적 포용은 8.1%의 설명력을 가지며, 유의미한 변수들은 ‘객관적인’ 변수인 결혼 상태와 종교이며, 개인적인 통합과 관련된 세 개의 변수(대중교통에의 접근성, 상점에서의 접근성,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지)이다. 사회적, 문화적 권능부여 변수들은 행복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해 총 분산의 12.2%를 설명하며, 문화, 여가 시설에의 접근성과 정보에의 접근성이 유의미한 변수들이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관적인 건강에 대한 평가와 실제 건강 상태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변수들의 완전한 목록을 하나의 분석에서 포함할 때, 결정계수 R^2 은 0.284로써, 설명되는 분산의 백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각 분면들로부터의 변수들은 유의미한 변수들이 된다. ‘경제보장’의 지표들 중 유의미한 변수들은 고용 기회와 건강 보호의 질이며, ‘사회 응집력’의 지표들 중

유의미한 요인들은 자원 활동의 기회, 도시에의 자부심, 정치가에 대한 신뢰이다. ‘사회적 포용’에서는 결혼 상태와 고용 상태, 친구와의 잦은 접촉, 대중교통에의 접근성과 위기시의 지지가 유의미한 변수들이고, ‘사회적 권능부여’의 변수 중 유의미한 것은 건강과 문화. 여가 시설에의 접근성이다(그림 2-7 참조).

[그림 2-8] 사회적 질의 지표들: 결정계수 r^2 0.287

[경제보장]	[사회 응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 많은 취업기회가 있다.*** • 나의 도시의 생활비는 비싸다.NS • 나는 공공으로 제공된 물을 마실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NS • 가구 소득* • 건강보호 질에 대한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 자원 활동의 기회가 많다.*** • 나의 도시에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NS • 시 행정은 투명하다.*** • 나는 밤에 도시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NS • 시 정부는 시민의 문제와 요구를 잘 처리한다.*** • 도시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 포용]	[사회적·문화적 권능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또는 가족의 위기 시, 나는 시의 공공 기관이나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나의 도시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기에 좋은 곳이다.NS • 나의 도시는 노인, 장애인, 빈민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NS • 나의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용이하다.** • 나의 도시에 앉거나 쉴 수 있거나 이웃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다.NS • 나는 식료품들을 구입하려 쉽게 걸어서 상점에 갈 수 있다.NS • 나는 나의 친구나 이웃들이 가능한 한 자주 우리 집에 들르도록 한다.NS • 결혼상태*** •종교 NS •고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도시에서는 문화·여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나는 나의 도시에서의 교육의 질에 만족한다.NS • 인터넷을 통해 나의 도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다.NS • 건강***교육 NS

주: *** p<0.001, ** p<0.01, *p<0.05

결론적으로 런던 사람들에게서 사회적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행복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사회적 질이 높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 사회적 질 모델의 4분면 모두가 행복 속에서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기여했으며 다음의 두 가지 결론들을 지지한다. 우선 행복은 경제적 변수뿐 아닌 그 이상의 것과 연관된다는 것이며, 이론에 기초한 사회적 질 모델은 개인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할 수 있는 사회의 ‘space(공간)’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많은 런던 사람들은 사회적 포용과 사회 응집력의 측면에서 그들의 도시가 이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나) 비교분석

주관적인 행복은 10개국 중 가장 높은 스톡홀름의 87.8%로부터 가장 낮은 서울의 56.3%까지 다양하다. 서울과 베이징에서의 응답자들의 행복도가 가장 작았고, 다른 도시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80%나 그보다 높은 수가 행복하다고 답한 스톡홀름, 토론토, 뉴욕, 런던이고, 다른 하나는 70~76%가 행복하다고 답한 파리, 밀라노, 베를린, 도쿄이다. 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행복 사이에 연관이 있을 조짐이 보이지만, 몇몇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런던은 경제적 자료로부터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더 행복하며 도쿄와 서울은 예상보다 낮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GDP 지수와 인간개발지수 측면에서도 드러나는데, 도쿄와 서울이 예상보다 낮다. 지니계수나 자살률과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2-13 참조).

〈표 2-13〉 10개의 세계 주요도시들: 객관적, 주관적인 변수들

(단위: %)

도시	매우 행복	(매우) 낮은 소득	GDP	지니계수	인간개발 지수순위	자살	
						남	여
스톡홀름	87.8	17.3	0.93	25.0	06	19.7	8.0
토론토	85.4	19.5	0.96	33.1	05	19.5	5.1
뉴욕	81.5	18.2	0.99	40.8	10	17.6	4.1
런던	79.8	29.9	0.94	36.0	15	11.8	3.3
파리	75.5	26.1	0.94	32.7	16	26.1	9.4
밀라노	74.3	27.7	0.94	36.0	18	11.1	3.4
베를린	71.8	31.0	0.94	28.3	20	20.2	7.3
도쿄	70.0	23.2	0.94	24.9	11	36.5	14.1
베이징	57.5	34.0	0.65	44.7	85	13.0	14.8
서울	56.3	27.1	0.87	31.6	28	18.8	8.3

자료: UNDP, 2006; WHO, 2003.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질 지표들은 행복에 대해 유의미한 정도의 분산을 설명한다. 설명된 분산은 스톡홀름에서의 32.7%부터 파리에서의 18.4%까지 다양하다(표 2-14 참조).

〈표 2-14〉 수정 결정계수 R^2

도시	수정 결정계수 R^2
스톡홀름	0.327
서울	0.321
베를린	0.311
도쿄	0.309
뉴욕	0.272
런던	0.265
베이징	0.252
토론토	0.213
밀라노	0.210
파리	0.184
전체	0.286

총체적인 모델의 측면에서 4분면 모두로부터의 변수들은 모든 도시에서 또는 각 도시에서 분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다. 도시에 대한 자부심(사회 응집력)과 건강(사회적 권능부여)은 모든 도시에서 유의미하지만, 토론토에서는 사회적 포용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구 소득은 베를린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각의 분면에 대한 회귀의 측면에서는 런던에서처럼 다른 도시들에서도 각 분면의 지표들에 의해 분산의 유의미한 정도가 설명되었다. 또한 지표 모두를 통해 설명된 총 분산이 한 분면만을 이용해서 설명했을 때보다 높았다(표 2-15 참조).

〈표 2-15〉 10개 주요 도시에서 각 분면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백분율
(단위: %)

도시	경제 보장	사회 응집력	사회적 포용	사회적 권능부여
서울	0.154	0.153	0.071	0.167
뉴욕	0.106	0.185	0.067	0.178
토론토	0.066	0.164	0.066	0.100
런던	0.113	0.109	0.081	0.122
파리	0.068	0.049	0.086	0.106
베를린	0.125	0.186	0.104	0.196
밀라노	0.044	0.143	0.079	0.085
도쿄	0.123	0.170	0.129	0.1215
베이징	0.097	0.182	0.093	0.127
스톡홀름	0.147	0.131	0.118	0.174
전체	0.119	0.1734	0.107	0.167

경제보장의 지표들 중 가구 소득은 베를린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요인이었으며, 의료 보호에 대한 만족은 뉴욕과 파리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사회 응집력 지표들 중, 도시에 대한 자부심은 모든 도시에서 유의미했고, 자원 활동에의 기회는 절반의 도시에서 유의미했다. 사회적 포용 지표들 중, 사회적 관계는 서울을 제외하고 유의미했으며, 자주 방문하는 친구를 가지는 것은 유의미했고, 서울에서는 결혼상태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였다. 사회적·문화적 권능부여 중, 모든 지역에서 유의미한 것은

건강 상태와 여가 및 문화 시설에의 접근성이었다.

(다) 시사점

사회적 질 모델은 이론에 의거하여 개인이 그들의 잠재적 성취를 하도록 집합적으로 역량강화를 시키는 사회적 상태들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주관적 행복은 그들의 느낌들과 기분의 개인적 평가를 측정하지만, 이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들은 사회적 질의 지표들로서 사용되었다. 이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와 사회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특징짓게 되고, 각 도시의 표본에서 인지된 사회환경들을 서술하고, 이를 개인들의 '내적 기분'과 관련하여 서술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글은 개인적 웰빙의 사회·사회적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하는가에 대한 4분면 또는 모델의 범위의 영향을 보면, 사회적 질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4분면을 분리하여 고려할 때, 모두가 행복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량이다. 모든 변수들이 하나의 목록으로 투입되었을 때, 사회적·문화적 권능부여, 사회 응집력, 사회적 포용 지표들은 경제 보장의 영향보다 더 행복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그리고 4분면상의 모든 지표들을 합친 것은 어느 한 분면만을 고려했을 때 보다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한다. 이전의 행복에 관한 조사선상에서, 개인의 행복에 대한 평가의 핵심 요인들은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우정·친척관계, 사회와의 동일성(도시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이 글에서의 분석은 영국의 사회적 질 보고서의 결론과 유사한데, 경제 보장과 사회적·문화적 역량강화가 런던에서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회 응집력과 사회적 포용성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석은 또한 행복의 절대적인 수준에 대한 지역 간의 주관적인 변량에도 주의했으며, 이는 모델과 정밀한 지표들에 의해 예상가능하며, 이를

예상할 것이 요구되었다. 지표들이 유의미한 변량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의 정확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4분면 모두로부터의 지표들이 필요했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제 5 절 행복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미국 미시간대 사회연구소가 연구결과에 의하여 제시한 10가지 조건 중에서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를 이해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나 종교생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유전적 성향이나 돈 많이 벌기는 인력으로 되지 않는 어려운 것일지 모른다. 그런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은 ‘욕심 줄이기’일 것이다. 모든 불만과 고통과 불행은 바로 욕심에서 온다는 점에서 행복의 요건임에 충분하다. 따라서 욕심 줄이기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행복지수는 단번에 꺾충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⁸⁾

사회과학자들은 개인들과 커뮤니티들과 사회들이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황과 함께 인간의 행복에 대해 이해하려고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정책의 대다수가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초점을 맞춘 발전의 경제적 이론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을지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은 지역적인 단순한 경제적 초점에 대해 도전을 제기해왔다. 이

8) 톨스토이는 “가난의 괴로움을 면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것과 자기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전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후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가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였음.

러한 주장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과 관련하여 국가적·국제적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었으며, 경제정책만큼이나 사회정책의 중요함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국내총생산 증가를 목표로 삼는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인간의 복지와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하고 관련하여 시장화와 지나친 개인의 책임에 대한 강조에 대해 도전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된다.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에 미국의 존슨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공표한 이후부터인데, 흔히 사용되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물질적 풍요 이상의 중요한 삶의 차원이 존재함을 함의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상이한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데,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계량적이고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다양한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전략을 택해 온 반면, 주관적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느낌, 혹은 행복감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발달된 사회적 질(social quality) 개념은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정책의 경시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발전되었다. 다시 말하여 경제적인 것만으로는 결코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질에 대한 아이디어는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계속되었던 과학적이고 정책 지향적인 일련의 국제회담들에서 발전되었다. 이는 오랜 시간동안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예측되는 것에 대한 반발과 해결책으로서 만들어졌다. 1990년대에 유럽에서 이러한 갈등은 실업의 증가와 사회지출의 감소를 야기한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을 향해 집중되는 특성으로 매우 명백해졌다. 경제정책과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이러한 개발을 저해하는 사회정책의 실패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간

의 균형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회적 질의 개념인 것이다.

본격적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EFSQ(유럽 사회적 질 재단;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는 ENIQ(European Thematic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와 협력하여 사회적 질의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이 네트워크는 열네 개 국가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구성되었고, 두 개의 국제 NGO, 즉 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ICSW), European Anti-Poverty Network(EAPN)으로 구성되었다. 이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 실재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유럽 정책의 핵심 개념인 사회적 질의 4개 요소에 대한 주요한 설명, 즉 사회적 질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질의 현재 흐름에 대한 열네 개 국가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네트워크의 많은 작업들이 특정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 성과의 정책적 함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생활수준, 사회적 배제, 혹은 더 일반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이전의 시도와는 대조적으로, 이 네트워크는 모든 유럽 국가 시민들의 일상의 삶으로서 진정한 행복한 삶의 질을 이해하고 측정하려는 통합적이고 이론에 근거한 접근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지바 대학교와 EFSQ에 의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사회적 질 개념에 의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질이 삶의 질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조사는 주로 다양한 사회지표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대다수 삶의 질 연구들은 삶의 질은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적 자원과 사회

경제적 자원, 그리고 주관적 만족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GNP 성장지상주의의 폐해를 이미 예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삶의 질 접근은 첫째, 이론적인 논의들이 부재하거나, 이론적 토론을 하더라도 개인수준의 삶의 질에 머물고 있다는 점, 둘째, 사회적 관계나 구조를 불변의 것으로 전제한 후 그 위에서 개인들에 미치는 객관적인 효과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조나 조건을 주어진 것으로,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셋째, 삶 자체가 구성되는 영역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조건변수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넷째, 비교적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비이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간의 사회적 관계 면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 등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질은 삶의 질과 차이가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질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질을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이재열(2007)의 ‘외환위기 10년: 한국 사회의 질은 어느 수준까지 왔나’이다. 그의 연구는 개략적인 사회적 질의 지표들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요즘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무엇이고, 어떠한 게 행복한 삶인가 하는 문제는 더욱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EFSQ에서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사회적 질의 지표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측정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안) 개발

제 1 절 행복결정요인(안) 개발

1. 행복결정요인(안) 개발의 과정

한국인의 행복은 주요 타인과의 관계 혹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긍정적 감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긍정적 감정에는 사랑, 화목, 이해, 신뢰, 만족, 보람, 희망, 기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안정과 가족, 배우자, 자식 등 의미 있는 타인 및 일의 유무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과 좋은 성품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느끼는 성향 또한 중요한 행복요인이라고 한다(현경자, 2004). 또한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연구(김명소 외, 2003)에서도 많은 행복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으로는 경제력, 성취감 및 자기 수용감, 여가 및 자유, 사회적 지위, 자기개발, 자율성, 능력 및 환경지배력, 사회·정치·문화 환경, 이타심, 자녀의 올바른 성장,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대인관계, 외모 등이다.⁹⁾아울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행복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김명소·한영석, 2005; 김명소 외, 2003; 추홍규, 2005)의 결과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제1단계로 영역을 개발하였으며, 제2단계로 각 영역별 행복결정요인(안)을 개발하였다. 각 단계의 작업과정에서 특히 고려한 점은 국내 선행연구, 주요 외국

9) 이 연구에서는 156개 예비문항이 구성되었음.

의 행복관련 연구, 행복관련 이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이었다. 그리고 행복결정요인 개발의 제3단계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최종 행복결정요인을 선정하게 된다. 델파이 조사에는 영역의 우선순위를 제안토록 하고, 이어서 각 영역 내에서의 지표 우선순위와 지표의 절대적 영향도(10점 기준)를 제안토록 하였다.

2. 행복결정요인 1차안 개발결과

전술한 바와 같은 절차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하는 행복결정요인 1차안으로 10개 영역의 41개 지표가 개발되었다. 10개 영역은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등이다.

각 영역별 개발된 행복결정요인(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안정은 6개 지표가 개발되었고,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일상생활, 일상생활 등의 영역은 4개 지표가 개발되었으며, 경제적 안정, 건강 등의 영역은 3개 지표, 지역사회, 주거 등의 영역은 2개 지표가 개발되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9개 지표를 제시하였다(표 3-1 참조).

제 2 절 행복관련 영역 및 지표의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 영역별 우선순위

행복을 결정하는 10개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심리적 안정」 영역은 43.8%가 1순위로 선택하였고, 1,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2.4%에 달하여 높은 우선순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나타나, 이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가족·결혼」 영역은 32.3%가 2순위로 선택하였고, 1~4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77.0%이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관계」 영역은 18.6%가 5순위로 선택하였고, 3~7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79.8%로 그 분포가 중간정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이 영역을 다섯 번째로 우선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영역은 40.1%가 10순위로 선택하였고, 7~10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78.3%에 달하여 낮은 우선순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영역을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일상생활」 영역은 22.0%가 7순위로 선택하였고, 5~8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7.0%이며, 평균으로 볼 때 이 영역을 일곱 번째로 우선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은 25.2%가 7순위로 선택하였고, 8~10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3.1%이며, 평균으로 볼 때 여덟 번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 영역을 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안정」 영역은 15.8%가 4순위로 선택하였고, 3~6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57.2%이며, 평균으로 볼 때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 비교적

이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일」 영역은 17.1%가 4순위로 선택하였고, 3~6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0.2%이며, 평균으로 볼 때 이 영역을 여섯 번째로 우선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 영역은 20.2%가 1순위로 선택하였고, 1~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55.6%이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 영역은 23.0%가 10순위로 선택하였고, 8~10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3.0%이며, 평균으로 볼 때 이 영역은 아홉 번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 영역을 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2〉 영역별 우선순위

(단위: 명, %)

우선순위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인구사회학적특성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141	43.8	50	15.5	9	2.8	1	0.3	3	0.9	14	4.3
2순위	60	18.6	104	32.3	29	9.0	3	0.9	11	3.4	5	1.6
3순위	31	9.6	60	18.6	47	14.6	3	0.9	23	7.1	7	2.2
4순위	27	8.4	34	10.6	56	17.4	6	1.9	28	8.7	12	3.7
5순위	25	7.8	20	6.2	60	18.6	14	4.3	42	13.0	13	4.0
6순위	23	7.1	15	4.7	49	15.2	13	4.0	43	13.4	34	10.6
7순위	9	2.8	10	3.1	45	14.0	29	9.0	71	22.0	34	10.6
8순위	3	0.9	9	2.8	21	6.5	46	14.3	60	18.6	55	17.1
9순위	3	0.9	12	3.7	6	1.9	77	23.9	31	9.6	81	25.2
10순위	-	-	8	2.5	-	-	129	40.1	10	3.1	67	20.8
11순위	-	-	-	-	-	-	1	0.3	-	-	-	-
무응답	-	-	-	-	-	-	-	-	-	-	-	-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2.61 (9순위중)		3.40 (10순위중)		4.85 (9순위중)		8.55 (11순위중)		6.30 (10순위중)		7.57 (10순위중)	

〈표 3-2〉 계속

(단위: 명, %)

우선순위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30	9.3	17	5.3	65	20.2	-	-	3	0.9
2순위	30	9.3	30	9.3	59	18.3	2	0.6		
3순위	44	13.7	49	15.2	55	17.1	8	2.5		
4순위	51	15.8	55	17.1	36	11.2	15	4.7		
5순위	44	13.7	48	14.9	36	11.2	17	5.3	1	0.3
6순위	45	14.0	42	13.0	23	7.1	33	10.2		
7순위	29	9.0	28	8.7	25	7.8	42	13.0		
8순위	31	9.6	28	8.7	9	2.8	58	18.0		
9순위	10	3.1	13	4.0	13	4.0	71	22.0	1	0.3
10순위	8	2.5	12	3.7	1	0.3	74	23.0		
11순위	-	-	-	-	-	-	2	0.6	2	0.6
무응답	-	-	-	-	-	-	-	-	315	97.8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4.77 (10순위중)		4.95 (10순위중)		3.68 (10순위중)		7.86 (11순위중)		-	

따라서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심리적 안정」 영역이었으며, 그 다음은 「가족·결혼」,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적 관계」, 「일」, 「일상생활」,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 「지역사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영역별 개별지표의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가. 심리적 안정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심리적 안정」 영역의 6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는 33.5%가 1순위로 선택하였고, 1~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79.5%이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나타나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은 38.8%가 5순위로 선택하였고, 4~6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76.7%이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다섯 번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 지표를 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은 25.2%가 2순위로 선택하였고, 1~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6.5%이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3.6%가 6순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는 26.7%가 3순위로 선택하였고, 2~4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8.3%이며, 평균으로 볼 때 네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는 25.8%가 1순위로 선택하였고, 1~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4.0%에 달하여 높은 우선순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우선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심리적 안정」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단위: 명, %)

우선순위	자아 존중감		적응도 및 유연성		긍정적 가치관		성장환경		자기계발		내 모습		기타	
	빈도	%	빈도	%										
1순위	108	33.5	7	2.2	75	23.3	4	1.2	45	14.0	83	25.8	-	-
2순위	84	26.1	20	6.2	81	25.2	8	2.5	71	22.0	67	20.8	-	-
3순위	64	19.9	48	14.9	58	18.0	11	3.4	86	26.7	56	17.4	-	-
4순위	42	13.0	86	26.7	64	19.9	18	5.6	63	19.6	45	14.0	-	-
5순위	21	6.5	125	38.8	40	12.4	42	13.0	41	12.7	48	14.9	1	0.3
6순위	3	0.9	36	11.2	4	1.2	237	73.6	15	4.7	23	7.1	-	-
7순위	-	-	-	-	-	-	2	0.6	1	0.3	-	-	-	-
무응답	-	-	-	-	-	-	-	-	-	-	-	-	321	99.7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2.4 (6순위중)		4.3 (6순위중)		2.8 (6순위중)		5.5 (7순위중)		3.1 (7순위중)		2.9 (6순위중)			

「심리적 안정」 영역의 6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영향 정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은 26.1%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69.0%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영향정도 평균이 첫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은 21.4%가 4점으로 선택하였고, 4~6점의 비율을 합하면 62.4%에 달하여 중간정도의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다섯 번째로 높아 상대적으로 이 지표를 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은 23.3%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63.7%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7.0%가 5점으로 선택하였고, 3~5점의 비율을 합하면 53.1%로 나타나, 다른 지표에 비해서 영향정도가 대체로 고르게 분포된 편임을 알 수 있으며, 평균이 가장 낮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는 25.8%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7~9점의 비율을 합하면 61.2%에 달하여 영향정도가 대체로 중간이상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는 23.3%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60.6%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지표와 동일하게 두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심리적 안정」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단위: 명, %)

영향정도	자아 존중감		적응도 및 유연성		긍정적 가치관		성장환경		자기계발		내 모습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	-	-	-	-	-	2	0.6	-	-	1	0.3	-	-
1	-	-	2	0.6	1	0.3	12	3.7	-	-	2	0.6	-	-
2	1	0.3	8	2.5	-	-	23	7.1	3	0.9	6	1.9	-	-
3	4	1.2	21	6.5	4	1.2	43	13.4	4	1.2	4	1.2	-	-
4	5	1.6	69	21.4	8	2.5	41	12.7	11	3.4	6	1.9	-	-
5	29	9.0	65	20.2	30	9.3	87	27.0	31	9.6	32	9.9	-	-
6	27	8.4	67	20.8	26	8.1	33	10.2	41	12.7	32	9.9	-	-
7	34	10.6	53	16.5	48	14.9	34	10.6	57	17.7	44	13.7	-	-
8	84	26.1	26	8.1	75	23.3	35	10.9	83	25.8	75	23.3	-	-
9	55	17.1	11	3.4	58	18.0	5	1.6	57	17.7	53	16.5	1	0.3
10	83	25.8	-	-	72	22.4	7	2.2	35	10.9	67	20.8	-	-
무응답	-	-	-	-	-	-	-	-	-	-	-	-	321	99.7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8.0		6.5		7.9		5.0		7.4		7.9			

나. 「가족·결혼」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가족·결혼」 영역의 4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은 75.7%가 4순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3.7%가 1순위로 선택하였고, 1~2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86.9%이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나타나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는 45.3%가 2순위로 선택하였고, 2~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73.3%이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 비교적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는 47.8%가 3순위로 선택하였고, 2~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71.1%이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표 3-5〉 「가족·결혼」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단위: 명, %)

우선순위	결혼자율성		가족생활		부부생활		출산 및 자녀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20	6.2	202	62.7	76	23.6	31	9.6	1	0.3
2순위	23	7.1	78	24.2	146	45.3	75	23.3	-	-
3순위	35	10.9	38	11.8	90	28.0	154	47.8	-	-
4순위	243	75.5	4	1.2	10	3.1	61	18.9	-	-
5순위	1	0.3	-	-	-	-	1	0.3	1	0.3
무응답	-	-	-	-	-	-	-	-	320	99.4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3.7 (5순위중)		1.5 (4순위중)		2.1 (4순위중)		2.8 (5순위중)			

「가족·결혼」 영역의 4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영향정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은 25.5%가 5점으로 선택하였고, 5~7점의 비율을 합하면 55.4%에 달하여, 중간 이하의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이 가장 낮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7.9%가 10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85.8%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영향정도 평균이 첫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는 26.4%가 9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69.6%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는 25.2%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7~9점의 비율을 합하면 61.2%에 달하였으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 「가족·결혼」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단위: 명, %)

영향정도	결혼자율성		가족생활		부부생활		출산 및 자녀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12	3.7	1	0.3	1	0.3	6	1.9	-	-
1	12	3.7	1	0.3	3	0.9	4	1.2	-	-
2	22	6.8	1	0.3	1	0.3	8	2.5	-	-
3	32	9.9	1	0.3	2	0.6	5	1.6	-	-
4	20	6.2	-	-	3	0.9	7	2.2	-	-
5	82	25.5	13	4.0	20	6.2	23	7.1	-	-
6	43	13.4	12	3.7	27	8.4	25	7.8	-	-
7	53	16.5	17	5.3	41	12.7	47	14.6	-	-
8	24	7.5	73	22.7	67	20.8	81	25.2	-	-
9	12	3.7	81	25.2	85	26.4	70	21.7	-	-
10	10	3.1	122	37.9	72	22.4	46	14.3	1	0.3
무응답	-	-	-	-	-	-	-	-	321	99.7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7.3		8.7		8.1		7.7			

다. 「개인적 관계」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개인적 관계」 영역의 4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62.4%가 1순위로 선택하여 단독 순위로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나타나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58.1%가 2순위로 선택하여 단독 순위로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는 53.7%가 3순위로 선택하여 단독 순위로는 과반수가 넘는 비율임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는 81.7%가 4순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

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개인적 관계」 영역에서는 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의 분포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7〉 「개인적 관계」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단위: 명, %)

우선순위	가족관계		친구관계		타인 인정		외모 반응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201	62.4	42	13.0	74	23.0	7	2.2	-	-
2순위	55	17.1	187	58.1	57	17.7	23	7.1	-	-
3순위	45	14.0	77	23.9	173	53.7	28	8.7	-	-
4순위	21	6.5	15	4.7	18	5.6	263	81.7	1	0.3
5순위	-	-	1	0.3	-	-	1	0.3	1	0.3
무응답	-	-	-	-	-	-	-	-	320	99.4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1.6 (4순위중)		2.2 (5순위중)		2.4 (4순위중)		3.7 (5순위중)			

「개인적 관계」 영역의 4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영향 정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37.3%가 10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78.6%에 달하여 높은 영향 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영향정도 평균이 첫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30.1%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7~9점의 비율을 합하면 70.5%에 달하여 대체로 높은 영향 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는 26.1%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7~9점의 비율을 합하면 59.6%에 달하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는 27.3%가 5점으로 선택하였고, 5~8점의 비율을 합하면 58.0%에 달하며, 평균이 가장 낮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표 3-8〉 「개인적 관계」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단위: 명, %)

영향정도	가족관계		친구관계		타인 인정		외모 반응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1	0.3	-	-	-	-	3	0.9	-	-
1	1	0.3	-	-	-	-	7	2.2	-	-
2	-	-	1	0.3	1	0.3	11	3.4	-	-
3	4	1.2	1	0.3	2	0.6	21	6.5	-	-
4	-	-	3	0.9	5	1.6	35	10.9	-	-
5	16	5.0	16	5.0	31	9.6	88	27.3	1	0.3
6	11	3.4	36	11.2	45	14.0	38	11.8	-	-
7	36	11.2	46	14.3	57	17.7	61	18.9	-	-
8	63	19.6	97	30.1	84	26.1	31	9.6	-	-
9	70	21.7	84	26.1	51	15.8	21	6.5	-	-
10	120	37.3	38	11.8	46	14.3	6	1.9	-	-
무응답	-	-	-	-	-	-	-	-	321	99.7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9.1		8.5		7.6		6.2			

라. 「지역사회」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지역사회」 영역의 2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는 78.3%가 2순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8.0%가 1순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나타나 이 지표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지역사회」 영역의 2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영향정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는 27.6%가 5점으로 선택하였고, 4~6점의 비율을 합하면 52.1%에 달하여 중간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이 가장 낮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1.4%가 5점으로 선택하였고, 5~7점의 비율을 합하면 54.4%에 달하며, 「지역사회」 영역 안에서는 영향정도 평균이 첫 번째로 높았으나, 전체 개별 지표들의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영향정도에 대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지역사회」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단위: 명, %)

우선순위	참여여부		환경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68	21.1	251	78.0	1	0.3
2순위	252	78.3	70	21.7	2	0.6
3순위	2	0.6	1	0.3	319	99.1
무응답	-	-	-	-	-	-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1.9 (3순위중)		1.3 (3순위중)			

〈표 3-10〉 「지역사회」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단위: 명, %)

영향정도	참여여부		환경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0	9	2.8	2	0.6	-	-
1	14	4.3	4	1.2	-	-
2	20	6.2	11	3.4	-	-
3	31	9.6	9	2.8	-	-
4	41	12.7	21	6.5	-	-
5	89	27.6	69	21.4	1	0.3
6	38	11.8	44	13.7	-	-
7	36	11.2	62	19.3	-	-
8	25	7.8	60	18.6	1	0.3
9	10	3.1	21	6.5	-	-
10	9	2.8	19	5.9	-	-
무응답	-	-	-	-	320	99.4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5.3		6.6			

마. 「일상생활」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일상생활」 영역의 4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식생활의 규칙성’은 62.7%가 4순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45.7%가 3순위로 선택하였고, 2~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72.1%이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은 38.8%가 2순위로 선택하였고, 1~2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8.6%이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는 54.0%가 1순위로 과반수가 넘게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나타나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표 3-11〉 「일상생활」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단위: 명, %)

우선순위	식생활 규칙성		식생활 만족도		수면		여가·휴식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20	6.2	34	10.6	96	29.8	174	54.0	-	-
2순위	32	9.9	85	26.4	125	38.8	82	25.5	-	-
3순위	68	21.1	147	45.7	67	20.8	38	11.8	-	-
4순위	202	62.7	56	17.4	34	10.6	28	8.7	-	-
무응답	-	-	-	-	-	-	-	-	322	100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3.4 (4순위중)		2.7 (4순위중)		2.1 (4순위중)		1.8 (4순위중)			

「일상생활」 영역의 4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영향정도 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식생활의 규칙성’은 28.6%가 5점으로 선택

하였고, 5~7점의 비율을 합하면 58.7%에 달하며, 평균이 가장 낮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21.1%가 7점으로 선택하였고, 5~7점의 비율을 합하면 55.9%에 달하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은 22.6%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57.5%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28.9%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70.2%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으며, 영향정도 평균이 첫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표 3-12〉 「일상생활」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단위: 명, %)

영향정도	식생활 규칙성		식생활 만족도		수면		여가·휴식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1	0.3	1	0.3	1	0.3	1	0.3	-	-
1	3	0.9	2	0.6	-	-	-	-	-	-
2	18	5.6	5	1.6	2	.6	1	0.3	-	-
3	16	5.0	9	2.8	3	0.9	1	0.3	-	-
4	38	11.8	18	5.6	8	2.5	5	1.6	-	-
5	92	28.6	54	16.8	30	9.3	21	6.5	-	-
6	46	14.3	58	18.0	40	12.4	26	8.1	-	-
7	51	15.8	68	21.1	53	16.5	41	12.7	-	-
8	27	8.4	52	16.1	76	23.6	93	28.9	-	-
9	18	5.6	28	8.7	53	16.5	57	17.7	-	-
10	12	3.7	27	8.4	56	17.4	76	23.6	-	-
무응답	-	-	-	-	-	-	-	-	322	100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5.7		6.7		7.6		8.0			

바.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의 9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Gender)’은 31.4%가 8순위로 선택하였고, 7~9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76.2%에 달하여 낮은 우선순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연령’은 28.3%가 7순위로 선택하였고, 6~8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6.5%에 달하여 비교적 낮은 우선순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일곱 번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 지표를 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혼인상태’는 23.0%가 6순위로 선택하였고, 6~8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55.3%이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여섯 번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 지표를 덜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여겨진다. ‘취업여부’는 18.3%가 5순위로 선택하였고, 3~6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0.8%이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는 22.0%가 5순위로 선택하였고, 4~6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56.2%이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다섯 번째로 나타나 중간정도로 우선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은 27.0%가 1순위로 선택하였고, 1~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71.7%에 달하여 높은 우선순위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나타나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개인소득’은 24.2%가 2순위로 선택하였고, 1~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0.5%이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은 17.7%가 4순위로 선택하였고, 2~5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

하면 60.5%이며, 평균으로 볼 때 네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종교’는 47.8%가 9순위로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 1순위로 그 비율을 합하면 61.5%에 달하여 다른 지표에 비해서 순위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여덟 번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 지표를 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 1순위인 것으로 보아 종교는 개인 간의 편차가 큰 지표임을 알 수 있다.

〈표 3-13〉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단위: 명, %)

우선순위	성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9	2.8	12	3.7	23	7.1	55	17.1	9	2.8
2순위	4	1.2	16	5.0	21	6.5	39	12.1	29	9.0
3순위	16	5.0	10	3.1	22	6.8	47	14.6	41	12.7
4순위	12	3.7	24	7.5	20	6.2	48	14.9	66	20.5
5순위	13	4.0	27	8.4	34	10.6	59	18.3	71	22.0
6순위	21	6.5	43	13.4	74	23.0	42	13.0	44	13.7
7순위	54	16.8	91	28.3	59	18.3	19	5.9	28	8.7
8순위	101	31.4	80	24.8	45	14.0	9	2.8	24	7.5
9순위	90	28.0	19	5.9	24	7.5	4	1.2	10	3.1
10순위	2	0.6	-	-	-	-	-	-	-	-
무응답	-	-	-	-	-	-	-	-	-	-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8.4 (10순위중)		7.4 (9순위중)		6.8 (9순위중)		5.0 (9순위중)		5.4 (9순위중)	

〈표 3-13〉 계속

(단위: 명, %)

우선순위	직업		개인소득		가구소득		종교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87	27.0	51	15.8	35	10.9	44	13.7	1	0.3
2순위	83	25.8	78	24.2	48	14.9	9	2.8	-	-
3순위	61	18.9	66	20.5	49	15.2	16	5.0	-	-
4순위	33	10.2	47	14.6	57	17.7	12	3.7	-	-
5순위	24	7.5	34	10.6	41	12.7	17	5.3	-	-
6순위	18	5.6	23	7.1	33	10.2	22	6.8	-	-
7순위	9	2.8	12	3.7	25	7.8	23	7.1	-	-
8순위	4	1.2	9	2.8	25	7.8	25	7.8	-	-
9순위	3	0.9	2	0.6	9	2.8	154	47.8	-	-
10순위	-	-	-	-	-	-	-	-	2	0.6
무응답	-	-	-	-	-	-	-	-	319	99.1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3.1 (9순위중)		3.9 (9순위중)		5.1 (9순위중)		8.3 (9순위중)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의 9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영향정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Gender)’은 30.4%가 5점으로 선택하였고, 3~5점의 비율을 합하면 54.9%이며, 평균으로 볼 때 일곱 번째로 높아 상대적으로 이 지표를 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연령’은 22.4%가 5점으로 선택하였고, 4~6점의 비율을 합하면 54.4%에 달하여 영향정도가 대체로 중간정도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22.0%가 5점으로 선택하였고, 5~8점의 비율을 합하면 60.5%에 달하여 영향정도가 대체로 중간이상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22.7%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7~10점의 비율을 합하면 68.1%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영향정도 평균이 첫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종사상 지위’는 19.9%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7~9점의 비율을 합하면 61.2%에 달하

여 영향정도가 대체로 중간이상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23.6%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66.8%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소득’은 23.3%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60.0%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으며, 영향정도 평균이 첫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가구소득’은 23.6%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7~9점의 비율을 합하면 60.6%에 달하여 영향정도가 대체로 중간이상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높은 영향정도로 나타났다.

‘종교’는 16.5%가 5점으로 선택하였고, 1, 2, 8, 10점의 비율을 합하면 59.3%에 달하여 다른 지표에 그 비해서 그 분포가 산발적임을 볼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다섯 번째로 높아 상대적으로 이 지표를 덜 중요시 여기지만 개인간의 차이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14〉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단위: 명, %)

영향정도	성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10	3.1	3	0.9	2	0.6	1	0.3	-	-
1	23	7.1	10	3.1	7	2.2	3	0.9	3	0.9
2	33	10.2	22	6.8	18	5.6	5	1.6	5	1.6
3	41	12.7	33	10.2	28	8.7	6	1.9	14	4.3
4	38	11.8	43	13.4	27	8.4	17	5.3	21	6.5
5	98	30.4	72	22.4	71	22.0	38	11.8	50	15.5
6	33	10.2	60	18.6	42	13.0	33	10.2	58	18.0
7	23	7.1	32	9.9	37	11.5	37	11.5	53	16.5
8	16	5.0	32	9.9	45	14.0	73	22.7	64	19.9
9	2	0.6	10	3.1	19	5.9	54	16.8	44	13.7
10	5	1.6	5	1.6	26	8.1	55	17.1	10	3.1
무응답	-	-	-	-	-	-	-	-	-	-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6.1		6.6		7.1		8.5		7.5	

〈표 3-14〉 계속

(단위: 명, %)

영향정도	직업		개인소득		가구소득		종교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1	0.3	1	0.3	2	0.6	16	5.0	1	0.3
1	2	0.6	1	0.3	2	0.6	33	10.2	-	-
2	1	0.3	6	1.9	5	1.6	37	11.5	-	-
3	2	0.6	4	1.2	12	3.7	27	8.4	-	-
4	9	2.8	16	5.0	12	3.7	27	8.4	-	-
5	19	5.9	25	7.8	34	10.6	53	16.5	-	-
6	23	7.1	24	7.5	26	8.1	22	6.8	-	-
7	50	15.5	52	16.1	55	17.1	21	6.5	-	-
8	76	23.6	75	23.3	76	23.6	32	9.9	-	-
9	73	22.7	62	19.3	64	19.9	18	5.6	-	-
10	66	20.5	56	17.4	34	10.6	36	11.2	-	-
무응답	-	-	-	-	-	-	-	-	321	99.7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8.2		8.5		8.1		7.1			

사. 「경제적 안정」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경제적 안정」 영역의 3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은 49.1%가 3순위로 선택하였으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이 지표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은 43.8%가 2순위로 선택하였고, 1~2순위를 합하면 76.4%이며, 평균으로 볼 때는 공동으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은 40.7%가 1순위로 선택하였고, 1~2순위를 합하면 72.1%이며, 평균으로 볼 때는 공동으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나타나 「경제적 안정」 영역에서는 재산 충족감과 소유 유능감이 동일하게 우선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경제적 안정」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단위: 명, %)

우선순위	경제적 만족감		재산 충족감		구매 및 소유 유능감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84	26.1	105	32.6	131	40.7	1	0.3
2순위	80	24.8	141	43.8	101	31.4	-	-
3순위	158	49.1	76	23.6	89	27.6	-	-
4순위	-	-	-	-	1	0.3	1	0.3
무응답	-	-	-	-	-	-	320	99.4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2.2 (3순위중)		1.9 (3순위중)		1.9 (4순위중)			

「경제적 안정」 영역의 3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영향 정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은 23.9%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5, 7, 8점의 비율을 합하면 60.5%에 달하며,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낮으나 전체 개별지표들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이 영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 지표를 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은 26.1%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7~9점의 비율을 합하면 56.8%에 달하여 대체적으로 5~10순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영향정도 평균은 공동으로 가장 높아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은 22.7%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7~10점의 비율을 합하면 58.7%에 달하여 대체적으로 높은 영향정도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향정도 평균은 공동으로 가장 높아 「경제적 안정」 영역 안에서는 재산 충족감과 소유 유능감을 동시에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6〉 「경제적 안정」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단위: 명, %)

영향정도	경제적 만족감		재산 충족감		구매 및 소유 유능감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	-	1	0.3	-	-	-	-
1	1	0.3	2	0.6	1	0.3	1	0.3
2	7	2.2	2	0.6	2	0.6	-	-
3	6	1.9	4	1.2	11	3.4	-	-
4	6	1.9	11	3.4	7	2.2	-	-
5	66	20.5	39	12.1	30	9.3	-	-
6	37	11.5	37	11.5	36	11.2	-	-
7	52	16.1	49	15.2	64	19.9	1	0.3
8	77	23.9	84	26.1	73	22.7	-	-
9	42	13.0	50	15.5	46	14.3	-	-
10	28	8.7	43	13.4	52	16.1	-	-
무응답	-	-	-	-	-	-	320	99.4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7.0		7.4		7.4			

아. 「일」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일」 영역의 4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는 62.7%가 4순위로 선택하였고, 3~4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83.5%이며,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 정도’는 51.6%가 1순위로 선택하여 과반수가 넘었으며,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나타나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는 33.2%가 2순위로 선택하였고, 2~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2.7%이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는 33.2%가 3순위로 선택하였고, 2~3순위로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65.8%이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7> 「일」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단위: 명, %)

우선순위	일 선택자율성		희망 직업 일치		급여 및 근무환경		일 보람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24	7.5	166	51.6	60	18.6	72	22.4	1	0.3
2순위	28	8.7	83	25.8	107	33.2	105	32.6	1	0.3
3순위	67	20.8	53	16.5	95	29.5	107	33.2	-	-
4순위	202	62.7	19	5.9	59	18.3	36	11.2	-	-
5순위	1	.3	1	.3	1	.3	2	.6	1	0.3
무응답	-	-	-	-	-	-	-	-	319	99.1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3.4 (5순위중)		1.8 (5순위중)		2.5 (5순위중)		2.4 (5순위중)			

「일」 영역의 4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영향정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는 19.3%가 5점으로 선택하였고, 5~8점의 비율을 합하면 72.7%에 달하여 중간이하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이 가장 낮아 이 지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는 36.0%가 10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78.6%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는 28.0%가 7~9점으로 선택하였고, 7~9점의 비율을 합하면 70.2%에 달하여 영향정도가 대체로 중간 이상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는 27.0%가 9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71.1%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영향정도 평균이 첫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일」의 개별지표는 5점(보통) 이상의 비율이 모두 89.7~ 98.7%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8〉 「일」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단위: 명, %)

영향정도	일 선택 자율성		희망 직업 일치		급여 및 근무환경		일 보람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3	0.9	1	0.3	1	0.3	-	-	-	-
1	1	0.3	-	-	1	0.3	-	-	-	-
2	2	0.6	1	0.3	-	-	2	0.6	-	-
3	13	4.0	2	0.6	1	0.3	1	0.3	-	-
4	14	4.3	2	0.6	1	0.3	5	1.6	-	-
5	62	19.3	14	4.3	14	4.3	24	7.5	-	-
6	54	16.8	15	4.7	22	6.8	17	5.3	1	0.3
7	57	17.7	34	10.6	58	18.0	44	13.7	-	-
8	61	18.9	73	22.7	90	28.0	75	23.3	-	-
9	32	9.9	64	19.9	78	24.2	87	27.0	2	0.6
10	23	7.1	116	36.0	56	17.4	67	20.8	-	-
무응답	-	-	-	-	-	-	-	-	319	99.1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6.6		8.5		8.1		8.7			

자. 「건강」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건강」 영역의 3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은 52.5%가 1순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나타나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가족의 건강수준’은 51.2%가 2순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여부’는 78.6%가 3순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여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표 3-19〉 「건강」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단위: 명, %)

우선순위	자신건강		가족건강		규칙적 운동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169	52.5	130	40.4	25	7.8	1	0.3
2순위	112	34.8	165	51.2	42	13.0	-	-
3순위	40	12.4	25	7.8	253	78.6	1	0.3
4순위	1	0.3	2	0.6	2	0.6	2	0.6
무응답	-	-	-	-	-	-	318	98.8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
평균	1.6 (4순위중)		1.8 (4순위중)		2.7 (4순위중)			

「건강」 영역의 3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영향정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은 33.2%가 10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77.0%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으며, 영향정도 평균이 첫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가족의 건강수준’은 38.2%가 10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85.4%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여부’는 21.7%가 5점으로 선택하였고, 5, 7, 8점의 비율을 합하면 61.1%에 달하며, 이 영역 안에서는 평균이 가장 낮지만 전체 개별지표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그 중요성은 그리 낮지 않다고 사료된다.

〈표 3-20〉 「건강」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단위: 명, %)

영향정도	자신건강		가족건강		규칙적 운동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	-	1	0.3	3	0.9	-	-
1	-	-	-	-	-	-	-	-
2	1	0.3	-	-	2	0.6	-	-
3	4	1.2	1	0.3	11	3.4	-	-
4	3	0.9	2	0.6	18	5.6	-	-
5	19	5.9	13	4.0	70	21.7	-	-
6	14	4.3	6	1.9	32	9.9	-	-
7	33	10.2	24	7.5	58	18.0	2	0.6
8	62	19.3	65	20.2	69	21.4	1	0.3
9	79	24.5	87	27.0	35	10.9	-	-
10	107	33.2	123	38.2	24	7.5	1	0.3
무응답	-	-	-	-	-	-	318	98.8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322	100
평균	9.0		8.7		7.3			

차. 「주거」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주거」 영역의 2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80.4%가 1순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나타나 이 지표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80.7%가 2순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고, 평균으로 볼 때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나타나 이 지표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주거」 영역의 2개 개별지표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영향정도와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27.6%가 8점으로 선택하였고, 8~10점의 비율을 합하면 65.8%에 달하여 높은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영향정도 평균이 첫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23.6%가 7점으로 선택하였고, 6~8을 합하면 56.8%에 달하여 중간이상의 영향정도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평균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높아 이 지표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1〉 「주거」 영역의 개별지표 우선순위

(단위: 명, %)

우선순위	주거 소유 및 질 만족도		거주지역 만족도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259	80.4	60	18.6	-	-
2순위	62	19.3	260	80.7	-	-
3순위	1	0.3	2	0.6	1	0.3
무응답	-	-	-	-	321	99.7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1.2 (3순위중)		1.8 (3순위중)			

〈표 3-22〉 「주거」 영역의 개별지표 영향정도

(단위: 명, %)

영향정도	주거 소유 및 질 만족도		거주지역 만족도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0	1	0.3	1	0.3	-	-
1	1	0.3	1	0.3	-	-
2	6	1.9	7	2.2	-	-
3	2	0.6	8	2.5	-	-
4	9	2.8	10	3.1	-	-
5	27	8.4	49	15.2	-	-
6	17	5.3	41	12.7	-	-
7	47	14.6	76	23.6	-	-
8	89	27.6	66	20.5	1	0.3
9	56	17.4	39	12.1	-	-
10	67	20.8	24	7.5	-	-
무응답	-	-	-	-	321	99.7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균	7.8		6.9			

제 3 절 영역 및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 영역별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각 영역 및 개별지표의 우선순위, 영향정도가 성,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어떤 특성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순위와 평균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가. 「심리적 안정」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심리적 안정」 영역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심리적 안정」 영역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2.48로 남성 2.77보다 「심리적 안정」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23〉 「심리적 안정」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전체	43.8	18.6	9.6	8.4	7.8	7.2	2.8	0.9	0.9	100.0(322)	2.61
성											
남자	39.7	17.7	11.3	9.2	9.2	7.8	2.8	0.9	1.4	100.0(141)	2.77
여자	47.0	19.3	8.3	7.7	6.6	6.6	2.8	1.1	0.6	100.0(181)	2.48
연령											
20대	42.4	21.6	9.0	5.4	9.9	7.2	1.8	1.8	0.9	100.0(111)	2.62
30대	57.1	13.1	8.3	7.1	6.0	4.8	3.6	-	-	100.0(84)	2.20
40대	38.0	19.0	10.1	12.7	8.9	7.6	2.5	-	1.2	100.0(79)	2.76
50대 이상	33.3	20.8	12.5	10.4	4.2	10.4	4.2	2.1	2.1	100.0(48)	3.23
교육수준											
대졸 미만	34.1	18.1	11.4	11.4	11.4	2.3	4.5	4.5	2.3	100.0(54)	3.45
대졸	45.2	25.0	4.8	3.6	7.1	9.5	2.4	1.2	1.2	100.0(84)	2.54
대학원 이상	45.4	16.0	11.3	9.8	7.2	7.2	2.6	-	0.5	100.0(194)	2.86

주. 전체 11개 영역(기타 포함) 중에서 「심리적 안정」 영역은 10순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없음.

연령별로는 「심리적 안정」 영역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심리적 안정」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 별로는 「심리적 안정」 영역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심리적 안정」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나. 「가족·결혼」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가족·결혼」 영역을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결혼」 영역을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3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 3.21보다 여성이 3.54로 「가족·결혼」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24〉 「가족·결혼」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5.5	32.3	18.6	10.6	6.2	4.7	3.1	2.8	3.7	2.5	100.0(322)	3.40
성												
남자	15.6	34.8	17.7	11.3	5.7	5.7	2.9	3.5	1.4	1.4	100.0(141)	3.21
여자	15.5	30.5	19.3	9.9	6.6	3.9	3.3	2.2	5.5	3.3	100.0(181)	3.54
연령												
20대	12.7	23.4	17.1	16.2	9.0	3.6	3.6	5.4	3.6	5.4	100.0(111)	3.97
30대	17.9	36.9	21.4	2.4	6.0	4.8	2.3	2.3	4.8	1.2	100.0(84)	3.14
40대	16.5	39.2	19.0	11.4	-	6.3	3.8	1.3	2.5	-	100.0(79)	2.95
50대 이상	16.7	33.2	16.7	10.4	10.4	4.2	2.1	-	4.2	2.1	100.0(48)	3.25
교육수준												
대졸 미만	18.3	29.6	13.6	15.9	6.8	4.5	2.3	4.5	-	4.5	100.0(44)	3.41
대졸	17.9	23.7	17.9	10.7	9.4	2.4	3.6	4.8	4.8	4.8	100.0(84)	3.77
대학원 이상	13.9	36.6	20.2	9.3	4.6	5.7	3.1	1.5	4.1	1.0	100.0(194)	3.23

주: 전체 11개 영역(기타 포함) 중에서 「가족·결혼」 영역은 1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없음.

연령별로는 「가족·결혼」 영역을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50대 이상, 2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3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40대, 30대, 50대 이상, 20대의 순으로 「가족·결혼」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가족·결혼」 영역을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가족·결혼」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다. 「개인적 관계」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개인적 관계」 영역을 대체로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개인적 관계」 영역을 5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

녀 모두 4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4.69로 남성 5.06보다 「개인적 관계」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25〉 「개인적 관계」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전체	2.8	9.0	14.6	17.4	18.6	15.2	14.0	6.5	1.9	100.0(322)	4.85
성											
남자	2.1	5.0	12.1	19.9	21.2	15.6	16.3	5.7	2.1	100.0(141)	5.06
여자	3.3	12.1	16.6	15.5	16.6	14.9	12.1	7.2	1.7	100.0(181)	4.69
연령											
20대	5.4	9.9	17.1	17.1	11.7	19.9	11.7	6.3	0.9	100.0(111)	4.63
30대	-	13.1	14.3	14.3	20.2	11.9	15.5	9.5	1.2	100.0(84)	4.94
40대	2.5	6.3	15.2	15.2	22.8	16.5	13.9	3.8	3.8	100.0(79)	4.96
50대 이상	2.1	4.2	8.3	27.1	25.0	8.2	16.7	6.3	2.1	100.0(48)	5.04
교육수준											
대졸 미만	6.8	4.5	2.3	20.5	20.5	22.8	13.6	4.5	4.5	100.0(44)	5.16
대졸	3.6	13.1	20.2	16.6	11.9	14.3	14.3	4.8	1.2	100.0(84)	4.51
대학원 이상	1.5	8.3	14.9	17.1	21.2	13.9	13.9	7.7	1.5	100.0(194)	4.93

주: 전체 11개 영역(기타 포함) 중에서 「심리적 안정」 영역은 10순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없음.

연령별로는 「개인적 관계」 영역을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 40대가 가장 높았으나 20대는 3, 4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은 4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개인적 관계」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개인적 관계」 영역을 대졸 미만은 4, 5순위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졸은 4순위, 대학원 이상은 5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개인적 관계」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라. 「지역사회」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영역을 10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역사회」 영역을 10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9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8.51로 남성 8.60보다 「지역사회」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26〉 「지역사회」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0.3	0.9	0.9	1.9	4.3	4.0	9.0	14.3	23.9	40.1	0.3	100.0(322)	8.55
성													
남자	0.7	-	0.7	2.1	5.7	2.1	9.2	13.6	24.8	41.1	-	100.0(141)	8.60
여자	-	1.7	1.1	1.7	3.3	5.5	8.8	14.9	23.2	39.2	0.6	100.0(181)	8.51
연령													
20대	-	1.8	0.9	0.9	5.4	0.9	8.1	12.7	25.2	44.1	-	100.0(111)	8.68
30대	1.2	-	-	1.2	2.4	6.0	11.9	13.1	25.0	38.1	1.1	100.0(84)	8.61
40대	-	1.3	1.3	3.8	2.5	5.1	7.5	19.0	19.0	40.5	-	100.0(79)	8.46
50대 이상	-	-	2.1	2.1	8.3	6.3	8.3	12.5	27.1	33.3	-	100.0(48)	8.29
교육수준													
대졸 미만	-	2.3	2.3	-	2.3	6.8	11.4	15.9	22.7	36.3	-	100.0(44)	8.39
대졸	-	2.4	1.2	1.2	4.8	1.2	7.1	13.1	25.0	44.0	-	100.0(84)	8.64
대학이상	0.5	-	0.5	2.6	4.6	4.6	9.3	14.4	23.7	39.3	0.5	100.0(194)	8.55

연령별로는 「지역사회」 영역을 10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9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지역사회」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지역사회」 영역을 10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9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지역사회」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마. 「일상생활」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일상생활」 영역을 대체로 7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일상생활」 영역을 7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8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6.26으로 여성 6.34보다 「일상생활」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27〉 「일상생활」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9	3.4	7.1	8.7	13.0	13.4	22.0	18.6	9.6	3.1	100.0(322)	6.30
성												
남자	-	5.0	7.8	9.9	9.9	13.5	23.4	19.1	8.5	2.9	100.0(141)	6.26
여자	1.7	2.2	6.6	7.7	15.5	13.3	21.0	18.2	10.5	3.3	100.0(181)	6.34
연령												
20대	1.8	6.3	13.5	8.1	13.5	16.2	20.7	10.8	7.2	1.9	100.0(111)	5.67
30대	-	2.4	3.6	10.7	17.9	11.9	15.5	25.0	11.9	1.1	100.0(84)	6.46
40대	1.3	2.5	5.1	8.9	6.3	11.4	34.2	20.3	6.2	3.8	100.0(79)	6.53
50대 이상	-	-	2.1	6.3	14.6	12.5	16.7	22.8	16.7	8.3	100.0(48)	7.13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6.8	20.5	6.8	13.6	13.6	15.9	6.8	9.1	4.6	100.0(44)	5.48
대졸	1.2	4.8	10.7	6.0	13.1	17.9	21.4	11.9	9.5	3.5	100.0(84)	6.06
대학원 이상	0.5	2.1	2.6	10.3	12.9	11.3	23.7	24.2	9.8	2.6	100.0(194)	6.60

주: 전체 11개 영역(기타 포함) 중에서 「가족·결혼」 영역은 1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없음.

연령별로는 「일상생활」 영역을 7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 30대가 가장 높았고, 30대와 50대 이상은 8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일상생활」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일상생활」 영역을 7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미만이 가장 높았고, 대졸미만은 3순위로, 대학원 이상은 8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일상생활」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바.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을 대체로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을 9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10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7.26으로 남성 7.98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28〉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10		
전체	4.3	1.6	2.2	3.7	4.0	10.6	10.6	17.1	25.2	20.8	100.0(322)	7.57
성												
남자	1.4	0.7	2.8	2.8	3.5	8.5	9.2	19.9	27.7	23.5	100.0(141)	7.98
여자	6.6	2.2	1.7	4.4	4.4	12.2	11.6	14.9	23.2	18.8	100.0(181)	7.26
연령												
20대	9.0	1.8	2.7	3.6	1.8	4.5	11.7	19.9	27.0	18.0	100.0(111)	7.35
30대	1.2	-	-	3.6	4.8	14.3	11.9	19.0	26.2	19.0	100.0(84)	7.87
40대	2.5	2.5	1.3	5.1	2.5	10.1	8.9	15.2	24.1	27.8	100.0(79)	7.84
50대 이상	2.1	2.1	6.3	2.1	10.4	18.8	8.3	10.3	20.8	18.8	100.0(48)	7.15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6.8	6.8	2.3	9.1	6.8	6.8	13.6	27.3	18.2	100.0(44)	7.16
대졸	10.7	1.2	3.6	3.6	2.4	7.1	11.9	23.8	21.4	14.3	100.0(84)	7.02
대학원 이상	2.1	0.5	0.5	4.1	3.6	12.9	10.9	14.9	26.3	24.2	100.0(194)	7.91

주: 전체 11개 영역(기타 포함) 중에서 「가족·결혼」 영역은 1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없음.

연령별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을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50

대 이상, 20대, 40대, 30대의 순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을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미만,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8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대졸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사. 「경제적 안정」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성, 연령, 교육수준별에서 「경제적 안정」 영역을 대체로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경제적 안정」 영역을 3, 5, 6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여성은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4.77로 남성 4.82보다 「경제적 안정」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29〉 「경제적 안정」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10		
전체	9.3	9.3	13.7	15.8	13.7	14.0	9.0	9.6	3.1	2.5	100.0(322)	4.77
성												
남자	12.1	7.7	13.5	12.1	13.5	13.5	10.6	11.3	4.3	1.4	100.0(141)	4.82
여자	7.2	10.5	13.8	18.8	13.8	14.4	7.7	8.3	2.2	3.3	100.0(181)	4.77
연령												
20대	11.7	13.5	9.9	18.0	12.6	9.9	9.9	11.7	0.9	1.9	100.0(111)	4.52
30대	6.0	6.0	16.7	22.6	11.9	16.7	9.5	8.3	2.3	-	100.0(84)	4.73
40대	7.6	3.8	16.5	12.7	19.0	13.8	7.6	10.1	7.6	1.3	100.0(79)	5.09
50대 이상	12.5	14.6	12.5	4.2	10.4	18.7	8.3	6.3	2.1	10.4	100.0(48)	4.92
교육수준												
대졸 미만	20.5	13.6	9.1	18.2	13.6	9.1	6.8	6.8	2.3	-	100.0(44)	3.93
대졸	8.3	13.1	14.3	20.2	10.7	11.9	7.2	9.5	2.4	2.4	100.0(84)	4.55
대학원 이상	7.2	6.7	14.4	13.4	14.9	16.0	10.3	10.3	3.7	3.1	100.0(194)	5.06

주: 전체 11개 영역(기타 포함) 중에서 「가족·결혼」 영역은 1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없음.

연령별로는 「경제적 안정」 영역을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 30대가 가장 높았고, 5순위로는 40대가, 2순위로는 50대가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경제적 안정」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경제적 안정」 영역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미만이 가장 높았고,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대졸이, 6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경제적 안정」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아. 「일」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성, 연령, 교육수준별에서 「일」 영역을 대체로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남성은 「일」 영역을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4.94로 남성 4.95보다 「일」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다.

〈표 3-30〉 「일」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10		
전체	5.3	9.3	15.2	17.1	14.9	13.0	8.7	8.7	4.0	3.7	100.0(322)	4.95
성												
남자	7.8	8.5	13.5	13.5	18.3	14.2	8.5	5.7	5.7	4.3	100.0(141)	4.95
여자	3.3	9.9	16.6	19.9	12.2	12.2	8.8	11.0	2.8	3.3	100.0(181)	4.94
연령												
20대	5.4	8.2	12.6	12.6	17.1	15.3	13.5	7.2	4.5	3.6	100.0(111)	5.16
30대	-	6.0	19.0	26.2	13.1	14.3	8.3	4.7	6.0	2.4	100.0(84)	4.99
40대	10.1	11.4	16.5	15.2	19.0	10.1	3.8	10.1	1.3	2.5	100.0(79)	4.43
50대 이상	6.3	14.6	12.5	14.5	6.3	10.4	6.3	16.6	4.2	8.3	100.0(48)	5.23
교육수준												
대졸 미만	4.5	2.4	9.1	6.8	9.1	13.6	15.9	18.2	4.5	15.9	100.0(44)	6.48
대졸	2.4	11.9	15.5	13.1	17.8	13.1	10.7	7.1	4.8	3.6	100.0(84)	5.04
대학원 이상	6.8	9.8	16.5	21.1	14.9	12.9	6.2	7.2	3.6	1.0	100.0(194)	4.56

주: 전체 11개 영역(기타 포함) 중에서 「가족·결혼」 영역은 1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없음.

연령별로는 「일」 영역을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4순위는 30대가, 3순위는 40대가, 8순위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40대, 30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일」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일」 영역을 8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미만이 가장 높았고, 5순위로는 대졸이, 4순위로는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일」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자. 「건강」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건강」 영역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0대만 예외적으로 2순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건강」 영역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3.40으로 여성 3.89보다 「건강」 영역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표 3-31〉 「건강」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0.2	18.3	17.1	11.2	11.2	7.1	7.8	2.8	4.0	0.3	100.0(322)	3.68
성												
남자	22.0	20.6	19.1	12.8	7.1	5.7	7.1	1.3	4.3	-	100.0(141)	3.40
여자	18.8	16.6	15.5	9.9	14.4	8.3	8.3	3.8	3.8	0.6	100.0(181)	3.89
연령												
20대	18.9	17.1	14.4	11.7	10.8	9.9	9.0	4.5	3.7	-	100.0(111)	3.88
30대	15.5	22.6	15.5	10.7	11.9	8.3	8.3	2.4	4.8	-	100.0(84)	3.80
40대	19.0	20.3	15.2	13.9	15.2	3.8	5.1	1.2	5.1	1.2	100.0(79)	3.63
50대 이상	33.2	10.4	29.2	6.3	4.2	4.2	8.3	2.1	2.1	-	100.0(48)	3.06
교육수준												
대졸 미만	25.1	18.2	18.2	6.8	9.1	4.5	6.8	4.5	6.8	-	100.0(44)	3.61
대졸	16.7	15.5	14.3	15.5	10.7	10.7	10.7	4.8	1.1	-	100.0(84)	3.94
대학원 이상	20.6	19.6	18.0	10.3	11.9	6.2	6.7	1.6	4.6	0.5	100.0(194)	3.58

주: 전체 11개 영역(기타 포함) 중에서 「가족·결혼」 영역은 1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없음.

연령별로는 「건강」 영역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20대의 순이었다. 반면 30대의 경우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건강」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건강」 영역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건강」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차. 「주거」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성, 연령, 교육수준별에서 「주거」 영역을 대체로 10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주거」 영역을 10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75로 여성 7.94보다 「주거」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32〉 「주거」 영역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	0.6	2.5	4.7	5.3	10.2	13.0	18.0	22.0	23.1	0.6	100.0(322)	7.86
성													
남자	-	-	3.5	5.7	5.7	12.8	10.6	18.4	18.4	24.2	0.7	100.0(141)	7.75
여자	-	1.1	1.7	3.9	5.0	8.3	14.9	17.7	24.8	22.0	0.6	100.0(181)	7.94
연령													
20대	-	-	4.5	4.5	6.3	10.8	9.0	19.8	24.4	20.7	-	100.0(111)	7.76
30대	-	-	1.2	2.4	6.0	7.1	13.1	15.5	17.9	35.6	1.2	100.0(84)	8.32
40대	-	1.3	-	1.3	3.8	15.2	15.2	17.7	26.5	17.7	1.3	100.0(79)	7.96
50대 이상	-	2.1	4.2	14.6	4.2	6.3	18.7	18.7	16.6	14.6	-	100.0(48)	7.10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6.8	9.1	2.3	13.6	13.6	20.5	18.2	15.9	-	100.0(44)	7.32
대졸	-	2.4	3.6	6.0	7.1	8.3	8.3	16.7	25.0	21.4	1.2	100.0(84)	7.69
대학원 이상	-	-	1.0	3.1	5.2	10.3	14.9	18.0	21.6	25.4	0.5	100.0(194)	8.05

연령별로는 「주거」 영역을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 40대가 가장 높았고, 10순위로는 30대가, 7, 8 순위로는 동일하게 50대 이상이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20대, 40대, 30대의 순으로 「주거」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주거」 영역을 8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미만이 가장 높았고, 9순위로 대졸이, 10순위로 대학원 이상이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주거」 영역을 우선시 하고 있었다.

2. 영역별 개별지표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가. 「심리적 안정」 영역 개별지표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별에서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를 대체로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2.21로 남성 2.55보다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33〉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전체	33.5	26.1	19.9	13.0	6.5	0.9	100.0(322)	2.36
성								
남자	29.1	24.1	21.3	14.9	9.9	0.7	100.0(141)	2.55
여자	37.0	27.6	18.8	11.6	3.9	1.1	100.0(181)	2.21
연령								
20대	26.1	30.6	20.7	11.7	9.0	1.8	100.0(111)	2.52
30대	39.3	26.2	15.5	13.1	6.0	-	100.0(84)	2.20
40대	41.8	17.7	25.3	12.7	2.5	-	100.0(79)	2.16
50대 이상	27.1	29.2	16.7	16.7	8.3	2.1	100.0(48)	2.56
교육수준								
대졸 미만	27.3	22.7	15.9	15.9	18.2	-	100.0(44)	2.75
대졸	29.8	32.1	21.4	9.5	4.8	2.4	100.0(84)	2.35
대학원 이상	36.6	24.2	20.1	13.9	4.6	0.5	100.0(194)	2.27

연령별로는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 40대가 가장 높았고, 2순위로는 20대, 50대 이상이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40대, 30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2순위로는 대졸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별에서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8.15로 남성 7.80보다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4〉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0.3	1.2	1.6	9.0	8.4	10.6	26.1	17.1	25.8	100.0(322)	8.00	
성													
남자	-	-	-	1.4	1.4	10.6	12.1	10.6	26.2	15.6	22.0	100.0(141)	7.80
여자	-	-	0.6	1.1	1.7	7.7	5.5	10.5	26.0	18.2	28.7	100.0(181)	8.15
연령													
20대	-	-	0.9	0.9	0.9	8.1	9.9	9.9	28.8	18.9	21.6	100.0(111)	7.95
30대	-	-	-	3.6	1.2	6.0	8.3	8.3	29.8	16.7	26.2	100.0(84)	8.04
40대	-	-	-	-	1.3	8.9	7.6	13.9	22.8	13.9	31.6	100.0(79)	8.16
50대 이상	-	-	-	-	4.2	16.7	6.3	10.4	18.8	18.8	25.0	100.0(48)	7.79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	2.3	6.8	9.1	15.9	9.1	18.2	20.5	18.2	100.0(44)	7.50
대졸	-	-	1.2	-	1.2	8.3	8.3	10.7	26.2	20.2	23.8	100.0(84)	8.04
대학원 이상	-	-	-	1.5	0.5	9.3	6.7	10.8	27.8	14.9	28.4	100.0(194)	8.10

연령별로는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40대의 순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40대, 30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영향정도 9로 대졸미만이, 영향정도 10으로 대학원 이상이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를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50대 이상, 대졸 미만은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를 5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4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4.21로 여성 4.32보다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를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20대의 순이었다. 반면 50대 이상은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를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과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35〉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전체	2.2	6.2	14.9	26.7	38.8	11.2	100.0(322)	4.27
성								
남자	3.5	5.0	18.4	24.8	36.2	12.1	100.0(141)	4.21
여자	1.1	7.2	12.2	28.2	40.9	10.5	100.0(181)	4.32
연령								
20대	2.7	7.2	15.3	23.4	37.8	13.5	100.0(111)	4.27
30대	1.2	-	16.7	20.2	45.2	16.7	100.0(84)	4.58
40대	2.5	10.1	11.4	32.9	39.2	3.8	100.0(79)	4.08
50대 이상	2.1	8.3	16.7	35.4	29.2	8.3	100.0(48)	4.06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6.8	15.9	36.4	22.7	15.9	100.0(44)	4.18
대졸	2.4	6.0	15.5	25.0	39.3	11.9	100.0(84)	4.29
대학원 이상	2.1	6.2	14.4	25.3	42.3	9.8	100.0(194)	4.29

성, 연령, 교육수준별에서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를 영향정도 6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6.48로 남성 6.46보다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를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영향정도 5로 30대, 50대 이상, 영향정도 6으로 40대가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를 영향

정도 5, 7,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동일하게 높았고, 영향정도 6으로 대졸이, 영향정도 7로 대학원 이상이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6〉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	0.6	2.5	6.5	21.4	20.2	20.8	16.5	8.1	3.4	100.0(322)	6.47
성													
남자	-	-	0.7	4.3	4.3	20.6	22.0	19.9	17.0	8.5	2.8	100.0(141)	6.46
여자	-	-	0.6	1.1	8.3	22.1	18.8	21.5	16.0	7.7	3.9	100.0(181)	6.48
연령													
20대	-	-	0.9	1.8	4.5	16.2	25.2	26.1	18.0	7.2	-	100.0(111)	6.50
30대	-	-	1.2	2.4	11.9	27.4	14.3	16.7	17.9	4.8	3.6	100.0(84)	6.18
40대	-	-	-	5.1	3.8	21.5	24.1	15.2	11.4	11.4	7.6	100.0(79)	6.58
50대 이상	-	-	-	-	6.3	22.9	12.5	25.0	18.8	10.4	4.2	100.0(48)	6.75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2.3	2.3	2.3	27.3	9.1	27.3	27.3	2.3	-	100.0(44)	6.41
대졸	-	-	-	2.4	4.8	17.9	29.8	19.0	13.1	10.7	2.4	100.0(84)	6.52
대학원 이상	-	-	0.5	2.6	8.2	21.6	18.6	20.1	15.5	8.2	4.6	100.0(194)	6.46

3)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를 대체로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2.72로 남성 2.83보다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순이었다. 반면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 50대 이상 순으로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40대, 30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 수준별로는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었으며,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대졸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37〉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전체	23.3	25.2	18.0	19.9	12.4	1.2	100.0(322)	2.77
성								
남자	24.1	24.1	12.8	22.7	16.3	-	100.0(141)	2.83
여자	22.7	26.0	22.1	17.7	9.4	2.2	100.0(181)	2.72
연령								
20대	27.0	19.8	18.0	18.9	14.4	1.8	100.0(111)	2.79
30대	20.2	28.6	17.9	25.0	7.1	1.2	100.0(84)	2.74
40대	20.3	31.6	19.0	16.5	11.4	1.3	100.0(79)	2.71
50대 이상	25.0	20.8	16.7	18.8	18.8	-	100.0(48)	2.85
교육수준								
대졸 미만	20.5	22.7	22.7	18.2	15.9	-	100.0(44)	2.86
대졸	26.2	22.6	17.9	17.9	11.9	3.6	100.0(84)	2.77
대학원 이상	22.7	26.8	17.0	21.1	11.9	0.5	100.0(194)	2.74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7.91로 남성 7.78보다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

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20대의 순이었다. 반면 영향 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40대, 20대와 3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미만이 가장 높았고,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은 대학원 이상, 대졸 순으로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8〉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0.3	-	1.2	2.5	9.3	8.1	14.9	23.3	18.0	22.4	100.0(322)	7.85
성													
남자	-	-	-	0.7	3.5	9.9	7.1	18.4	24.1	14.2	22.0	100.0(141)	7.78
여자	-	0.6	-	1.7	1.7	8.8	8.8	12.2	22.7	21.0	22.7	100.0(181)	7.91
연령													
20대	-	0.9	-	0.9	3.6	6.3	11.7	13.5	20.7	20.7	21.6	100.0(111)	7.83
30대	-	-	-	-	2.4	11.9	6.0	21.4	22.6	9.5	26.2	100.0(84)	7.83
40대	-	-	-	1.3	2.5	13.9	2.5	10.1	26.6	19.0	24.1	100.0(79)	7.94
50대 이상	-	-	-	4.2	-	4.2	12.5	14.6	25.0	25.0	14.6	100.0(48)	7.81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	4.5	2.3	6.8	6.8	11.4	29.5	22.7	15.9	100.0(44)	7.77
대졸	-	1.2	-	2.4	2.4	6.0	15.5	13.1	19.0	19.0	21.4	100.0(84)	7.70
대학원 이상	-	-	-	-	2.6	11.3	5.2	16.5	23.7	16.5	24.2	100.0(194)	7.94

4)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 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6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6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5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5.46으로 남성 5.55보다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6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50대 이상, 2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5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20대, 50대 이상, 30대, 40대의 순으로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6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5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39〉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전체	1.2	2.5	3.4	5.6	13.0	73.6	0.6	100.0(322)	5.50
성									
남자	1.4	1.4	2.8	5.0	13.5	75.9	-	100.0(141)	5.55
여자	1.1	3.3	3.9	6.1	12.7	71.8	1.1	100.0(181)	5.46
연령									
20대	2.7	1.8	3.6%	9.0	13.5	69.4	-	100.0(111)	5.37
30대	1.2	2.4	1.2	3.6	15.5	75.0	1.2	100.0(84)	5.60
40대	-	2.5	3.8	3.8	10.1	79.7	-	100.0(79)	5.61
50대 이상	-	4.2	6.3	4.2	12.5	70.8	2.1	100.0(48)	5.46
교육수준									
대졸 미만	6.8	4.5	2.3	11.4	15.9	59.1	-	100.0(44)	5.02
대졸	-	4.8	4.8	7.1	11.9	70.2	1.2	100.0(84)	5.42
대학원 이상	.5	1.0	3.1	3.6	12.9	78.4	0.5	100.0(194)	5.64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4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5.34로 남성 4.62보다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50대 이상, 2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

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40〉 자신의 유·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6	3.7	7.1	13.4	12.7	27.0	10.2	10.6	10.9	1.6	2.2	100.0(322)	5.02
성													
남자	0.7	4.3	9.2	17.0	13.5	28.4	9.9	7.8	6.4	1.4	1.4	100.0(141)	4.62
여자	0.6	3.3	5.5	10.5	12.2	26.0	10.5	12.7	14.4	1.7	2.8	100.0(181)	5.34
연령													
20대	-	0.9	6.3	13.5	10.8	25.2	13.5	14.4	9.9	1.8	3.6	100.0(111)	5.37
30대	-	4.8	7.1	15.5	11.9	28.6	9.5	10.7	8.3	2.4	1.2	100.0(84)	4.88
40대	2.5	6.3	8.9	16.5	15.2	27.8	7.6	3.8	10.1	-	1.3	100.0(79)	4.39
50대 이상	-	4.2	6.3	4.2	14.6	27.1	8.3	12.5	18.8	2.1	2.1	100.0(48)	5.50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6.8	9.1	15.9	25.0	13.6	13.6	11.4	-	4.5	100.0(44)	5.43
대졸	-	3.6	6.0	10.7	9.5	26.2	10.7	10.7	15.5	3.6	3.6	100.0(84)	5.48
대학원 이상	1.0	4.6	7.7	15.5	13.4	27.8	9.3	9.8	8.8	1.0	1.0	100.0(194)	4.76

5)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30대는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를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성은 2순위가, 여성은 4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2.91로 여성 3.25보다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40대의 순이었다. 반면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30대, 50대 이상, 20대, 40대의 순으로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41〉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전체	14.0	22.0	26.7	19.6	12.7	4.7	0.3	100.0(322)	3.10
성									
남자	14.2	27.0	30.5	14.9	9.2	4.3	-	100.0(141)	2.91
여자	13.8	18.2	23.8	23.2	15.5	5.0	0.6	100.0(181)	3.25
연령									
20대	13.5	20.7	28.8	21.6	11.7	3.6	-	100.0(111)	3.08
30대	20.2	23.8	20.2	20.2	10.7	4.8	-	100.0(84)	2.92
40대	11.4	17.7	27.8	19.0	16.5	6.3	1.3	100.0(79)	3.35
50대 이상	8.3	29.2	31.3	14.6	12.5	4.2	-	100.0(48)	3.06
교육수준									
대졸 미만	15.9	29.5	29.5	6.8	11.4	6.8	-	100.0(44)	2.89
대졸	10.7	17.9	27.4	26.2	15.5	2.4	-	100.0(84)	3.25
대학원 이상	14.9	22.2	25.8	19.6	11.9	5.2	0.5	100.0(194)	3.09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성이 영향정도 9, 여성이 영향정도 7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62로 여성 7.27보다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42〉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	0.9	1.2	3.4	9.6	12.7	17.7	25.8	17.7	10.9	100.0(322)	7.42
성													
남자	-	-	0.7	0.7	2.8	5.7	14.9	18.4	24.1	19.1	13.5	100.0(141)	7.62
여자	-	-	1.1	1.7	3.9	12.7	11.0	17.1	27.1	16.6	8.8	100.0(181)	7.27
연령													
20대	-	-	-	-	1.8	8.1	11.7	20.7	29.7	17.1	10.8	100.0(111)	7.63
30대	-	-	-	1.2	3.6	11.9	10.7	11.9	26.2	20.2	14.3	100.0(84)	7.60
40대	-	-	1.3	3.8	6.3	8.9	13.9	22.8	22.8	10.1	10.1	100.0(79)	7.01
50대 이상	-	-	4.2	-	2.1	10.4	16.7	12.5	20.8	27.1	6.3	100.0(48)	7.29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2.3	4.5	-	11.4	15.9	6.8	22.7	22.7	13.6	100.0(44)	7.41
대졸	-	-	1.2	1.2	2.4	11.9	11.9	21.4	28.6	14.3	7.1	100.0(84)	7.25
대학원 이상	-	-	0.5	0.5	4.6	8.2	12.4	18.6	25.3	18.0	11.9	100.0(194)	7.49

6)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대체로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2.87로 여성 2.97보다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의 순이었다. 반면 3순위로는 30대가, 2순위로는 40대가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50대 이상, 30대, 40대의 순으로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43〉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전체	25.8	20.8	17.4	14.0	14.9	7.1	100.0(322)	2.93
성								
남자	27.0	21.3	15.6	16.3	13.5	6.4	100.0(141)	2.87
여자	24.9	20.4	18.8	12.2	16.0	7.7	100.0(181)	2.97
연령								
20대	29.7	21.6	14.4	13.5	11.7	9.0	100.0(111)	2.83
30대	17.9	20.2	27.4	17.9	14.3	2.4	100.0(84)	2.98
40대	22.8	24.1	12.7	13.9	19.0	7.6	100.0(79)	3.05
50대 이상	35.4	14.6	14.6	8.3	16.7	10.4	100.0(48)	2.88
교육수준								
대졸 미만	31.8	18.2	11.4	9.1	13.6	15.9	100.0(44)	3.02
대졸	28.6	23.8	14.3	11.9	14.3	7.1	100.0(84)	2.81
대학원 이상	25.8	20.8	17.4	14.0	14.9	7.1	100.0(194)	2.96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9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70으로 여성 7.57보다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의 순이었다. 반면, 영향정도 7로 40대가, 영향정도 10으로 50대 이상이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과 대졸이 동일하게 높았으며,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었

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44〉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6	1.9	1.2	1.9	9.9	9.9	13.7	23.3	16.5	20.8	100.0(322)	7.63
성													
남자	0.7	0.7	2.1	0.7	2.1	7.1	9.9	14.9	22.0	17.7	22.0	100.0(141)	7.70
여자	-	0.6	1.7	1.7	1.7	12.2	9.9	12.7	24.3	15.5	19.9	100.0(181)	7.57
연령													
20대	-	1.8	0.9	2.7	0.9	5.4	9.0	9.9	26.1	20.7	22.5	100.0(111)	7.86
30대	-	-	1.2	-	1.2	8.3	11.9	10.7	33.3	17.9	15.5	100.0(84)	7.77
40대	1.3	-	3.8	-	2.5	16.5	7.6	19.0	15.2	16.5	17.7	100.0(79)	7.25
50대 이상	-	-	2.1	2.1	4.2	12.5	12.5	18.8	12.5	4.2	31.3	100.0(48)	7.46
교육수준													
대졸 미만	-	2.3	4.5	9.1	-	6.8	4.5	9.1	25.0	18.2	20.5	100.0(44)	7.32
대졸	-	1.2	1.2	-	3.6	10.7	8.3	9.5	25.0	20.2	20.2	100.0(84)	7.73
대학원 이상	0.5	-	1.5	-	1.5	10.3	11.9	16.5	22.2	14.4	21.1	100.0(194)	7.66

나. 「가족·결혼」 영역 개별지표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를 4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3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3.51로 남성 3.64보다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

율성 보장'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 2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30대, 2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결혼을 할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45〉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전체	6.2	7.1	10.9	75.5	0.3	100.0(322)	3.57
성							
남자	6.4	5.0	7.1	81.6	-	100.0(141)	3.64
여자	6.1	8.8	13.8	70.7	0.6	100.0(181)	3.51
연령							
20대	6.3	8.1	19.8	65.8	-	100.0(111)	3.45
30대	11.9	7.1	7.1	73.8	-	100.0(84)	3.43
40대	1.3	5.1	7.6	84.8	1.3	100.0(79)	3.80
50대 이상	4.2	8.3	2.1	85.4	-	100.0(48)	3.69
교육수준							
대졸 미만	9.1	9.1	11.4	70.5	-	100.0(44)	3.43
대졸	7.1	6.0	21.4	65.5	-	100.0(84)	3.45
대학원 이상	5.2	7.2	6.2	80.9	0.5	100.0(194)	3.64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비슷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7

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5.33으로 여성 5.08보다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20대, 4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영향정도 6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20대, 50대 이상, 30대, 40대의 순으로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영향정도 6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46〉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3.7	3.7	6.8	9.9	6.2	25.5	13.4	16.5	7.5	3.7	3.1	100.0(322)	5.19
성													
남자	1.4	4.3	7.1	9.9	5.0	25.5	15.6	17.7	5.0	5.0	3.5	100.0(141)	5.33
여자	5.5	3.3	6.6	9.9	7.2	25.4	11.6	15.5	9.4	2.8	2.8	100.0(181)	5.08
연령													
20대	0.9	3.6	7.2	8.1	6.3	25.2	16.2	16.2	8.1	5.4	2.7	100.0(111)	5.45
30대	4.8	3.6	7.1	9.5	4.8	31.0	8.3	14.3	7.1	4.8	4.8	100.0(84)	5.18
40대	6.3	6.3	6.3	13.9	7.6	19.0	12.7	17.7	6.3	2.5	1.3	100.0(79)	4.72
50대 이상	4.2	-	6.3	8.3	6.3	27.1	16.7	18.8	8.3	-	4.2	100.0(48)	5.37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2.3	9.1	9.1	4.5	25.0	15.9	11.4	9.1	6.8	4.5	100.0(44)	5.45
대졸	4.8	2.4	6.0	10.7	6.0	26.2	15.5	13.1	7.1	6.0	2.4	100.0(84)	5.20
대학원 이상	3.6	4.6	6.7	9.8	6.7	25.3	11.9	19.1	7.2	2.1	3.1	100.0(194)	5.12

2)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1.51로 남성 1.52와 유사하게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20대, 3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40대, 50대 이상, 20대, 30대의 순으로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47〉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62.7	24.2	11.8	1.2	100.0(322)	1.52
성						
남자	60.3	27.0	12.8	-	100.0(141)	1.52
여자	64.6	22.1	11.0	2.2	100.0(181)	1.51
연령						
20대	61.3	29.7	8.1	.9	100.0(111)	1.49
30대	56.0	22.6	20.2	1.2	100.0(84)	1.67
40대	70.9	17.7	8.9	2.5	100.0(79)	1.43
50대 이상	64.6	25.0	10.4	-	100.0(48)	1.46
교육수준						
대졸 미만	56.8	36.4	4.5	2.3	100.0(44)	1.52
대졸	64.3	25.0	10.7	-	100.0(84)	1.46
대학원 이상	63.4	21.1	13.9	1.5	100.0(194)	1.54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9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8.82로 여성 8.57보다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40대, 30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48〉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3	0.3	0.3	-	4.0	3.7	5.3	22.7	25.2	37.9	100.0(322)	8.68
성													
남자	-	0.7	-	-	-	1.4	4.3	7.8	21.3	22.0	42.6	100.0(141)	8.82
여자	0.6	-	0.6	0.6	-	6.1	3.3	3.3	23.8	27.6	34.3	100.0(181)	8.57
연령													
20대	-	0.9	-	-	-	4.5	6.3	5.4	18.9	28.8	35.1	100.0(111)	8.61
30대	-	-	1.2	-	-	6.0	3.6	6.0	22.6	21.4	39.9	100.0(84)	8.62
40대	-	-	-	1.3	-	2.5	1.3	3.8	25.3	22.8	43.0	100.0(79)	8.89
50대 이상	2.1	-	-	-	-	2.1	2.1	6.3	27.1	27.1	33.3	100.0(48)	8.60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2.3	-	2.3	-	4.5	4.5	15.9	13.6	22.7	31.8	100.0(44)	8.02
대졸	-	-	-	-	-	3.6	6.0	3.6	19.0	34.5	33.3	100.0(84)	8.75
대학원 이상	-	-	0.5	-	-	4.1	2.6	3.6	26.3	21.6	41.2	100.0(194)	8.80

3)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 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정보다는 여성이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3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2.07로 여성 2.13보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 별로는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선택

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3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으나 20대만 예외적으로 1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49〉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23.6	45.3	28.0	3.1	100.0(322)	2.11
성						
남자	27.0	41.8	28.4	2.8	100.0(141)	2.07
여자	21.0	48.1	27.6	3.3	100.0(181)	2.13
연령						
20대	29.7	56.8	12.6	0.9	100.0(111)	1.85
30대	23.8	41.7	32.1	2.4	100.0(84)	2.13
40대	13.9	38.0	43.0	5.1	100.0(79)	2.39
50대 이상	25.0	37.5	31.3	6.3	100.0(48)	2.19
교육수준						
대졸 미만	31.8	45.5	18.2	4.5	100.0(44)	1.95
대졸	28.6	57.1	14.3	-	100.0(84)	1.86
대학원 이상	19.6	40.2	36.1	4.1	100.0(194)	2.25

교육수준별로는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1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으나 예외적으로 대학원 이상은 3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여성, 30대, 대졸은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9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여성은 영향정도 10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8.23로 여성 7.91보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50〉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9	0.3	0.6	0.9	6.2	8.4	12.7	20.8	26.4	22.4	100.0(322)	8.05
성													
남자	-	0.7	-	0.7	-	5.7	7.1	13.5	17.7	32.6	22.0	100.0(141)	8.23
여자	0.6	1.1	0.6	0.6	1.7	6.6	9.4	12.2	23.2	21.5	22.7	100.0(181)	7.91
연령													
20대	0.9	1.8	-	0.9	0.9	4.5	6.3	9.9	19.8	31.5	23.4	100.0(111)	8.14
30대	-	-	-	-	1.2	9.5	8.3	9.5	25.0	21.4	25.0	100.0(84)	8.12
40대	-	1.3	-	-	1.3	6.3	10.1	20.3	16.5	26.6	17.7	100.0(79)	7.89
50대 이상	-	-	2.1	2.1	-	4.2	10.4	12.5	22.9	22.9	22.9	100.0(48)	8.00
교육수준													
대졸 미만	-	6.8	2.3	-	-	11.4	9.1	4.5	9.1	36.4	20.5	100.0(44)	7.59
대졸	1.2	-	-	1.2	1.2	1.2	8.3	11.9	27.4	20.2	27.4	100.0(84)	8.23
대학원 이상	-	-	-	0.5	1.0	7.2	8.2	14.9	20.6	26.8	20.6	100.0(194)	8.08

연령별로는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으나 영향정도 10순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

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 별로는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은 대졸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성은 2순위, 여성은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2.71로 여성 2.82보다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51〉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전체	9.6	23.3	47.8	18.9	0.3	100.0(322)	2.77
성							
남자	9.2	26.2	49.6	14.2	0.7	100.0(141)	2.71
여자	9.9	21.0	46.4	22.7	-	100.0(181)	2.82
연령							
20대	2.7	8.1	57.7	31.5	-	100.0(111)	3.18
30대	8.3	28.6	40.5	21.4	1.2	100.0(84)	2.79
40대	19.0	36.7	38.0	6.3	-	100.0(79)	2.32
50대 이상	12.5	27.1	54.2	6.3	-	100.0(48)	2.54
교육수준							
대졸 미만	4.5	11.4	63.6	20.5	-	100.0(44)	3.00
대졸	7.1	9.5	51.2	32.1	-	100.0(84)	3.08
대학원 이상	11.9	32.0	42.8	12.9	0.5	100.0(194)	2.58

연령별로는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30대, 4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40대, 50대 이상, 30대, 20대의 순으로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9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53으로 여성 7.36보다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52〉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1.9	1.2	2.5	1.6	2.2	7.1	7.8	14.6	25.2	21.7	14.3	100.0(322)	7.44
성													
남자	0.7	1.4	2.1	0.7	2.8	7.8	11.3	8.5	27.7	22.7	14.2	100.0(141)	7.53
여자	2.8	1.1	2.8	2.2	1.7	6.6	5.0	19.3	23.2	21.0	14.4	100.0(181)	7.36
연령													
20대	1.8	2.7	7.2	2.7	4.5	10.8	11.7	15.3	21.6	15.3	6.3	100.0(111)	6.49
30대	2.4	1.2	-	1.2	2.4	9.5	6.0	11.9	23.8	22.6	19.0	100.0(84)	7.65
40대	1.3	-	-	-	-	2.5	6.3	8.9	32.9	29.1	19.0	100.0(79)	8.28
50대 이상	2.1	-	-	2.1	-	2.1	4.2	27.1	22.9	22.9	16.7	100.0(48)	7.88
교육수준													
대졸 미만	-	4.5	9.1	2.3	6.8	9.1	9.1	9.1	29.5	13.6	6.8	100.0(44)	6.48
대졸	2.4	1.2	4.8	3.6	2.4	9.5	9.5	22.6	14.3	15.5	14.3	100.0(84)	6.90
대학원 이상	2.1	0.5	-	0.5	1.0	5.7	6.7	12.4	28.9	26.3	16.0	100.0(194)	7.89

연령별로는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20대의 순이었으나,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은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40대, 50대 이상, 30대, 20대의 순으로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은 대졸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개인적 관계」 영역 개별지표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1.62로 남성 1.68보다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 2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53〉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62.4	17.1	14.0	6.5	100.0(322)	1.65
성						
남자	61.0	17.0	14.9	7.1	100.0(141)	1.68
여자	63.5	17.1	13.3	6.1	100.0(181)	1.62
연령						
20대	52.3	18.9	18.9	9.9	100.0(111)	1.86
30대	65.5	13.1	15.5	6.0	100.0(84)	1.62
40대	68.4	17.7	8.9	5.1	100.0(79)	1.51
50대 이상	70.8	18.8	8.3	2.1	100.0(48)	1.42
교육수준						
대졸 미만	59.1	15.9	6.8	18.2	100.0(44)	1.84
대졸	57.1	17.9	21.4	3.6	100.0(84)	1.71
대학원 이상	65.5	17.0	12.4	5.2	100.0(194)	1.57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성이 영향정도 8, 여성이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8.55로 여성 8.50보다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40대, 20대의 순이었다. 또한 20대료를 제외하고 모두 영향정도 9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54〉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3	-	1.2	-	5.0	3.4	11.2	19.6	21.7	37.3	100.0(322)	8.52
성													
남자	-	-	-	0.7	-	5.0	5.0	12.1	21.3	16.3	39.7	100.0(141)	8.55
여자	0.6	0.6	-	1.7	-	5.0	2.2	10.5	18.2	26.0	35.4	100.0(181)	8.50
연령													
20대	-	0.9	-	1.8	-	4.5	0.9	18.9	25.2	12.6	35.1	100.0(111)	8.33
30대	-	-	-	1.2	-	6.0	6.0	10.7	15.5	22.6	38.1	100.0(84)	8.52
40대	-	-	-	1.3	-	6.3	5.1	3.8	21.5	25.3	36.7	100.0(79)	8.59
50대 이상	2.1	-	-	-	-	2.1	2.1	6.3	10.4	35.4	41.7	100.0(48)	8.85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2.3	-	2.3	-	2.3	-	18.2	22.7	11.4	38.6	100.0(44)	8.18
대졸	-	-	-	1.2	-	4.8	1.2	17.9	19.0	20.2	35.7	100.0(84)	8.51
대학원 이상	-	-	-	1.0	-	5.7	5.2	6.7	19.1	24.7	37.6	100.0(194)	8.61

2)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3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2.17로 여성 2.24보다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선택

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20대, 4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3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20대, 50대 이상, 30대 와 40대의 순으로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55〉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전체	13.0	58.1	23.9	4.7	0.3	100.0(322)	2.21
성							
남자	15.6	57.4	22.0	4.3	0.7	100.0(141)	2.17
여자	11.0	58.6	25.4	5.0	-	100.0(181)	2.24
연령							
20대	18.0	56.8	17.1	7.2	0.9	100.0(111)	2.16
30대	10.7	58.3	27.4	3.6	-	100.0(84)	2.24
40대	11.4	54.4	32.9	1.3	-	100.0(79)	2.24
50대 이상	8.3	66.7	18.8	6.3	-	100.0(48)	2.23
교육수준							
대졸 미만	18.2	50.0	25.0	6.8	-	100.0(44)	2.20
대졸	15.5	63.1	15.5	6.0	-	100.0(84)	2.12
대학원 이상	10.8	57.7	27.3	3.6	0.5	100.0(194)	2.25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체로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20대와 대졸은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

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9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8.06으로 여성 7.80보다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40대의 순이었으나,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은 대졸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56〉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	0.3	0.3	0.9	5.0	11.2	14.3	30.1	26.1	11.8	100.0(322)	7.91
성													
남자	-	-	-	-	-	3.5	11.3	14.9	30.5	25.5	14.2	100.0(141)	8.06
여자	-	-	0.6	0.6	1.7	6.1	11.0	13.8	29.8	26.5	9.9	100.0(181)	7.80
연령													
20대	-	-	0.9	-	0.9	3.6	10.8	9.0	28.8	34.2	11.7	100.0(111)	8.07
30대	-	-	-	-	1.2	8.3	6.0	16.7	31.0	23.8	13.1	100.0(84)	7.92
40대	-	-	-	1.3	1.3	3.8	15.2	19.0	29.1	17.7	12.7	100.0(79)	7.71
50대 이상	-	-	-	-	-	4.2	14.6	14.6	33.3	25.0	8.3	100.0(48)	7.85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2.3	2.3	-	9.1	6.8	4.5	31.8	31.8	11.4	100.0(44)	7.84
대졸	-	-	-	-	2.4	2.4	14.3	9.5	28.6	31.0	11.9	100.0(84)	8.00
대학원 이상	-	-	-	-	0.5	5.2	10.8	18.6	30.4	22.7	11.9	100.0(194)	7.89

3)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를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1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2.40로 남성 2.45보다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30대, 4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1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57〉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23.0	17.7	53.7	5.6	100.0(322)	2.42
성						
남자	22.0	16.3	56.7	5.0	100.0(141)	2.45
여자	23.8	18.8	51.4	6.1	100.0(181)	2.40
연령						
20대	27.9	11.7	55.0	5.4	100.0(111)	2.38
30대	21.4	25.0	53.6	-	100.0(84)	2.32
40대	19.0	25.3	45.6	10.1	100.0(79)	2.47
50대 이상	20.8	6.3	64.6	8.3	100.0(48)	2.60
교육수준						
대졸 미만	18.2	18.2	56.8	6.8	100.0(44)	2.52
대졸	28.6	11.9	51.2	8.3	100.0(84)	2.39
대학원 이상	21.6	20.1	54.1	4.1	100.0(194)	2.41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영향정도 7로 50대 이상이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성은 영향정도 7, 여성은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60으로 여성 7.58보다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40대의 순이었으나, 영향정도 7로 50대 이상이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30대, 2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었다.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58〉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	0.3	0.6	1.6	9.6	14.0	17.7	26.1	15.8	14.3	100.0(322)	7.59
성													
남자	-	-	-	-	2.1	9.2	13.5	19.9	27.0	14.2	14.2	100.0(141)	7.60
여자	-	-	0.6	1.1	1.1	9.9	14.4	16.0	25.4	17.1	14.4	100.0(181)	7.58
연령													
20대	-	-	0.9	0.9	0.9	10.8	12.6	12.6	27.9	17.1	16.2	100.0(111)	7.66
30대	-	-	-	-	2.4	7.1	16.7	15.5	27.4	15.5	15.5	100.0(84)	7.67
40대	-	-	-	1.3	2.5	7.6	15.2	21.5	26.6	12.7	12.7	100.0(79)	7.47
50대 이상	-	-	-	-	-	14.6	10.4	27.1	18.8	18.8	10.4	100.0(48)	7.48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2.3	2.3	2.3	9.1	11.4	13.6	27.3	15.9	15.9	100.0(44)	7.50
대졸	-	-	-	-	1.2	13.1	13.1	14.3	29.8	14.3	14.3	100.0(84)	7.58
대학원 이상	-	-	-	0.5	1.5	8.2	14.9	20.1	24.2	16.5	13.9	100.0(194)	7.61

4)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를 4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그 비율은 비슷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3.70으로 여성 3.71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다.

연령별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50대 이상, 2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20대, 50대 이상, 40대, 30대의 순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59〉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전체 성	2.2	7.1	8.7	81.7	0.3	100.0(322)	3.71
남자	2.1	8.5	7.1	81.6	.7	100.0(141)	3.70
여자	2.2	6.1	9.9	81.8	-	100.0(181)	3.71
연령							
20대	1.8	11.7	10.8	75.7	-	100.0(111)	3.60
30대	2.4	3.6	3.6	89.3	1.2	100.0(84)	3.83
40대	2.5	3.8	11.4	82.3	-	100.0(79)	3.73
50대 이상	2.1	8.3	8.3	81.3	-	100.0(48)	3.69
교육수준							
대졸 미만	4.5	15.9	13.6	65.9	-	100.0(44)	3.41
대졸	1.2	8.3	10.7	78.6	1.2	100.0(84)	3.70
대학원 이상	2.1	4.6	6.7	86.6	-	100.0(194)	3.78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영향정도 7로 20대가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7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5.82로 남성 5.46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40대의 순이었으나, 영향정도 7로 20대가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50대 이상, 40대, 30대의 순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

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영향정도 7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60〉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9	2.2	3.4	6.5	10.9	27.3	11.8	18.9	9.6	6.5	1.9	100.0(322)	5.66
성													
남자	1.4	3.5	2.8	7.1	14.2	23.4	12.8	18.4	10.6	5.7	-	100.0(141)	5.46
여자	0.6	1.1	3.9	6.1	8.3	30.4	11.0	19.3	8.8	7.2	3.3	100.0(181)	5.82
연령													
20대	0.9	1.8	0.9	6.3	9.9	19.8	9.0	25.2	13.5	12.6	-	100.0(111)	6.14
30대	-	2.4	4.8	10.7	10.7	34.5	10.7	14.3	7.1	2.4	2.4	100.0(84)	5.26
40대	-	3.8	6.3	5.1	16.5	26.6	11.4	17.7	7.6	2.5	2.5	100.0(79)	5.32
50대 이상	4.2	-	2.1	2.1	4.2	33.3	20.8	14.6	8.3	6.3	4.2	100.0(48)	5.85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	2.3	4.5	4.5	25.0	4.5	22.7	15.9	18.2	-	100.0(44)	6.39
대졸	2.4	-	2.4	8.3	9.5	28.6	10.7	20.2	8.3	9.5	-	100.0(84)	5.69
대학원 이상	-	3.6	4.1	6.2	12.9	27.3	13.9	17.5	8.8	2.6	3.1	100.0(194)	5.49

라. 「지역사회」 영역 개별지표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를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1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

균적으로는 남성이 1.78로 여성 1.81보다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1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1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과 대졸 미만의 순으로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61〉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전체	21.1	78.3	0.6	100.0(322)	1.80
성					
남자	23.4	75.2	1.4	100.0(141)	1.78
여자	19.3	80.7	-	100.0(181)	1.81
연령					
20대	17.1	82.9	-	100.0(111)	1.83
30대	15.5	84.5	-	100.0(84)	1.85
40대	25.3	73.4	1.3	100.0(79)	1.76
50대 이상	33.3	64.6	2.1	100.0(48)	1.69
교육수준					
대졸 미만	20.5	79.5	-	100.0(44)	1.80
대졸	21.4	77.4	1.2	100.0(84)	1.80
대학원 이상	21.1	78.4	0.5	100.0(194)	1.79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영향정도 6으로 선택

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성이 영향정도 6, 여성이 영향정도 4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5.11로 여성 4.94보다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의 순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영향정도 6으로 50대 이상이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62〉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8	4.3	6.2	9.6	12.7	27.6	11.8	11.2	7.8	3.1	2.8	100.0(322)	5.02
성													
남자	1.4	4.3	5.7	12.8	12.1	23.4	14.2	11.3	8.5	4.3	2.1	100.0(141)	5.11
여자	3.9	4.4	6.6	7.2	13.3	30.9	9.9	11.0	7.2	2.2	3.3	100.0(181)	4.94
연령													
20대	1.8	6.3	4.5	12.6	13.5	33.3	10.8	5.4	4.5	3.6	3.6	100.0(111)	4.81
30대	4.8	4.8	9.5	9.5	11.9	21.4	9.5	16.7	7.1	2.4	2.4	100.0(84)	4.83
40대	2.5	3.8	5.1	10.1	13.9	29.1	7.6	13.9	8.9	2.5	2.5	100.0(79)	5.08
50대 이상	2.1	-	6.3	2.1	10.4	22.9	25.0	10.4	14.6	4.2	2.1	100.0(48)	5.73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2.3	2.3	9.1	13.6	25.0	22.7	9.1	6.8	4.5	2.3	100.0(44)	5.32
대졸	3.6	4.8	8.3	11.9	9.5	32.1	10.7	6.0	6.0	2.4	4.8	100.0(84)	4.79
대학원 이상	2.6	4.6	6.2	8.8	13.9	26.3	9.8	13.9	8.8	3.1	2.1	100.0(194)	5.05

2)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1.20로 남성 1.26보다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63〉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전체	78.0	21.7	0.3	100.0(322)	1.22
성					
남자	75.2	24.1	0.7	100.0(141)	1.26
여자	80.1	19.9	-	100.0(181)	1.20
연령					
20대	82.0	18.0	-	100.0(111)	1.18
30대	84.5	15.5	-	100.0(84)	1.15
40대	73.4	26.6	-	100.0(79)	1.27
50대 이상	64.6	33.3	2.1	100.0(48)	1.38
교육수준					
대졸 미만	77.3	22.7	-	100.0(44)	1.23
대졸	77.4	21.4	1.2	100.0(84)	1.24
대학원 이상	78.4	21.6	-	100.0(194)	1.22

교육수준별로는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는 영향정도를 선택한 비율이 심한 편차를 보였다. 남성은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영향정도 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은 남성은 영향정도 5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은 영향정도 7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6.37로 남성 6.28보다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64〉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6	1.2	3.4	2.8	6.5	21.4	13.7	19.3	18.6	6.5	5.9	100.0(322)	6.33
성													
남자	0.7	2.1	5.0	4.3	7.1	17.0	12.8	16.3	20.6	7.1	7.1	100.0(141)	6.28
여자	0.6	0.6	2.2	1.7	6.1	24.9	14.4	21.5	17.1	6.1	5.0	100.0(181)	6.37
연령													
20대	0.9	0.9	3.6	3.6	6.3	26.1	18.9	16.2	17.1	3.6	2.7	100.0(111)	5.98
30대	-	3.6	4.8	2.4	6.0	17.9	11.9	17.9	23.8	8.3	3.6	100.0(84)	6.31
40대	-	-	2.5	3.8	8.9	20.3	11.4	21.5	15.2	5.1	11.4	100.0(79)	6.53
50대 이상	2.1	-	2.1	-	4.2	18.8	8.3	25.0	18.8	12.5	8.3	100.0(48)	6.85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	2.3	4.5	4.5	15.9	22.7	15.9	29.5	-	2.3	100.0(44)	6.23
대졸	1.2	2.4	3.6	1.2	7.1	25.0	16.7	23.8	9.5	6.0	3.6	100.0(84)	5.99
대학원 이상	-	1.0	3.6	3.1	6.7	21.1	10.3	18.0	20.1	8.2	7.7	100.0(194)	6.51

연령별로는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영향정도 8로 30대가, 영향정도 7로 40대, 50대 이상이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대졸의 순으로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 「일상생활」 영역 지표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를 4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4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3.38로 여성 3.42보다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65〉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6.2	9.9	21.1	62.7	100.0(322)	3.40
성						
남자	7.1	9.2	22.0	61.7	100.0(141)	3.38
여자	5.5	10.5	20.4	63.5	100.0(181)	3.42
연령						
20대	3.6	5.4	21.6	69.4	100.0(111)	3.57
30대	4.8	10.7	16.7	67.9	100.0(84)	3.48
40대	6.3	11.4	27.8	54.4	100.0(79)	3.30
50대 이상	14.6	16.7	16.7	52.1	100.0(48)	3.06
교육수준						
대졸 미만	6.8	9.1	20.5	63.6	100.0(44)	3.41
대졸	4.8	11.9	21.4	61.9	100.0(84)	3.40
대학원 이상	6.7	9.3	21.1	62.9	100.0(194)	3.40

연령별로는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3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3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과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를 영향정도 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6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5.70으로 남성 5.66 보다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66〉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9	5.6	5.0	11.8	28.6	14.3	15.8	8.4	5.6	3.7	100.0(322)	5.68
성													
남자	0.7	1.4	5.7	4.3	15.6	20.6	17.0	19.1	6.4	4.3	5.0	100.0(141)	5.66
여자	-	0.6	5.5	5.5	8.8	34.8	12.2	13.3	9.9	6.6	2.8	100.0(181)	5.70
연령													
20대	-	0.9	5.4	5.4	15.3	28.8	12.6	13.5	9.9	5.4	2.7	100.0(111)	5.59
30대	1.2	1.2	8.3	6.0	6.0	33.3	11.9	15.5	4.8	9.5	2.4	100.0(84)	5.54
40대	-	1.3	5.1	5.1	16.5	22.8	20.3	15.2	8.9	2.5	2.5	100.0(79)	5.53
50대 이상	-	-	2.1	2.1	6.3	29.2	12.5	22.9	10.4	4.2	10.4	100.0(48)	6.42
교육수준													
대졸 미만	-	2.3	2.3	2.3	13.6	22.7	20.5	18.2	11.4	2.3	4.5	100.0(44)	5.89
대졸	-	-	7.1	6.0	13.1	32.1	7.1	13.1	9.5	7.1	4.8	100.0(84)	5.68
대학원 이상	0.5	1.0	5.7	5.2	10.8	28.4	16.0	16.5	7.2	5.7	3.1	100.0(194)	5.64

연령별로는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20대, 4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영향정도 8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식생활의 규칙성’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2.66으로 남성 2.74보다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67〉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10.6	26.4	45.7	17.4	100.0(322)	2.70
성						
남자	7.8	30.5	41.1	20.6	100.0(141)	2.74
여자	12.7	23.2	49.2	14.9	100.0(181)	2.66
연령						
20대	8.1	30.6	45.9	15.3	100.0(111)	2.68
30대	11.9	22.6	52.4	13.1	100.0(84)	2.67
40대	10.1	25.3	39.2	25.3	100.0(79)	2.80
50대 이상	14.6	25.0	43.8	16.7	100.0(48)	2.62
교육수준						
대졸 미만	11.4	36.4	38.6	13.6	100.0(44)	2.55
대졸	11.9	26.2	48.8	13.1	100.0(84)	2.63
대학원 이상	9.8	24.2	45.9	20.1	100.0(194)	2.76

연령별로는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정보다는 여성이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7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6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6.67로 남성 6.64보다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68〉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6	1.6	2.8	5.6	16.8	18.0	21.1	16.1	8.7	8.4	100.0(322)	6.66
성													
남자	0.7	0.7	2.8	1.4	7.1	12.1	19.1	20.6	20.6	7.8	7.1	100.0(141)	6.64
여자	-	0.6	0.6	3.9	4.4	20.4	17.1	21.5	12.7	9.4	9.4	100.0(181)	6.67
연령													
20대	-	-	0.9	1.8	6.3	16.2	12.6	21.6	21.6	10.8	8.1	100.0(111)	6.92
30대	-	1.2	3.6	3.6	4.8	17.9	17.9	17.9	8.3	7.1	100.0(84)	6.49	
40대	1.3	1.3	-	5.1	8.9	11.4	22.8	26.6	7.6	6.3	8.9	100.0(79)	6.38
50대 이상	-	-	2.1	-	-	25.0	22.9	16.7	14.6	8.3	10.4	100.0(48)	6.79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	2.3	-	15.9	15.9	22.7	25.0	9.1	9.1	100.0(44)	7.14
대졸	-	-	2.4	1.2	7.1	17.9	15.5	23.8	15.5	7.1	9.5	100.0(84)	6.69
대학원 이상	0.5	1.0	1.5	3.6	6.2	16.5	19.6	19.6	14.4	9.3	7.7	100.0(194)	6.53

연령별로는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30대의 순이었으나 50대 이상은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50대 이상, 30대, 40대의 순으로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미만이, 영향정도 7로 대졸이, 영향정도 6과 7로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졸 미만은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1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2.12로 남성 2.13보다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표 3-69〉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29.8	38.8	20.8	10.6	100.0(322)	2.12
성						
남자	30.5	34.0	27.7	7.8	100.0(141)	2.13
여자	29.3	42.5	15.5	12.7	100.0(181)	2.12
연령						
20대	36.0	36.9	22.5	4.5	100.0(111)	1.95
30대	29.8	40.5	17.9	11.9	100.0(84)	2.12
40대	22.8	40.5	22.8	13.9	100.0(79)	2.28
50대 이상	27.1	37.5	18.8	16.7	100.0(48)	2.25
교육수준						
대졸 미만	36.4	31.8	25.0	6.8	100.0(44)	2.02
대졸	33.3	35.7	21.4	9.5	100.0(84)	2.07
대학원 이상	26.8	41.8	19.6	11.9	100.0(194)	2.16

연령별로는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 와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

에 관계없이 모두 1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를 영향 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40대는 영향정도 6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성은 영향정도 7, 여성은 영향정도 9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7.62로 남성 7.60보다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표 3-70〉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	0.6	0.9	2.5	9.3	12.4	16.5	23.6	16.5	17.4	100.0(322)	7.61
성													
남자	-	-	0.7	2.1	1.4	7.8	16.3	14.9	24.1	14.2	18.4	100.0(141)	7.60
여자	0.6	-	0.6	-	3.3	10.5	9.4	17.7	23.2	18.2	16.6	100.0(181)	7.62
연령													
20대	0.9	-	-	-	0.9	8.1	9.9	15.3	24.3	21.6	18.9	100.0(111)	7.89
30대	-	-	1.2	1.2	6.0	10.7	10.7	16.7	25.0	13.1	15.5	100.0(84)	7.37
40대	-	-	1.3	1.3	2.5	10.1	20.3	15.2	16.5	13.9	19.0	100.0(79)	7.42
50대 이상	-	-	-	2.1	-	8.3	8.3	20.8	31.3	14.6	14.6	100.0(48)	7.71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	2.3	-	6.8	15.9	11.4	25.0	18.2	20.5	100.0(44)	7.84
대졸	1.2	-	-	-	2.4	10.7	8.3	14.3	27.4	19.0	16.7	100.0(84)	7.70
대학원 이상	-	-	1.0	1.0	3.1	9.3	13.4	18.6	21.6	14.9	17.0	100.0(194)	7.52

연령별로는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20대의 순이었으나 40대는 영향정도 6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50대 이상, 40대, 30대의 순으로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1.74로 여성 1.76보다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표 3-71〉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54.0	25.5	11.8	8.7	100.0(322)	1.75
성						
남자	55.3	24.8	9.9	9.9	100.0(141)	1.74
여자	53.0	26.0	13.3	7.7	100.0(181)	1.76
연령						
20대	54.1	27.0	9.0	9.9	100.0(111)	1.75
30대	53.6	27.4	10.7	8.3	100.0(84)	1.74
40대	59.5	26.6	8.9	5.1	100.0(79)	1.59
50대 이상	45.8	16.7	25.0	12.5	100.0(48)	2.04
교육수준						
대졸 미만	50.0	22.7	13.6	13.6	100.0(44)	1.91
대졸	48.8	27.4	10.7	13.1	100.0(84)	1.88
대학원 이상	57.2	25.3	11.9	5.7	100.0(194)	1.66

연령별로는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3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40대, 20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10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8.10으로 남성 8.00보다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72〉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	0.3	0.3	1.6	6.5	8.1	12.7	28.9	17.7	23.6	100.0(322)	8.04
성													
남자	-	-	0.7	0.7	2.8	5.0	9.2	9.2	27.7	17.7	27.0	100.0(141)	8.10
여자	0.6	-	-	-	0.6	7.7	7.2	15.5	29.8	17.7	21.0	100.0(181)	8.00
연령													
20대	-	-	-	-	0.9	6.3	6.3	9.0	31.5	18.9	27.0	100.0(111)	8.29
30대	-	-	-	-	2.4	4.8	10.7	15.5	26.2	19.0	21.4	100.0(84)	8.01
40대	-	-	-	-	2.5	7.6	8.9	11.4	29.1	13.9	26.6	100.0(79)	8.05
50대 이상	2.1	-	2.1	2.1	-	8.3	6.3	18.8	27.1	18.8	14.6	100.0(48)	7.52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	-	2.3	2.3	9.1	6.8	9.1	29.5	9.1	29.5	100.0(44)	7.80
대졸	-	-	1.2	-	1.2	4.8	9.5	10.7	31.0	21.4	20.2	100.0(84)	8.06
대학원 이상	-	-	-	-	1.5	6.7	7.7	14.4	27.8	18.0	23.7	100.0(194)	8.09

연령별로는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50대 이상, 3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영향정도 9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20대, 40대, 3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바.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 개별지표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 성(Gender)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성(Gender)’ 지표를 8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50대 이상, 대졸은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성(Gender)’ 지표를 8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9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7.19로 남성 7.23보다 ‘성(Gender)’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성(Gender)’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의 순이었으나 50대 이상은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성(Gender)’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성(Gender)’ 지표를 8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대졸은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성(Gender)’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73〉 성(Gender)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8	1.2	5.0	3.7	4.0	6.5	16.8	31.4	28.0	0.6	100.0(322)	7.20
성												
남자	4.3	.7	2.1	3.5	3.5	5.0	21.3	36.9	22.0	0.7	100.0(141)	7.23
여자	1.7	1.7	7.2	3.9	4.4	7.7	13.3	27.1	32.6	0.6	100.0(181)	7.19
연령												
20대	3.6		4.5	2.7	2.7	9.9	18.9	36.0	21.6		100.0(111)	7.16
30대	1.2	1.2	8.3	4.8	4.8	3.6	19.0	29.8	26.2	1.2	100.0(84)	7.12
40대	3.8		3.8	5.1	3.8	6.3	12.7	35.4	27.8	1.3	100.0(79)	7.28
50대 이상	2.1	6.3	2.1	2.1	6.3	4.2	14.6	16.7	45.8		100.0(48)	7.33
교육수준												
대졸 미만	6.8	2.3	4.5	11.4	6.8	4.5	15.9	34.1	11.4	2.3	100.0(44)	6.41
대졸	2.4	1.2	6.0		2.4	9.5	14.3	31.0	33.3		100.0(84)	7.39
대학원 이상	2.1	1.0	4.6	3.6	4.1	5.7	18.0	30.9	29.4	0.5	100.0(194)	7.30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성(Gender)’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Gender)’ 지표를 영향정도 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4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4.39로 여성 4.36보다 ‘성(Gender)’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성(Gender)’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40대, 2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성(Gender)’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성(Gender)’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성(Gender)’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74〉 성(Gender)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3.1	7.1	10.2	12.7	11.8	30.4	10.2	7.1	5.0	0.6	1.6	100.0(322)	4.38
성													
남자	2.8	8.5	7.8	14.2	13.5	27.7	10.6	7.1	5.0	1.4	1.4	100.0(141)	4.39
여자	3.3	6.1	12.2	11.6	10.5	32.6	9.9	7.2	5.0	-	1.7	100.0(181)	4.36
연령													
20대	0.9	9.0	11.7	19.8	9.9	28.8	8.1	5.4	4.5	0.9	0.9	100.0(111)	4.15
30대	3.6	7.1	11.9	7.1	14.3	32.1	9.5	7.1	6.0	-	1.2	100.0(84)	4.37
40대	5.1	8.9	7.6	11.4	11.4	30.4	8.9	8.9	3.8	1.3	2.5	100.0(79)	4.38
50대 이상	4.2	-	8.3	8.3	12.5	31.3	18.8	8.3	6.3	-	2.1	100.0(48)	4.90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	2.3	13.6	9.1	34.1	13.6	9.1	9.1	2.3	4.5	100.0(44)	5.36
대졸	3.6	11.9	16.7	19.0	6.0	29.8	6.0	3.6	2.4	-	1.2	100.0(84)	3.67
대학원 이상	3.1	6.7	9.3	9.8	14.9	29.9	11.3	8.2	5.2	0.5	1.0	100.0(194)	4.46

2) 연령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연령’ 지표를 7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30대와 대졸은 8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 지표를 7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8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6.08로 남성 6.45보다 ‘연령’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연령’ 지표를 7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20대의 순이었으나 30대는 8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40대, 30대, 20대 와 50대 이상의 순으로 ‘연령’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연령’ 지표를 7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과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연령’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75〉 연령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전체	3.7	5.0	3.1	7.5	8.4	13.4	28.3	24.8	5.9	100.0(322)	6.25
성											
남자	2.1	3.5	1.4	6.4	9.9	17.0	27.7	26.2	5.7	100.0(141)	6.45
여자	5.0	6.1	4.4	8.3	7.2	10.5	28.7	23.8	6.1	100.0(181)	6.08
연령											
20대	1.8	4.5	4.5	4.5	10.8	17.1	27.0	20.7	9.0	100.0(111)	6.35
30대	2.4	4.8	3.6	9.5	7.1	13.1	23.8	29.8	6.0	100.0(84)	6.33
40대	3.8	7.6	2.5	11.4	10.1	10.1	29.1	21.5	3.8	100.0(79)	5.94
50대 이상	10.4	2.1	-	4.2	2.1	10.4	37.5	31.3	2.1	100.0(48)	6.35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4.5	11.4	4.5	9.1	20.5	27.3	11.4	9.1	100.0(44)	5.95
대졸	3.6	8.3	3.6	3.6	9.5	8.3	27.4	27.4	8.3	100.0(84)	6.29
대학원 이상	4.1	3.6	1.0	9.8	7.7	13.9	28.9	26.8	4.1	100.0(194)	6.29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연령’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연령’ 지표를 영향정도 6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영향정도 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은 남성은 영향정도 4, 여성은 영향정도 6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5.28로 남성 5.03보다 ‘연령’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40대의 순이었으나 50대 이상은 영향정도 6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연령’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연령’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영향정도 6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연령’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76〉 연령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9	3.1	6.8	10.2	13.4	22.4	18.6	9.9	9.9	3.1	1.6	100.0(322)	5.17
성													
남자	0.7	2.8	8.5	12.1	14.9	14.2	25.5	9.2	9.9	2.1	-	100.0(141)	5.03
여자	1.1	3.3	5.5	8.8	12.2	28.7	13.3	10.5	9.9	3.9	2.8	100.0(181)	5.28
연령													
20대	-	2.7	10.8	11.7	13.5	21.6	17.1	9.9	9.9	2.7	-	100.0(111)	4.97
30대	3.6	4.8	3.6	11.9	11.9	25.0	17.9	8.3	11.9	1.2	-	100.0(84)	4.92
40대	-	2.5	6.3	8.9	16.5	19.0	15.2	13.9	8.9	6.3	2.5	100.0(79)	5.44
50대 이상	-	2.1	4.2	6.3	10.4	25.0	29.2	6.3	8.3	2.1	6.3	100.0(48)	5.63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6.8	11.4	13.6	15.9	22.7	13.6	9.1	4.5	2.3	100.0(44)	5.50
대졸	2.4	4.8	13.1	8.3	11.9	25.0	13.1	9.5	7.1	3.6	1.2	100.0(84)	4.75
대학원 이상	0.5	3.1	4.1	10.8	13.9	22.7	20.1	9.3	11.3	2.6	1.5	100.0(194)	5.28

3) 혼인상태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서 ‘혼인상태’ 지표를 대체로 6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혼인상태’ 지표를 6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7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5.30로 여성 5.89보다 ‘혼인상태’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혼인상태’ 지표를 6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의 순이었으나 20대는 7순위, 50대 이상은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30대, 40대 와 50대 이상, 20대의 순으로 ‘혼인상태’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혼인상태’

지표를 6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대졸은 7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과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혼인상태’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77〉 혼인상태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전체	7.1	6.5	6.8	6.2	10.6	23.0	18.3	14.0	7.5	100.0(322)	5.63
성											
남자	6.4	11.3	8.5	6.4	9.2	24.8	15.6	13.5	4.3	100.0(141)	5.30
여자	7.7	2.8	5.5	6.1	11.6	21.5	20.4	14.4	9.9	100.0(181)	5.89
연령											
20대	6.3	6.3	2.7	4.5	9.9	23.4	27.0	13.5	6.3	100.0(111)	5.89
30대	10.7	6.0	8.3	4.8	14.3	19.0	15.5	16.7	4.8	100.0(84)	5.37
40대	6.3	5.1	8.9	10.1	13.9	24.1	11.4	12.7	7.6	100.0(79)	5.47
50대 이상	12.5	4.2	8.3	10.4	10.4	10.4	8.3	14.6	20.8	100.0(48)	5.77
교육수준											
대졸 미만	6.8	13.6	2.3	2.3	6.8	27.3	22.7	6.8	11.4	100.0(44)	5.64
대졸	8.3	6.0	7.1	4.8	10.7	20.2	27.4	10.7	4.8	100.0(84)	5.56
대학원 이상	6.7	5.2	7.7	7.7	11.3	23.2	13.4	17.0	7.7	100.0(194)	5.66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혼인상태’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 보다는 여성이 ‘혼인상태’ 지표를 영향정도 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6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6.21로 여성 5.61보다 ‘혼인상태’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혼인상태’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의 순이었으나 50대 이상은 영향정도 6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혼인상태’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혼인상태’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혼인상태’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78〉 혼인상태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6	2.2	5.6	8.7	8.4	22.0	13.0	11.5	14.0	5.9	8.1	100.0(322)	5.88
성													
남자	-	1.4	2.1	10.6	7.8	18.4	14.9	12.1	17.0	5.7	9.9	100.0(141)	6.21
여자	1.1	2.8	8.3	7.2	8.8	24.9	11.6	11.0	11.6	6.1	6.6	100.0(181)	5.61
연령													
20대	-	1.8	4.5	9.0	10.8	23.4	14.4	12.6	11.7	5.4	6.3	100.0(111)	5.78
30대	1.2	4.8	8.3	6.0	10.7	22.6	13.1	10.7	13.1	4.8	4.8	100.0(84)	5.44
40대	-	1.3	3.8	12.7	7.6	22.8	7.6	8.9	19.0	5.1	11.4	100.0(79)	6.10
50대 이상	2.1	-	6.3	6.3	-	16.7	18.8	14.6	12.5	10.4	12.5	100.0(48)	6.48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	2.3	4.6	25.0	13.6	20.5	11.4	9.1	11.4	100.0(44)	6.70
대졸	1.2	2.4	7.1	8.3	11.9	20.2	11.9	8.3	13.1	4.8	10.7	100.0(84)	5.75
대학원 이상	0.5	2.6	6.2	10.3	7.2	22.2	13.4	10.8	14.9	5.7	6.2	100.0(194)	5.74

4) 취업여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취업여부’ 지표를 1순위와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취업여부’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여성은 5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은 남성은 5순위, 여성은 4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3.87로 여성 3.92보다 ‘취업여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취업여부’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의 순이었으나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2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취업여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취업여부’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취업여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79〉 취업여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전체	17.1	12.1	14.6	14.9	18.3	13.0	5.9	2.8	1.2	100.0(322)	3.89
성											
남자	19.9	9.9	14.9	13.5	19.1	12.8	5.0	3.5	1.4	100.0(141)	3.87
여자	14.9	13.8	14.4	16.0	17.7	13.3	6.6	2.2	1.1	100.0(181)	3.92
연령											
20대	15.3	11.7	18.9	16.2	20.7	9.9	4.5	2.7	-	100.0(111)	3.77
30대	17.9	9.5	11.9	14.3	15.5	16.7	9.5	3.6	1.2	100.0(84)	4.13
40대	19.0	11.4	11.4	15.2	17.7	16.5	3.8	2.5	2.5	100.0(79)	3.94
50대 이상	16.7	18.8	14.6	12.5	18.8	8.3	6.3	2.1	2.1	100.0(48)	3.71
교육수준											
대졸 미만	6.8	9.1	15.9	15.9	34.1	11.4	4.5	-	2.3	100.0(44)	4.27
대졸	16.7	15.5	15.5	13.1	15.5	11.9	7.1	3.6	1.2	100.0(84)	3.85
대학원 이상	19.6	11.3	13.9	15.5	16.0	13.9	5.7	3.1	1.0	100.0(194)	3.83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취업여부’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취업여부’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여성은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50으로 여성 7.23보다 ‘취업여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취업여부’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30대의 순이었으나, 40대는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취업여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취업여부’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영향정도 9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취업여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80〉 취업여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9	1.6	1.9	5.3	11.8	10.2	11.5	22.7	16.8	17.1	100.0(322)	7.35
성													
남자	-	-	2.1	0.7	5.0	14.9	9.2	10.6	17.7	19.1	20.6	100.0(141)	7.50
여자	0.6	1.7	1.1	2.8	5.5	9.4	11.0	12.2	26.5	14.9	14.4	100.0(181)	7.23
연령													
20대	-	1.8	0.9	1.8	5.4	9.0	9.9	13.5	25.2	16.2	16.2	100.0(111)	7.40
30대	1.2	-	1.2	4.8	6.0	17.9	10.7	10.7	20.2	15.5	11.9	100.0(84)	6.89
40대	-	1.3	3.8	-	7.6	10.1	11.4	15.2	17.7	11.4	21.5	100.0(79)	7.24
50대 이상	-	-	-	-	-	10.4	8.3	2.1	29.2	29.2	20.8	100.0(48)	8.21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	-	6.8	6.8	15.9	13.6	27.3	15.9	13.6	100.0(44)	7.50
대졸	1.2	3.6	-	4.8	3.6	10.7	6.0	16.7	22.6	14.3	16.7	100.0(84)	7.14
대학원 이상	-	-	2.6	1.0	5.7	13.4	10.8	8.8	21.6	18.0	18.0	100.0(194)	7.40

5) 종사상 지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종사상 지위’ 지표를 대체로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

는 남성이 ‘종사상 지위’ 지표를 5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4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4.70으로 여성 4.91보다 ‘종사상 지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종사상 지위’ 지표를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의 순이었으나,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20대, 30대 순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종사상 지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종사상 지위’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대학원 이상은 5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종사상 지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81〉 종사상 지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전체	2.8	9.0	12.7	20.5	22.0	13.7	8.7	7.5	3.1	100.0(322)	4.82
성											
남자	2.8	9.2	13.5	24.1	22.0	9.2	9.9	6.4	2.8	100.0(141)	4.70
여자	2.8	8.8	12.2	17.7	22.1	17.1	7.7	8.3	3.3	100.0(181)	4.91
연령											
20대	2.7	9.0	12.6	23.4	20.7	15.3	5.4	9.0	1.8	100.0(111)	4.74
30대	4.8	11.9	9.5	22.6	19.0	9.5	9.5	7.1	6.0	100.0(84)	4.77
40대	2.5	6.3	12.7	20.3	26.6	12.7	12.7	3.8	2.5	100.0(79)	4.85
50대 이상	-	8.3	18.8	10.4	22.9	18.8	8.3	10.4	2.1	100.0(48)	5.02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6.8	11.4	25.0	15.9	11.4	2.3	22.7	2.3	100.0(44)	5.16
대졸	4.8	6.0	11.9	21.4	21.4	19.0	6.0	8.3	1.2	100.0(84)	4.79
대학원 이상	2.1	10.8	13.4	19.1	23.7	11.9	11.3	3.6	4.1	100.0(194)	4.75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종사상 지위’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

은 ‘종사상 지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여성은 영향정도 6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6.79로 여성 6.40보다 ‘종사상 지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종사상 지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와 40대의 순이었으나, 50대 이상은 영향정도 7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20대, 50대 이상, 40대, 30대의 순으로 ‘종사상 지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종사상 지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영향정도 7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종사상 지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82〉 종사상 지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0.9	1.6	4.3	6.5	15.5	18.0	16.5	19.9	13.7	3.1	100.0(322)	6.57
성													
남자	-	0.7	1.4	5.0	3.5	13.5	17.7	16.3	22.7	14.9	4.3	100.0(141)	6.79
여자	-	1.1	1.7	3.9	8.8	17.1	18.2	16.6	17.7	12.7	2.2	100.0(181)	6.40
연령													
20대	-	-	1.8	1.8	4.5	14.4	22.5	13.5	25.2	13.5	2.7	100.0(111)	6.79
30대	-	1.2	2.4	10.7	2.4	16.7	17.9	14.3	19.0	14.3	1.2	100.0(84)	6.31
40대	-	2.5	-	3.8	11.4	13.9	13.9	19.0	19.0	10.1	6.3	100.0(79)	6.52
50대 이상	-	-	2.1	-	10.4	18.8	14.6	22.9	10.4	18.8	2.1	100.0(48)	6.60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2.3	-	6.8	18.2	11.4	13.6	22.7	22.7	2.3	100.0(44)	6.95
대졸	-	-	4.8	3.6	4.8	19.0	22.6	15.5	22.6	4.8	2.4	100.0(84)	6.26
대학원 이상	-	1.5	-	5.7	7.2	13.4	17.5	17.5	18.0	15.5	3.6	100.0(194)	6.62

6) 직업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직업’ 지표를 대체로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 보다는 남성이 ‘직업’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2.64로 여성 3.02보다 ‘직업’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직업’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의 순이었으나,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20대, 50대 이상 순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직업’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직업’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으나,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직업’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83〉 직업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전체	27.0	25.8	18.9	10.2	7.5	5.6	2.8	1.2	0.9	100.0(322)	2.85
성											
남자	31.2	27.0	14.9	12.1	7.8	4.3	1.4	1.4	-	100.0(141)	2.64
여자	23.8	24.9	22.1	8.8	7.2	6.6	3.9	1.1	1.7	100.0(181)	3.02
연령											
20대	25.2	29.7	20.7	9.9	9.0	3.6	.9	-	0.9	100.0(111)	2.68
30대	29.8	25.0	17.9	7.1	7.1	8.3	3.6	1.2	-	100.0(84)	2.82
40대	31.6	22.8	17.7	10.1	3.8	5.1	3.8	3.8	1.3	100.0(79)	2.89
50대 이상	18.8	22.9	18.8	16.7	10.4	6.3	4.2		2.1	100.0(48)	3.25
교육수준											
대졸 미만	27.3	29.5	13.6	4.5	11.4	4.5	4.5	2.3	2.3	100.0(44)	3.00
대졸	14.3	25.0	23.8	16.7	9.5	8.3	-	1.2	1.2	100.0(84)	3.20
대학원 이상	32.5	25.3	18.0	8.8	5.7	4.6	3.6	1.0	0.5	100.0(194)	2.66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직업’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직업’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성은 영향정도 10, 여성은 영향정도 9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8.21로 여성 7.93보다 ‘직업’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직업’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의 순이었으나,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40대, 50대 이상, 30대의 순으로 ‘직업’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직업’ 지표를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대졸이 영향정도 7, 대졸 미만이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직업’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84〉 직업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6	0.3	0.6	2.8	5.9	7.1	15.5	23.6	22.7	20.5	100.0(322)	7.93
성													
남자	-	1.4	-	0.7	0.7	4.3	7.1	11.3	24.8	24.1	25.5	100.0(141)	8.21
여자	0.6	-	0.6	0.6	4.4	7.2	7.2	18.8	22.7	21.5	16.6	100.0(181)	7.93
연령													
20대	-	-	-	0.9	0.9	7.2	5.4	21.6	22.5	16.2	25.2	100.0(111)	8.05
30대	-	-	1.2	-	4.8	4.8	11.9	10.7	31.0	19.0	16.7	100.0(84)	7.77
40대	-	1.3	-	1.3	5.1	5.1	6.3	11.4	20.3	29.1	20.3	100.0(79)	7.95
50대 이상	2.1	2.1	-	-	-	6.3	4.2	16.7	18.8	33.3	16.7	100.0(48)	7.92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	-	-	-	13.6	4.5	11.4	15.9	20.5	31.8	100.0(44)	8.05
대졸	-	1.2	1.2	1.2	2.4	8.3	7.1	26.2	25.0	15.5	11.9	100.0(84)	7.43
대학원 이상	-	0.5	-	0.5	3.6	3.1	7.7	11.9	24.7	26.3	21.6	100.0(194)	8.12

7) 개인소득 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개인소득 수준’ 지표를 대체로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개인소득 수준’ 지표를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여성은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3.09로 여성 3.53보다 ‘개인소득 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개인소득 수준’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으나, 3순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개인소득 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개인소득 수준’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개인소득 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85〉 개인소득 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전체	15.8	24.2	20.5	14.6	10.6	7.1	3.7	2.8	0.6	100.0(322)	3.34
성											
남자	20.6	21.3	25.5	10.6	11.3	7.8	.7	.7	1.4	100.0(141)	3.09
여자	12.2	26.5	16.6	17.7	9.9	6.6	6.1	4.4	-	100.0(181)	3.53
연령											
20대	18.9	26.1	19.8	16.2	8.1	4.5	2.7	2.7	0.9	100.0(111)	3.12
30대	17.9	17.9	22.6	15.5	14.3	6.0	6.0	-	-	100.0(84)	3.32
40대	10.1	30.4	20.3	10.1	8.9	11.4	5.1	3.8	-	100.0(79)	3.51
50대 이상	14.6	20.8	18.8	16.7	12.5	8.3	-	6.3	2.1	100.0(48)	3.60
교육수준											
대졸 미만	22.7	27.3	20.5	9.1	4.5	2.3	6.8	4.5	2.3	100.0(44)	3.16
대졸	15.5	23.8	17.9	20.2	8.3	8.3	3.6	2.4	-	100.0(84)	3.33
대학원 이상	14.4	23.7	21.6	13.4	12.9	7.7	3.1	2.6	0.5	100.0(194)	3.38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개인소득 수준’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개인소득 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80으로 여성 7.40보다 ‘개인소득 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개인소득 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으나, 40대는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개인소득 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개인소득 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대졸미만은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개인소득 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86〉 개인소득 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3	1.9	1.2	5.0	7.8	7.5	16.1	23.3	19.3	17.4	100.0(322)	7.58
성													
남자	-	-	-	0.7	5.0	7.8	9.9	14.2	22.0	19.9	20.6	100.0(141)	7.80
여자	0.6	0.6	3.3	1.7	5.0	7.7	5.5	17.7	24.3	18.8	14.9	100.0(181)	7.40
연령													
20대	-	0.9	1.8	1.8	2.7	8.1	8.1	12.6	27.0	20.7	16.2	100.0(111)	7.63
30대	-	-	2.4	2.4	7.1	7.1	4.8	14.3	25.0	17.9	19.0	100.0(84)	7.56
40대	-	-	2.5	-	5.1	8.9	10.1	22.8	17.7	17.7	15.2	100.0(79)	7.43
50대 이상	2.1	-	-	-	6.3	6.3	6.3	16.7	20.8	20.8	20.8	100.0(48)	7.73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	-	4.5	4.5	2.3	9.1	13.6	18.2	18.2	27.3	100.0(44)	7.75
대졸	-	1.2	2.4	1.2	6.0	11.9	6.0	14.3	27.4	20.2	9.5	100.0(84)	7.25
대학원 이상	-	-	2.1	0.5	4.6	7.2	7.7	17.5	22.7	19.1	18.6	100.0(194)	7.68

8) 가구소득 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가구소득 수준’ 지표를 대체로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 보다는 남성이 ‘가구소득 수준’ 지표를 4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성은 2순위, 여성은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4.18로 여성 4.29보다 ‘가구소득 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가구소득 수준’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가구소득 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가구소득 수준’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고, 대졸 미만은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가구소득 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87〉 가구소득 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전체	10.9	14.9	15.2	17.7	12.7	10.2	7.8	7.8	2.8	100.0(322)	4.24
성											
남자	8.5	17.0	14.9	19.9	11.3	12.8	8.5	5.7	1.4	100.0(141)	4.18
여자	12.7	13.3	15.5	16.0	13.8	8.3	7.2	9.4	3.9	100.0(181)	4.29
연령											
20대	10.8	13.5	15.3	19.8	12.6	9.9	7.2	8.1	2.7	100.0(111)	4.25
30대	4.8	20.2	13.1	19.0	13.1	13.1	8.3	6.0	2.4	100.0(84)	4.32
40대	12.7	12.7	16.5	12.7	11.4	11.4	10.1	11.4	1.3	100.0(79)	4.37
50대 이상	18.8	12.5	16.7	18.8	14.6	4.2	4.2	4.2	6.3	100.0(48)	3.85
교육수준											
대졸 미만	9.1	13.6	18.2	15.9	6.8	13.6	9.1	9.1	4.5	100.0(44)	4.48
대졸	13.1	15.5	13.1	17.9	15.5	7.1	7.1	8.3	2.4	100.0(84)	4.13
대학원 이상	10.3	14.9	15.5	18.0	12.9	10.8	7.7	7.2	2.6	100.0(194)	4.23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가구소득 수준’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구소득 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26으로 여성 7.22보다 ‘가구소득 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가구소득 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의 순이었으나, 영향정도 9로는 30대, 40대순으로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가구소득 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가구소득 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가구소득 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88〉 가구소득 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6	0.6	1.6	3.7	3.7	10.6	8.1	17.1	23.6	19.9	10.6	100.0(322)	7.24
성													
남자	-	-	1.4	3.5	4.3	14.2	7.1	16.3	21.3	21.3	10.6	100.0(141)	7.26
여자	1.1	1.1	1.7	3.9	3.3	7.7	8.8	17.7	25.4	18.8	10.5	100.0(181)	7.22
연령													
20대	0.9	0.9	0.9	3.6	5.4	8.1	10.8	15.3	27.9	16.2	9.9	100.0(111)	7.16
30대	-	-	2.4	6.0	2.4	13.1	6.0	16.7	22.6	23.8	7.1	100.0(84)	7.17
40대	-	1.3	1.3	3.8	5.1	12.7	6.3	17.7	20.3	21.5	10.1	100.0(79)	7.18
50대 이상	2.1	-	2.1	-	-	8.3	8.3	20.8	20.8	18.8	18.8	100.0(48)	7.65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	-	4.5	-	4.5	13.6	20.5	22.7	18.2	13.6	100.0(44)	7.43
대졸	1.2	2.4	1.2	3.6	6.0	11.9	9.5	17.9	23.8	16.7	6.0	100.0(84)	6.81
대학원 이상	-	-	2.1	3.6	3.6	11.3	6.2	16.0	23.7	21.6	11.9	100.0(194)	7.38

9)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를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20대는 7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 보다는 남성이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를 9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성은 7순위, 여성은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6.03으로 남성 7.31보다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를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으나, 20대는 7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30대, 20대, 40대의 순으로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를 9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1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89〉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전체	13.7	2.8	5.0	3.7	5.3	6.8	7.1	7.8	47.8	100.0(322)	6.59
성											
남자	5.7	1.4	7.8	2.1	4.3	5.0	9.2	5.7	58.9	100.0(141)	7.31
여자	19.9	3.9	2.8	5.0	6.1	8.3	5.5	9.4	39.2	100.0(181)	6.03
연령											
20대	6.3	6.3	2.7	4.5	9.9	23.4	27.0	13.5	6.3	100.0(111)	6.74
30대	11.9	3.6	4.8	2.4	6.0	9.5	4.8	4.8	52.4	100.0(84)	6.73
40대	10.1	3.8	5.1	5.1	3.8	3.8	11.4	6.3	50.6	100.0(79)	6.81
50대 이상	12.5	4.2	8.3	10.4	10.4	10.4	8.3	14.6	20.8	100.0(48)	5.65
교육수준											
대졸 미만	18.2	-	4.5	9.1	2.3	2.3	4.5	6.8	52.3	100.0(44)	6.50
대졸	20.2	2.4	6.0	1.2	7.1	6.0	6.0	7.1	44.0	100.0(84)	6.14
대학원 이상	9.8	3.6	4.6	3.6	5.2	8.2	8.2	8.2	48.5	100.0(194)	6.80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5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영향정도 10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은 남성이 영향정도 2, 여성이 영향정도 5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5.78로 남성 4.06보다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의 순이었으나, 영향정도 2로 20대, 영향정도 8로 50대 이상이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90〉 종교생활 여부 및 신앙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5.0	10.2	11.5	8.4	8.4	16.5	6.8	6.5	9.9	5.6	11.2	100.0(322)	5.02
성													
남자	5.7	13.5	17.7	9.9	7.8	18.4	6.4	6.4	9.9	1.4	2.8	100.0(141)	4.06
여자	4.4	7.7	6.6	7.2	8.8	14.9	7.2	6.6	9.9	8.8	17.7	100.0(181)	5.78
연령													
20대	5.4	10.8	15.3	10.8	7.2	13.5	6.3	2.7	9.9	6.3	11.7	100.0(111)	4.80
30대	9.5	9.5	10.7	9.5	7.1	15.5	6.0	7.1	9.5	6.0	9.5	100.0(84)	4.76
40대	1.3	1.3	10.1	5.1	12.7	22.8	6.3	6.3	6.3	3.8	11.4	100.0(79)	4.95
50대 이상	2.1	4.2	6.3	6.3	6.3	14.6	10.4	14.6	16.7	6.3	12.5	100.0(48)	6.13
교육수준													
대졸 미만	4.5	2.3	25.0	6.8	6.8	18.2	4.5	4.5	11.4	9.1	6.8	100.0(44)	4.91
대졸	9.5	8.3	4.8	11.9	6.0	16.7	7.1	2.4	10.7	7.1	15.5	100.0(84)	5.25
대학원 이상	3.1	12.9	11.3	7.2	9.8	16.0	7.2	8.8	9.3	4.1	10.3	100.0(194)	4.95

사. 「경제적 안정」 영역 개별지표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 1)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를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성은 1순위, 여성은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

는 남성이 2.11로 여성 2.33보다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50대 이상, 3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40대, 30대 와 50대 이상, 20대의 순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91〉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전체	26.1	24.8	49.1	100.0(322)	2.23
성					
남자	31.2	27.0	41.8	100.0(141)	2.11
여자	22.1	23.2	54.7	100.0(181)	2.33
연령					
20대	27.0	18.9	54.1	100.0(111)	2.27
30대	22.6	33.3	44.0	100.0(84)	2.21
40대	27.8	24.1	48.1	100.0(79)	2.20
50대 이상	27.1	25.0	47.9	100.0(48)	2.21
교육수준					
대졸 미만	29.5	20.5	50.0	100.0(44)	2.20
대졸	21.4	21.4	57.1	100.0(84)	2.36
대학원 이상	27.3	27.3	45.4	100.0(194)	2.18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영향정도 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11로 여성 6.87보다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20대, 40대, 30대의 순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대졸은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92〉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0.3	2.2	1.9	1.9	20.5	11.5	16.1	23.9	13.0	8.7	100.0(322)	6.98
성													
남자	-	-	4.3	1.4	2.8	17.0	10.6	9.9	27.7	14.9	11.3	100.0(141)	7.11
여자	-	0.6	0.6	2.2	1.1	23.2	12.2	21.0	21.0	11.6	6.6	100.0(181)	6.87
연령													
20대	-	-	1.8	2.7	1.8	20.7	9.9	12.6	27.0	13.5	9.9	100.0(111)	7.07
30대	-	-	3.6	1.2	-	23.8	13.1	16.7	25.0	11.9	4.8	100.0(84)	6.80
40대	-	1.3	2.5	2.5	2.5	17.7	11.4	19.0	20.3	12.7	10.1	100.0(79)	6.91
50대 이상	-	-	-	-	4.2	18.8	12.5	18.8	20.8	14.6	10.4	100.0(48)	7.19
교육수준													
대졸 미만	-	2.3	-	2.3	-	15.9	2.3	18.2	27.3	15.9	15.9	100.0(44)	7.50
대졸	-	-	2.4	2.4	3.6	28.6	14.3	11.9	15.5	14.3	7.1	100.0(84)	6.62
대학원 이상	-	-	2.6	1.5	1.5	18.0	12.4	17.5	26.8	11.9	7.7	100.0(194)	7.02

2)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졸미만은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1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1.87로 여성 1.94보다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40

대, 3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20대 와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93〉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전체	32.6	43.8	23.6	100.0(322)	1.91
성					
남자	34.8	43.3	22.0	100.0(141)	1.87
여자	30.9	44.2	24.9	100.0(181)	1.94
연령					
20대	31.5	50.5	18.0	100.0(111)	1.86
30대	39.3	35.7	25.0	100.0(84)	1.86
40대	26.6	43.0	30.4	100.0(79)	2.04
50대 이상	33.3	43.8	22.9	100.0(48)	1.90
교육수준					
대졸 미만	40.9	40.9	18.2	100.0(44)	1.77
대졸	31.0	48.8	20.2	100.0(84)	1.89
대학원 이상	31.4	42.3	26.3	100.0(194)	1.95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졸미만은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고, 다음은 남성은 영향정도 10, 여성은 영향정도 9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43으로 여성 7.33보다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94〉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6	0.6	1.2	3.4	12.1	11.5	15.2	26.1	15.5	13.4	100.0(322)	7.37
성													
남자	0.7	1.4	-	1.4	3.5	9.9	10.6	15.6	26.2	14.2	16.3	100.0(141)	7.43
여자	-	-	1.1	1.1	3.3	13.8	12.2	14.9	26.0	16.6	11.0	100.0(181)	7.33
연령													
20대	-	-	-	1.8	2.7	10.8	14.4	12.6	26.1	18.9	12.6	100.0(111)	7.50
30대	-	1.2	1.2	1.2	6.0	15.5	4.8	16.7	22.6	14.3	16.7	100.0(84)	7.30
40대	1.3	1.3	1.3	1.3	1.3	11.4	15.2	17.7	29.1	10.1	10.1	100.0(79)	7.10
50대 이상	-	-	-	-	4.2	10.4	10.4	14.6	27.1	18.8	14.6	100.0(48)	7.65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2.3	2.3	-	6.8	11.4	13.6	20.5	22.7	20.5	100.0(44)	7.82
대졸	-	1.2	-	1.2	3.6	17.9	11.9	10.7	29.8	14.3	9.5	100.0(84)	7.17
대학원 이상	0.5	0.5	0.5	1.0	4.1	10.8	11.3	17.5	25.8	14.4	13.4	100.0(194)	7.36

연령별로는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20대, 3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를 대체로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를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1.75로 남성 2.04보다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95〉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40.7	31.4	27.6	0.3	100.0(322)	1.88
성						
남자	34.0	29.1	36.2	0.7	100.0(141)	2.04
여자	45.9	33.1	21.0	-	100.0(181)	1.75
연령						
20대	40.5	31.5	27.9	-	100.0(111)	1.87
30대	38.1	31.0	31.0	-	100.0(84)	1.93
40대	43.0	32.9	22.8	1.3	100.0(79)	1.82
50대 이상	41.7	29.2	29.2	-	100.0(48)	1.88
교육수준						
대졸 미만	27.3	38.6	34.1	-	100.0(44)	2.07
대졸	47.6	27.4	25.0	-	100.0(84)	1.77
대학원 이상	40.7	31.4	27.3	0.5	100.0(194)	1.88

연령별로는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20대, 3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40대, 20대, 50대 이상, 30대의 순으로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30대는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7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7.61로 남성 7.24보다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96〉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0.3	0.6	3.4	2.2	9.3	11.2	19.9	22.7	14.3	16.1	100.0(322)	7.45
성													
남자	-	0.7	1.4	3.5	3.5	8.5	12.8	19.1	24.1	12.8	13.5	100.0(141)	7.24
여자	-	-	-	3.3	1.1	9.9	9.9	20.4	21.5	15.5	18.2	100.0(181)	7.61
연령													
20대	-	-	-	2.7	1.8	9.9	11.7	19.8	23.4	13.5	17.1	100.0(111)	7.54
30대	-	1.2	-	6.0	3.6	10.7	7.1	26.2	19.0	13.1	13.1	100.0(84)	7.14
40대	-	-	2.5	2.5	1.3	6.3	16.5	16.5	21.5	13.9	19.0	100.0(79)	7.51
50대 이상	-	-	-	2.1	2.1	10.4	8.3	14.6	29.2	18.8	14.6	100.0(48)	7.67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	6.8	2.3	11.4	9.1	22.7	22.7	9.1	15.9	100.0(44)	7.23
대졸	-	-	-	3.6	1.2	14.3	11.9	14.3	21.4	15.5	17.9	100.0(84)	7.48
대학원 이상	-	0.5	1.0	2.6	2.6	6.7	11.3	21.6	23.2	14.9	15.5	100.0(194)	7.48

연령별로는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40대의 순이었으나, 30대는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20대, 40대, 30대의 순으로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과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 「일」 영역 개별지표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를 4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3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 남성이 3.40으로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를 동일하게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40대, 3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3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를 4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3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97〉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전체	7.5	8.7	20.8	62.7	0.3	100.0(322)	3.40
성							
남자	4.3	10.6	27.0	57.4	0.7	100.0(141)	3.40
여자	9.9	7.2	16.0	66.9	-	100.0(181)	3.40
연령							
20대	7.2	8.1	13.5	71.2	-	100.0(111)	3.49
30대	8.3	9.5	28.6	53.6	-	100.0(84)	3.27
40대	7.6	12.7	19.0	59.5	1.3	100.0(79)	3.34
50대 이상	6.3	2.1	27.1	64.6	-	100.0(48)	3.50
교육수준							
대졸 미만	9.1	15.9	15.9	59.1	-	100.0(44)	3.25
대졸	6.0	2.4	15.5	76.2	-	100.0(84)	3.62
대학원 이상	7.5	8.7	20.8	62.7	0.3	100.0(194)	3.34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 영향정도를 선택한 비율이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영향정도 7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은 남성은 영향정도 5, 여성은 영향정도 6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6.72로 남성 6.59보다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를 20대는 영향정도 5로, 30대는 영향정도 6으로, 40대는 영향정도 8로, 50대 이상은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

수준별로는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를 대졸 미만은 영향정도 7로, 대졸은 영향정도 5로, 대학원 이상은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98〉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9	0.3	0.6	4.0	4.3	19.3	16.8	17.7	18.9	9.9	7.1	100.0(322)	6.64
성													
남자	-	-	-	6.4	3.5	20.6	14.2	15.6	22.7	10.6	6.4	100.0(141)	6.72
여자	1.7	0.6	1.1	2.2	5.0	18.2	18.8	19.3	16.0	9.4	7.7	100.0(181)	6.59
연령													
20대	-	-	-	3.6	4.5	23.4	15.3	18.0	21.6	7.2	6.3	100.0(111)	6.65
30대	2.4	-	1.2	6.0	4.8	13.1	19.0	16.7	14.3	14.3	8.3	100.0(84)	6.62
40대	-	1.3	1.3	5.1	6.3	17.7	17.7	13.9	19.0	10.1	7.6	100.0(79)	6.56
50대 이상	2.1	-	-	-	-	22.9	14.6	25.0	20.8	8.3	6.3	100.0(48)	6.81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	2.3	4.5	-	20.5	9.1	25.0	18.2	11.4	6.8	100.0(44)	6.66
대졸	-	1.2	-	2.4	8.3	26.2	17.9	15.5	15.5	8.3	4.8	100.0(84)	6.35
대학원 이상	1.0	-	0.5	4.6	3.6	16.0	18.0	17.0	20.6	10.3	8.2	100.0(194)	6.77

2)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1.69로 남

성 1.89보다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2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과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99〉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전체	51.6	25.8	16.5	5.9	0.3	100.0(322)	1.78
성							
남자	46.8	26.2	17.7	9.2	-	100.0(141)	1.89
여자	55.2	25.4	15.5	3.3	0.6	100.0(181)	1.69
연령							
20대	53.2	27.0	14.4	5.4	-	100.0(111)	1.72
30대	54.8	25.0	14.3	6.0	-	100.0(84)	1.71
40대	54.4	20.3	17.7	6.3	1.3	100.0(79)	1.80
50대 이상	37.5	33.3	22.9	6.3	-	100.0(48)	1.98
교육수준							
대졸 미만	54.5	20.5	15.9	9.1	-	100.0(44)	1.80
대졸	45.2	36.9	14.3	2.4	1.2	100.0(84)	1.77
대학원 이상	53.6	22.2	17.5	6.7	-	100.0(194)	1.77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졸미만은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8.54로 남성 8.43보다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40대, 20대, 3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00〉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	0.3	0.6	0.6	4.3	4.7	10.6	22.7	19.9	36.0	100.0(322)	8.49
성													
남자	-	-	-	0.7	0.7	4.3	6.4	13.5	21.3	17.7	35.5	100.0(141)	8.43
여자	0.6	-	0.6	0.6	0.6	4.4	3.3	8.3	23.8	21.5	36.5	100.0(181)	8.54
연령													
20대	-	-	-	-	-	6.3	5.4	11.7	16.2	22.5	37.8	100.0(111)	8.57
30대	-	-	1.2	1.2	-	2.4	4.8	7.1	34.5	15.5	33.3	100.0(84)	8.45
40대	-	-	-	1.3	1.3	3.8	3.8	10.1	21.5	16.5	41.8	100.0(79)	8.59
50대 이상	2.1	-	-	-	2.1	4.2	4.2	14.6	18.8	27.1	27.1	100.0(48)	8.21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	-	2.3	-	4.5	4.5	11.4	18.2	29.5	27.3	100.0(44)	8.20
대졸	-	-	-	-	1.2	6.0	3.6	14.3	19.0	21.4	34.5	100.0(84)	8.46
대학원 이상	-	-	0.5	0.5	0.5	3.6	5.2	8.8	25.3	17.0	38.7	100.0(194)	8.57

3)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를 2순위와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를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2.48로 남성 2.50보다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의 순이었으나,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40대, 20대 순으로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

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 높았으나, 대졸은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101〉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전체	18.6	33.2	29.5	18.3	0.3	100.0(322)	2.48
성							
남자	23.4	25.5	29.1	22.0	-	100.0(141)	2.50
여자	14.9	39.2	29.8	15.5	0.6	100.0(181)	2.48
연령							
20대	22.5	30.6	33.3	13.5	-	100.0(111)	2.38
30대	19.0	38.1	20.2	22.6	-	100.0(84)	2.46
40대	10.1	34.2	35.4	19.0	1.3	100.0(79)	2.67
50대 이상	22.9	29.2	27.1	20.8	-	100.0(48)	2.46
교육수준							
대졸 미만	18.2	34.1	22.7	25.0	-	100.0(44)	2.55
대졸	23.8	27.4	38.1	9.5	1.2	100.0(84)	2.37
대학원 이상	16.5	35.6	27.3	20.6	-	100.0(194)	2.52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9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8.10으로 남성 8.02보다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의 순이었으나, 20대는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대학원 이상은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02〉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3	-	0.3	0.3	4.3	6.8	18.0	28.0	24.2	17.4	100.0(322)	8.07
성													
남자	-	-	-	0.7	-	4.3	7.8	22.7	24.8	22.7	17.0	100.0(141)	8.02
여자	0.6	0.6	-	-	0.6	4.4	6.1	14.4	30.4	25.4	17.7	100.0(181)	8.10
연령													
20대	-	-	-	-	-	3.6	8.1	18.0	23.4	29.7	17.1	100.0(111)	8.19
30대	-	-	-	-	-	4.8	8.3	20.2	28.6	20.2	17.9	100.0(84)	8.05
40대	-	1.3	-	-	1.3	6.3	5.1	17.7	29.1	24.1	15.2	100.0(79)	7.94
50대 이상	2.1	-	-	2.1	-	2.1	4.2	14.6	35.4	18.8	20.8	100.0(48)	8.04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2.3	-	-	-	-	11.4	20.5	22.7	27.3	13.6	100.0(44)	7.77
대졸	-	-	-	1.2	1.2	6.0	4.8	20.2	21.4	26.2	19.0	100.0(84)	8.06
대학원 이상	-	-	-	-	-	4.6	6.7	16.5	32.0	22.7	17.5	100.0(194)	8.14

4)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를 2

순위와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2.26로 여성 2.43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의 순이었으나,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20대, 30대 순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대학원 이상은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103〉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5		
전체	22.4	32.6	33.2	11.2	0.6	100.0(322)	2.35
성							
남자	24.8	36.9	27.0	10.6	0.7	100.0(141)	2.26
여자	20.4	29.3	38.1	11.6	0.6	100.0(181)	2.43
연령							
20대	18.9	34.2	37.8	9.0	-	100.0(111)	2.37
30대	16.7	31.0	34.5	16.7	1.2	100.0(84)	2.55
40대	27.8	30.4	27.8	12.7	1.3	100.0(79)	2.29
50대 이상	31.3	35.4	29.2	4.2	-	100.0(48)	2.06
교육수준							
대졸 미만	22.7	31.8	43.2	2.3	-	100.0(44)	2.25
대졸	22.6	32.1	35.7	8.3	1.2	100.0(84)	2.33
대학원 이상	22.2	33.0	29.9	14.4	0.5	100.0(194)	2.38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9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8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8.15로 여성 8.07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의 순이었으나, 50대 이상은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40대, 50대 이상, 20대, 30대의 순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를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영향정도 8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04〉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	1.4	-	1.4	5.7	6.4	11.3	25.5	26.2	22.0	100.0(322)	8.11
성													
남자	-	-	-	0.6	1.7	8.8	4.4	15.5	21.5	27.6	19.9	100.0(141)	8.15
여자	-	-	0.6	0.3	1.6	7.5	5.3	13.7	23.3	27.0	20.8	100.0(181)	8.07
연령													
20대	-	-	0.9	0.9	1.8	9.0	4.5	12.6	22.5	29.7	18.0	100.0(111)	8.00
30대	-	-	-	-	-	8.3	8.3	20.2	22.6	25.0	15.5	100.0(84)	7.94
40대	-	-	-	-	3.8	6.3	2.5	10.1	22.8	27.8	26.6	100.0(79)	8.32
50대 이상	-	-	2.1	-	-	4.2	6.3	10.4	27.1	22.9	27.1	100.0(48)	8.29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	2.3	4.5	4.5	6.8	9.1	27.3	22.7	22.7	100.0(44)	8.02
대졸	-	-	1.2	-	1.2	11.9	4.8	13.1	19.1	32.1	16.7	100.0(84)	7.95
대학원 이상	-	-	0.5	-	1.0	6.2	5.2	14.9	24.2	25.8	22.2	100.0(194)	8.19

자. 「건강」 영역 개별지표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대졸미만은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1.60으로 여성 1.61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연령별로는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30대, 2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30대, 40대, 20대 와 50대 이상의 순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

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대졸 미만의 순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105〉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성	52.5	34.8	12.4	0.3	100.0(322)	1.61
남자	53.2	34.8	11.3	0.7	100.0(141)	1.60
여자	51.9	34.8	13.3	-	100.0(181)	1.61
연령						
20대	45.9	45.0	9.0	-	100.0(111)	1.63
30대	53.6	36.9	8.3	1.2	100.0(84)	1.57
40대	58.2	24.1	17.7	-	100.0(79)	1.59
50대 이상	56.3	25.0	18.8	-	100.0(48)	1.63
교육수준						
대졸 미만	34.1	50.0	15.9	-	100.0(44)	1.82
대졸	47.6	41.7	9.5	1.2	100.0(84)	1.64
대학원 이상	58.8	28.4	12.9	-	100.0(194)	1.54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은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9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영향정도 10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8.61로 여성 8.28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50대 이상, 20대의 순이었으나, 30대는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나, 대졸은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 대졸의 순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06〉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	0.3	1.2	0.9	5.9	4.3	10.2	19.3	24.5	33.2	100.0(322)	8.43
성													
남자	-	-	0.7	0.7	0.7	2.8	3.5	9.2	17.7	32.6	31.9	100.0(141)	8.61
여자	-	-	-	1.7	1.1	8.3	5.0	11.0	20.4	18.2	34.3	100.0(181)	8.28
연령													
20대	-	-	0.9	0.9	-	5.4	5.4	15.3	26.1	17.1	28.8	100.0(111)	8.23
30대	-	-	-	1.2	3.6	6.0	6.0	6.0	19.0	32.1	26.2	100.0(84)	8.29
40대	-	-	-	2.5	-	6.3	1.3	10.1	13.9	21.5	44.3	100.0(79)	8.66
50대 이상	-	-	-	-	-	6.3	4.2	6.3	12.5	33.3	37.5	100.0(48)	8.75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2.3	2.3	-	6.8	4.5	11.4	20.5	11.4	40.9	100.0(44)	8.27
대졸	-	-	-	2.4	-	4.8	4.8	14.3	27.4	23.8	22.6	100.0(84)	8.19
대학원 이상	-	-	-	0.5	1.5	6.2	4.1	8.2	15.5	27.8	36.1	100.0(194)	8.56

2)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를 대체로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1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1.64로 남성 1.75보다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으나, 20대는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20대,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대학원 이상은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107〉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40.4	51.2	7.8	0.6	100.0(322)	1.69
성						
남자	38.3	49.6	10.6	1.4	100.0(141)	1.75
여자	42.0	52.5	5.5	-	100.0(181)	1.64
연령						
20대	51.4	43.2	5.4	-	100.0(111)	1.54
30대	40.5	52.4	6.0	1.2	100.0(84)	1.68
40대	26.6	64.6	7.6	1.3	100.0(79)	1.84
50대 이상	37.5	45.8	16.7	-	100.0(48)	1.79
교육수준						
대졸 미만	61.4	29.5	9.1	-	100.0(44)	1.48
대졸	48.8	48.8	2.4	-	100.0(84)	1.54
대학원 이상	32.0	57.2	9.8	1.0	100.0(194)	1.80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남성은 영향정도 8, 여성은 영향정도 9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8.76으로 여성 8.72보다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30대, 40대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영향정도 9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08〉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	-	0.3	0.6	4.0	1.9	7.5	20.2	27.0	38.2	100.0(322)	8.74
성													
남자	-	-	-	-	1.4	2.1	2.1	7.8	25.5	22.0	39.0	100.0(141)	8.76
여자	0.6	-	-	0.6	-	5.5	1.7	7.2	16.0	30.9	37.6	100.0(181)	8.72
연령													
20대	-	-	-	0.9	-	5.4	2.7	6.3	17.1	27.0	40.5	100.0(111)	8.76
30대	-	-	-	-	1.2	3.6	1.2	6.0	28.6	22.6	36.9	100.0(84)	8.73
40대	-	-	-	-	1.3	2.5	2.5	7.6	24.1	30.4	31.6	100.0(79)	8.68
50대 이상	2.1	-	-	-	-	4.2	-	12.5	6.3	29.2	45.8	100.0(48)	8.79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	-	2.3	-	-	2.3	4.5	13.6	27.3	47.7	100.0(44)	8.84
대졸	-	-	-	-	-	7.1	2.4	7.1	14.3	31.0	38.1	100.0(84)	8.74
대학원 이상	-	-	-	-	1.0	3.6	1.5	8.2	24.2	25.3	36.1	100.0(194)	8.71

3)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를 3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를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2.66으로 남성 2.77보다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109〉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4		
전체	7.8	13.0	78.6	0.6	100.0(322)	2.72
성						
남자	9.9	14.2	75.9	-	100.0(141)	2.66
여자	6.1	12.2	80.7	1.1	100.0(181)	2.77
연령						
20대	5.4	10.8	83.8	-	100.0(111)	2.78
30대	3.6	10.7	85.7	-	100.0(84)	2.82
40대	12.7	12.7	73.4	1.3	100.0(79)	2.63
50대 이상	12.5	22.9	62.5	2.1	100.0(48)	2.54
교육수준						
대졸 미만	6.8	20.5	72.7	-	100.0(44)	2.66
대졸	4.8	9.5	85.7	-	100.0(84)	2.81
대학원 이상	9.3	12.9	76.8	1.0	100.0(194)	2.70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의 영향정도를 선택한 비율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남성은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영향정도 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은 남성은 영향정도 7, 여성은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04로 여성 6.47보다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를 20대는 영향정도 5로, 30대 와 40대는 영향정도 8로, 50대 이상은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를 영향정도 5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 미만이 높았으나, 대학원 이상은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10〉 규칙적인 운동 여부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9	-	0.6	3.4	5.6	21.7	9.9	18.0	21.4	10.9	7.5	100.0(322)	6.72
성													
남자	1.4	-	0.7	3.5	5.0	11.3	9.9	20.6	24.8	13.5	9.2	100.0(141)	7.04
여자	0.6	-	0.6	3.3	6.1	29.8	9.9	16.0	18.8	8.8	6.1	100.0(181)	6.47
연령													
20대	0.9	-	0.9	3.6	8.1	29.7	10.8	12.6	15.3	11.7	6.3	100.0(111)	6.38
30대	1.2	-	1.2	6.0	7.1	17.9	7.1	22.6	28.6	3.6	4.8	100.0(84)	6.48
40대	1.3	-	-	2.5	1.3	15.2	16.5	17.7	22.8	12.7	10.1	100.0(79)	7.09
50대 이상	-	-	-	-	4.2	20.8	2.1	22.9	20.8	18.8	10.4	100.0(48)	7.33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	-	-	2.3	4.5	20.5	9.1	18.2	18.2	13.6	11.4	100.0(44)	6.91
대졸	-	-	1.2	3.6	6.0	34.5	9.5	13.1	17.9	9.5	4.8	100.0(84)	6.35
대학원 이상	1.0	-	0.5	3.6	5.7	16.5	10.3	20.1	23.7	10.8	7.7	100.0(194)	6.84

차. 「주거」 영역 개별지표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1)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2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1.17로 남성 1.23보다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111〉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전체	80.4	19.3	0.3	100.0(322)	1.20
성					
남자	77.3	22.0	0.7	100.0(141)	1.23
여자	82.9	17.1	-	100.0(181)	1.17
연령					
20대	80.2	19.8	-	100.0(111)	1.20
30대	83.3	16.7	-	100.0(84)	1.17
40대	78.5	21.5	-	100.0(79)	1.22
50대 이상	79.2	18.8	2.1	100.0(48)	1.23
교육수준					
대졸 미만	70.5	29.5	-	100.0(44)	1.30
대졸	83.3	15.5	1.2	100.0(84)	1.18
대학원 이상	81.4	18.6	-	100.0(194)	1.19

연령별로는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이었다. 또

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대학원 이상, 대졸 미만의 순으로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대체로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영향정도 10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7.89로 여성 7.71보다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12〉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3	1.9	0.6	2.8	8.4	5.3	14.6	27.6	17.4	20.8	100.0(322)	7.79
성													
남자	0.7	0.7	1.4	0.7	3.5	5.0	5.7	11.3	29.1	20.6	21.3	100.0(141)	7.89
여자	-	-	2.2	0.6	2.2	11.0	5.0	17.1	26.5	14.9	20.4	100.0(181)	7.71
연령													
20대	-	-	2.7	0.9	-	9.0	9.9	15.3	27.9	13.5	20.7	100.0(111)	7.72
30대	1.2	-	2.4	-	7.1	6.0	1.2	15.5	29.8	17.9	19.0	100.0(84)	7.68
40대	-	1.3	1.3	-	2.5	8.9	3.8	15.2	31.6	12.7	22.8	100.0(79)	7.82
50대 이상	-	-	-	2.1	2.1	10.4	4.2	10.4	16.7	33.3	20.8	100.0(48)	8.06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2.3	-	4.5	6.8	6.8	11.4	20.5	18.2	29.5	100.0(44)	8.00
대졸	1.2	-	2.4	1.2	-	13.1	9.5	13.1	27.4	14.3	17.9	100.0(84)	7.49
대학원 이상	-	0.5	1.5	0.5	3.6	6.7	3.1	16.0	29.4	18.6	20.1	100.0(194)	7.87

연령별로는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20대의 순이었으나, 50대 이상은 영향정도 9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50대 이상, 40대, 20대, 30대의 순으로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졸이 높았으나, 대졸 미만은 영향정도 10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및 영향정도

성, 연령,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남녀 모두 1순위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1.78로 여성 1.85보다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표 3-113〉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우선순위
(단위: %, 명)

특성	우선순위			계(수)	평균 우선순위
	1	2	3		
전체	18.6	80.7	0.6	100.0(322)	1.82
성					
남자	22.7	76.6	0.7	100.0(141)	1.78
여자	15.5	84.0	0.6	100.0(181)	1.85
연령					
20대	19.8	80.2	-	100.0(111)	1.80
30대	15.5	84.5	-	100.0(84)	1.85
40대	20.3	78.5	1.3	100.0(79)	1.81
50대 이상	18.8	79.2	2.1	100.0(48)	1.83
교육수준					
대졸 미만	27.3	72.7	-	100.0(44)	1.73
대졸	14.3	83.3	2.4	100.0(84)	1.88
대학원 이상	18.6	81.4	-	100.0(194)	1.81

연령별로는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2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1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20대, 40대, 50대 이상, 30대의 순으로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원 이상이 높았으며, 대졸 미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1순위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학원 이상, 대졸의 순으로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우선시 하고 있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에서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 영향정도를 선택한 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남성은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7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평균적으로는 남성이 6.98로 여성 6.83보다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14〉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응답자 특성별 영향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영향정도											계(수)	평균 영향정도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	0.3	2.2	2.5	3.1	15.2	12.7	23.6	20.5	12.1	7.5	100.0(322)	6.90
성													
남자	0.7	0.7	3.5	-	5.0	10.6	13.5	19.9	26.2	11.3	8.5	100.0(141)	6.98
여자	-	-	1.1	4.4	1.7	18.8	12.2	26.5	16.0	12.7	6.6	100.0(181)	6.83
연령													
20대	-	0.9	2.7	0.9	2.7	18.0	13.5	19.8	22.5	13.5	5.4	100.0(111)	6.86
30대	1.2	-	2.4	6.0	4.8	14.3	9.5	21.4	22.6	10.7	7.1	100.0(84)	6.69
40대	-	-	1.3	2.5	3.8	15.2	8.9	26.6	15.2	15.2	11.4	100.0(79)	7.13
50대 이상	-	-	2.1	-	-	10.4	22.9	31.3	20.8	6.3	6.3	100.0(48)	6.98
교육수준													
대졸 미만	-	-	-	-	2.3	15.9	13.6	20.5	25.0	13.6	9.1	100.0(44)	7.27
대졸	1.2	1.2	4.8	2.4	1.2	21.4	14.3	15.5	16.7	16.7	4.8	100.0(84)	6.55
대학원 이상	-	-	1.5	3.1	4.1	12.4	11.9	27.8	21.1	9.8	8.2	100.0(194)	6.96

연령별로는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영향정도 8로 선택한 비율이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의 순이었으나,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은 50대 이상, 40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40대, 50대 이상, 20대, 30대의 순으로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대졸 미만은 영향정도 8로, 대졸은 영향정도 5로, 대학원 이상은 영향정도 7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대졸 미만,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으로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4 절 행복결정요인 선정

1. 행복결정요인(안)의 우선순위와 영향정도의 종합

본 절에서는 행복결정요인(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최종 선정과정을 설명한다.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행복결정요인(안)의 10개 분야, 41개 지표에 대한 분야별 우선순위의 평균값과 각 지표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영향정도는 매우 영향이 적다 0에서 보통이다 5 매우영향이 많다 1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다시 요약하면 <표 3-115>와 같이 제시된다.

10개 영역별 전체 지표의 우선순위와 영향정도의 평균과 관련하여 주요한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안정」 영역의 우선순위는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가 높았고, 영향정도는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가 높았다.

둘째, 「가족·결혼」 영역의 우선순위는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영향정도는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개인적 관계」 영역의 우선순위는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영향정도는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넷째, 「지역사회」 영역의 우선순위는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영향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다섯째, 「일상생활」 영역의 우선순위는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이 높았고, 영향정도는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표 3-115〉 행복결정요인(안)의 우선순위와 영향정도 평균값

(단위: 점)

영역	행복에 미치는 요인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정도
심리적 안정	•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2.4	8.0
	•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4.3	6.5
	•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2.8	7.9
	• 자신의 청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5.5	5.0
	• 자기개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3.1	7.4
	•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2.9	7.9
가족·결혼	•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3.7	7.3
	•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1.5	8.7
	•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2.1	8.1
	•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2.8	7.7
개인적 관계	•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1.6	9.1
	•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2	8.5
	•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2.4	7.6
	•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3.7	6.2
지역사회	•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1.9	5.3
	•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1.3	6.6
일상생활	• 식생활의 규칙성	3.4	5.7
	•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2.7	6.7
	•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2.1	7.6
	•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1.8	8.0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Gender)	8.4	6.1
	• 연령	7.4	6.6
	• 혼인상태	6.8	7.1
	• 취업여부	5.0	8.5
	• 종사상 지위	5.4	7.5
	• 직업	3.1	8.2
	• 개인소득 수준	3.9	8.5
	• 가구소득 수준	5.1	8.1
	• 종교생활여부 및 신앙수준	8.3	7.1
경제적 안정	•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2.2	7.0
	•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1.9	7.4
	•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1.9	7.4
일	•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 정도	3.4	6.6
	•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1.8	8.5
	•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2.5	8.1
	•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2.4	8.7
건강	•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1.6	9.0
	• 가족의 건강수준	1.8	8.7
	• 규칙적인 운동 여부	2.7	7.3
주거	•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1.2	7.8
	•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1.8	6.9

여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의 우선순위는 ‘직업’, ‘개인소득 수준’이 높았고, 영향정도는 ‘개인소득 수준’, ‘직업’, ‘가구소득 수준’이 높았다.

일곱째, 「경제적 안정」 영역의 우선순위는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과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이 높았고, 영향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여덟째, 「일」 영역의 우선순위는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가 높았고, 영향정도는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아홉째, 「건강」 영역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과 ‘가족의 건강수준’이 높았고, 영향정도는 동일하게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과 ‘가족의 건강수준’이 높았다.

열째, 「주거」 영역의 우선순위는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영향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2. 행복결정요인 선정의 기준 및 결과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야별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을 선정하였는데, 지표선정의 각 단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 델파이 조사를 분석하여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조사지표를 선정함에 있어, 영향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8.0 이상의 지표 10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 단계,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3위(1위: 심리적 안정, 2위: 건강 3위: 가족·결혼) 이내인 영역은 최소 3개의 지표가 선정되도록 조정하여 4개 추가하였다.

셋째 단계, 4개 추가지표 중 최소 영향정도인 7.1 이상인 지표를 선정, 3개

이상이 선정된 영역은 제외(동일 영역에서 중복성 감안, 5개 지표)하였다.

넷째 단계, 하나의 지표도 선정되지 못한 영역은 최소 한 개의 지표가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1개 지표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넷째 단계까지 총 24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다섯째 단계, 24개의 지표 중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으로 선정된 3개의 지표(취업여부, 직업, 개인소득 수준)는 경제적 안정, 일 영역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는 지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는 셋째 단계에서 선정된 9개 지표 중 3개가 탈락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들 지표는 행복지수를 분석할 때 특성별 요인으로 감안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21개의 지표를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행복결정요인으로 확정하였다. 선정된 21개 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3-116 참조).

〈표 3-116〉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단위: 점)

영역		우선 순위	영향 정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심리적 안정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2.4	8.0	◎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2.8	7.9		○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2.9	7.9		○		
가족·결혼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1.5	8.7	◎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2.1	8.1	◎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2.8	7.4		○		
개인적 관계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1.6	8.5	◎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2	7.9				◇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2.4	7.6				◇
지역사회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1.2	6.3				△
일상 생활	⑪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2.1	7.6				◇
	⑫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1.8	8.0	◎			
경제적 안정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1.9	7.4				◇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1.9	7.4				◇
일	⑮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1.8	8.5	◎			
	⑯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2.5	8.1	◎			
	⑰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2.4	8.1	◎			
건강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1.6	8.4	◎			
	⑲ 가족의 건강수준	1.8	8.7	◎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2.7	7.1		○		
주거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1.2	7.8				◇

먼저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영역을 살펴본다. 「심리적 안정」 영역은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등 3개 지표이다. 「가족·결혼」 영역은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등 3개 지표이다. 「개인적 관계」 영역은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등 3개 지표이다.

「지역사회」 영역은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일상생활」 영역은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과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경제적 안정」 영역은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이 선정되었다. 또한 「일」 영역은 3개 지표가 선정되었는데,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등이다. 「건강」 영역은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가족의 건강수준, 규칙적인 운동 여부 등 3개 지표가 선정되었고, 「주거」 영역은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1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제 4 장 행복결정요인별 한국인의 행복수준

제 1 절 행복결정요인별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본 장에서는 행복결정요인으로 선정된 21개 지표별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0~10점까지의 11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0점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중간수준은 5점이며, 그리고 10점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1. 「심리적 안정」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심리적 안정」 영역의 행복결정요인은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등 세 개이다. <표 4-1>은 이들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와 평균 행복수준을 보여준다.

「심리적 안정」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중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는 8점이 2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20.3%), 5점(19.8%)의 순이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역시 8점이 2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20.0%), 5점(17.1%)의 순이었다. 이와는 달리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는 5점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20.8%), 8점(19.9%)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심리적 안정」 영역 개별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이 7.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7.03점)이었으며,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6.57점)는 가장 낮았다.

〈표 4-1〉 「심리적 안정」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행복수준 분포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0	1.1	0.9	1.4
1	0.5	0.4	0.6
2	0.6	0.7	1.0
3	1.7	2.0	4.3
4	1.7	2.2	3.8
5	19.8	17.1	22.1
6	9.0	8.7	11.1
7	20.3	20.0	20.8
8	26.6	25.8	19.9
9	7.1	11.1	7.0
10	11.9	11.4	8.3
계(수)	100.0(2,000)	100.0(2,000)	100.0(2,000)
평균 행복수준	7.03	7.13	6.57

2. 「가족·결혼」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가족·결혼」 영역의 행복결정요인은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출산 및 자녀 성장에 대한 만족도 등 세 개이다. <표 4-2>는 이들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와 평균 행복수준을 보여준다.

「가족·결혼」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중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8점이 2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점(17.5%), 7점(16.8%)의 순이었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역시 8점이 2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16.1%), 5점(15.9%)의 순이었다. 또한 ‘출산 및 자녀 성장에 대한 만족도’는 8점이 2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점(21.8%), 9점(17.4%)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가족·결혼」 영역 개별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출산 및 자녀 성장에 대한 만족도’가 7.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7.43점)이었으며, 그

리고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6.94점)는 가장 낮았다.

<표 4-2> 「가족·결혼」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행복수준 분포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0	1.3	4.4	0.9
1	0.4	0.6	0.2
2	0.7	1.1	-
3	2.4	2.9	0.8
4	2.3	2.5	0.9
5	13.1	15.9	10.1
6	6.4	6.6	5.3
7	16.8	16.1	15.5
8	24.8	22.7	27.2
9	14.6	12.6	17.4
10	17.5	14.7	21.8
계(수)	100.0(2,000)	100.0(2,000)	100.0(2,000)
평균 행복수준	7.43	6.94	7.88

3. 「개인적 관계」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개인적 관계」 영역의 행복결정요인은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등 세 개이다. <표 4-3>은 이들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와 평균 행복수준을 보여준다.

「개인적 관계」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중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8점이 2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점(25.2%), 9점(16.5%)의 순이었다.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역시 8점이 2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19.4%), 10점(13.1%)의 순이었다. 또한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는 8점이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22.2%)이었으

며, 그리고 5점과 6점이 동일한 비율(11.5%)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관계」 영역 개별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9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7.39점)이었으며, 그리고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7.27점)는 가장 낮았다.

〈표 4-3〉 「개인적 관계」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행복수준 분포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0	0.6	0.8	0.5
1	0.1	0.1	0.3
2	0.3	0.6	0.5
3	1.3	1.6	1.2
4	1.2	1.8	1.2
5	8.3	11.9	11.5
6	5.6	9.6	11.5
7	15.0	19.4	22.2
8	26.0	28.8	33.3
9	16.5	12.6	10.7
10	25.2	13.1	7.4
계(수)	100.0(2,000)	100.0(2,000)	100.0(2,000)
평균 행복수준	7.98	7.39	7.27

4. 「지역사회」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지역사회」 영역의 행복결정요인은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이다. <표 4-4>는 이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와 평균 행복수준을 보여준다.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점이 2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19.9%), 6점(16.8%)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6.18점으로 나타났다.

〈표 4-4〉 「지역사회」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행복수준 분포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0	1.5
1	0.8
2	1.8
3	4.4
4	6.7
5	22.6
6	16.8
7	19.9
8	15.5
9	4.8
10	5.5
계(수)	100.0(2,000)
평균 행복수준	6.18

5. 「일상생활」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일상생활」 영역의 행복결정요인은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이다. <표 4-5>는 이들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와 평균 행복수준을 보여준다.

「일상생활」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중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는 5점이 2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16.8%), 8점(15.6%)의 순이었다.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은 8점이 1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18.4%), 5점(16.0%)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일상생활」 영역 개별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이 6.82점으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25점보다 높았다.

〈표 4-5〉 「일상생활」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행복수준 분포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0	1.7	0.9
1	0.8	0.6
2	2.4	1.6
3	6.0	4.6
4	5.3	4.9
5	23.1	16.0
6	13.9	11.7
7	16.8	18.4
8	15.6	19.9
9	6.7	9.1
10	8.0	12.5
계(수)	100.0(2,000)	100.0(2,000)
평균 행복수준	6.25	6.82

6. 「경제적 안정」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경제적 안정」 영역의 행복결정요인은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과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이다. <표 4-6>은 이들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와 평균 행복수준을 보여준다.

「경제적 안정」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중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은 5점이 2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14.3%), 6점(12.3%)의 순이었다.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역시 5점이 2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16.3%), 8점(14.0%)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안정」 영역 개별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이 5.84점으로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46점보다 미미하나마 높았다.

〈표 4-6〉 「경제적 안정」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행복수준 분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0	4.5	3.4
1	2.1	1.3
2	3.9	3.1
3	9.5	8.7
4	9.1	6.2
5	23.9	22.6
6	12.3	13.4
7	14.3	16.3
8	12.1	14.0
9	3.7	5.2
10	4.9	6.1
계(수)	100.0(2,000)	100.0(2,000)
평균 행복수준	5.46	5.84

7. 「일」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일」 영역의 행복결정요인은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그리고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 세 개이다. <표 4-7>은 이들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와 평균 행복수준을 보여준다.

「일」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중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는 8점이 2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16.6%), 5점(16.2%)의 순이었다.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는 5점이 1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8점(17.0%), 7점(15.8%)의 순이었다. 또한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8점이 1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18.5%), 5점(18.3%)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일」 영역 개별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가 6.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6.28점)이었으며,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6.18점)는 가장 낮았다.

〈표 4-7〉 「일」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행복수준 분포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0	2.5	3.3	2.8
1	0.9	1.3	1.5
2	1.9	2.9	2.9
3	4.1	6.6	5.5
4	3.4	4.9	5.0
5	16.2	19.8	18.3
6	11.5	13.0	11.4
7	16.6	15.8	18.5
8	23.5	17.0	19.4
9	9.5	7.8	7.5
10	10.1	7.9	7.3
계(수)	100.0(2,000)	100.0(2,000)	100.0(2,000)
평균 행복수준	6.70	6.18	6.28

8. 「건강」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건강」 영역의 행복결정요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가족의 건강수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여부 등 세 개이다. <표 4-8>은 이들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와 평균 행복수준을 보여준다.

「건강」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중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은 8점이 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21.4%), 5점(14.0%)의 순이었다. ‘가족의 건강수준’ 역시 8점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21.8%), 9점(13.9%)의 순이었다. 이와는 달리 ‘규칙적인 운동여부’는 5점이 2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8점(11.6%), 7점(11.2%)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건강」 영역 개별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가족의 건강수준’이 7.38점으로 가

장 높았고, 다음은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6.80점)이었으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여부’(5.39점)는 가장 낮았다.

〈표 4-8〉 「건강」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행복수준 분포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가족의 건강수준	규칙적인 운동여부
0	1.7	0.8	7.6
1	0.4	0.2	2.8
2	1.3	0.6	5.0
3	3.6	1.7	9.2
4	4.7	1.7	6.6
5	14.0	10.6	22.5
6	11.7	9.0	10.4
7	21.4	21.8	11.2
8	23.3	28.6	11.6
9	9.8	13.9	6.6
10	8.4	11.3	6.8
계(수)	100.0(2,000)	100.0(2,000)	100.0(2,000)
평균 행복수준	6.80	7.38	5.39

9. 「주거」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주거」 영역의 행복결정요인은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이다. <표 4-9>는 이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와 평균 행복수준을 보여준다.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5점과 8점이 모두 1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점(18.0%)이었다. 즉, 5점, 7점, 8점이 유사한 수준을 보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6.54점으로 나타났다.

〈표 4-9〉 「주거」 영역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행복수준 분포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0	1.8
1	0.9
2	2.3
3	5.6
4	4.4
5	18.4
6	11.4
7	18.0
8	18.4
9	8.5
10	10.4
계(수)	100.0(2,000)
평균 행복수준	6.54

제 2 절 한국인 특성 및 지표별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

본 절(節)에서는 한국인의 특성별 개별지표의 행복수준 분포 및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았다. 특성은 거주지역, 성,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등에 국한하였다.

1. 「심리적 안정」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가.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의 행복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군 지역 거주자, 50세 이상 연령층, 이혼·사별·별거자, 고졸 이하 저학력자,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등은 중간의 행복수준을 보여주는 5점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경우는 높은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8점이 가장 많았다.

〈표 4-10〉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1.1	0.5	0.6	1.7	1.7	19.8	9.0	20.3	26.6	7.1	11.9	100.0(2,000)	7.03
거주지역													
대도시	0.7	0.2	0.5	1.2	1.4	17.5	9.0	19.9	28.1	8.4	13.0	100.0(943)	7.22
중소도시	1.1	0.7	0.6	1.8	1.8	20.5	9.0	21.6	26.1	5.8	10.8	100.0(876)	6.92
군	2.8	0.6	0.6	3.3	2.2	27.6	8.8	16.0	21.0	6.6	10.5	100.0(181)	6.56
성													
남자	1.0	0.5	0.7	1.8	2.2	20.9	9.6	20.5	24.2	6.6	12.0	100.0(987)	6.94
여자	1.2	0.4	0.4	1.5	1.1	18.7	8.4	20.1	28.9	7.6	11.7	100.0(1,013)	7.12
연령													
20대	0.0	0.0	0.3	1.0	1.5	11.7	8.1	26.4	31.7	7.4	11.9	100.0(394)	7.41
30대	0.4	0.2	0.4	1.3	1.5	14.4	9.2	22.3	30.9	7.3	12.0	100.0(466)	7.27
40대	0.7	0.7	0.0	2.4	2.6	18.3	9.6	18.7	28.3	8.9	9.8	100.0(459)	7.03
50세 이상	2.5	0.7	1.2	1.8	1.2	29.1	9.0	16.4	19.5	5.6	13.1	100.0(681)	6.64
혼인상태													
미혼	0.0	0.4	0.0	1.1	1.9	13.2	8.4	25.9	30.2	7.3	11.4	100.0(463)	7.32
유배우	1.3	0.4	0.6	1.5	1.5	21.1	9.4	19.3	25.6	7.3	11.8	100.0(1,443)	6.98
이혼·사별·별거	3.2	1.1	2.1	6.4	2.1	30.9	5.3	7.4	23.4	3.2	14.9	100.0(94)	6.3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5	0.4	0.9	2.5	2.0	25.4	8.7	18.8	23.0	5.5	11.3	100.0(1,125)	6.75
2~3년제 대졸	1.1	0.4	0.4	0.4	2.2	15.2	11.2	20.8	28.6	6.3	13.4	100.0(269)	7.20
4년제 대졸 이상	0.2	0.3	0.0	0.7	0.8	11.3	8.5	23.2	32.2	10.5	12.3	100.0(600)	7.51
취업여부													
취업	0.9	0.7	0.7	2.0	2.0	19.3	8.4	20.7	26.5	7.8	11.2	100.0(1,225)	7.01
미취업	1.7	0.2	0.5	1.2	1.1	22.4	10.3	19.4	25.9	5.6	11.7	100.0(648)	6.94
학생	0.0	0.0	0.0	0.8	1.6	11.0	7.9	20.5	30.7	8.7	18.9	100.0(127)	7.6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4.0	1.0	1.5	3.5	2.5	27.3	7.1	15.2	18.7	6.1	13.1	100.0(198)	6.45
101~200만원	0.5	0.3	0.5	1.6	1.6	28.0	10.4	19.5	25.0	3.3	9.1	100.0(364)	6.73
201~300만원	0.2	0.2	0.2	1.8	2.1	17.8	9.0	26.3	23.6	6.0	12.7	100.0(433)	7.11
301~400만원	0.0	0.7	0.4	1.1	1.1	16.2	8.5	25.1	29.9	5.5	11.4	100.0(271)	7.20
401~500만원	0.4	0.0	0.4	0.8	1.6	12.0	8.1	17.4	33.3	13.6	12.4	100.0(258)	7.53
501만원 이상	0.0	0.0	0.0	1.3	0.4	9.6	9.6	20.1	33.5	13.4	12.1	100.0(239)	7.62
무응답	4.2	1.3	1.3	1.7	2.1	27.0	9.3	12.7	23.2	4.2	13.1	100.0(237)	6.51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의 평균 행복수준은 대도시 거주자가 7.2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거주자(6.92점), 군 거주자(6.56

점)의 순이었다. 여성(7.12점)이 남성(6.94점)보다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의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았고(7.41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져 50세 이상은 가장 낮았다(6.64점). 혼인상태에 따른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의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미혼층이 가장 높은 7.32점이었고, 다음은 유배우자이었으며(6.98점), 그리고 이혼·사별·별거자는 가장 낮았다(6.36점).

또한 최종학력별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가 가장 낮았고(6.75점), 4년제 대졸 이상은 7.5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아직까지 취업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은 학생이 7.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업자(7.01점), 미취업자(6.94점)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의 행복수준은 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1만원 이상 7.62점, 100만원 이하 6.45점).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지표의 행복수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의 행복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 연령층, 이혼·사별·별거자, 고졸 이하 저학력자,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등은中间的 행복수준을 보여주는 5점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경우는 높은 행복수준에 해당하는 8점이 가장 많았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의 평균 행복수준은 대도시 거주자가 7.2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거주자(7.15점), 군 거주자(6.72점)의 순이었다.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여성(7.20점)이 남성(7.06점)보다 미미하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동일한 수준에서 가장 높았고(7.33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져 50세 이상은 가장 낮았다(6.83점). 혼인상태별 평균

행복수준은 미혼층이 가장 높은 7.30점이었고, 다음은 유배우자이었으며 (7.14점), 그리고 이혼·사별·별거자는 가장 낮았다(6.24점).

〈표 4-11〉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0.9	0.4	0.7	2.0	2.2	17.1	8.7	20.0	25.8	11.1	11.4	100.0(2,000)	7.13
거주지역													
대도시	0.6	0.3	0.7	1.9	1.5	15.9	9.7	20.9	25.3	11.6	11.6	100.0(943)	7.20
중소도시	0.6	0.3	0.5	1.9	2.4	18.4	7.3	19.6	26.6	11.0	11.4	100.0(876)	7.15
균	3.3	0.6	1.1	2.8	5.0	17.1	9.9	16.6	23.8	9.4	10.5	100.0(181)	6.72
성													
남자	0.7	0.4	0.7	2.5	2.5	17.5	9.5	20.5	23.8	9.7	12.1	100.0(987)	7.06
여자	1.0	0.3	0.6	1.5	1.9	16.7	7.8	19.4	27.6	12.4	10.8	100.0(1,013)	7.20
연령													
20대	0.0	0.3	0.8	3.0	2.0	10.7	7.9	24.9	27.9	9.6	12.9	100.0(394)	7.33
30대	0.6	0.2	0.4	1.9	2.6	11.4	8.4	22.1	29.2	11.6	11.6	100.0(466)	7.33
40대	0.2	0.2	0.4	1.1	2.6	16.8	8.9	19.2	27.7	14.6	8.3	100.0(459)	7.22
50세 이상	1.9	0.6	0.9	2.1	1.8	25.0	9.1	16.2	20.9	9.3	12.5	100.0(681)	6.83
혼인상태													
미혼	0.0	0.2	0.9	3.2	2.6	11.7	8.0	23.5	25.9	9.9	14.0	100.0(463)	7.30
유배우	1.0	0.3	0.4	1.4	2.0	18.0	9.0	19.5	25.8	11.8	10.7	100.0(1,443)	7.14
이혼·사별·별거	2.1	2.1	3.2	5.3	3.2	29.8	6.4	8.5	23.4	6.4	9.6	100.0(94)	6.2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0.4	0.8	2.7	2.5	22.9	9.1	17.4	22.9	9.3	10.8	100.0(1,125)	6.86
2~3년제 대졸	0.4	0.7	0.7	0.7	1.9	13.8	7.8	24.2	28.3	10.4	11.2	100.0(269)	7.28
4년제 대졸 이상	0.3	0.0	0.3	1.3	1.8	7.5	8.3	23.0	29.7	14.8	12.8	100.0(600)	7.60
취업여부													
취업	0.6	0.5	0.7	2.2	2.5	15.8	9.4	20.3	24.8	11.4	11.8	100.0(1,225)	7.15
미취업	1.5	0.2	0.6	1.5	1.7	21.3	7.6	18.4	26.4	10.3	10.5	100.0(648)	7.02
학생	0.0	0.0	0.8	2.4	1.6	7.9	7.1	24.4	31.5	11.8	12.6	100.0(127)	7.5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5	1.0	0.5	2.5	2.0	29.8	9.6	12.1	19.7	6.1	15.2	100.0(198)	6.73
101~200만원	0.8	0.0	1.6	2.7	3.0	21.2	11.0	19.2	20.9	9.3	10.2	100.0(364)	6.83
201~300만원	0.0	0.2	0.5	1.2	1.6	15.0	7.9	23.6	28.2	11.8	10.2	100.0(433)	7.31
301~400만원	0.0	0.0	0.0	0.7	1.8	14.4	5.5	26.6	29.2	10.3	11.4	100.0(271)	7.41
401~500만원	0.0	0.0	0.0	2.3	2.3	10.9	8.5	18.6	30.2	15.1	12.0	100.0(258)	7.50
501만원 이상	0.0	0.0	0.4	0.8	2.5	7.9	6.7	20.9	31.0	17.6	12.1	100.0(239)	7.67
무응답	4.6	1.7	1.3	4.2	2.1	23.2	11.4	13.9	19.8	6.8	11.0	100.0(237)	6.36

최종학력별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졸 이하 6.86점, 2~3년제 대졸 7.28점, 4년제 대졸 이상 7.60점). 아직까지 취업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은 학생이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이 7.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업자(7.15점), 미취업자(7.02점)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의 행복수준은 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1만원 이상 7.67점, 100만원 이하 6.73점).

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은 전반적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행복결정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행복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5점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7~8점이었다. 즉, 대도시 지역 거주자, 20~40대 연령층, 미혼자, 2~3년제 대졸 이상, 취업자 또는 학생, 301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는 7~8점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행복수준은 대도시 거주자가 6.6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거주자(6.55점), 군 거주자(6.28점)의 순이었다. 남성(6.62점)이 여성(6.52점)보다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고(6.90점), 다음은 20대(6.80점)이었으며, 50세 이상은 가장 낮았다(6.23점). 행복수준은 미혼층이 가장 높은 6.80점이었고, 다음은 유배우자였으며(6.55점), 그리고 이혼·사별·별거자는 가장 낮았다(5.80점).

또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은 학생이 7.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업자(6.62점), 미취업자(6.36점)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별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의 행복수준은 소득에 대체적으로 비례하고 있었다(401~500만원 7.09점, 501만원 이상 7.08점, 100만원 이하 6.01점).

〈표 4-12〉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1.4	0.6	1.0	4.3	3.8	22.1	11.1	20.8	19.9	7.0	8.3	100.0(2,000)	6.57
거주지역													
대도시	1.2	0.5	1.0	3.7	3.3	21.4	11.6	20.6	21.6	7.0	8.2	100.0(943)	6.65
중소도시	1.3	0.6	1.0	4.2	4.0	22.5	11.0	21.3	19.3	7.0	7.9	100.0(876)	6.55
군	2.8	1.1	0.6	7.7	5.5	23.2	9.4	18.8	13.3	6.6	11.0	100.0(181)	6.28
성													
남자	1.2	0.5	0.8	4.0	3.6	22.2	11.8	20.8	19.4	6.4	9.4	100.0(987)	6.62
여자	1.5	0.7	1.1	4.6	3.9	21.9	10.5	20.7	20.3	7.5	7.2	100.0(1,013)	6.52
연령													
20대	0.3	0.5	0.3	4.1	2.3	17.8	14.5	25.6	19.5	6.3	8.9	100.0(394)	6.80
30대	0.0	0.0	0.4	3.4	2.1	19.7	11.2	23.4	24.7	7.1	7.9	100.0(466)	6.90
40대	1.7	0.9	0.7	4.1	5.2	19.8	10.0	21.8	20.0	9.4	6.3	100.0(459)	6.55
50세 이상	2.6	0.9	1.9	5.1	4.8	27.6	9.8	15.4	16.6	5.6	9.5	100.0(681)	6.23
혼인상태													
미혼	0.2	0.6	0.4	4.1	2.4	16.6	15.1	25.3	20.1	6.3	8.9	100.0(463)	6.80
유배우	1.5	0.5	1.0	4.3	4.2	23.1	9.8	20.2	20.0	7.3	8.1	100.0(1,443)	6.55
이혼·사별·별거	4.3	2.1	3.2	5.3	5.3	33.0	10.6	6.4	16.0	5.3	8.5	100.0(94)	5.8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0	0.8	1.5	5.2	4.9	25.6	9.3	18.4	17.9	5.3	9.1	100.0(1,125)	6.33
2~3년제 대졸	0.7	0.7	0.4	3.3	3.0	20.8	13.4	25.3	17.5	8.2	6.7	100.0(269)	6.65
4년제 대졸 이상	0.3	0.2	0.2	3.2	2.2	15.8	13.3	23.3	24.5	9.5	7.5	100.0(600)	6.98
취업여부													
취업	1.1	0.5	0.7	4.7	3.8	20.6	11.8	21.6	19.5	7.6	8.2	100.0(1,225)	6.62
미취업	1.9	0.8	1.5	4.2	4.3	26.5	9.3	19.1	19.3	5.4	7.7	100.0(648)	6.36
학생	0.8	0.8	0.8	1.6	1.6	13.4	13.4	20.5	26.0	8.7	12.6	100.0(127)	7.1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4.0	0.5	3.0	5.6	6.1	29.3	9.6	12.6	14.1	3.5	11.6	100.0(198)	6.01
101~200만원	1.6	0.8	1.4	5.5	4.4	26.4	12.4	19.0	15.7	4.7	8.2	100.0(364)	6.26
201~300만원	0.2	0.5	0.7	3.9	3.2	23.6	12.2	23.1	17.8	6.7	8.1	100.0(433)	6.63
301~400만원	1.1	0.4	0.0	3.0	4.4	20.7	9.6	25.5	21.4	7.4	6.6	100.0(271)	6.70
401~500만원	0.0	0.8	0.4	3.1	2.3	13.2	12.8	21.3	27.5	9.3	9.3	100.0(258)	7.09
501만원 이상	0.0	0.0	0.0	4.6	2.1	13.8	9.6	23.8	28.5	11.3	6.3	100.0(239)	7.08
무응답	3.8	1.3	1.7	4.6	4.6	26.2	9.7	16.9	16.0	6.3	8.9	100.0(237)	6.18

2. 「가족·결혼」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가.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가족생활·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는 혼인상태가 이혼·사별·별거인 경우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점 해당이 가장 많았고(각각 28.7%, 20.2%), 그 외의 경우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모두 8점 해당이 가장 많았다.

‘가족생활·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가 7.5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거주자(7.38점), 군 거주자(7.28점)의 순이었다. 남성(7.55점)이 여성(7.31점)보다 다소 높았으며, 20대가 가장 높았고(7.73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져 50세 이상은 가장 낮았다(6.98점).

평균 행복수준은 미혼층이 가장 높은 7.60점이었고, 다음은 유배우자이었으며(7.46점), 그리고 이혼·사별·별거자는 가장 낮았다(6.13점). 또한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년제 대졸 이상 7.71점, 고졸 이하 7.23점). ‘가족생활·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행복수준은 아직까지 취업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은 학생이 8.0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업자(7.46점), 미취업자(7.26점)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월평균 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01만원 이상 7.88점, 100만원 이하 6.85점).

〈표 4-13〉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1.3	0.4	0.7	2.4	2.3	13.1	6.4	16.8	24.8	14.6	17.5	100.0(2,000)	7.43
거주지역													
대도시	1.2	0.2	0.7	2.2	1.9	11.7	6.8	17.5	24.6	15.5	17.7	100.0(943)	7.51
중소도시	1.1	0.6	0.5	2.3	3.0	14.2	5.9	16.9	24.8	13.7	17.1	100.0(876)	7.38
군	2.8	0.0	1.7	3.3	1.1	14.9	6.1	12.2	26.0	13.8	18.2	100.0(181)	7.28
성													
남자	1.1	0.2	0.5	2.8	2.1	11.4	6.6	16.6	23.3	15.5	19.8	100.0(987)	7.55
여자	1.5	0.5	0.9	1.9	2.5	14.6	6.1	16.9	26.3	13.6	15.3	100.0(1,013)	7.31
연령													
20대	0.3	0.3	0.5	2.0	2.8	8.9	5.6	18.8	23.6	16.5	20.8	100.0(394)	7.73
30대	0.4	0.0	0.2	2.1	1.7	9.4	5.8	18.9	29.6	15.5	16.3	100.0(466)	7.67
40대	1.1	0.4	1.1	1.3	2.0	10.2	7.0	14.8	27.2	17.6	17.2	100.0(459)	7.60
50세 이상	2.6	0.6	0.9	3.4	2.6	19.8	6.8	15.4	20.6	10.7	16.6	100.0(681)	6.98
혼인상태													
미혼	0.4	0.4	0.4	2.4	2.4	10.4	6.3	19.0	24.6	14.5	19.2	100.0(463)	7.60
유배우	1.2	0.3	0.7	2.1	2.2	12.9	6.5	16.4	25.9	14.7	17.1	100.0(1,443)	7.46
이혼·사별·별거	7.4	1.1	2.1	6.4	3.2	28.7	4.3	10.6	8.5	12.8	14.9	100.0(94)	6.1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7	0.5	1.2	3.2	2.4	16.3	5.5	15.7	22.6	13.3	17.6	100.0(1,125)	7.23
2~3년제 대졸	1.5	0.0	0.0	0.7	3.0	11.2	6.7	17.1	24.5	15.6	19.7	100.0(269)	7.64
4년제 대졸 이상	0.3	0.2	0.2	1.5	1.8	8.0	7.8	18.7	29.2	16.2	16.2	100.0(600)	7.71
취업여부													
취업	1.1	0.2	0.8	2.3	2.6	12.7	6.2	17.2	24.7	14.9	17.4	100.0(1,225)	7.46
미취업	1.9	0.8	0.5	2.8	2.0	15.1	6.8	15.6	25.8	12.7	16.2	100.0(648)	7.26
학생	0.8	0.0	0.8	0.8	0.8	6.3	5.5	18.1	21.3	20.5	25.2	100.0(127)	8.0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3.5	0.5	2.0	5.1	4.0	20.2	5.6	10.1	18.2	9.6	21.2	100.0(198)	6.85
101~200만원	1.6	0.5	0.3	1.9	3.6	17.9	7.4	16.2	22.0	12.4	16.2	100.0(364)	7.18
201~300만원	0.5	0.2	0.2	1.8	1.6	10.6	6.9	18.9	26.8	14.3	18.0	100.0(433)	7.63
301~400만원	0.4	0.0	0.4	1.5	2.2	11.4	5.2	17.3	29.2	15.5	17.0	100.0(271)	7.66
401~500만원	0.8	0.0	0.4	0.4	0.8	8.9	4.3	21.7	30.2	19.0	13.6	100.0(258)	7.76
501만원 이상	0.4	0.0	0.4	2.5	1.7	5.9	5.9	14.6	28.5	23.0	17.2	100.0(239)	7.88
무응답	3.0	1.3	2.1	4.6	2.5	17.7	8.4	15.2	16.5	8.0	20.7	100.0(237)	6.86

나.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의 행복수준 분포는 20대, 혼인상태가 미혼층과 이혼·사별·별거자인 경우, 학생,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진 경우는 5점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8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5점의 비율이 20대 22.1%, 미혼층은 24.2%, 이혼·사별·별거자는 21.3%로 가장 높았으며, 마찬가지로 학생 23.6%, 100만원 이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자 23.2% 등으로 높았고, 그 외의 특성을 가진 계층은 8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다른 지표와는 상반되게 군 지역 거주자가 7.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거주자(6.95점), 대도시 거주자(6.92점)의 순이었다. 남성(7.05점)이 여성(6.85점)보다 다소 높았고, 30대가 가장 높았으며(7.43점), 50세 이상과 20대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각각 6.58점, 6.52점). 행복수준은 유배우자가 가장 높은 7.34점이었고, 다음은 미혼층이었으며(6.28점), 그리고 이혼·사별·별거자는 매우 낮은 행복수준을 보였다(4.12점).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년제 대졸 이상이 7.33점이었고, 다음은 2~3년제 대졸자(7.13점)이었으며, 고졸 이하자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6.69점). 행복수준은 취업자가 가장 높은 7.01점이었고, 다음은 미취업자(6.97점)이었으며, 그리고 학생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6.17점). 마지막으로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대부분의 다른 지표와는 달리 월평균 소득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가구소득이 401~500만원인 경우가 가장 높은 행복도를 보였고(7.40점), 다음은 501만원 이상(7.28점), 201~300만원(7.18점)의 순이었으며,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가장 낮았다(6.42점).

〈표 4-14〉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4.4	0.6	1.1	2.9	2.5	15.9	6.6	16.1	22.7	12.6	14.7	100.0(2,000)	6.94
거주지역													
대도시	4.9	0.6	1.0	2.8	2.4	16.0	6.5	16.3	22.0	13.0	14.5	100.0(943)	6.92
중소도시	3.8	0.6	1.1	3.0	2.7	16.3	6.7	16.1	23.6	11.6	14.4	100.0(876)	6.95
군	5.0	0.6	1.7	3.3	1.7	13.3	6.6	14.4	22.1	14.9	16.6	100.0(181)	7.04
성													
남자	4.1	0.5	1.3	3.1	1.3	16.0	6.6	15.9	21.5	12.8	16.9	100.0(987)	7.05
여자	4.7	0.7	0.9	2.7	3.7	15.8	6.6	16.2	23.9	12.4	12.4	100.0(1,013)	6.85
연령													
20대	5.3	0.8	1.5	3.3	2.5	22.1	7.9	17.5	17.8	7.9	13.5	100.0(394)	6.52
30대	1.9	0.0	1.1	1.9	1.1	11.8	6.9	17.4	28.1	14.6	15.2	100.0(466)	7.43
40대	2.6	0.4	1.1	2.8	2.8	10.5	5.9	17.2	21.1	18.1	17.4	100.0(459)	7.37
50세 이상	6.8	1.0	0.9	3.4	3.2	18.8	6.2	13.5	22.9	10.3	13.1	100.0(681)	6.58
혼인상태													
미혼	6.0	0.9	1.5	4.1	2.2	24.2	8.9	17.9	16.8	6.3	11.2	100.0(463)	6.28
유배우	2.1	0.5	1.0	2.0	2.4	12.9	6.0	16.3	25.4	15.1	16.2	100.0(1,443)	7.34
이혼·사별·별거	30.9	1.1	0.0	10.6	6.4	21.3	4.3	3.2	9.6	5.3	7.4	100.0(94)	4.12
최종학력													
고졸 이하	5.8	0.9	1.6	3.0	3.2	18.4	6.0	13.4	22.5	10.5	14.7	100.0(1,125)	6.69
2~3년제 대졸	4.5	0.0	0.0	2.6	2.6	14.5	8.2	17.1	18.2	15.6	16.7	100.0(269)	7.13
4년제 대졸 이상	1.7	0.3	0.7	2.8	1.2	12.0	7.0	20.7	25.2	15.2	13.3	100.0(600)	7.33
취업여부													
취업	3.5	0.7	1.5	3.2	2.3	15.5	6.8	16.6	21.0	13.7	15.3	100.0(1,225)	7.01
미취업	4.9	0.6	0.5	2.5	2.8	15.1	6.2	14.8	26.9	12.0	13.7	100.0(648)	6.97
학생	10.2	0.0	0.8	2.4	3.1	23.6	7.1	17.3	18.1	4.7	12.6	100.0(127)	6.1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8.6	1.0	0.5	3.5	1.5	23.2	7.1	12.6	17.7	7.1	17.2	100.0(198)	6.42
101~200만원	4.4	0.3	0.8	3.8	4.9	18.7	6.3	16.5	20.3	8.8	15.1	100.0(364)	6.73
201~300만원	3.5	0.2	0.7	3.0	2.1	14.1	6.2	15.5	25.6	13.4	15.7	100.0(433)	7.18
301~400만원	3.3	0.0	1.8	1.8	2.6	14.0	8.1	17.7	23.6	14.0	12.9	100.0(271)	7.07
401~500만원	1.9	0.4	0.8	2.3	2.3	11.6	5.0	18.6	23.6	19.8	13.6	100.0(258)	7.40
501만원 이상	2.1	0.4	2.1	2.1	0.8	12.6	5.4	19.2	25.9	17.2	12.1	100.0(239)	7.28
무응답	8.9	2.5	1.3	3.4	2.1	19.0	8.4	11.4	19.8	7.6	15.6	100.0(237)	6.32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군 지역 거주자, 남성, 30대, 유배우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취업자, 월 가구소득이 대체로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의 행복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 연령층과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최고 행복수준을 보여주는 10점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경우는 8점이 가장 많았다.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행복수준은 거주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소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7.91점), 남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남성 7.87점, 여성 7.90점), 그리고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여 20대가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20대 8.26점, 50세 이상 7.74점). 행복수준은 혼인상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수준은 유배우자가 높았고(7.93점), 이혼·사별·별거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7.20점).

또한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7.79점), 4년제 대졸 이상은 높은 수준이었다(8.03점).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행복수준 차이는 0.12점에 불과하였다(취업자 7.93점, 미취업자 7.81점). 마지막으로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는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201~300만원인 경우가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고(8.09점), 다음은 501만원 이상(8.08점)이었으며, 반대로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가장 낮았다(7.66점).

<표 4-15>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0.9	0.3	-	0.8	0.9	10.1	5.3	15.5	27.2	17.4	21.9	100.0(1,536)	7.88
거주지역													
대도시	0.8	0.4	-	1.1	0.7	9.8	4.5	15.4	28.5	17.3	21.4	100.0(691)	7.87
중소도시	0.8	0.0	-	0.6	0.9	10.3	5.8	16.4	25.9	16.7	22.8	100.0(679)	7.91
균	1.8	0.0	-	0.0	1.8	10.2	7.2	11.5	27.7	20.5	19.3	100.0(166)	7.81
성													
남자	1.1	0.1	-	0.7	1.4	10.8	5.7	14.0	25.5	17.6	23.0	100.0(712)	7.87
여자	0.7	0.2	-	0.9	0.5	9.5	5.0	16.6	28.6	17.2	20.8	100.0(824)	7.90
연령													
20대						15.5	3.1	8.2	18.6	23.7	30.9	100.0(37)	8.26
30대	0.2			0.7	0.2	10.2	3.2	13.8	28.6	21.4	21.6	100.0(384)	8.07
40대	0.4	0.4		0.9	0.7	6.5	7.7	18.2	27.0	17.4	20.5	100.0(443)	7.91
50세 이상	1.6	0.1		0.7	1.5	12.1	5.2	14.9	27.0	14.7	22.2	100.0(672)	7.74
혼인상태													
미혼	-	-	-	-	-	-	-	-	-	-	-	100.0(-)	-
유배우	1.4	0.3	0.0	0.9	0.9	11.8	5.3	14.9	27.5	14.2	22.9	100.0(1,443)	7.93
이혼·사별·별거	0.6	0.6	0.0	0.6	1.0	10.0	4.5	16.0	25.4	17.7	23.8	100.0(94)	7.20
최종학력													
고졸 이하	0.3	0.0	0.0	0.7	0.9	6.8	5.9	16.4	27.8	23.2	18.3	100.0(1,006)	7.79
2~3년제 대졸	0.4	0.3	0.0	0.9	1.0	10.7	5.4	15.0	25.5	17.9	23.0	100.0(181)	7.95
4년제 대졸 이상	1.6	0.2	0.0	0.7	0.7	9.2	5.3	16.0	29.8	16.6	19.9	100.0(458)	8.03
취업여부													
취업	0.4	0.3	-	0.9	1.0	10.7	5.4	15.0	25.5	17.9	23.0	100.0(938)	7.93
미취업	1.6	0.2	-	0.7	0.7	9.2	5.3	16.0	29.8	16.6	19.9	100.0(598)	7.81
학생	-	-	-	-	-	-	-	-	100.0	-	-	100.0(1)	8.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7	0.6	-	1.7	0.0	17.6	1.2	16.3	22.8	11.7	26.3	100.0(171)	7.66
101~200만원	0.6	0.4	-	0.4	0.6	11.7	6.2	13.1	27.3	14.5	24.9	100.0(289)	7.91
201~300만원	0.0	0.3	-	0.3	0.0	9.5	5.4	13.3	28.9	19.8	22.7	100.0(339)	8.09
301~400만원	0.0	0.0	-	2.0	1.5	5.6	6.0	17.0	29.7	19.6	18.7	100.0(199)	7.95
401~500만원	1.1	0.0	-	1.1	0.5	5.7	6.7	17.6	24.9	21.3	21.3	100.0(193)	8.00
501만원 이상	0.6	0.0	-	0.6	0.6	5.4	4.1	17.9	29.2	22.6	19.1	100.0(168)	8.08
무응답	3.3	0.0	-	0.0	4.0	15.7	6.8	15.7	25.8	11.2	17.4	100.0(178)	7.27

주: 비례당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른 지표의 평균값을 적용함.

3. 「개인적 관계」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가.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행복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군 지역 거주자, 남성, 20대 연령층, 미혼자 및 이혼·사별·별거자, 고졸 이하 저학력자,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와 301~400만원의 중소득자 등은 최고 행복수준을 보여주는 10점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경우는 8점이 가장 많았다.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거주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8.02점), 남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남성 7.98점, 여성 7.97점), 그리고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여 30대가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30대 8.16점, 50세 이상 7.82점). 평균 행복수준은 혼인상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수준은 유배우자가 높았고(8.02점), 이혼·사별·별거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7.04점).

또한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7.91점), 4년제 대졸 이상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8.11점).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행복수준 차이는 0.14점에 불과하였다(취업자 8.00점, 미취업자 7.86점). 마지막으로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가장 낮았고(7.84점),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수준은 점차 증가하여 501만원 이상의 경우는 가장 높았다(8.19점).

행복수준이 높은 지표인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자, 30대, 미혼자 또는 유배우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학생(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 월 가구

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경우가 8점 이상의 높은 행복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0.6	0.1	0.3	1.3	1.2	8.3	5.6	15.0	26.0	16.5	25.2	100.0(2,000)	7.98
거주지역													
대도시	0.4	0.1	0.4	1.0	0.8	7.6	6.4	15.3	25.7	16.8	25.6	100.0(943)	8.02
중소도시	0.6	0.1	0.2	1.6	1.5	8.8	5.0	14.3	26.9	15.9	25.1	100.0(876)	7.95
균	1.7	0.0	0.0	1.1	1.7	9.4	4.4	16.6	23.2	18.2	23.8	100.0(181)	7.87
성													
남자	0.5	0.1	0.1	1.2	1.4	8.6	5.9	15.1	25.4	15.1	26.5	100.0(987)	7.98
여자	0.7	0.1	0.5	1.3	1.0	8.0	5.3	14.8	26.6	17.9	23.9	100.0(1,013)	7.97
연령													
20대	0.0	0.0	0.3	2.0	1.8	6.9	6.1	17.5	20.8	15.7	28.9	100.0(394)	8.05
30대	0.2	0.0	0.0	1.1	0.4	7.3	3.6	14.6	29.4	17.8	25.5	100.0(466)	8.16
40대	0.7	0.2	0.7	0.7	1.5	6.5	7.6	14.8	25.5	18.1	23.7	100.0(459)	7.96
50세 이상	1.2	0.1	0.3	1.3	1.2	11.0	5.3	13.8	27.0	15.0	23.8	100.0(681)	7.82
혼인상태													
미혼	0.2	0.0	0.4	2.2	1.3	7.8	6.0	16.2	21.0	16.6	28.3	100.0(463)	8.01
유배우	0.3	0.1	0.2	1.0	1.1	7.3	5.7	15.0	28.0	16.8	24.3	100.0(1,443)	8.02
이혼·사별·별거	6.4	0.0	1.1	0.0	2.1	25.5	2.1	7.4	20.2	11.7	23.4	100.0(94)	7.04
최종학력													
고졸 이하	0.9	0.1	0.4	1.4	1.3	10.3	5.6	13.8	24.4	14.9	26.9	100.0(1,125)	7.91
2~3년제 대졸	0.7	0.0	0.7	1.5	1.9	4.8	7.4	15.6	27.1	14.9	25.3	100.0(269)	7.95
4년제 대졸 이상	0.0	0.2	0.0	0.8	0.7	6.2	4.8	16.8	28.7	20.0	21.8	100.0(600)	8.11
취업여부													
취업	0.3	0.2	0.2	1.3	0.9	8.4	5.7	14.9	26.4	16.8	24.8	100.0(1,225)	8.00
미취업	1.2	0.0	0.5	1.1	1.7	8.5	5.4	15.9	26.9	15.1	23.8	100.0(648)	7.86
학생	0.0	0.0	0.8	1.6	1.6	6.3	5.5	10.2	17.3	20.5	36.2	100.0(127)	8.3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0	0.5	0.5	1.0	1.5	14.6	4.0	9.6	24.7	13.1	29.3	100.0(198)	7.84
101~200만원	0.5	0.0	0.3	1.6	1.6	9.3	7.1	12.9	27.5	11.8	27.2	100.0(364)	7.90
201~300만원	0.2	0.0	0.5	0.9	1.4	4.4	6.0	19.6	25.4	17.1	24.5	100.0(433)	8.06
301~400만원	0.0	0.0	0.0	2.6	0.4	7.7	5.2	14.4	25.1	18.1	26.6	100.0(271)	8.09
401~500만원	0.0	0.4	0.0	0.0	0.4	8.1	6.2	14.0	27.9	22.5	20.5	100.0(258)	8.09
501만원 이상	0.8	0.0	0.0	0.8	1.7	5.0	2.9	14.2	27.6	21.8	25.1	100.0(239)	8.19
무응답	2.1	0.0	0.8	1.7	1.3	12.7	6.3	16.5	23.2	11.8	23.6	100.0(237)	7.57

나.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행복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수준 분포는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8점이라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보다 높은 행복수준을 보이는 9~1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대도시 거주자(26.7%), 여성(26.9%), 20대(34.5%), 미혼자(36.3%), 2~3년제 대졸자(27.5%), 학생(40.9%), 50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28.9%) 등이었다.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7.46점), 군 거주자(7.09점)가 가장 낮았으며, 여성(7.49점)이 남성(7.29점)보다 다소 높았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았고(7.85점), 40대가 가장 낮았다(7.23점).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혼인상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수준은 미혼자가 가장 높았고(7.85점), 이혼·사별·별거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7.03점).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최종학력에 따라 미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7.32점), 2~3년제 대졸자가 가장 높았다(7.57점).

또한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행복수준 차이는 0.07점에 불과하였으나(취업자 7.36점, 미취업자 7.29점), 학생은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았다(8.16점). 마지막으로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가장 낮았고(7.08점),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수준은 점차 증가하여 501만원 이상의 경우는 가장 높았다(7.66점).

행복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자, 여성, 20대 연령층, 미혼자, 2~3년제 대졸 학력자, 학생, 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0.8	0.1	0.6	1.6	1.8	11.9	9.6	19.4	28.8	12.6	13.1	100.0(2,000)	7.39
거주지역													
대도시	0.7	0.0	0.5	0.6	1.7	11.0	9.9	21.7	27.0	13.7	13.0	100.0(943)	7.46
중소도시	0.6	0.2	0.7	2.1	1.9	11.9	9.4	17.9	30.6	11.1	13.7	100.0(876)	7.38
군	2.2	0.0	0.6	3.9	1.1	16.0	9.4	13.8	28.7	13.8	10.5	100.0(181)	7.09
성													
남자	0.7	0.1	0.8	2.0	1.6	13.4	10.1	19.8	27.2	11.6	12.8	100.0(987)	7.29
여자	0.9	0.1	0.4	1.1	1.9	10.4	9.1	19.0	30.3	13.5	13.4	100.0(1,013)	7.49
연령													
20대	0.3	0.0	0.8	1.3	1.0	6.3	6.1	19.3	30.5	16.2	18.3	100.0(394)	7.85
30대	0.4	0.0	0.4	1.1	1.9	11.6	11.2	20.6	31.3	9.2	12.2	100.0(466)	7.37
40대	0.9	0.0	0.4	1.5	3.1	12.0	11.8	19.8	27.9	13.3	9.4	100.0(459)	7.23
50세 이상	1.3	0.3	0.7	2.1	1.2	15.1	9.1	18.2	26.6	12.2	13.2	100.0(681)	7.25
혼인상태													
미혼	0.2	0.2	0.9	1.5	1.1	5.8	6.9	17.9	29.2	17.7	18.6	100.0(463)	7.85
유배우	0.8	0.1	0.5	1.4	2.0	13.3	10.6	20.4	29.0	11.0	10.9	100.0(1,443)	7.27
이혼·사별·별거	4.3	0.0	1.1	4.3	1.1	19.1	7.4	9.6	22.3	10.6	20.2	100.0(94)	7.0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0.2	0.5	2.1	1.9	13.8	8.6	18.3	27.3	12.0	14.1	100.0(1,125)	7.32
2~3년제 대졸	0.4	0.0	0.4	1.1	1.5	8.9	10.4	20.1	29.7	13.4	14.1	100.0(269)	7.57
4년제 대졸 이상	0.3	0.0	0.7	0.7	1.7	9.7	11.2	20.8	31.3	13.0	10.7	100.0(600)	7.46
취업여부													
취업	0.7	0.0	0.4	1.3	1.9	12.2	10.3	20.7	28.3	12.1	12.1	100.0(1,225)	7.36
미취업	1.1	0.3	1.1	2.2	1.7	13.1	9.3	16.7	29.2	12.2	13.3	100.0(648)	7.29
학생	0.8	0.0	0.0	0.8	0.8	1.6	4.7	19.7	30.7	18.9	22.0	100.0(127)	8.1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5	0.0	1.5	1.5	2.0	18.2	5.1	18.7	28.8	7.6	14.1	100.0(198)	7.08
101~200만원	1.1	0.0	0.5	2.7	1.9	15.1	11.3	19.0	23.1	10.2	15.1	100.0(364)	7.20
201~300만원	0.5	0.0	0.0	1.2	2.3	10.4	10.6	18.5	30.3	14.1	12.2	100.0(433)	7.49
301~400만원	0.4	0.0	0.0	0.7	1.8	8.1	10.7	22.1	34.7	11.8	9.6	100.0(271)	7.49
401~500만원	0.0	0.0	1.2	1.2	1.9	10.1	9.3	14.3	36.0	16.3	9.7	100.0(258)	7.52
501만원 이상	0.4	0.0	0.8	0.4	0.8	6.3	10.5	22.2	29.7	16.3	12.6	100.0(239)	7.66
무응답	1.3	0.8	0.8	3.0	0.8	16.0	7.2	21.5	19.0	10.5	19.0	100.0(237)	7.25

다.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의 행복수준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수준 분포는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8점이라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보다 높은 행복수준을 보이는 9~1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대도시 거주자(18.4%), 여성(18.9%), 40대(19.1%)와 50대 이상(19.2%), 유배우자(18.5%), 4년제 대졸 이상자(21.0%), 학생(21.2%), 401~500만원 소득자(23.3%) 등이었다.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7.31점), 여성이 다소 높았으며(7.39점), 그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고(7.37점), 50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7.18점).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유배우자가 높았고(7.30점), 이혼·사별·별거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6.82점).

또한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7.15점), 4년제 대졸 이상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7.49점). 취업자와 미취업자간 이 지표의 행복수준 차이는 0.14점에 불과하였고(취업자 7.31점, 미취업자 7.17점), 오히려 학생이 가장 높았다(7.40점).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에 대한 행복수준은 401~500만원까지는 양(+)의 관계에서 비례하였고(100만원 이하 6.80점, 401~500만원 7.71점), 500만원 이상은 오히려 감소하였다(7.58점).

행복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자, 여성, 30대 연령층, 유배우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학생(미취업자 보다는 취업자), 월 가구소득이 401~500만원인 경우가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0.5	0.3	0.5	1.2	1.2	11.5	11.5	22.2	33.3	10.7	7.4	100.0(2,000)	7.27
거주지역													
대도시	0.3	0.3	0.5	0.7	1.2	10.6	11.7	22.8	33.5	11.8	6.6	100.0(943)	7.31
중소도시	0.2	0.2	0.5	1.3	1.0	12.1	10.8	21.9	34.1	9.7	8.1	100.0(876)	7.29
군	2.2	0.6	0.0	3.3	1.7	12.7	13.8	20.4	27.6	9.9	7.7	100.0(181)	6.94
성													
남자	0.5	0.3	0.4	1.6	1.8	12.9	12.0	23.2	30.2	9.7	7.4	100.0(987)	7.15
여자	0.4	0.3	0.5	0.8	0.5	10.1	11.1	21.2	36.2	11.6	7.3	100.0(1,013)	7.39
연령													
20대	0.0	0.3	0.3	0.8	2.0	11.9	11.2	23.6	35.3	7.9	6.9	100.0(394)	7.25
30대	0.2	0.0	0.4	0.6	1.3	9.4	12.2	23.8	33.9	10.1	7.9	100.0(466)	7.37
40대	0.2	0.0	0.7	1.7	0.9	8.9	11.5	24.8	32.0	13.7	5.4	100.0(459)	7.32
50세 이상	1.0	0.7	0.4	1.5	0.7	14.2	11.2	18.5	32.5	10.7	8.5	100.0(681)	7.18
혼인상태													
미혼	0.0	0.2	0.4	0.9	2.4	10.8	12.1	22.0	34.6	9.5	7.1	100.0(463)	7.27
유배우	0.5	0.2	0.4	1.2	0.7	11.3	11.5	22.4	33.3	11.2	7.3	100.0(1,443)	7.30
이혼·사별·별거	2.1	2.1	1.1	2.1	2.1	17.0	8.5	20.2	26.6	8.5	9.6	100.0(94)	6.82
최종학력													
고졸 이하	0.7	0.4	0.5	1.2	1.2	14.2	12.1	20.8	32.0	9.3	7.6	100.0(1,125)	7.15
2~3년제 대졸	0.4	0.0	0.4	1.9	1.9	8.6	13.4	22.7	35.7	8.6	6.7	100.0(269)	7.25
4년제 대졸 이상	0.0	0.2	0.3	1.0	0.8	7.7	9.7	24.8	34.5	14.0	7.0	100.0(600)	7.49
취업여부													
취업	0.4	0.1	0.2	1.2	1.4	10.8	11.7	22.6	33.2	10.8	7.6	100.0(1,225)	7.31
미취업	0.6	0.6	0.8	1.4	0.6	12.8	11.4	21.6	33.3	10.5	6.3	100.0(648)	7.17
학생	0.0	0.8	0.8	0.0	1.6	11.0	10.2	21.3	33.1	11.0	10.2	100.0(127)	7.4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5	1.0	1.0	1.5	1.0	17.7	12.6	21.7	24.7	7.6	8.6	100.0(198)	6.80
101~200만원	0.3	0.0	0.8	1.4	0.8	14.3	17.3	20.3	29.7	9.1	6.0	100.0(364)	7.06
201~300만원	0.0	0.2	0.2	0.9	1.4	10.2	14.3	21.0	36.0	11.3	4.4	100.0(433)	7.27
301~400만원	0.0	0.0	0.4	0.7	0.7	8.9	8.1	27.3	35.1	10.3	8.5	100.0(271)	7.48
401~500만원	0.0	0.0	0.0	0.0	1.6	7.0	7.4	20.2	40.7	13.2	10.1	100.0(258)	7.71
501만원 이상	0.0	0.0	0.0	1.3	1.7	5.9	6.7	25.9	36.8	15.5	6.3	100.0(239)	7.58
무응답	1.3	1.3	0.8	3.0	0.8	17.7	9.7	20.3	27.0	7.6	10.5	100.0(237)	6.94

4. 「지역사회」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지역사회」 영역의 행복결정요인인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은 중간보다는 높았으나 타 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중간 수준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5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20대 연령층, 미혼자, 2~3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학생, 가구소득이 301만원 이상의 중·고소득자 등은 7점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거주지역별로 별다른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중소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6.21점), 군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6.13점).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여성(6.32점)이 남성(6.04점)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 수록 행복수준은 증가하였다(20대 6.01점, 50세 이상 6.30점). 평균 행복수준은 유배우자가 가장 높았고(6.23점), 미혼자와 이혼·사별·별거자는 유사한 수준에서 유배우자보다 낮았다(미혼자 6.05점, 이혼·사별·별거자 6.04점).

또한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6.10점), 4년제 대졸 이상은 높은 수준이었다(6.36점).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학생이 가장 높았고(6.36점),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높았다(미취업자 6.30점, 취업자 6.11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은 대체로 가구소득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으나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가 가장 낮았고(5.81점), 다음은 201~300만원 가구소득자가 낮았다(6.05점). 반면에 가장 높은 행복수준을 보인 계층은 가구소득이 401~500만원인 경우이었으며(6.61점), 그 다음은 501만원 이상의 경우로 나타났다(6.55점).

〈표 4-19〉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1.5	0.8	1.8	4.4	6.7	22.6	16.8	19.9	15.5	4.8	5.5	100.0(2,000)	6.18
거주지역													
대도시	1.1	1.1	1.5	4.7	7.6	20.7	17.8	21.2	15.1	4.5	4.9	100.0(943)	6.17
중소도시	1.7	0.5	1.9	4.1	5.3	24.5	15.8	19.7	16.2	5.0	5.3	100.0(876)	6.21
군	2.8	1.1	2.2	4.4	8.3	22.7	16.0	13.3	14.4	5.5	9.4	100.0(181)	6.13
성													
남자	1.4	0.8	2.4	5.5	6.6	23.6	16.9	20.1	13.6	4.3	4.9	100.0(987)	6.04
여자	1.6	0.8	1.1	3.4	6.7	21.5	16.6	19.6	17.4	5.3	6.0	100.0(1,013)	6.32
연령													
20대	1.3	0.8	2.5	5.6	5.8	22.6	18.5	23.6	11.9	3.0	4.3	100.0(394)	6.01
30대	1.3	0.4	1.1	4.7	5.6	23.8	21.9	19.7	13.1	4.3	4.1	100.0(466)	6.12
40대	0.7	0.9	2.4	4.6	6.5	21.6	17.2	19.6	16.3	5.7	4.6	100.0(459)	6.21
50세 이상	2.3	1.0	1.3	3.4	7.9	22.3	11.9	17.9	18.6	5.6	7.6	100.0(681)	6.30
혼인상태													
미혼	1.5	1.1	2.4	5.4	6.0	21.0	19.2	22.5	12.5	3.2	5.2	100.0(463)	6.05
유배우	1.5	0.7	1.5	4.0	6.7	22.9	16.4	19.4	16.0	5.3	5.5	100.0(1,443)	6.23
이혼·사별·별거	2.1	1.1	3.2	5.3	8.5	24.5	9.6	13.8	22.3	4.3	5.3	100.0(94)	6.0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0	0.8	2.1	4.7	7.1	23.8	16.0	16.9	15.7	3.9	6.8	100.0(1,125)	6.10
2~3년제 대졸	1.5	0.4	1.9	4.5	6.3	21.6	20.1	21.6	11.9	5.6	4.8	100.0(269)	6.16
4년제 대졸 이상	0.3	1.0	0.8	3.7	5.8	20.7	16.8	24.8	16.7	6.2	3.2	100.0(600)	6.36
취업여부													
취업	1.5	0.7	1.9	4.7	6.9	22.9	17.9	19.1	14.9	5.1	4.5	100.0(1,225)	6.11
미취업	1.5	0.9	1.2	3.9	6.8	22.4	13.9	20.4	17.6	4.5	6.9	100.0(648)	6.30
학생	1.6	0.8	3.1	3.9	3.9	19.7	20.5	24.4	11.0	3.9	7.1	100.0(127)	6.2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4.0	0.5	3.5	4.5	7.1	29.8	12.6	13.6	14.1	2.5	7.6	100.0(198)	5.81
101~200만원	0.8	1.1	1.9	4.1	9.1	23.1	14.8	21.2	15.1	3.8	4.9	100.0(364)	6.11
201~300만원	0.9	0.5	1.2	5.8	6.5	23.6	20.3	20.8	14.8	2.3	3.5	100.0(433)	6.05
301~400만원	1.1	0.7	1.1	3.7	5.9	22.1	21.4	22.5	12.2	5.2	4.1	100.0(271)	6.19
401~500만원	0.4	0.4	0.4	4.7	3.1	20.9	15.5	21.3	19.4	8.1	5.8	100.0(258)	6.61
501만원 이상	0.0	0.8	1.7	2.1	6.3	19.2	17.6	20.5	17.2	9.2	5.4	100.0(239)	6.55
무응답	4.6	1.7	3.4	5.1	8.0	19.4	11.8	16.0	16.5	4.2	9.3	100.0(237)	5.98

행복수준이 비교적 낮은 지표인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 거주자, 여성, 50

세 이상자, 유배우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미취업자, 월 가구소득이 401~500만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수준을 보여 주었다.

5. 「일상생활」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가.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은 중간보다는 높으나 타 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중간 수준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5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학생, 가구소득이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등은 7점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다른 특성을 가진 응답자보다 행복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거주지역별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6.31점), 군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5.88점).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여성(6.31점)이 남성(6.18점)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증가하였다(20대 6.09점, 50세 이상 6.35점). 평균 행복수준은 유배우자가 가장 높았고(6.29점), 이혼·사별·별거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5.87점).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고졸 이하와 2~3년제 대졸은 동일한 수준으로 낮았고(6.15점), 4년제 대졸 이상은 높은 수준이었다(6.47점). 또한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미취업자가 가장 높았고(6.65점), 학생이 그 다음이었으며(6.40점), 취업자는 가장 낮았다(6.02점). 마지막으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은 대체로 가구소득에 따라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가 가장 낮았고(5.78점), 다음은 101~200만원 가구소득자가 낮았다(6.09점). 반

면에 가장 높은 행복수준을 보인 계층은 가구소득이 401~500만원인 경우이었으며(6.66점), 그 다음은 501만원 이상의 경우로 나타났다(6.53점).

〈표 4-20〉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⑩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1.7	0.8	2.4	6.0	5.3	23.1	13.9	16.8	15.6	6.7	8.0	100.0(2,000)	6.25
거주지역													
대도시	1.4	0.7	2.3	6.0	5.2	23.8	13.0	17.7	15.4	6.4	8.1	100.0(943)	6.26
중소도시	1.3	0.9	2.1	5.4	5.3	22.8	14.8	16.7	16.2	7.2	7.4	100.0(876)	6.31
균	5.5	0.0	4.4	8.8	5.5	21.0	13.3	12.2	13.3	5.5	10.5	100.0(181)	5.88
성													
남자	1.1	0.9	1.8	6.9	5.5	25.7	13.8	15.6	15.0	6.4	7.3	100.0(987)	6.18
여자	2.3	0.6	3.0	5.1	5.0	20.5	13.9	17.9	16.1	6.9	8.7	100.0(1,013)	6.31
연령													
20대	1.0	1.0	2.3	8.6	5.3	21.8	16.5	20.1	10.7	4.1	8.6	100.0(394)	6.09
30대	1.1	0.9	3.0	4.1	4.5	24.5	17.4	18.5	15.2	5.2	5.8	100.0(466)	6.19
40대	1.1	0.4	2.2	5.9	6.1	22.2	13.9	18.7	15.5	7.8	6.1	100.0(459)	6.28
50세 이상	2.9	0.7	2.2	5.9	5.1	23.5	9.8	12.3	18.6	8.4	10.4	100.0(681)	6.35
혼인상태													
미혼	0.9	1.3	2.4	7.1	5.2	22.0	16.2	20.3	11.0	4.5	9.1	100.0(463)	6.17
유배우	1.9	0.6	2.1	5.8	5.0	22.9	13.6	16.1	17.1	7.3	7.6	100.0(1,443)	6.29
이혼·사별·별거	3.2	0.0	6.4	4.3	9.6	30.9	6.4	9.6	13.8	6.4	9.6	100.0(94)	5.87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	0.8	2.5	6.7	6.2	24.7	12.1	14.4	14.7	6.1	9.5	100.0(1,125)	6.15
2~3년제 대졸	1.5	0.7	2.2	7.8	4.5	22.7	15.6	17.1	14.5	8.2	5.2	100.0(269)	6.15
4년제 대졸 이상	0.5	0.7	2.3	4.0	3.8	20.3	16.3	21.2	17.7	6.8	6.3	100.0(600)	6.47
취업여부													
취업	2.0	1.0	2.6	6.8	6.0	25.1	14.5	16.2	13.7	5.8	6.4	100.0(1,225)	6.02
미취업	1.4	0.3	2.3	4.0	4.2	20.4	11.6	16.7	20.2	8.6	10.3	100.0(648)	6.65
학생	0.8	0.8	0.8	8.7	3.9	17.3	18.9	22.8	9.4	4.7	11.8	100.0(127)	6.4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4.0	2.0	5.1	6.6	5.6	29.8	7.6	11.1	12.6	5.6	10.1	100.0(198)	5.78
101~200만원	1.6	0.8	2.2	6.6	6.6	25.5	12.4	16.8	16.2	3.6	7.7	100.0(364)	6.09
201~300만원	0.9	0.9	0.9	5.8	5.1	24.0	14.8	17.8	16.4	7.6	5.8	100.0(433)	6.31
301~400만원	1.5	0.0	2.2	7.7	4.8	22.1	16.6	15.9	16.6	5.9	6.6	100.0(271)	6.21
401~500만원	0.8	0.0	2.7	3.1	4.3	17.4	15.5	20.9	18.6	8.5	8.1	100.0(258)	6.66
501만원 이상	0.4	0.8	1.7	6.3	5.0	16.3	15.9	21.8	13.0	11.3	7.5	100.0(239)	6.53
무응답	3.8	0.8	3.8	5.9	5.1	26.2	12.7	11.0	13.5	4.6	12.7	100.0(237)	6.06

행복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은 지표인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 거주자, 여성, 50세 이상자, 유배우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미취업자, 월 가구소득이 401~500만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수준을 보여 주었다.

나.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지표의 행복수준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지표의 행복수준은 중간보다는 높으나 타 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다소 높은 수준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8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중소도시 거주자, 20대 연령층, 미혼자,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와 401~500만원의 중고소득자는 7점의 행복수준을 보였고, 이혼·사별·별거자는 중간인 5점의 행복수준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거주지역별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6.87점), 군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6.75점).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여성(6.91점)이 남성(6.72점)보다 높았고, 연령에 따라 차이는 미미하였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 수면시간을 줄이지 않아도 되므로 행복수준은 증가하였다(20대 6.60점, 50세 이상 6.92점). 평균 행복수준은 유배우자가 가장 높았고(6.88점), 이혼·사별·별거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6.47점).

〈표 4-21〉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0.9	0.6	1.6	4.6	4.9	16.0	11.7	18.4	19.9	9.1	12.5	100.0(2,000)	6.82
거주지역													
대도시	0.7	0.5	2.2	4.3	4.9	15.4	12.6	18.0	21.1	8.8	11.3	100.0(943)	6.78
중소도시	0.6	0.7	0.9	5.0	4.7	16.3	11.0	18.9	18.8	10.3	12.8	100.0(876)	6.87
군	2.8	0.6	1.1	3.9	5.5	17.1	10.5	17.7	18.8	5.0	17.1	100.0(181)	6.75
성													
남자	0.8	0.6	1.8	5.4	5.3	14.4	12.8	19.5	20.8	7.7	11.0	100.0(987)	6.72
여자	0.9	0.6	1.3	3.8	4.4	17.5	10.7	17.4	19.1	10.5	13.9	100.0(1,013)	6.91
연령													
20대	1.0	0.8	2.0	5.6	4.3	18.0	12.9	19.5	17.3	7.1	11.4	100.0(394)	6.60
30대	0.9	0.2	1.3	5.8	4.5	13.5	13.1	19.1	23.6	9.0	9.0	100.0(466)	6.78
40대	0.2	0.4	1.5	4.4	5.4	15.7	12.2	17.6	18.5	11.5	12.4	100.0(459)	6.90
50세 이상	1.2	0.9	1.5	3.4	5.0	16.6	9.7	17.8	19.8	8.7	15.6	100.0(681)	6.92
혼인상태													
미혼	0.9	0.6	1.7	5.8	4.1	16.2	13.4	19.2	18.8	8.0	11.2	100.0(463)	6.68
유배우	0.8	0.6	1.2	4.0	5.2	15.7	11.3	18.6	20.6	9.6	12.5	100.0(1,443)	6.88
이혼·사별·별거	2.1	1.1	6.4	7.4	3.2	18.1	9.6	11.7	14.9	6.4	19.1	100.0(94)	6.47
최종학력													
고졸 이하	0.9	0.7	1.9	4.4	5.0	15.7	11.8	17.4	17.8	9.0	15.4	100.0(1,125)	6.86
2~3년제 대졸	0.4	0.0	1.1	6.3	5.6	18.2	8.6	17.5	24.2	8.6	9.7	100.0(269)	6.75
4년제 대졸 이상	0.8	0.7	1.2	4.2	4.2	15.2	13.0	20.8	22.2	9.5	8.3	100.0(600)	6.78
취업여부													
취업	0.9	0.6	1.5	5.6	5.3	16.7	11.7	18.9	19.8	8.9	10.3	100.0(1,225)	6.68
미취업	0.8	0.6	1.2	3.1	4.3	15.7	10.5	17.7	19.9	9.9	16.2	100.0(648)	7.06
학생	0.8	0.8	3.9	2.4	3.1	10.2	18.1	17.3	21.3	7.1	15.0	100.0(127)	6.9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0	1.5	3.0	3.5	6.1	16.7	11.1	16.7	15.2	8.1	17.2	100.0(198)	6.75
101~200만원	0.5	0.3	2.5	5.8	2.5	15.4	11.3	17.9	20.9	8.8	14.3	100.0(364)	6.91
201~300만원	0.5	0.5	0.9	4.4	5.5	15.9	12.7	18.9	20.3	9.9	10.4	100.0(433)	6.82
301~400만원	0.4	0.0	1.5	4.8	8.5	12.9	12.5	18.8	22.1	10.0	8.5	100.0(271)	6.75
401~500만원	0.0	0.4	0.4	3.9	3.1	14.7	12.4	22.1	20.2	9.3	13.6	100.0(258)	7.09
501만원 이상	0.4	1.3	2.1	2.9	5.0	16.7	10.5	15.9	19.2	13.8	12.1	100.0(239)	6.92
무응답	3.8	0.8	0.8	6.3	3.8	20.3	10.5	17.7	19.4	3.0	13.5	100.0(237)	6.42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2~3년제 대졸자가 가장 낮았고(6.75점), 고졸 이하자

가 높은 수준이었다(6.86점). 또한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미취업자가 가장 높았고(7.06점), 취업자는 가장 낮았다(6.68점). 마지막으로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지표의 행복수준은 가구소득과는 일정한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00만원 이하 가구소득자와 301~400만원 가구소득자가 동일한 행복수준(6.75점)에서 가장 낮았고, 다음은 101~200만원 가구소득자와 501만원 이상 가구소득자가 유사한 수준에서 높았으며(각각 6.91점, 6.92점), 그리고 401~500만원의 가구소득자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09점).

행복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은 지표인 ‘만족스러운 수면(양·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 거주자, 여성, 50세 이상자, 유배우자, 고졸 이하자, 미취업자, 월 가구소득이 401~500만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수준을 보여 주었다.

6. 「경제적 안정」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가.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행복수준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행복수준은 중간보다는 높으나 타 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중간의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5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가구소득이 500만원인 경우만이 8점의 높은 행복수준을 보였을 뿐이다.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거주지역별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5.50점), 군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5.32점).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여성(5.65점)이 남성(5.26점)보다 높았고, 연령에 따라 차이는 미미하였

으나 30대 연령층이 가장 높았고(5.53점), 20대 연령층이 가장 낮았다(5.26점). 특히,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은 아주 미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20대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미취업자 또는 학생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 행복수준은 유배우자가 가장 높았고(5.60점), 이혼·사별·별거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4.61점).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자가 가장 낮았고(5.25점), 4년제 대졸 이상자가 가장 높았다(5.85점). 그런데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보다 낮았는데(취업자 5.38점, 미취업자 5.64점), 이는 취업자의 기대가 미취업자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행복수준은 가구소득에 비례하였다. 즉, 100만원 이하 가구소득자가 가장 낮았고(4.65점), 501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자는 가장 높았다(6.37점).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인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 거주자, 여성, 30세 이상자, 유배우자, 고학력자, 미취업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행복수준을 보였다. 특히, 이혼·사별·별거자와 1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계층은 행복수준이 중간 이하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 4-22〉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4.5	2.1	3.9	9.5	9.1	23.9	12.3	14.3	12.1	3.7	4.9	100.0(2,000)	5.46
거주지역													
대도시	4.0	2.3	4.2	9.5	8.8	24.6	11.0	14.4	13.5	2.8	4.8	100.0(943)	5.45
중소도시	4.5	1.9	3.1	9.9	9.2	22.6	13.6	14.6	11.3	4.6	4.7	100.0(876)	5.50
군	6.6	1.7	5.5	6.6	9.9	26.0	12.7	11.6	8.3	4.4	6.6	100.0(181)	5.32
성													
남자	3.7	2.4	5.2	11.2	10.7	23.9	12.3	12.9	9.9	2.9	4.8	100.0(987)	5.26
여자	5.1	1.8	2.6	7.7	7.5	23.8	12.3	15.6	14.1	4.4	5.0	100.0(1,013)	5.65
연령													
20대	4.8	2.3	4.8	10.2	9.1	24.6	13.7	13.7	9.4	3.3	4.1	100.0(394)	5.26
30대	2.6	1.7	3.0	10.3	9.9	23.6	13.3	16.3	13.7	3.0	2.6	100.0(466)	5.53
40대	3.3	1.5	4.1	8.7	11.5	22.0	14.8	14.4	11.3	4.1	4.1	100.0(459)	5.51
50세 이상	6.3	2.6	3.7	9.0	6.9	24.8	9.1	13.1	12.9	4.1	7.5	100.0(681)	5.50
혼인상태													
미혼	5.2	2.6	4.3	11.7	9.3	23.5	13.4	14.3	8.9	2.8	4.1	100.0(463)	5.18
유배우	3.7	1.7	3.6	8.5	8.8	24.4	12.5	14.3	13.3	3.9	5.3	100.0(1,443)	5.60
이혼·사별·별거	11.7	5.3	5.3	12.8	12.8	17.0	4.3	13.8	8.5	5.3	3.2	100.0(94)	4.61
최종학력													
고졸 이하	6.1	2.2	4.2	10.2	9.4	26.0	10.8	11.6	10.1	3.7	5.6	100.0(1,125)	5.25
2~3년제 대졸	3.0	2.2	3.7	12.3	9.7	21.6	11.9	15.6	12.6	4.1	3.3	100.0(269)	5.45
4년제 대졸 이상	2.0	1.8	3.3	6.8	8.0	21.0	15.2	18.7	15.3	3.5	4.3	100.0(600)	5.85
취업여부													
취업	4.0	2.0	4.2	9.7	9.9	25.3	12.7	13.9	10.9	3.5	4.0	100.0(1,225)	5.38
미취업	5.1	2.5	3.4	9.0	6.9	21.8	11.4	14.4	14.8	4.3	6.5	100.0(648)	5.64
학생	5.5	1.6	3.1	9.4	12.6	20.5	13.4	17.3	8.7	2.4	5.5	100.0(127)	5.3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0.1	7.1	4.5	13.1	10.6	21.7	5.6	10.1	7.1	3.0	7.1	100.0(198)	4.65
101~200만원	4.9	1.9	5.5	11.3	8.2	30.5	10.7	9.3	10.4	3.0	4.1	100.0(364)	5.14
201~300만원	3.9	1.2	2.1	10.4	12.5	22.6	14.8	15.7	11.1	2.3	3.5	100.0(433)	5.42
301~400만원	1.8	1.1	4.1	10.7	10.3	24.7	17.7	15.1	8.9	1.5	4.1	100.0(271)	5.43
401~500만원	1.9	0.4	1.9	5.8	5.8	24.4	10.1	19.0	18.2	6.6	5.8	100.0(258)	6.24
501만원 이상	1.7	0.8	4.2	4.2	7.1	16.3	13.8	15.9	20.1	8.8	7.1	100.0(239)	6.37
무응답	8.4	4.2	5.5	9.7	7.2	23.6	10.5	14.8	9.3	2.1	4.6	100.0(237)	4.97

나.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행복수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행복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중간에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5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만, 가구소득이 401~500만원인 경우가 7점이 가장 많았고, 501만원 이상인 경우는 8점이 가장 많았을 뿐이다.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5.90점), 군 지역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5.51점).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도가 높았으며(남성 5.70점, 여성 5.98점), 그리고 30대가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30대 6.22점, 50세 이상 5.49점).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혼인상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능력에 대한 행복수준은 가족부양책임이 비교적 낮은 미혼자가 가장 높았고(5.95점), 이혼·사별·별거자가 가장 낮았다(4.99점).

또한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5.50점), 4년제 대졸 이상은 높은 수준이었다(6.43점).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행복수준 차이는 0.14점에 불과하였는데(취업자 5.89점, 미취업자 5.75점), 이는 기대수준의 차이에 기인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은 가구소득으로부터 양(+)의 영향을 받으며,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가장 낮았고(4.81점), 가구소득이 증대될 수록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점차 증가하여 501만원 이상의 경우는 가장 높았다(7.04점).

〈표 4-23〉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3.4	1.3	3.1	8.7	6.2	22.6	13.4	16.3	14.0	5.2	6.1	100.0(2,000)	5.84
거주지역													
대도시	3.5	1.1	2.7	8.5	5.7	21.7	14.5	17.0	14.2	4.3	6.8	100.0(943)	5.90
중소도시	3.0	1.1	3.2	9.2	6.4	22.8	12.3	15.9	14.6	6.1	5.4	100.0(876)	5.85
군	5.0	2.8	4.4	6.6	7.7	25.4	12.7	14.4	9.9	5.5	5.5	100.0(181)	5.51
성													
남자	2.8	1.2	4.1	10.2	5.9	24.3	13.4	14.9	13.6	4.2	5.5	100.0(987)	5.70
여자	3.9	1.3	2.1	7.1	6.5	20.8	13.4	17.6	14.4	6.2	6.6	100.0(1,013)	5.98
연령													
20대	1.5	0.8	2.8	8.9	6.9	23.1	15.7	16.0	14.7	4.1	5.6	100.0(394)	5.92
30대	1.3	0.4	2.1	6.9	4.5	23.4	13.9	20.2	14.8	6.0	6.4	100.0(466)	6.22
40대	2.2	1.7	3.3	8.5	5.4	21.8	14.2	16.8	15.7	5.9	4.6	100.0(459)	5.91
50세 이상	6.8	1.8	3.7	9.8	7.5	22.2	11.2	13.4	11.9	4.8	7.0	100.0(681)	5.49
혼인상태													
미혼	2.2	0.6	3.0	8.2	6.7	22.7	15.8	15.1	14.0	5.6	6.0	100.0(463)	5.95
유배우	3.3	1.5	2.8	8.5	5.9	22.5	13.1	16.9	14.3	5.0	6.2	100.0(1,443)	5.86
이혼·사별·별거	10.6	0.0	6.4	12.8	8.5	23.4	6.4	11.7	9.6	6.4	4.3	100.0(94)	4.99
최종학력													
고졸 이하	5.0	1.7	3.7	10.5	6.6	25.1	12.4	13.0	11.9	4.6	5.5	100.0(1,125)	5.50
2~3년제 대졸	1.9	1.5	3.0	7.8	6.3	20.8	14.9	19.7	13.8	4.8	5.6	100.0(269)	5.97
4년제 대졸 이상	1.0	0.3	1.8	5.5	5.5	18.8	14.7	21.0	18.0	6.2	7.2	100.0(600)	6.43
취업여부													
취업	2.4	1.2	2.6	8.6	6.2	23.8	14.4	15.8	14.0	5.3	5.6	100.0(1,225)	5.89
미취업	5.4	1.4	3.5	9.0	6.6	20.4	11.1	16.4	13.6	5.6	7.1	100.0(648)	5.75
학생	2.4	0.8	4.7	7.9	3.9	22.0	15.0	19.7	16.5	2.4	4.7	100.0(127)	5.8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0.1	3.0	6.6	10.1	9.1	25.3	7.1	14.6	6.6	1.0	6.6	100.0(198)	4.81
101~200만원	3.0	2.2	4.7	13.7	6.3	27.5	12.4	12.4	9.6	3.8	4.4	100.0(364)	5.32
201~300만원	1.4	1.2	1.8	9.2	6.0	26.6	15.0	16.2	13.4	5.5	3.7	100.0(433)	5.87
301~400만원	1.5	0.0	2.2	8.5	7.7	23.6	14.4	17.3	13.7	4.4	6.6	100.0(271)	6.02
401~500만원	1.6	0.0	1.6	4.3	3.5	15.9	14.7	22.1	21.3	6.6	8.5	100.0(258)	6.67
501만원 이상	0.4	0.4	1.3	2.5	1.3	13.4	17.2	19.7	24.3	9.6	10.0	100.0(239)	7.04
무응답	9.3	2.1	4.2	9.7	10.1	20.7	11.0	12.7	10.1	5.1	5.1	100.0(237)	5.15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지표의 행복수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자, 여성, 30대 연령층, 미혼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취업자 또는 학생,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았다. 특히, 이혼·사별·별거자와 1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계층은 이 지표의 행복수준이 중간보다 낮다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7. 「일」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가.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은 높지 않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중간의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8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20대 연령층은 7점에,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6.80점), 군 지역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6.51점).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도가 높았으며(남성 6.60점, 여성 6.80점), 그리고 30대가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30대 6.94점, 50세 이상 6.48점).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혼인상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배우자가 가장 높았고(6.77점), 이혼·사별·별거자가 가장 낮았다(5.54점).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6.50점), 4년제 대졸 이상은 높은 수준이었다(7.06점). 일에 대한 부담이 없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이 이 지표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고(7.04점), 미취업자가 가장 낮았다(6.30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는 가구소득으로부터 양(+)의 영향을 받으며,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

만원 이하의 경우는 가장 낮았고(6.10점), 가구소득이 증대될 수록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점차 증가하여 501만원 이상의 경우는 가장 높았다(7.46점).

〈표 4-24〉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㉕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2.5	0.9	1.9	4.1	3.4	16.2	11.5	16.6	23.5	9.5	10.1	100.0(2,000)	6.70
거주지역													
대도시	1.8	0.6	1.3	4.2	3.2	15.6	11.9	18.6	23.1	9.5	10.2	100.0(943)	6.80
중소도시	2.7	1.0	2.6	3.7	3.5	17.2	10.7	15.0	24.2	9.4	9.9	100.0(876)	6.64
군	5.0	1.1	1.7	5.5	3.3	13.8	13.3	13.8	22.1	9.9	10.5	100.0(181)	6.51
성													
남자	2.9	1.1	2.3	5.1	4.0	14.4	12.1	16.0	22.5	9.1	10.5	100.0(987)	6.60
여자	2.1	0.6	1.5	3.2	2.8	17.9	11.0	17.1	24.5	9.9	9.7	100.0(1,013)	6.80
연령													
20대	1.8	0.5	1.3	4.1	4.1	15.0	14.0	21.8	20.8	6.6	10.2	100.0(394)	6.70
30대	0.4	0.6	1.1	3.6	3.0	15.5	11.6	18.7	26.6	11.2	7.7	100.0(466)	6.94
40대	1.5	0.4	2.4	3.5	3.1	14.6	13.5	17.2	23.7	12.0	8.1	100.0(459)	6.81
50세 이상	5.0	1.5	2.5	4.8	3.4	18.4	8.7	11.6	22.8	8.4	13.1	100.0(681)	6.48
혼인상태													
미혼	1.7	0.9	1.3	4.5	2.8	15.6	13.4	20.3	21.8	7.3	10.4	100.0(463)	6.73
유배우	2.1	0.6	1.9	3.7	3.5	16.3	11.5	15.9	24.3	10.2	10.0	100.0(1,443)	6.77
이혼·사별·별거	12.8	4.3	4.3	8.5	3.2	17.0	2.1	8.5	19.1	9.6	10.6	100.0(94)	5.54
최종학력													
고졸 이하	3.5	1.1	2.3	4.5	3.4	19.4	10.4	15.1	21.9	7.9	10.6	100.0(1,125)	6.50
2~3년제 대졸	2.2	0.0	1.9	3.7	3.0	14.1	13.4	17.8	26.4	7.4	10.0	100.0(269)	6.81
4년제 대졸 이상	0.5	0.8	1.2	3.3	3.5	11.2	12.8	18.8	25.5	13.2	9.2	100.0(600)	7.06
취업여부													
취업	1.4	0.8	1.6	3.8	3.6	15.1	11.1	17.1	23.8	10.7	11.1	100.0(1,225)	6.89
미취업	4.6	1.1	2.5	5.1	3.4	19.0	12.0	14.5	22.1	7.9	7.9	100.0(648)	6.30
학생	2.4	0.0	1.6	2.4	0.8	11.8	12.6	22.0	28.3	6.3	11.8	100.0(127)	7.0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5.6	1.5	2.0	7.6	3.5	22.2	11.6	12.6	14.6	5.6	13.1	100.0(198)	6.10
101~200만원	2.7	1.1	2.2	6.0	4.1	21.4	10.4	14.8	20.6	8.0	8.5	100.0(364)	6.35
201~300만원	0.9	0.5	1.6	3.2	3.7	15.7	12.0	18.2	26.1	9.9	8.1	100.0(433)	6.85
301~400만원	1.1	0.0	1.1	4.4	3.7	15.9	14.4	15.9	24.7	8.1	10.7	100.0(271)	6.85
401~500만원	0.4	0.4	0.4	1.6	1.6	12.8	11.2	20.2	28.3	12.4	10.9	100.0(258)	7.31
501만원 이상	0.0	0.8	0.4	2.1	3.3	6.3	11.3	18.4	28.9	18.4	10.0	100.0(239)	7.46
무응답	8.9	2.1	5.9	4.2	3.0	17.7	9.3	14.3	18.6	3.8	12.2	100.0(237)	5.88

행복수준이 낮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높지도 않은 지표인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

도시 거주자, 여성, 30대 연령층, 유배우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학생,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았다.

나.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중간의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5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만, 20대 연령층, 미혼자, 학생, 501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자는 이 지표의 행복수준이 다소 높은 7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30대 연령층, 대졸 이상자, 401~500만원 가구소득자는 행복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 8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6.25점), 군 지역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5.84점).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도가 높았으며(남성 6.10점, 여성 6.25점), 그리고 30대가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30대 6.40점, 50세 이상 5.89점).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혼인상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가 가장 높았고(6.31점), 홀벌이 가구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일 종류의 선택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혼·사별·별거자가 가장 낮았다(5.20점).

〈표 4-25〉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⑩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3.3	1.3	2.9	6.6	4.9	19.8	13.0	15.8	17.0	7.8	7.9	100.0(2,000)	6.18
거주지역													
대도시	2.9	1.5	2.5	5.2	5.4	20.5	12.1	16.8	17.1	8.4	7.7	100.0(943)	6.25
중소도시	3.3	1.0	3.2	7.9	4.0	18.8	14.2	14.5	17.6	7.3	8.2	100.0(876)	6.16
군	5.5	1.7	3.3	7.2	6.1	20.4	11.6	16.6	13.8	6.6	7.2	100.0(181)	5.84
성													
남자	3.5	1.5	3.7	6.9	4.5	19.7	11.6	16.7	17.3	7.1	7.5	100.0(987)	6.10
여자	3.1	1.1	2.1	6.2	5.2	19.8	14.3	14.8	16.7	8.4	8.3	100.0(1,013)	6.25
연령													
20대	3.3	1.8	2.5	7.9	4.1	17.5	13.7	17.8	14.2	6.1	11.2	100.0(394)	6.21
30대	1.5	1.1	3.0	5.2	4.3	20.8	12.2	15.2	20.8	8.8	7.1	100.0(466)	6.40
40대	2.0	0.2	2.8	5.2	4.4	20.7	14.4	17.2	19.2	8.5	5.4	100.0(459)	6.34
50세 이상	5.4	1.9	3.1	7.6	6.0	19.7	12.0	14.0	14.5	7.5	8.2	100.0(681)	5.89
혼인상태													
미혼	2.8	1.5	3.0	6.7	3.9	17.9	13.4	17.9	14.9	6.5	11.4	100.0(463)	6.31
유배우	3.1	0.9	2.8	6.2	5.2	20.2	13.2	15.6	17.9	8.1	6.9	100.0(1,443)	6.20
이혼·사별·별거	8.5	6.4	4.3	11.7	4.3	22.3	6.4	7.4	13.8	8.5	6.4	100.0(94)	5.20
최종학력													
고졸 이하	4.3	1.6	3.6	6.9	5.5	21.8	12.4	15.0	14.8	6.3	7.6	100.0(1,125)	5.92
2~3년제 대졸	2.2	1.1	3.0	8.6	3.3	19.0	13.8	13.8	19.7	7.8	7.8	100.0(269)	6.26
4년제 대졸 이상	2.0	0.8	1.5	5.0	4.2	16.3	13.7	18.2	20.0	10.2	8.2	100.0(600)	6.60
취업여부													
취업	2.0	1.0	2.5	6.4	4.4	19.3	12.6	16.0	18.7	8.9	8.2	100.0(1,225)	6.39
미취업	6.3	1.4	3.9	7.1	5.9	21.5	13.0	15.0	14.7	5.6	5.9	100.0(648)	5.70
학생	0.8	3.9	1.6	5.5	3.9	15.0	16.5	17.3	12.6	7.9	15.0	100.0(127)	6.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6.6	1.5	7.1	12.6	6.6	21.7	10.1	13.6	10.1	3.5	6.6	100.0(198)	5.23
101~200만원	3.6	1.4	3.8	8.5	5.2	23.1	12.4	15.9	12.6	5.5	8.0	100.0(364)	5.87
201~300만원	1.8	1.4	1.4	5.8	6.0	20.3	13.2	16.6	18.9	7.4	7.2	100.0(433)	6.32
301~400만원	2.6	0.4	2.6	5.2	4.1	20.3	16.6	15.5	17.7	8.1	7.0	100.0(271)	6.32
401~500만원	0.8	0.0	2.3	3.5	2.7	15.5	11.6	16.3	24.0	13.6	9.7	100.0(258)	6.98
501만원 이상	0.4	0.8	0.4	4.2	2.9	16.7	14.2	20.5	21.3	11.7	6.7	100.0(239)	6.82
무응답	9.3	3.8	4.2	7.2	5.9	19.0	11.8	10.5	13.1	4.6	10.5	100.0(237)	5.49

또한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5.92점), 4년제 대졸 이상은 높은 수준이었다(6.60점). 이는 학력에 대한 차별이 심한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에 기인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수준은 직장 스트레스가 없는 학생이 가장 높았으며(6.56점),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행복수준 차이는 다소 크게 나타났다(취업자 6.39점, 미취업자 5.70점). 이는 미취업자의 일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큼을 짐작케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는 대체로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지만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가장 낮았고(5.23점), 가구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점차 행복도가 높아졌으나 최고의 행복수준은 401~500만원인 경우로 나타났다(6.98점). 501만원 이상의 높은 가구소득을 가진 경우의 행복수준은 다소 낮아졌다(6.82점).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의 행복수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자, 여성, 30대 연령층, 미혼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학생(미취업자 보다는 취업자), 월 가구소득이 대체로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았다.

다.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특성 24개 중에서 행복도가 중간수준인 5점과 높은 수준인 8점에 각각 9개 특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7점의 행복수준에 6개 특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

준은 중소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6.32점), 군 지역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6.02점). 여성이 남성보다 행복도가 높았으며(남성 6.10점, 여성 6.46점), 그리고 30대가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30대 6.49점, 50세 이상 6.10점).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혼인상태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배우자가 가장 높았고(6.37점), 홀벌이 가구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을 가능성이 높은 이혼·사별·별거자가 가장 낮았다(5.11점).

또한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6.08점), 4년제 대졸 이상은 가장 높았다(6.70점). 이는 전술한 지표(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에서 설명하였듯이, 학력차별이 심한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에 기인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 지표의 만족수준은 학생이 가장 높았으며(6.47점), 미취업자가 가장 낮았다(6.11점). 마지막으로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가 가장 낮았고(5.32점), 가구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점차 행복도가 높아져 501만원 이상의 높은 가구소득을 가진 경우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다(7.27점).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 거주자, 여성, 30대 연령층, 유배우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학생(미취업자 보다는 취업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았다. 특히, 가구소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가구소득을 가진 계층에서는 직장선택시 급여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정도의 여유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4-26〉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2.8	1.5	2.9	5.5	5.0	18.3	11.4	18.5	19.4	7.5	7.3	100.0(2,000)	6.28
거주지역													
대도시	3.0	1.3	3.3	4.3	4.9	18.7	10.8	18.7	21.5	7.0	6.6	100.0(943)	6.30
중소도시	2.2	1.7	2.5	6.2	5.0	17.5	12.1	19.3	18.3	7.5	7.8	100.0(876)	6.32
군	5.0	1.1	2.8	8.3	5.5	20.4	11.0	13.8	13.8	9.9	8.3	100.0(181)	6.02
성													
남자	2.6	1.7	4.4	6.2	5.8	19.3	10.5	17.8	17.9	7.2	6.6	100.0(987)	6.10
여자	3.0	1.2	1.5	4.8	4.2	17.4	12.2	19.2	20.8	7.8	7.9	100.0(1,013)	6.46
연령													
20대	1.5	1.0	3.3	5.3	5.3	17.5	15.0	22.1	18.8	4.1	6.1	100.0(394)	6.25
30대	1.3	0.6	2.1	4.7	5.4	17.8	12.9	20.4	20.6	6.9	7.3	100.0(466)	6.49
40대	2.0	1.1	2.8	4.4	5.4	18.1	12.6	18.5	19.8	11.3	3.9	100.0(459)	6.37
50세 이상	5.1	2.5	3.2	6.9	4.3	19.2	7.5	15.1	18.6	7.3	10.1	100.0(681)	6.10
혼인상태													
미혼	1.9	1.3	3.0	5.2	5.4	18.6	13.6	20.1	19.2	4.8	6.9	100.0(463)	6.25
유배우	2.6	1.0	2.7	5.5	4.7	18.2	11.2	18.4	19.9	8.4	7.3	100.0(1,443)	6.37
이혼·사별·별거	9.6	9.6	5.3	6.4	7.4	18.1	4.3	11.7	12.8	7.4	7.4	100.0(94)	5.11
최종학력													
고졸 이하	4.0	1.7	3.2	6.3	5.2	21.0	10.0	16.1	18.7	6.0	8.0	100.0(1,125)	6.08
2~3년제 대졸	1.9	1.1	3.3	5.9	6.7	15.6	13.4	21.9	16.4	7.1	6.7	100.0(269)	6.26
4년제 대졸 이상	0.8	1.2	2.0	3.8	3.8	14.5	13.2	21.7	22.3	10.7	6.0	100.0(600)	6.70
취업여부													
취업	1.7	1.3	3.3	5.4	5.7	17.2	11.5	19.2	19.5	8.2	6.9	100.0(1,225)	6.35
미취업	5.2	1.9	2.3	6.2	4.0	19.8	9.7	17.1	19.0	6.6	8.2	100.0(648)	6.11
학생	0.8	0.8	1.6	3.1	3.1	21.3	18.9	18.9	20.5	4.7	6.3	100.0(127)	6.4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7.1	3.5	6.1	10.6	6.6	20.2	6.6	15.2	12.6	5.6	6.1	100.0(198)	5.32
101~200만원	3.3	0.8	4.4	7.7	7.1	22.5	10.2	14.8	18.4	3.6	7.1	100.0(364)	5.90
201~300만원	1.4	0.9	1.4	4.2	5.1	20.8	14.8	21.0	18.9	5.8	5.8	100.0(433)	6.37
301~400만원	1.1	0.7	2.6	4.1	5.2	18.1	16.2	19.2	17.0	10.0	5.9	100.0(271)	6.45
401~500만원	0.4	0.0	1.2	2.3	2.3	13.2	11.6	22.9	26.0	12.8	7.4	100.0(258)	7.11
501만원 이상	0.4	0.0	2.1	1.3	3.8	10.5	7.9	22.6	26.8	15.5	9.2	100.0(239)	7.27
무응답	8.0	5.5	3.8	9.7	4.2	19.4	8.9	12.7	15.6	1.7	10.5	100.0(237)	5.43

8. 「건강」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가.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의 행복수준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의 행복수준은 중간수준보다는 높았으나 타 지표와 비교하여 크게 높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이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특성에서 높은 행복수준인 8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7점에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미혼자와 301~400만원의 가구소득자는 7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거주지역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6.88점), 군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6.23점). 타 지표와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미미하나마 높았으며(남성 6.85점, 여성 6.74점),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대 7.14점, 50세 이상 6.43점).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혼인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행복수준은 젊은 연령층이 많은 미혼자가 가장 높았고(7.09점), 이혼·사별·별거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5.95점).

또한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6.61점), 4년제 대졸 이상은 가장 높았다(7.07점).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학생들의 건강수준에 대한 행복감이 가장 높았으며(7.61점),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건강에 대한 행복수준이 높았다(취업자 6.84점, 미취업자 6.55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에 대한 행복감은 가구소득 500만원까지는 가구소득과 비례하였으며, 가구소득 501만원 이상에서는 비례하지 않았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가장 낮았고(6.23점),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수준은 점차 증가하여 401~500만원 가구소득자는 가장 높았으며(7.28점), 그리고 501만원 이상 가구소득자는 미미하나마 행복수준이 감소하였다(7.24점).

〈표 4-27〉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1.7	0.4	1.3	3.6	4.7	14.0	11.7	21.4	23.3	9.8	8.4	100.0(2,000)	6.80
거주지역													
대도시	0.5	0.3	0.4	1.4	1.6	10.5	8.9	22.6	29.0	13.4	11.5	100.0(943)	6.88
중소도시	0.8	0.0	0.6	1.6	1.8	10.6	8.8	22.7	28.5	13.4	11.2	100.0(876)	6.82
군	2.2	0.6	1.7	3.9	1.1	11.0	9.9	13.3	26.5	18.8	11.0	100.0(181)	6.23
성													
남자	0.4	0.1	0.7	1.7	2.5	11.1	8.8	23.0	28.4	12.6	10.6	100.0(987)	6.85
여자	1.2	0.3	0.5	1.7	0.8	10.1	9.1	20.6	28.7	15.1	11.9	100.0(1,013)	6.74
연령													
20대	0.3	0.0	0.8	1.8	3.0	12.2	12.4	25.9	26.1	6.9	10.7	100.0(394)	7.14
30대	0.2	0.0	0.2	1.5	1.5	9.7	8.4	21.5	32.6	13.3	11.2	100.0(466)	6.98
40대	0.2	0.0	0.0	1.7	1.3	8.9	8.3	25.1	27.7	19.2	7.6	100.0(459)	6.86
50세 이상	1.9	0.6	1.2	1.8	1.2	11.5	7.8	17.5	27.8	14.7	14.2	100.0(681)	6.43
혼인상태													
미혼	0.6	0.0	0.6	2.6	3.2	12.7	13.6	24.6	24.2	7.3	10.4	100.0(463)	7.09
유배우	0.8	0.1	0.6	1.5	1.2	9.5	7.6	21.6	30.3	16.0	10.9	100.0(1,443)	6.76
이혼·사별·별거	2.1	2.1	1.1	1.1	1.1	17.0	7.4	10.6	23.4	12.8	21.3	100.0(94)	5.9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	0.4	0.7	2.3	1.3	12.0	8.2	19.6	27.1	13.6	13.3	100.0(1,125)	6.61
2~3년제 대졸	0.0	0.0	0.0	1.5	2.6	9.3	8.9	19.3	32.3	16.0	10.0	100.0(269)	6.96
4년제 대졸 이상	0.0	0.0	0.7	0.7	1.8	8.2	10.3	27.2	29.8	13.5	7.8	100.0(600)	7.07
취업여부													
취업	0.4	0.2	0.4	1.6	1.8	11.0	9.6	23.1	27.8	13.6	10.5	100.0(1,225)	6.84
미취업	1.5	0.3	0.9	1.7	1.1	10.2	7.7	18.7	29.6	15.6	12.7	100.0(648)	6.55
학생	0.8	0.0	0.8	2.4	3.1	8.7	9.4	25.2	29.9	7.9	11.8	100.0(127)	7.6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4.0	1.0	1.5	2.0	1.5	20.7	8.1	15.7	22.7	8.1	14.6	100.0(198)	6.23
101~200만원	0.5	0.0	0.3	2.5	1.4	14.0	8.8	23.1	26.6	11.8	11.0	100.0(364)	6.56
201~300만원	0.0	0.0	0.0	2.1	1.4	7.9	8.8	25.2	32.3	12.5	9.9	100.0(433)	6.92
301~400만원	0.0	0.0	0.4	1.5	1.8	7.0	9.2	27.3	26.9	16.2	9.6	100.0(271)	7.10
401~500만원	0.0	0.0	0.4	0.4	1.6	9.3	8.5	20.2	32.2	19.4	8.1	100.0(258)	7.28
501만원 이상	0.0	0.0	0.4	0.4	1.7	6.3	9.2	20.1	31.8	18.0	12.1	100.0(239)	7.24
무응답	2.5	0.8	2.1	2.5	2.5	11.8	10.1	16.0	24.1	11.4	16.0	100.0(237)	6.08

행복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은 지표인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자, 남성,

연령이 젊을수록, 미혼자,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 월 가구소득이 대체로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았다.

나.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의 행복수준

‘가족의 건강수준’의 행복수준은 타 지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먼저 이 지표의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특성에서 높은 행복수준인 8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미혼자와 301~400만원의 가구소득자는 7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거주지역별 미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7.42점), 군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7.19점). 이는 농어촌 지역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남성 7.33점, 여성 7.44점), 연령별로는 30대 연령층이 가장 높았고, 20대 연령층이 가장 낮았는데(30대 7.52점, 20대 7.13점), 이는 30대는 직계비속이, 20대는 미혼층이 많아 직계존속이 가족원으로 많기 때문에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젊은 연령층이 많은 미혼자가 가장 낮았고(7.03점), 유배우자가 가장 높았다(7.50점).

또한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2~3년제 대졸 학력자가 가장 높았고(7.53점),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7.33점). 따라서 비교적 미혼층이 많은 학생들의 건강수준에 대한 행복감이 가장 낮았으며(7.26점),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가족건강에 대한 행복수준이 높았다(취업자 7.37점, 미취업자 7.43점). 마지막으로 ‘가족의 건강수준’에 대한 행복감은 월평균 가구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가 가장 낮았고(6.79점),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수준은 점차 증가하여 501만원 이상 가구소득자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74점).

〈표 4-28〉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⑨ 가족의 건강수준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0.8	0.2	0.6	1.7	1.7	10.6	9.0	21.8	28.6	13.9	11.3	100.0(2,000)	7.38
거주지역													
대도시	0.5	0.3	0.4	1.4	1.6	10.5	8.9	22.6	29.0	13.4	11.5	100.0(943)	7.42
중소도시	0.8	0.0	0.6	1.6	1.8	10.6	8.8	22.7	28.5	13.4	11.2	100.0(876)	7.38
군	2.2	0.6	1.7	3.9	1.1	11.0	9.9	13.3	26.5	18.8	11.0	100.0(181)	7.19
성													
남자	0.4	0.1	0.7	1.7	2.5	11.1	8.8	23.0	28.4	12.6	10.6	100.0(987)	7.33
여자	1.2	0.3	0.5	1.7	0.8	10.1	9.1	20.6	28.7	15.1	11.9	100.0(1,013)	7.44
연령													
20대	0.3	0.0	0.8	1.8	3.0	12.2	12.4	25.9	26.1	6.9	10.7	100.0(394)	7.13
30대	0.2	0.0	0.2	1.5	1.5	9.7	8.4	21.5	32.6	13.3	11.2	100.0(466)	7.52
40대	0.2	0.0	0.0	1.7	1.3	8.9	8.3	25.1	27.7	19.2	7.6	100.0(459)	7.50
50세 이상	1.9	0.6	1.2	1.8	1.2	11.5	7.8	17.5	27.8	14.7	14.2	100.0(681)	7.36
혼인상태													
미혼	0.6	0.0	0.6	2.6	3.2	12.7	13.6	24.6	24.2	7.3	10.4	100.0(463)	7.03
유배우	0.8	0.1	0.6	1.5	1.2	9.5	7.6	21.6	30.3	16.0	10.9	100.0(1,443)	7.50
이혼·사별·별거	2.1	2.1	1.1	1.1	1.1	17.0	7.4	10.6	23.4	12.8	21.3	100.0(94)	7.31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	0.4	0.7	2.3	1.3	12.0	8.2	19.6	27.1	13.6	13.3	100.0(1,125)	7.33
2~3년제 대졸	0.0	0.0	0.0	1.5	2.6	9.3	8.9	19.3	32.3	16.0	10.0	100.0(269)	7.53
4년제 대졸 이상	0.0	0.0	0.7	0.7	1.8	8.2	10.3	27.2	29.8	13.5	7.8	100.0(600)	7.42
취업여부													
취업	0.4	0.2	0.4	1.6	1.8	11.0	9.6	23.1	27.8	13.6	10.5	100.0(1,225)	7.37
미취업	1.5	0.3	0.9	1.7	1.1	10.2	7.7	18.7	29.6	15.6	12.7	100.0(648)	7.43
학생	0.8	0.0	0.8	2.4	3.1	8.7	9.4	25.2	29.9	7.9	11.8	100.0(127)	7.2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4.0	1.0	1.5	2.0	1.5	20.7	8.1	15.7	22.7	8.1	14.6	100.0(198)	6.79
101~200만원	0.5	0.0	0.3	2.5	1.4	14.0	8.8	23.1	26.6	11.8	11.0	100.0(364)	7.27
201~300만원	0.0	0.0	0.0	2.1	1.4	7.9	8.8	25.2	32.3	12.5	9.9	100.0(433)	7.50
301~400만원	0.0	0.0	0.4	1.5	1.8	7.0	9.2	27.3	26.9	16.2	9.6	100.0(271)	7.52
401~500만원	0.0	0.0	0.4	0.4	1.6	9.3	8.5	20.2	32.2	19.4	8.1	100.0(258)	7.60
501만원 이상	0.0	0.0	0.4	0.4	1.7	6.3	9.2	20.1	31.8	18.0	12.1	100.0(239)	7.74
무응답	2.5	0.8	2.1	2.5	2.5	11.8	10.1	16.0	24.1	11.4	16.0	100.0(237)	7.10

행복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은 지표인 ‘가족의 건강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자, 여성, 30~40대

연령층, 유배우자, 중간수준의 학력소지자, 미취업자, 그리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았다.

다. ‘규칙적인 운동여부’ 지표의 행복수준

‘규칙적인 운동여부’ 지표의 행복수준은 어느 다른 행복결정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중간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5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만, 이혼·사별·별거자의 경우만 높은 행복수준인 8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규칙적인 운동여부’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5.53점), 군 지역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4.66점).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도가 높았으며(남성 5.58점, 여성 5.19점), 그리고 50세 이상이 가장 높았고, 30대 연령층이 가장 낮았다(50세 이상 5.58점, 30대 5.07점).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배우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5.42점), 이혼·사별·별거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5.20점).

또한 ‘규칙적인 운동여부’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5.27점), 4년제 대졸 이상은 상대적으로 높았다(5.59점). 학생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데 있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5.86점),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는 규칙적 운동이 보다 어려움을 짐작하는 결과를 보였다(취업자 5.18점, 미취업자 5.69점),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여부’는 가구소득에 대체적으로 비례하고 있었으나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01~200만원 이하의 경우가 가장 낮았고(4.94점), 다음은 100만원 이하의 낮은 가구소득자가 낮았으며(5.24점),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5.98점).

〈표 4-29〉 ‘규칙적인 운동여부’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㉑ 규칙적인 운동여부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7.6	2.8	5.0	9.2	6.6	22.5	10.4	11.2	11.6	6.6	6.8	100.0(2,000)	5.39
거주지역													
대도시	6.8	2.3	4.8	8.6	5.6	23.9	10.9	11.2	11.1	6.9	7.8	100.0(943)	5.53
중소도시	7.3	3.2	4.8	9.8	7.0	21.3	9.9	11.1	12.6	6.8	6.2	100.0(876)	5.38
군	13.3	2.8	7.2	9.4	9.4	20.4	9.9	11.0	8.8	3.9	3.9	100.0(181)	4.66
성													
남자	5.8	2.7	5.0	9.2	6.0	22.1	10.8	12.5	10.0	8.0	7.9	100.0(987)	5.58
여자	9.4	2.8	5.0	9.2	7.1	22.8	10.0	9.9	13.0	5.2	5.6	100.0(1,013)	5.19
연령													
20대	6.9	4.3	5.3	10.2	8.6	23.9	8.6	9.4	8.6	4.8	9.4	100.0(394)	5.23
30대	7.3	3.2	5.2	12.0	6.7	24.5	13.3	9.4	8.8	4.7	4.9	100.0(466)	5.07
40대	5.2	2.8	4.6	8.7	7.4	22.0	10.2	13.7	12.4	7.6	5.2	100.0(459)	5.56
50세 이상	9.8	1.5	5.0	7.0	4.7	20.6	9.5	11.6	14.5	8.2	7.5	100.0(681)	5.58
혼인상태													
미혼	7.3	4.1	4.3	9.5	8.0	23.3	9.7	9.9	9.5	5.0	9.3	100.0(463)	5.31
유배우	7.3	2.3	4.8	9.4	6.4	22.5	10.8	11.6	11.6	7.1	6.0	100.0(1,443)	5.42
이혼·사별·별거	12.8	3.2	11.7	4.3	1.1	17.0	7.4	10.6	20.2	6.4	5.3	100.0(94)	5.20
최종학력													
고졸 이하	8.8	3.1	5.0	10.0	6.1	21.6	9.9	11.0	11.8	6.0	6.7	100.0(1,125)	5.27
2~3년제 대졸	8.2	1.9	2.6	9.7	5.6	29.0	11.9	8.6	7.8	5.2	9.7	100.0(269)	5.41
4년제 대졸 이상	5.0	2.5	6.2	7.5	7.8	20.8	10.8	12.7	12.7	8.5	5.5	100.0(600)	5.59
취업여부													
취업	8.3	2.9	5.7	9.3	6.9	22.9	12.3	10.4	9.6	6.4	5.2	100.0(1,225)	5.18
미취업	6.9	2.3	3.9	9.0	5.9	22.1	7.3	12.0	15.3	6.5	9.0	100.0(648)	5.69
학생	3.9	3.1	3.9	9.4	7.1	20.5	7.9	13.4	11.8	8.7	0.2	100.0(127)	5.8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2.1	2.5	4.0	9.6	4.5	19.2	10.6	13.1	12.1	3.5	8.6	100.0(198)	5.24
101~200만원	9.1	4.1	5.2	11.3	6.0	26.4	10.2	9.1	6.9	7.7	4.1	100.0(364)	4.94
201~300만원	5.8	1.2	4.8	10.9	7.2	24.5	10.2	13.4	11.3	5.1	5.8	100.0(433)	5.43
301~400만원	5.5	2.6	4.8	6.6	6.6	23.6	14.4	9.2	15.1	4.8	6.6	100.0(271)	5.58
401~500만원	5.8	3.5	3.9	7.0	6.6	21.3	9.7	12.4	12.0	8.9	8.9	100.0(258)	5.76
501만원 이상	5.4	1.3	5.9	6.7	6.3	17.2	11.7	10.5	14.2	12.1	8.8	100.0(239)	5.98
무응답	11.4	4.6	6.3	10.5	8.0	20.7	5.9	10.1	11.4	4.2	6.8	100.0(237)	4.87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규칙적인 운동여부’ 지표의 행복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자, 남성, 40대 이상

연령층, 유배우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학생(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은 군 지역 거주자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1~200만원 이하의 경우에 규칙적인 운동여부에 대한 행복수준이 중간(5점)보다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계층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9. 「주거」 영역의 행복결정요인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은 어느 다른 행복결정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먼저 행복수준 분포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특성 24개 중에서 행복도가 중간수준인 5점과 비교적 높은 수준인 7점에 각각 10개 특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높은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8점에는 대도시 거주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301~400만원인 경우와 50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중소도시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6.58점), 군 지역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6.23점). 성별로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도가 높았다(남성 6.56점, 여성 6.52점).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연령이 젊을수록 높았는데, 20대 연령층이 가장 높았고(20대 6.72점), 50세 이상자가 가장 낮았다(50세 이상 6.44점). 이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미혼자와 유배우자가 유사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미혼자 6.59점, 유배우자 6.58점), 이혼·사별·별거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5.61점).

〈표 4-30〉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1.8	0.9	2.3	5.6	4.4	18.4	11.4	18.0	18.4	8.5	10.4	100.0(2,000)	6.54
거주지역													
대도시	1.5	1.1	2.1	5.8	4.1	17.8	12.0	17.9	19.3	7.7	10.6	100.0(943)	6.56
중소도시	1.6	0.7	2.5	5.7	3.9	17.7	11.9	18.7	18.3	8.3	10.7	100.0(876)	6.58
군	4.4	0.6	2.2	3.9	8.3	24.9	6.1	14.4	14.4	13.3	7.7	100.0(181)	6.23
성													
남자	1.2	0.8	2.4	6.5	3.9	18.7	11.4	17.5	18.5	7.7	11.2	100.0(987)	6.56
여자	2.4	0.9	2.2	4.7	4.9	18.1	11.4	18.4	18.3	9.3	9.6	100.0(1,013)	6.52
연령													
20대	1.8	0.3	1.0	4.8	4.1	16.0	12.7	23.9	16.5	6.9	12.2	100.0(394)	6.72
30대	0.9	0.4	2.4	4.3	4.1	19.1	13.9	19.7	21.2	6.9	7.1	100.0(466)	6.54
40대	1.3	0.7	3.1	4.4	5.4	17.9	12.0	18.7	18.7	11.1	6.8	100.0(459)	6.51
50세 이상	2.8	1.6	2.5	7.8	4.1	19.7	8.5	12.8	17.3	8.8	14.1	100.0(681)	6.44
혼인상태													
미혼	1.9	0.6	1.7	5.6	3.5	16.2	13.0	22.5	17.7	6.0	11.2	100.0(463)	6.59
유배우	1.6	0.8	1.9	5.3	4.6	19.3	11.2	16.6	18.9	9.6	10.0	100.0(1,443)	6.58
이혼·사별·별거	4.3	3.2	10.6	9.6	5.3	16.0	6.4	16.0	13.8	3.2	11.7	100.0(94)	5.6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4	1.2	2.8	7.0	5.2	21.2	10.8	14.8	15.9	7.9	10.8	100.0(1,125)	6.30
2~3년제 대졸	1.1	0.7	1.1	5.2	4.1	15.2	10.4	24.2	21.6	7.8	8.6	100.0(269)	6.71
4년제 대졸 이상	1.0	0.3	1.8	3.0	3.2	14.7	13.2	21.2	21.7	9.7	10.3	100.0(600)	6.90
취업여부													
취업	1.6	0.5	2.2	5.6	4.8	19.6	12.0	17.8	18.9	7.9	9.1	100.0(1,225)	6.49
미취업	2.3	1.5	2.9	6.3	4.0	17.6	9.7	17.4	16.8	9.4	11.9	100.0(648)	6.49
학생	0.8	0.8	0.0	2.4	2.4	11.0	14.2	22.0	21.3	9.4	15.7	100.0(127)	7.2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5.1	1.0	3.5	13.1	5.6	21.7	9.6	7.6	12.6	6.1	14.1	100.0(198)	5.86
101~200만원	1.4	0.8	3.8	6.9	4.9	26.4	12.9	14.0	14.8	6.0	8.0	100.0(364)	6.09
201~300만원	0.5	0.2	2.1	6.0	5.3	18.9	12.0	20.8	18.0	8.1	8.1	100.0(433)	6.54
301~400만원	1.5	1.5	0.4	4.1	3.7	13.3	11.8	21.8	22.1	8.9	11.1	100.0(271)	6.86
401~500만원	1.2	0.4	0.8	1.9	3.9	15.5	10.5	23.3	22.9	10.5	9.3	100.0(258)	6.97
501만원 이상	0.0	0.0	1.3	0.8	1.7	10.0	14.2	19.2	24.3	15.9	12.6	100.0(239)	7.45
무응답	5.1	2.5	4.2	7.2	5.1	19.8	7.2	16.0	14.3	5.1	13.5	100.0(237)	6.03

또한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평균 행복수준은 교육 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6.30

점), 4년제 대졸 이상은 상대적으로 높았다(6.90점). 학생들이 주거 행복도가 가장 높았고(7.24점), 취업자와 미취업자는 동일한 수준이었다(6.49점). 마지막으로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비례하고 있었으며, 소득별 행복수준 격차는 현저하였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낮았고(5.86점), 가구소득 증대에 따라 이 지표의 행복수준은 점차 증가하여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7.45점).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의 행복수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 거주자, 남성, 연령이 젊을수록, 미혼자,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한국인의 행복지수

제 1 절 행복결정요인의 영향도

선정된 21개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에 의하여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결정요인(지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가중치 결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1. 우선순위 결정절차

가중치 결정은 다음 세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각 분야별로 선정된 지표에 대한 영향정도 결정이다. 둘째, 각 분야별 영향정도 결정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각 지표의 영향도와 각 분야별 영향도를 고려한 각 지표의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2. 우선순위 산출결과

영역별 영향도 계산은 개별지표 중 최저값 5.0, 개별지표 중 최고값 8.7임을 감안하여 영역의 영향도의 경우도 최고 8.7, 최저 5.0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begin{aligned}\text{영역별 영향도} &= [(x_i - \text{최소값})/(\text{최대값}-\text{최소값})] \times 3.7 + 5.0 \\ &= (x_i - 2.0)/5.4] \times 3.7 + 5.0\end{aligned}$$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별 가중치는 ‘지표 영향정도’와 ‘영역 영향정도’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text{결정요인별 가중치} = (x_i \times y_j) / \sum(x_i \times y_j)$$

x_i : 결정요인의 영향정도

y_j : 영역의 영향정도

〈표 5-1〉 영역의 우선순위 평균값

(단위: 점)

영역	행복결정요인	우선순위	
		순위평균	순위
심리적 안정	자아 존중감, 적응도, 유연성, 목표달성 등	2.6	1
가족·결혼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자녀 등	3.3	2
개인적 관계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인정받는 정도 등	4.7	5
지역사회	참여여부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	8.0	9
일상생활	여가, 식사, 수면 등에 대한 만족도	6.1	7
경제적 안정	수입 및 소비에 대한 충족감 등	4.6	4
일	보람, 급여, 근무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4.8	6
건강	자신 및 가족에 대한 주·객관적 건강수준 등	3.6	3
주거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7.4	8

〈표 5-2〉 영역의 영향도

(단위: 점)

영역	순위평균	순위전환값	영향도
심리적 안정	2.6	7.4	8.7
가족·결혼	3.3	6.7	8.2
개인적 관계	4.7	5.3	7.3
지역사회	8.0	2.0	5.0
일상생활	6.1	3.9	6.3
경제적 안정	4.6	5.4	7.3
일	4.8	5.2	7.2
건강	3.6	6.4	8.0
주거	7.4	2.6	5.4

주: 순위전환값 = 10 - 순위평균값

개별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0.058)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0.057), 가족의 건강수준(0.057),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0.056),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0.055) 등이 높았다. 반면에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0.026),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0.03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표 5-3>에 제시된다.

<표 5-3> 개별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단위: 점)

영역	행복에 미치는 요인	지표 영향도	분야 영향도	영향 도	지표별 가중치
심리적 안정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8.0	8.7	69.60	0.057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9	8.7	68.73	0.056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7.6	8.7	66.12	0.054
가족 결혼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8.7	8.2	71.34	0.058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8.1	8.2	66.42	0.054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4	8.2	60.68	0.049
개인적 관계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5	7.3	62.05	0.050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9	7.3	57.67	0.047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6	7.3	55.48	0.045
지역사회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3	5.0	31.50	0.026
일상생활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8.0	6.3	50.40	0.041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7.6	6.3	47.88	0.039
경제적 안정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7.4	7.3	54.02	0.044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7.4	7.3	54.02	0.044
일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8.1	7.2	58.32	0.047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8.5	7.2	61.20	0.050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8.1	7.2	58.32	0.047
건강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8.4	8.0	67.20	0.055
	⑲ 가족의 건강수준	8.7	8.0	69.60	0.057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7.1	8.0	56.80	0.046
주거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7.8	5.4	42.12	0.034
계					1.000

제 2 절 전체 한국인의 행복지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개별지표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는 제5장 제1절에서 산출된 행복결정요인표별 가중치(표 5-3 참조)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최종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행복한 수준인 100점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행복수준은 67.8점으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따라서 50점이 평균이고, 80점 이상을 매우 행복한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한국인은 ‘비교적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4〉 개별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개별지표의 가중치 적용전 행복수준 (10점 기준)	가중치	가중치 적용후 행복수준	가중치 적용후 행복수준 (100점 기준)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03	0.057	0.40071	4.0071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13	0.056	0.39928	3.9928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57	0.054	0.35478	3.5478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43	0.058	0.43094	4.3094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94	0.054	0.37476	3.7476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88	0.049	0.38612	3.8612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7.98	0.050	0.39900	3.9900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39	0.047	0.34733	3.4733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27	0.045	0.32715	3.2715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18	0.026	0.16068	1.6068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25	0.041	0.25625	2.5625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82	0.039	0.26598	2.6598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46	0.044	0.24024	2.4024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 다는 유능감	5.84	0.044	0.25696	2.5696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70	0.047	0.31490	3.1490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18	0.050	0.30900	3.0900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 한 만족도	6.28	0.047	0.29516	2.9516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80	0.055	0.37400	3.7400
⑲ 가족의 건강수준	7.38	0.057	0.42066	4.2066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39	0.046	0.24794	2.4794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4	0.034	0.22236	2.2236
계	-	1.000	6.7842	67.842

개별 행복결정요인이 전체 행복수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였다(표 5-5 참조). 전체 21개 행복결정요인 중 영향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족·결혼생활 만족도’로 6.35%이었으며, ‘가족의 건강수준’도 6.20%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영향도가 5%대인 8개 지표가 있었는데,

‘자아 존중감 정도’ 5.91%,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5.89%, ‘가족관계 만족도’ 5.88%, ‘출산 및 자녀성장 만족도’ 5.69%, ‘부부생활(이성교제) 만족도’ 5.52%, ‘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 5.51%,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5.23%, ‘친구·동료관계 만족도’ 5.12% 등의 순이었다. 4%대의 영향도를 보인 지표는 4개이었는데, ‘타인의 긍정적 인정 만족도’ 4.82%, ‘현재 일에 대한 보람’ 4.64%, ‘현재 일 종류와 원하는 일의 일치성’ 4.55%, ‘급여·근무환경 만족도’ 4.35% 등의 순이었다.

비교적 낮은 영향도를 보이는 지표가 7개 있었다. 먼저 3%대인 6개 지표를 제시하면,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3.92%, ‘구매·소유 유능감’ 3.79%, ‘여가·휴식 만족도’ 3.78%, ‘규칙적 운동여부’ 3.65%, ‘재산·소득의 소유·취득 충족감’ 3.54%, ‘주거의 소유·질 만족도’ 3.28% 등이었고, 2%대의 지표는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2.37%이었다.

이와 같이 전체 행복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별 행복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한국인이 가족생활·결혼생활의 안정, 심리적 안정, 본인과 가족의 건강, 가족·친구·직장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등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일과 관련된 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으며, 재산 및 소득과 같은 경제적 안정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소 후순위로 나타났다.

〈표 5-5〉 개별 행복결정요인이 전체 행복지수에 주는 영향도

(단위: 점, %)

행복결정요인	행복수준 (100점 기준)	전체 행복지수에 주는 영향도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4.0071	5.91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3.9928	5.89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3.5478	5.23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4.3094	6.35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3.7476	5.52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3.8612	5.69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3.9900	5.88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3.4733	5.12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3.2715	4.82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1.6068	2.37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2.5625	3.78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2.6598	3.92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2.4024	3.54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2.5696	3.79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3.1490	4.64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3.0900	4.55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2.9516	4.35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3.7400	5.51
⑲ 가족의 건강수준	4.2066	6.20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2.4794	3.65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2.2236	3.28
계	67.842	100.0

제 3 절 한국인의 특성별 행복수준

본 절에서는 행복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적용한 후의 한국인의 특성별 행복수준을 논의한다. 특성으로는 거주지역, 성,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등을 다룬다.

1. 거주지역별 행복수준

10점 기준으로 거주지역별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및 군지역 거주자보다 행복지수가 높았고, 중소도시 거주자들은 대도시 거주자보다는 낮았으나 군지역 거주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행복결정요인의 거주지역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거주지역 (10점 기준)			평균 행복수준
	대도시	중소도시	군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22	6.92	6.56	7.03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20	7.15	6.72	7.13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65	6.55	6.28	6.57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51	7.38	7.28	7.43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92	6.95	7.04	6.94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87	7.91	7.81	7.88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2	7.95	7.87	7.98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46	7.38	7.09	7.39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31	7.29	6.94	7.27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17	6.21	6.13	6.18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26	6.31	5.88	6.25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78	6.87	6.75	6.82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45	5.50	5.32	5.46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90	5.85	5.51	5.84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80	6.64	6.51	6.70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25	6.16	5.84	6.18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30	6.32	6.02	6.28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88	6.82	6.23	6.80
⑲ 가족의 건강수준	7.42	7.38	7.19	7.38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53	5.38	4.66	5.39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6	6.58	6.23	6.54
평균	6.78	6.74	6.47	6.74

이를 21개 지표에 의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도시 지역 거주자들은 자아 존중감,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

도, 가족관계 만족도, 친구·동료관계 만족도, 타인의 긍정적 인정 만족도, 구매·소유 유능감, 현재 일에 대한 보람, 현재 일 종류와 원하는 일의 일치성, 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 가족의 건강수준, 규칙적 운동여부 등으로 전체 21개 행복결정요인 중 무려 14개나 차지하였다.

〈표 5-7〉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거주지역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거주지역 (가중치 적용전 10점 기준)			가중치	거주지역 (가중치 적용후)		
	대도시	중소도시	균		대도시	중소도시	균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22	6.92	6.56	0.057	0.41	0.39	0.37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20	7.15	6.72	0.056	0.40	0.40	0.38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65	6.55	6.28	0.054	0.36	0.35	0.34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51	7.38	7.28	0.058	0.44	0.43	0.42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92	6.95	7.04	0.054	0.37	0.38	0.38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87	7.91	7.81	0.049	0.39	0.39	0.38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2	7.95	7.87	0.050	0.40	0.40	0.39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46	7.38	7.09	0.047	0.35	0.35	0.33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31	7.29	6.94	0.045	0.33	0.33	0.31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17	6.21	6.13	0.026	0.16	0.16	0.16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26	6.31	5.88	0.041	0.26	0.26	0.24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78	6.87	6.75	0.039	0.26	0.27	0.26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45	5.50	5.32	0.044	0.24	0.24	0.23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90	5.85	5.51	0.044	0.26	0.26	0.24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80	6.64	6.51	0.047	0.32	0.31	0.31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25	6.16	5.84	0.050	0.31	0.31	0.29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30	6.32	6.02	0.047	0.30	0.30	0.28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88	6.82	6.23	0.055	0.38	0.38	0.34
⑲ 가족의 건강수준	7.42	7.38	7.19	0.057	0.42	0.42	0.41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53	5.38	4.66	0.046	0.25	0.25	0.21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6	6.58	6.23	0.034	0.22	0.22	0.21
평균(10점 기준)	6.78	6.74	6.47	1.000	6.84	6.78	6.51

반면에 중소도시 지역 거주자들은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여가·휴식 만족도,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재산·소득의 소유·취득 충족감, 급여·근무환경 만족도, 주거의 소유·질 만족도 등 6개 행복결정요인만이 평균 행복수준

이 타 지역 거주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군지역 거주자들은 부부생활(이성교제) 만족도만이 타 지역 거주자들보다 높았다.

행복결정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거주지역별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자가 6.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거주자 6.78점, 군지역 거주자가 가장 낮은 6.51점이었다.

2. 성별 행복수준

10점 기준으로 성별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1개 지표에 의하여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부부생활(이성교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 규칙적 운동여부, 주거의 소유·질 만족도 등 전체 21개 행복결정요인 중 불과 7개 지표만이 여성보다 행복수준이 높았다.

반면에 여성들은 자아 존중감 정도,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출산 및 자녀성장 만족도, 친구·동료관계 만족도, 타인의 긍정적 인정 만족도,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여가·휴식 만족도,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재산·소득의 소유·취득 충족감, 구매·소유 유능감, 현재 일에 대한 보람, 현재 일 종류와 원하는 일의 일치성, 급여·근무환경 만족도, 가족의 건강수준 등 전체 21개 행복결정요인 중 무려 14개 지표가 남성보다 행복수준이 높았다.

〈표 5-8〉 행복결정요인의 성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성 (10점 기준)		평균 행복수준
	남자	여자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6.94	7.12	7.03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06	7.20	7.13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62	6.52	6.57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55	7.31	7.43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7.05	6.85	6.94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87	7.90	7.88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7.98	7.97	7.98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29	7.49	7.39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15	7.39	7.27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04	6.32	6.18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18	6.31	6.25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72	6.91	6.82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26	5.65	5.46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70	5.98	5.84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60	6.80	6.70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10	6.25	6.18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10	6.46	6.28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85	6.74	6.80
⑲ 가족의 건강수준	7.33	7.44	7.38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58	5.19	5.39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6	6.52	6.54
평균	6.69	6.78	6.74

행복결정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성별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6.75점으로 여성 6.92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표 5-9〉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성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성		가중치	성	
	(가중치 적용전 10점 기준)			(가중치 적용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6.94	7.12	0.057	0.40	0.41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06	7.20	0.056	0.40	0.40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62	6.52	0.054	0.36	0.35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55	7.31	0.058	0.44	0.42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7.05	6.85	0.054	0.38	0.37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87	7.90	0.049	0.39	0.39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7.98	7.97	0.050	0.40	0.40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29	7.49	0.047	0.34	0.35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15	7.39	0.045	0.32	0.33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04	6.32	0.026	0.16	0.16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18	6.31	0.041	0.25	0.26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72	6.91	0.039	0.26	0.27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26	5.65	0.044	0.23	0.25
⑭ 원하는 것을 얻거나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70	5.98	0.044	0.25	0.26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60	6.80	0.047	0.31	0.32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10	6.25	0.050	0.31	0.31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10	6.46	0.047	0.29	0.30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85	6.74	0.055	0.377	0.37
⑲ 가족의 건강수준	7.33	7.44	0.057	0.42	0.42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58	5.19	0.046	0.26	0.24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6	6.52	0.034	0.22	0.22
평균(10점 기준)	6.69	6.78	1.000	6.75	6.82

3. 연령별 행복수준

10점 기준으로 연령별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20대가 7개 지표(1개 지표는 30대와 동일하게 높음), 30대가 10개 지표(1개 지표는 20대와 동일하게 높음), 40대 1개 지표, 50대 이상 4개 지표 등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30대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으며, 다음은 20대이었고, 40대와 50대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10〉 행복결정요인의 연령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연령(10점 기준)				평균 행복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41	7.27	7.03	6.64	7.03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33	7.33	7.22	6.83	7.13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80	6.90	6.55	6.23	6.57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73	7.67	7.60	6.98	7.43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52	7.43	7.37	6.58	6.94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8.26	8.07	7.91	7.74	7.88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5	8.16	7.96	7.82	7.98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85	7.37	7.23	7.25	7.39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25	7.37	7.32	7.18	7.27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01	6.12	6.21	6.30	6.18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09	6.19	6.28	6.35	6.25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60	6.78	6.90	6.92	6.82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26	5.53	5.51	5.50	5.46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92	6.22	5.91	5.49	5.84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70	6.94	6.81	6.48	6.70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21	6.40	6.34	5.89	6.18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25	6.49	6.37	6.10	6.28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7.14	6.98	6.86	6.43	6.80
⑲ 가족의 건강수준	7.13	7.52	7.50	7.36	7.38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23	5.07	5.56	5.58	5.39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72	6.54	6.51	6.44	6.54
평균	6.78	6.87	6.81	6.57	6.74

이를 21개 지표에 의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20대는 자아 존중감 정도,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출산 및 자녀성장 만족도, 친구·동료관계 만족도, 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 주거의 소유·질 만족도 등에서 높았다. 30대는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부부생활(이성교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타인의 긍정적 인정 만족도, 구매·소유 유능감, 현재 일에 대한 보람, 현재 일 종류와 원하는 일의

일치성, 급여·근무환경 만족도, 가족의 건강수준 등에서 높았다.

〈표 5-11〉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연령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연령 (가중치 적용전 10점 기준)				가중치	연령 (가중치 적용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41	7.27	7.03		6.64	0.057	0.42	0.41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33	7.33	7.22	6.83	0.056	0.41	0.41	0.40	0.38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80	6.90	6.55	6.23	0.054	0.37	0.37	0.35	0.34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73	7.67	7.60	6.98	0.058	0.45	0.44	0.44	0.40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52	7.43	7.37	6.58	0.054	0.35	0.40	0.40	0.36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8.26	8.07	7.91	7.74	0.049	0.40	0.40	0.39	0.38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5	8.16	7.96	7.82	0.050	0.40	0.41	0.40	0.39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85	7.37	7.23	7.25	0.047	0.37	0.35	0.34	0.34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25	7.37	7.32	7.18	0.045	0.33	0.33	0.33	0.32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01	6.12	6.21	6.30	0.026	0.16	0.16	0.16	0.16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09	6.19	6.28	6.35	0.041	0.25	0.25	0.26	0.26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60	6.78	6.90	6.92	0.039	0.26	0.26	0.27	0.27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26	5.53	5.51	5.50	0.044	0.23	0.24	0.24	0.24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92	6.22	5.91	5.49	0.044	0.26	0.27	0.26	0.24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70	6.94	6.81	6.48	0.047	0.31	0.33	0.32	0.30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21	6.40	6.34	5.89	0.050	0.31	0.32	0.32	0.29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25	6.49	6.37	6.10	0.047	0.29	0.31	0.30	0.29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7.14	6.98	6.86	6.43	0.055	0.39	0.38	0.38	0.35
⑲ 가족의 건강수준	7.13	7.52	7.50	7.36	0.057	0.41	0.43	0.43	0.42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23	5.07	5.56	5.58	0.046	0.24	0.23	0.26	0.26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72	6.54	6.51	6.44	0.034	0.23	0.22	0.22	0.22
평균(10점 기준)	6.78	6.87	6.81	6.57	1.000	6.85	6.94	6.86	6.60

40대와 50대 이상은 만족하는 지표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40대는 재산·소득의 소유·취득 충족감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행복지수가 높았고, 50대 이상은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여가·휴식 만족도,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규칙적 운동여부 등에서 행복지수가 높았다. 반대로 평균 행복지수

가 가장 낮은 행복결정요인수는 50대 이상이 13개 지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대 6개 지표, 30대와 40대가 각 1개 지표로 나타났다.

행복결정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연령별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대가 6.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6.86점, 20대 6.85점이었으며, 그리고 50대 이상은 가장 낮은 6.60점으로 나타났다.

4. 혼인상태별 행복수준

10점 기준으로 혼인상태별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유배우자가 13개 지표, 미혼자가 8개 지표이었으며, 이혼·사별·별거는 한 개의 지표도 가장 높지 않았다. 따라서 혼인상태가 행복지수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를 21개 지표에 의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미혼자는 자아 존중감 정도,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친구·동료관계 만족도, 구매·소유 유능감, 현재 일 종류와 원하는 일의 일치성, 주거의 소유·질 만족도 등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는 그 외의 모든 지표인 부부생활(이성교제) 만족도, 출산 및 자녀성장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타인의 긍정적 인정 만족도,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여가·휴식 만족도,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재산·소득의 소유·취득 충족감, 현재 일에 대한 보람, 급여·근무환경 만족도, 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 가족의 건강수준, 규칙적 운동여부 등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평균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행복결정요인수는 유배우자는 한 개도 없었고, 미혼자는 1개 지표(가족의 건강수준)이었으며, 그 외의 20개 지표는 이혼·사별·별거자에게서 나타났다.

〈표 5-12〉 행복결정요인의 혼인상태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혼인상태(10점 기준)			평균 행복수준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별거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32	6.98	6.36	7.03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30	7.14	6.24	7.13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80	6.55	5.80	6.57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60	7.46	6.13	7.43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28	7.34	4.12	6.94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	7.93	7.20	7.88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1	8.02	7.04	7.98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85	7.27	7.03	7.39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27	7.30	6.82	7.27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05	6.23	6.04	6.18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17	6.29	5.87	6.25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68	6.88	6.47	6.82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18	5.60	4.61	5.46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95	5.86	4.99	5.84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73	6.77	5.54	6.70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31	6.20	5.20	6.18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25	6.37	5.11	6.28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7.09	6.76	5.95	6.80
⑲ 가족의 건강수준	7.03	7.50	7.31	7.38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31	5.42	5.20	5.39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9	6.58	5.61	6.54
평균	6.68	6.78	5.94	6.74

행복결정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혼인상태별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배우자가 6.8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미혼자 6.74점이었으며, 그리고 이혼·사별·별거자는 가장 낮은 5.95점이었다. 따라서 혼인 상태에 따라 한국인의 행복수준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3〉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혼인상태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혼인상태 (가중치 적용전 10점 기준)				혼인상태 (가중치 적용후)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가중치	미혼		이혼 사별 별거
	유배우	유배우			유배우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32	6.98	6.36	0.057	0.42	0.40	0.36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30	7.14	6.24	0.056	0.41	0.40	0.35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80	6.55	5.80	0.054	0.37	0.35	0.31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60	7.46	6.13	0.058	0.44	0.43	0.36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28	7.34	4.12	0.054	0.34	0.40	0.22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	7.93	7.20	0.049	-	0.39	0.35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1	8.02	7.04	0.050	0.40	0.40	0.35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85	7.27	7.03	0.047	0.37	0.34	0.33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27	7.30	6.82	0.045	0.33	0.33	0.31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05	6.23	6.04	0.026	0.16	0.16	0.16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17	6.29	5.87	0.041	0.25	0.26	0.24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68	6.88	6.47	0.039	0.26	0.27	0.25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18	5.60	4.61	0.044	0.23	0.25	0.20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95	5.86	4.99	0.044	0.26	0.26	0.22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73	6.77	5.54	0.047	0.32	0.32	0.26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31	6.20	5.20	0.050	0.32	0.31	0.26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25	6.37	5.11	0.047	0.29	0.30	0.24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7.09	6.76	5.95	0.055	0.39	0.37	0.33
⑲ 가족의 건강수준	7.03	7.50	7.31	0.057	0.40	0.43	0.42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31	5.42	5.20	0.046	0.24	0.25	0.24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9	6.58	5.61	0.034	0.22	0.22	0.19
평균(10점 기준)	6.68	6.78	5.94	1.000	6.74	6.83	5.95

5. 최종학력별 행복수준

10점 기준으로 최종학력별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18개 지표, 2~3년제 대졸 학력자가 2개 지표이었으며, 그리고 고졸 이하 학력자는 1개 지표뿐이었다. 따라서 학력수준에 따라 평균 행복수준이 크게 좌우됨을 짐작케 한다.

이를 21개 지표에 의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2~3년제 대졸 학력자는 친구·동료관계 만족도와 가족의 건강수준에서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 학력자는 만족스러운 수면(양·질)에서만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리고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그 외의 전체 지표에서 행복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평균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행복결정요인수는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는 한개도 없었고, 2~3년제 대졸 학력자는 2개 지표(여가·휴식 만족도와 만족스러운 수면(양·질))가 있었으며, 고졸 이하 학력자는 무려 19개 지표나 있었다.

〈표 5-14〉 행복결정요인의 최종학력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최종학력(10점 기준)			평균 행복수준
	고졸 이하	2~3년제 대졸	4년제 대졸 이상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6.75	7.20	7.51	7.03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6.86	7.28	7.60	7.13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33	6.65	6.98	6.57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23	7.64	7.71	7.43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69	7.13	7.33	6.94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79	7.95	8.03	7.88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7.91	7.95	8.11	7.98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32	7.57	7.46	7.39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15	7.25	7.49	7.27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10	6.16	6.36	6.18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15	6.15	6.47	6.25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86	6.75	6.78	6.82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25	5.45	5.85	5.46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50	5.97	6.43	5.84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50	6.81	7.06	6.70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5.92	6.26	6.60	6.18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08	6.26	6.70	6.28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61	6.96	7.07	6.80
⑲ 가족의 건강수준	7.33	7.53	7.42	7.38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27	5.41	5.59	5.39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30	6.71	6.90	6.54
평균	6.57	6.81	7.02	6.74

이와 같이 교육수준에 따라 행복수준의 수준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학력에 의하여 자신감 및 긍정적 가치관이 증대되고,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가 유연하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며, 직업지위 및 소득수준이 결정됨과 아울러 건강관리를 위한 여유가 생겨 실질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행복결정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최종학력별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년제 대졸 이상자가 7.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3년제 대졸자 6.87점이었으며, 그리고 고졸 이하자는 가장 낮은 6.61점으로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적인 양상을 보였다.

〈표 5-15〉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최종학력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최종학력 (가중치 적용전 10점 기준)			가중치	최종학력 (가중치 적용후)		
	고졸 이하	2~3년 제 대졸	4년제 대졸이상		고졸 이하	2~3년 제 대졸	4년제 대졸이상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6.75	7.20		7.51	0.057	0.38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6.86	7.28	7.60	0.056	0.38	0.41	0.43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33	6.65	6.98	0.054	0.34	0.36	0.38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23	7.64	7.71	0.058	0.42	0.44	0.45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69	7.13	7.33	0.054	0.36	0.39	0.40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79	7.95	8.03	0.049	0.38	0.39	0.39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7.91	7.95	8.11	0.050	0.40	0.40	0.41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32	7.57	7.46	0.047	0.34	0.36	0.35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15	7.25	7.49	0.045	0.32	0.33	0.34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10	6.16	6.36	0.026	0.16	0.16	0.17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15	6.15	6.47	0.041	0.25	0.25	0.27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86	6.75	6.78	0.039	0.27	0.26	0.26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25	5.45	5.85	0.044	0.23	0.24	0.26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50	5.97	6.43	0.044	0.24	0.26	0.28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50	6.81	7.06	0.047	0.31	0.32	0.33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5.92	6.26	6.60	0.050	0.30	0.31	0.33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08	6.26	6.70	0.047	0.29	0.29	0.31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61	6.96	7.07	0.055	0.36	0.38	0.39
⑲ 가족의 건강수준	7.33	7.53	7.42	0.057	0.42	0.43	0.42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27	5.41	5.59	0.046	0.24	0.25	0.26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30	6.71	6.90	0.034	0.21	0.23	0.23
평균(10점 기준)	6.57	6.81	7.02	1.000	6.61	6.87	7.08

6. 취업여부별 행복수준

10점 기준으로 취업여부별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학생이 14개 지표, 미취업자가 5개 지표, 취업자는 2개 지표로 나타났다. 학생은 특수한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21개 지표에 의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6〉 행복결정요인의 취업여부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취업여부(10점 기준)			평균 행복수준
	취업	미취업	학생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01	6.94	7.67	7.03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15	7.02	7.52	7.13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62	6.36	7.16	6.57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46	7.26	8.05	7.43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7.01	6.97	6.17	6.94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93	7.81	8.00	7.88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0	7.86	8.34	7.98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36	7.29	8.16	7.39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31	7.17	7.40	7.27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11	6.30	6.21	6.18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02	6.65	6.40	6.25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68	7.06	6.93	6.82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38	5.59	5.36	5.46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89	5.75	5.88	5.84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89	6.30	7.04	6.70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39	5.70	6.56	6.18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35	6.11	6.47	6.28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84	6.55	7.61	6.80
⑲ 가족의 건강수준	7.37	7.43	7.26	7.38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18	5.69	5.86	5.39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49	6.49	7.24	6.54
평균	6.74	6.68	7.01	6.74

취업자는 자아 존중감 정도,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부부생활(이성교제) 만족도, 출산 및 자

녀성장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친구·동료관계 만족도, 타인의 긍정적 인정 만족도, 구매·소유 유능감, 현재 일에 대한 보람, 현재 일 종류와 원하는 일의 일치성, 급여·근무환경 만족도, 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 등에서 미취업자보다 행복수준이 높았다.

반면에 미취업자는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여가·휴식 만족도, 만족스러운 수면(양·질), 재산·소득의 소유·취득 충족감, 가족의 건강수준, 규칙적 운동여부 등에서 취업자보다 행복수준이 높았다.

〈표 5-17〉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취업여부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취업여부 (가중치 적용전 10점 기준)			가중치	취업여부 (가중치 적용후)		
	취업	미취업	학생		취업	미취업	학생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01	6.94	7.67	0.057	0.40	0.40	0.44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15	7.02	7.52	0.056	0.40	0.39	0.42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62	6.36	7.16	0.054	0.36	0.34	0.39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46	7.26	8.05	0.058	0.43	0.42	0.47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7.01	6.97	6.17	0.054	0.38	0.38	0.33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93	7.81	8.00	0.049	0.39	0.38	0.39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0	7.86	8.34	0.050	0.40	0.39	0.42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36	7.29	8.16	0.047	0.35	0.34	0.38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31	7.17	7.40	0.045	0.33	0.32	0.33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11	6.30	6.21	0.026	0.16	0.16	0.16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02	6.65	6.40	0.041	0.25	0.27	0.26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68	7.06	6.93	0.039	0.26	0.28	0.27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38	5.59	5.36	0.044	0.24	0.25	0.24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89	5.75	5.88	0.044	0.26	0.25	0.26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89	6.30	7.04	0.047	0.32	0.30	0.33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39	5.70	6.56	0.050	0.32	0.29	0.33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35	6.11	6.47	0.047	0.30	0.29	0.30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84	6.55	7.61	0.055	0.38	0.36	0.42
⑲ 가족의 건강수준	7.37	7.43	7.26	0.057	0.42	0.42	0.41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18	5.69	5.86	0.046	0.24	0.26	0.27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49	6.49	7.24	0.034	0.22	0.22	0.25
평균(10점 기준)	6.74	6.68	7.01	1.000	6.79	6.72	7.07

행복결정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취업여부별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장 취업걱정이 없는 학생이 7.0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업자 6.79점이었으며, 미취업자는 6.7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행복수준 차이는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7. 가구소득별 행복수준

10점 기준으로 가구소득별 평균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501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3개 지표, 401~5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8개 지표 이었으며, 4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한 개의 지표도 없었다.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평균 행복수준이 낮은 것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체 21개 지표 중 20개 지표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계층에서 가장 낮은 행복수준을 보였고, 101~200만원인 계층은 규칙적 운동여부만이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복지수가 가구소득 수준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반드시 고소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8〉 행복결정요인의 가구소득별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	월평균 가구소득 (가중치 적용전 10점 기준)						무응답
	100만원 이하	101~200 만원	201~300 만원	301~400 만원	401~500 만원	501만원 이상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6.45	6.73	7.11	7.20	7.53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6.73	6.83	7.31	7.41	7.50	7.67	6.36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01	6.26	6.63	6.70	7.09	7.08	6.18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6.85	7.18	7.63	7.66	7.76	7.88	6.86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42	6.73	7.18	7.07	7.40	7.28	6.32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66	7.91	8.09	7.95	8.00	8.08	7.27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7.84	7.90	8.06	8.09	8.09	8.19	7.57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08	7.20	7.49	7.49	7.52	7.66	7.25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6.80	7.06	7.27	7.48	7.71	7.58	6.94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5.81	6.11	6.05	6.19	6.61	6.55	5.98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5.78	6.09	6.31	6.21	6.66	6.53	6.06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75	6.91	6.82	6.75	7.09	6.92	6.42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4.65	5.14	5.42	5.43	6.24	6.37	4.97
⑭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4.81	5.32	5.87	6.02	6.67	7.04	5.15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10	6.35	6.85	6.85	7.31	7.46	5.88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5.23	5.87	6.32	6.32	6.98	6.82	5.49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5.32	5.90	6.37	6.45	7.11	7.27	5.43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23	6.56	6.92	7.10	7.28	7.24	6.08
⑲ 가족의 건강수준	6.79	7.27	7.50	7.52	7.60	7.74	7.10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5.24	4.94	5.43	5.58	5.76	5.98	4.87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5.86	6.09	6.54	6.86	6.97	7.45	6.03
평균	6.21	6.49	6.82	6.87	7.18	7.26	6.22

행복결정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가구소득별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고소득계층인 501만원 이상이 7.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1~500만원 7.23점이었으며, 이어서 301~400만원 6.93점, 201~300만원 6.88점, 101~200만원 6.54점, 100만원 이하 6.25점의 순이었다.

〈표 5-19〉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 적용후 가구소득별 행복수준

행복결정요인	가중치	월평균 가구소득 (가중치 적용후)						무응답	
		10만원 이하	10~19 만원	20~29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만원 이상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0.057	0.37	0.38	0.41	0.41	0.43	0.43	0.37	
②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0.056	0.38	0.38	0.38	0.41	0.41	0.42	0.43	0.36
③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0.054	0.32	0.34	0.36	0.36	0.38	0.38	0.33	
④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0.058	0.40	0.42	0.44	0.44	0.45	0.46	0.40	
⑤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0.054	0.35	0.36	0.39	0.38	0.40	0.39	0.34	
⑥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0.049	0.38	0.39	0.40	0.39	0.39	0.40	0.36	
⑦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0.050	0.39	0.40	0.40	0.40	0.40	0.41	0.38	
⑧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0.047	0.33	0.34	0.35	0.35	0.35	0.36	0.34	
⑨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0.045	0.31	0.32	0.33	0.34	0.35	0.34	0.31	
⑩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0.026	0.15	0.16	0.16	0.16	0.17	0.17	0.16	
⑪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0.041	0.24	0.25	0.26	0.25	0.27	0.27	0.25	
⑫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0.039	0.26	0.27	0.27	0.26	0.28	0.27	0.25	
⑬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0.044	0.20	0.23	0.24	0.24	0.27	0.28	0.22	
⑭ 원하는 것을 얻는 사거나 기질 수 있다는 유능감	0.044	0.21	0.23	0.26	0.26	0.29	0.31	0.23	
⑮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0.047	0.29	0.30	0.32	0.32	0.34	0.35	0.28	
⑯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0.050	0.26	0.29	0.32	0.32	0.35	0.34	0.27	
⑰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0.047	0.25	0.28	0.30	0.30	0.33	0.34	0.26	
⑱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0.055	0.34	0.36	0.38	0.39	0.40	0.40	0.33	
⑲ 가족의 건강수준	0.057	0.39	0.41	0.43	0.43	0.43	0.44	0.40	
⑳ 규칙적인 운동여부	0.046	0.24	0.23	0.25	0.26	0.26	0.28	0.22	
㉑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0.034	0.20	0.21	0.22	0.23	0.24	0.25	0.21	
평균(10점 기준)	1.000	6.25	6.54	6.88	6.93	7.23	7.30	6.26	

제 6 장 종합논의 및 행복수준 향상방안

본 장에서는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행복수준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향상방안은 개인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행복이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노력이 동시에 병행 추진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 1 절 종합논의

1. 행복결정요인별 중요도(가중치)와 실제 행복수준의 비교

본 연구를 위한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산출된 21개 행복결정요인의 가중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하면 <표 6-1>과 같다.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표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0.058), 다음은 동일한 수준에서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지표와 ‘가족의 건강수준’ 지표였다(0.057).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지표,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지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지표,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지표,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지표 등도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표로는 ‘지역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표(0.026),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0.034),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0.039) 등이었다.

〈표 6-1〉 행복결정요인의 중요도와 가중치

중요도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가중치
1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0.058
2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0.057
2	가족의 건강수준	0.057
4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0.056
5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0.055
6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0.054
6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0.054
8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0.050
8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0.050
10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0.049
11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0.047
11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0.047
11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0.047
14	규칙적인 운동여부	0.046
15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0.045
16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0.044
16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0.044
18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0.041
19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0.039
20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0.034
21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0.026
	계	1.000

한국인이 행복결정요인으로 우선시하고 있는 것과 그 지표의 실제 행복수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21개 개별지표 중 행복결정요인으로서의 우선순위보다도 실제 행복수준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8개 지표이었고, 반대로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복수준이 낮은 것은 13개 지표로 나타났다. 실제 행복수준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는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중요도 8위, 실제 행복수준 1위),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중요도 10위, 실제 행복수준 2위),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중요도 11위, 실제 행복수준 4위),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중요도 15위, 실제 행복수준 6위),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

족도'(18위, 16위),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중요도 19위, 실제 행복수준 10위),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중요도 20위, 실제 행복수준 14위),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중요도 21위, 실제 행복수준 14위) 등이었다.

반면에 행복결정요인으로서 한국인이 중요시하고 있는 주요 지표의 실제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중요시하는 행복결정요인인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실제 행복수준은 3위이었고,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와 '가족의 건강수준'의 실제 행복수준은 각각 8위와 5위 이었다. 그 외에도 행복결정요인의 중요도 4위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의 실제 행복수준은 7위이었고, 중요도 5위인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의 실제 행복수준은 11위에 불과하였다.

〈표 6-2〉 행복결정요인의 중요도와 실제 행복수준

(단위: 점)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중요도		실제 행복수준	
	순위	가중치	순위	행복수준 (10점 기준)
•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1	0.058	3	7.43
•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2	0.057	8	7.03
• 가족의 건강수준	2	0.057	5	7.38
•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4	0.056	7	7.13
•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5	0.055	11	6.80
•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	0.054	13	6.57
•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	0.054	9	6.94
•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	0.050	1	7.98
•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8	0.050	17	6.18
•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10	0.049	2	7.88
•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1	0.047	4	7.39
•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11	0.047	12	6.70
•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11	0.047	15	6.28
• 규칙적인 운동여부	14	0.046	21	5.39
•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15	0.045	6	7.27
•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16	0.044	20	5.46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중요도		실제 행복수준	
	순위	가중치	순위	행복수준 (10점 기준)
•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16	0.044	19	5.84
•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18	0.041	16	6.25
•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19	0.039	10	6.82
•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20	0.034	14	6.54
•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21	0.026	17	6.18
	-	1.000	-	-

2. 한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행복결정요인의 행복수준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21개 중에서 행복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8점 이상인 지표는 없었고, 중간(5점)보다 낮은 지표도 없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인 7점대는 8개 지표였다. 행복수준이 약간 높은 6점대는 10개 이었으며, 중간수준 이상이지만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인 5점대는 3개이었다.

각각의 행복결정요인을 한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행복수준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의 특성은 거주지역, 성,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으로 하였다.

먼저 거주지역별 행복결정요인의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21개 지표 중에서 14개 지표가 대도시 거주자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거주자이었으며, 군 거주자는 행복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개 지표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도시 거주자이었으며, 군 거주자는 행복수준이 가장 낮았다. 다만, 1개 지표만이 군지역 거주자의 행복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현재의 부부 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지표이었다. 즉, 이 지표는 군지역 거주자의 행복수준이 10점 기준에 7.04점이었고, 다음은 중소도시 거주자 6.95점, 대도시 거주자 6.92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환경」 영역, 「일상생활」 영역, 「경제적 안

정」 영역, 「일」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행복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건강」 영역에서 ‘자신의 주관적 건강수준 지표와 ‘규칙적인 운동여부‘ 지표도 낮은 수준이었다(대체로 5~6점대).

‘규칙적인 운동여부’ 지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매우 낮았으며, 특히 군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10점 기준에 4.66점으로 대도시 거주자(5.53점)와 중소도시 거주자(5.38점) 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표 6-3〉 거주지역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단위: 점)

영역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거주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군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22	6.92	6.56	7.0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20	7.15	6.72	7.13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65	6.55	6.28	6.57
「가족·결혼」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51	7.38	7.28	7.43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92	6.95	7.04	6.94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87	7.91	7.81	7.88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2	7.95	7.87	7.98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46	7.38	7.09	7.39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31	7.29	6.94	7.27
「지역사회환경」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17	6.21	6.13	6.18
「일상생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26	6.31	5.88	6.25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78	6.87	6.75	6.82
「경제적 안정」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45	5.50	5.32	5.46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90	5.85	5.51	5.84
「일」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80	6.64	6.51	6.70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25	6.16	5.84	6.18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30	6.32	6.02	6.28
「건강」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88	6.82	6.23	6.80
	가족의 건강수준	7.42	7.38	7.19	7.38
	규칙적인 운동여부	5.53	5.38	4.66	5.39
「주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6	6.58	6.23	6.54

주: 0~10점의 11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된 것임.

행복결정요인의 행복수준을 남녀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21개 지표 중에서 7개 지표가 남성의 행복수준이 높았고, 14개 지표는 여성의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수준이 높은 지표에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 남편(또는 남자 친구)과의 관계, 가족생활 등에서 남성보다 만족도가 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는 달리 자기애(自己愛), 친구 또는 타인과의 관계, 일상생활(여가 및 휴식, 수면 등), 현재 하는 일과 반대급부 등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6-4〉 성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단위: 점)

영역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성		전체
		남자	여자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6.94	7.12	7.0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06	7.20	7.13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62	6.52	6.57
「가족·결혼」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55	7.31	7.43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7.05	6.85	6.94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87	7.90	7.88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7.98	7.97	7.98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29	7.49	7.39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15	7.39	7.27
「지역사회환경」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04	6.32	6.18
「일상생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18	6.31	6.25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72	6.91	6.82
「경제적 안정」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26	5.65	5.46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70	5.98	5.84
「일」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60	6.80	6.70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10	6.25	6.18

영역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성		전체
		남자	여자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10	6.46	6.28
「건강」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85	6.74	6.80
	가족의 건강수준	7.33	7.44	7.38
	규칙적인 운동여부	5.58	5.19	5.39
「주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6	6.52	6.54

주: 0~10점의 11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된 것임.

행복결정요인의 행복수준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21개 지표 중에서 7개 지표가 젊을수록 행복수준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지표는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등이었다.

이와 반대로 3개 지표는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높았고, 젊을수록 행복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지표는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등이었다.

또한 연령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11개 지표 중 가장 높은 행복수준을 보이는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는 9개 지표, 40대는 1개 지표, 50대 이상 1개 지표이었다. 즉, 40대는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지표가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은 ‘규칙적인 운동여부’ 지표가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연령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단위: 점)

영역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연령				전체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41	7.27	7.03	6.64	7.0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33	7.33	7.22	6.83	7.13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80	6.90	6.55	6.23	6.57
「가족·결혼」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73	7.67	7.60	6.98	7.43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52	7.43	7.37	6.58	6.94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8.26	8.07	7.91	7.74	7.88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5	8.16	7.96	7.82	7.98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85	7.37	7.23	7.25	7.39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25	7.37	7.32	7.18	7.27
「지역사회환경」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01	6.12	6.21	6.30	6.18
「일상생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09	6.19	6.28	6.35	6.25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60	6.78	6.90	6.92	6.82
「경제적 안정」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26	5.53	5.51	5.50	5.46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92	6.22	5.91	5.49	5.84
「일」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70	6.94	6.81	6.48	6.70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21	6.40	6.34	5.89	6.18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25	6.49	6.37	6.10	6.28
「건강」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7.14	6.98	6.86	6.43	6.80
	가족의 건강수준	7.13	7.52	7.50	7.36	7.38
	규칙적인 운동여부	5.23	5.07	5.56	5.58	5.39
「주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72	6.54	6.51	6.44	6.54

주: 0~10점의 11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된 것임.

행복결정요인의 행복수준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전체 21개 지표 중에서 9개 지표에서 미혼자가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고, 12개 지표는 유배우자가 가장 행복수준이 높았다. 그렇지만 이혼·사별·별거자는 어느 지표도 행복수준이 가장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보다 낮은 행복수준을 보이는 지표는 이혼·사별·별거자에게

서 3개가 있었다. 이는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4.12점),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4.61점),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4.99점) 등이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이성친구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6〉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단위: 점)

영역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별거	전체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32	6.98	6.36	7.0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30	7.14	6.24	7.13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80	6.55	5.80	6.57
「가족·결혼」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60	7.46	6.13	7.43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28	7.34	4.12	6.94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	7.93	7.20	7.88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1	8.02	7.04	7.98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85	7.27	7.03	7.39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27	7.30	6.82	7.27
「지역사회환경」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05	6.23	6.04	6.18
「일상생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17	6.29	5.87	6.25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68	6.88	6.47	6.82
「경제적 안정」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18	5.60	4.61	5.46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95	5.86	4.99	5.84
「일」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73	6.77	5.54	6.70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31	6.20	5.20	6.18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25	6.37	5.11	6.28
「건강」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7.09	6.76	5.95	6.80
	가족의 건강수준	7.03	7.50	7.31	7.38
	규칙적인 운동여부	5.31	5.42	5.20	5.39
「주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9	6.58	5.61	6.54

주: 0~10점의 11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된 것임.

행복결정요인의 행복수준을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 21개 지표 중에서 18개 지표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3개 지표만이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후자의 지표 3개 중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의 건강수준’은 2~3년 대졸자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고,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은 고졸 이하자가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행복수준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됨을 짐작케 한다.

〈표 6-7〉 최종학력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단위: 점)

영역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최종학력			전체
		고졸 이하	2~3년 대졸	4년대졸 이상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6.75	7.20	7.51	7.0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6.86	7.28	7.60	7.13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33	6.65	6.98	6.57
「가족·결혼」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23	7.64	7.71	7.43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69	7.13	7.33	6.94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79	7.95	8.03	7.88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7.91	7.95	8.11	7.98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32	7.57	7.46	7.39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15	7.25	7.49	7.27
「지역사회환경」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10	6.16	6.36	6.18
「일상생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15	6.15	6.47	6.25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86	6.75	6.78	6.82
「경제적 안정」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25	5.45	5.85	5.46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50	5.97	6.43	5.84
「일」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50	6.81	7.06	6.70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5.92	6.26	6.60	6.18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08	6.26	6.70	6.28
「건강」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61	6.96	7.07	6.80
	가족의 건강수준	7.33	7.53	7.42	7.38
	규칙적인 운동여부	5.27	5.41	5.59	5.39
「주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30	6.71	6.90	6.54

주: 0~10점의 11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된 것임.

취업여부별 행복결정요인의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21개 지표 중에서 14개 지표가 취업걱정이 당장 없는 학생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고, 5개 지표는 미취업자가, 2개 지표는 취업자가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다.

학생을 제외하고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비교하면, 전체 21개 지표 중에서 행복수준이 취업자가 높은 것은 14개, 미취업자가 높은 것은 6개, 동등한 수준이 1개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행복수준이 높은 지표로는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가족의 건강수준’, ‘규칙적인 운동여부’ 등으로 미취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재산이 있어 취업을 서두르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나 사료된다.

〈표 6-8〉 취업여부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단위: 점)

영역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취업여부			전체
		취업	미취업	학생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01	6.94	7.67	7.0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15	7.02	7.52	7.13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62	6.36	7.16	6.57
「가족·결혼」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7.46	7.26	8.05	7.43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7.01	6.97	6.17	6.94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93	7.81	8.00	7.88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8.00	7.86	8.34	7.98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36	7.29	8.16	7.39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31	7.17	7.40	7.27
「지역사회환경」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11	6.30	6.21	6.18
「일상생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02	6.65	6.40	6.25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68	7.06	6.93	6.82
「경제적 안정」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38	5.64	5.36	5.46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89	5.75	5.88	5.84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89	6.30	7.04	6.70
「일」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39	5.70	6.56	6.18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35	6.11	6.47	6.28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84	6.55	7.61	6.80
「건강」	가족의 건강수준	7.37	7.43	7.26	7.38
	규칙적인 운동여부	5.18	5.69	5.86	5.39
	「주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49	6.49	7.24

주: 0~10점의 11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된 것임.

월평균 가구소득별 행복결정요인의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21개 지표 중에서 12개 지표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수준이 가구소득에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5개 지표가 있었다.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구소득과 행복수준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지표는 4개

뿐이었다. 이들 지표는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등이었다.

〈표 6-9〉 월평균 가구소득별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의 평균 행복수준
(단위: 점)

영역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 이상	전체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6.45	6.73	7.11	7.20	7.53	7.62	7.03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6.73	6.83	7.31	7.41	7.50	7.67	7.13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01	6.26	6.63	6.70	7.09	7.08	6.57
「가족·결혼」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6.85	7.18	7.63	7.66	7.76	7.88	7.43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42	6.73	7.18	7.07	7.40	7.28	6.94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66	7.91	8.09	7.95	8.00	8.08	7.88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7.84	7.90	8.06	8.09	8.09	8.19	7.98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08	7.20	7.49	7.49	7.52	7.66	7.39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6.80	7.06	7.27	7.48	7.71	7.58	7.27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5.81	6.11	6.05	6.19	6.61	6.55	6.18
「일상 생활」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5.78	6.09	6.31	6.21	6.66	6.53	6.25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75	6.91	6.82	6.75	7.09	6.92	6.82
「경제적 안정」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4.65	5.14	5.42	5.43	6.24	6.37	5.46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4.81	5.32	5.87	6.02	6.67	7.04	5.84
「일」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10	6.35	6.85	6.85	7.31	7.46	6.70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 정도	5.23	5.87	6.32	6.32	6.98	6.82	6.18
	현재 일에 대한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5.32	5.90	6.37	6.45	7.11	7.27	6.28
「건강」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6.23	6.56	6.92	7.10	7.28	7.24	6.80
	가족의 건강수준	6.79	7.27	7.50	7.52	7.60	7.74	7.38
	규칙적인 운동여부	5.24	4.94	5.43	5.58	5.76	5.98	5.39
「주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5.86	6.09	6.54	6.86	6.97	7.45	6.54

주: 0~10점의 11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된 것임.

이상으로 21개 행복결정요인을 대상으로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살펴보았다. 많은 행복결정요인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에 따라 행복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혼·사별·별거자의 행복수준이 낮았고,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혼인상태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그 어느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인의 행복지수(가중치 적용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0점 기준으로 67.8점이었다. 따라서 한국인은 ‘비교적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행복지수를 이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도시 거주자(68.4점)가 중소도시 거주자(67.8점) 및 군지역 거주자(65.1점)보다 행복한 상태에 있었으며, 중소도시 거주자가 군지역 거주자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68.2점)이 남성(67.5점)보다 근소하게 행복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69.4점)가 가장 행복하였고, 50세 이상(66.0점)이 가장 덜 행복하였지만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상당한 행복격차를 느끼고 있었다. 즉, 유배우자(68.3점)는 행복감이 가장 높았으나 이혼·사별·별거자(59.5점)는 낮은 행복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다소 미약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장 높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자(70.8점)가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자(66.1점)는 가장 낮았으며, 취업자(67.9점)와 미취업자(67.2점)의 행복격차는 미미하였고, 오히려 아직까지는 취업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70.7점)이 보다 행복한 상태에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행복격차는 심하였다. 가장 고소득층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73.0점),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행복감도 낮아져 1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자는 가장 낮은 행복감을 제시하였다(62.5점).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행복수준은 혼인상태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도 따라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행복감을 느끼는 수준은 상이하였다.

〈표 6-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단위: 점)

특성		한국인의 행복수준 (가중치 적용후 100점 기준)
전체		67.8
거주지역	대도시	68.4
	중소도시	67.8
	군	65.1
성	남자	67.5
	여자	68.2
연령	20대	68.5
	30대	69.4
	40대	68.6
	50세 이상	66.0
혼인상태	미혼	67.4
	유배우	68.3
	이혼·사별·별거	59.5
최종학력	고졸 이하	66.1
	2~3년제 대졸	68.7
	4년제 대졸 이상	70.8
취업여부	취업	67.9
	미취업	67.2
	학생	70.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62.5
	101~200만원	65.4
	201~300만원	68.8
	301~400만원	69.3
	401~500만원	72.3
	501만원 이상	73.0
무응답	62.6	

제 2 절 행복수준 향상방안

한국인이 행복하기 위한 방안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행복의 속성상 개인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회적 지원이 없이는 행복을 달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향상방안은 이론 및 선행연구, 본 연구를 위한 델파이조사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등에 기초하였다.

1. 개인적 측면에서의 행복수준 향상방안

한국인의 행복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행복이 매우 주관적이므로 스스로의 노력없이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자기의 능력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대수준과 욕구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생활철학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의 노력으로 달성이 쉽지 않음에도 과도하게 기대를 하거나 지나친 욕구, 즉 욕심을 가질 경우에는 행복감을 느끼기란 어려울 것이다. 한 마디로 분수(分數)를 아는 것은 행복의 요건이며, 반대로 과욕(過慾)은 불행의 요건이다.

둘째, 가족생활과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원을 이해하고 상호 협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원과의 관계와 부부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여야 할 것이며, 문제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해결방안을 스스로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알맞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산도, 높은 명예도 소용없다. 본인의 건강은 스스로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함께하는 가족원이 건강하지 않으면 본인의 건강보다는 덜하겠지만 불행의 요인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가족단위로 여가와 운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자아 존중감을 가지며, 긍정적 가치관 및 감정을 항상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항상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매사에 임한다면 힘든 일도 힘들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일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난제(難題)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친구 및 동료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고 지속하기 위한 노하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혼인관계를 지속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혼(解婚)한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배우자가 없음으로서 나타나는

심리적, 정신적 위축감을 최소화하는 자기만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일곱째, 학교의 전공선택과 구직(求職)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자기 적성(適性)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의 주요 요건이고, 선택한 직장에 대해서는 원한 것이든, 원하지 않은 것이든 보람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2.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인의 행복수준 향상방안

개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행복요인이 많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행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 개발과 제공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한국인이 기본생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를 적극 개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에 지속적,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이할 것이므로 여론조사를 통하여 한국인의 연령층별, 교육수준별, 성별, 지역별 선호하는 직업과 직종을 파악하여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정책을 강화하여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응집력을 강화

하며, 위기가족의 발생요인을 제거하는데 정책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행복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가족(healthy family)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제 및 정서적 지원은 물론이고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셋째,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부터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출산과 자녀양육’을 가족책임으로 단정하기에는 엄청난 가족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위협요인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이유로 할 것도 없이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의 역할로 단정하기에는 ‘자녀출산과 아동 잘 키우기’가 향후 한국사회에 엄청나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공·사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고,

넷째,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강화되고,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각자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이 건강은 국력(國力)이라고 할 만큼 국익에 중요하다. 건강한 국민은 국부(國富)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크게는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작게는 국민의료비 감소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주현 옮김, 『행복공장』, 레이 도드 지음, 동아일보사, 2007.
- 김명소·한영석, 『한국인의 행복수준 공식개발』, 『조사연구』, 7권 2호, 2006.
- 김명소 외,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Vol.8, No. 22, 2003.
- 박길성,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시아연구, 45(2), 2002.
- 이경아 역, 『영국 BBC다큐멘터리 행복』, 리즈 호가드, How to be Happy, 예담, 2006.
- 이지선·김민영·서은국, 『한국인의 행복과 복: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심리학회지』, Vol. 18, 2004.
- 윤희진 역, 『행복지수 LQ테스트로 알아보는 행복』, Anna von Blomberg, Der Lustquotient, 2000, 다른우리, 2002.
- 장동숙 옮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5가지 사랑』, 게리 채프먼 지음, 2004
- 정동섭, 『행복의 심리학』, 『기독교상담학회지』, Vol. 4, 2002
- 현경자,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에 대한 종단적 탐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 18, 2004.
- 황문수 옮김, 『러셀의 행복론』, 버트런드 러셀 지음, 문예출판사, 2001.
- Alderfer, C. P.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NY: The Free Press, 1972.
- Bubolz M, Eicher JB, Evers SJ, Sontag MS.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oL: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SocIndicators Res, 1980.

Campbell, A.,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1981.

Diener, E. and Suh, E.,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Kahneman, D., Diener, E., & Schwarz, N. (Eds.), *Hedonic psychology: Scientific Perspectives on Enjoyment, Suffering, and Well-being*. New York: Russell Sage, 1999.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 Diener, M.,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 Research, Vol. 28, 1993.

Frey, D. S. & Stutzer, A., *Happiness & Economic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George, L. K. & Landerman, R.,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 Replicated Secondary Data Analysis*. Int J Aging Hum Dev., 19(2), 1984.

Inglehart, R.,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Kirkcaldy, Furnham & Veenhoven, *Health Car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Nations in Antoniou, A. S. G., & Cooper, C. L. (eds) Research Companion to Organizational Health Psychology*.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er, 2002.

Lapinski, J. S., Riemann, C. R., Shapiro, R. Y., Stevens, M. F., & Jacobs, L. R., *Welfare State Regimes And Subjective Well-Being: A Cross-National Study*. Int.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 1998.

Michalos, A., *Policing Services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 Research, 61(1), 2003.
- Myers, D. G. & Diener, E.,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s* 6(1), 1995.
- Rudnick & Kravetz, The Relation of Social Support-seeking to Quality of Life in Schizophrenia. *J Nerv Ment Dis.*: 189(4), 2001.
- Russell, B., "Culture and Categoriz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 1991.
- Ryff, C. D.,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7, 1989.
- Ryff, C. D. & Keyes, C. L. 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9, 719-727, 1995.
- Sen, A., The Welfare Basis of Real Income Comparison: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 VII, 1979.
- Shin, D. C., Ahn, C. S., Kim, K. D., & Lee, H. K. Environmental effects on perceptions of life quality in Korea. *Social Indicator Research*, 12(4).

부 록

1.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 개발에 관한 조사
(텔레파이 조사표)
2. 한국인의 행복지수에 관한 조사(전화조사표)
3. 삶의 질 관련 지표
4. 한국의 사회지표

부록 1. 텔파이 조사표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 개발에 관한 조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한국인의 행복결정 요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행복지표)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을 개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 자료로만 처리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리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연구책임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 조사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락처: 02-380-8212, 8263 e-mail: kimsk@kihasa.re.kr cmsook@kihasa.re.kr

응답자 일반사항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연 령	만 세	
직 업	(소속:)	
학 령	<input type="checkbox"/> 고졸 미만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대제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졸 이상(박사)	
연 락 처		
주 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역	행복에 미치는 요인	우선순위	영향정도 (10~0)	
C. 개인적 관계	C1.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C2.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C3.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C4.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C5. 기타:			
D. 지역 사회	D1.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D2.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D3. 기타:			
E. 일상 생활	E1. 식생활의 규칙성			
	E2.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E3.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E4.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E5. 기타:			
F. 인구 사회학적 특성	F1. 성(Gender)			
	F2. 연령			
	F3. 혼인상태			
	F4. 취업여부			
	F5. 종사상 지위			
	F6. 직업			
	F7 개인 소득 수준			
	F8 가구 소득 수준			
	F9. 종교생활여부 및 신앙수준			
	F10. 기타:			
삶의 질 관련	G. 경제 적 안정	G1.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G2.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G3.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G4. 기타:		
	H. 일	H1.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 자율성 보장 정도		
		H2.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H3.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H4.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H5. 기타:		
	I. 건강	I1.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수준		
		I2. 가족의 건강수준		
		I3. 규칙적인 운동 여부		
		I4. 기타		
J. 주거	J1.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J2.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J3. 기타			
기타의견				

부록 2. 전화조사표

한국인의 행복지수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 앤 리서치입니다. 당사는 국무총리 산하 국정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선행연구에 의해 개발된 행복결정요인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제 특성별 행복지수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한국인의 행복수준의 측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처리되며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하여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Q1. 귀하의 거주지역은? ☞ [Quota 확인]

- 1)서울특별시 2)부산광역시 3)대구광역시 4)인천광역시 5)광주광역시
 6)대전광역시 7)울산광역시 8)경기도 9)강원도 10)충청북도 11)충청남도
 12)전라북도 13)전라남도 14)경상북도 15)경상남도 16)제주특별자치도

SQ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 1) 대도시(서울 및 6대광역시) 2) 중소도시(시단위) 3) 군

SQ3. 귀하의 성별은? ☞ [Quota 확인] 성별은 목소리로 판단할 것

- 1) 남 2) 여

SQ4.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만 세 ☞ [만 20세 미만 면접 중단]

※ 면접원 : 설문을 모두 마친 후 다음을 작성해 주세요.

응답자 정보		면접원 정보	
이름·직위		면접일시	월 일 시 분 ~ 시 분
연락처		면접원 이름	
		면접원 ID	

※ 행복에 미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말씀해 주세요. 매우 낮다 0점이고, 매우 높다는 10점입니다.

매우 낮다 0---1---2---3---4---5---6---7---8---9---10 매우 높다

질문 문항		응답란
A. 심리적 안정	1. 현재 귀하의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 귀하의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B. 가족·결혼	4. 현재 귀하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 현재 귀하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C. 개인적 관계	7. 현재 귀하의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8. 현재 귀하의 친구 및 동료 관계에 대한 만족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D. 지역사회	10. 현재 귀하의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E. 일상생활	11. 현재 귀하의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2. 현재 귀하의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F. 경제적 안정	13. 현재 귀하께서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4. 현재 귀하께서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G. 일	15. 현재 귀하께서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6. 현재 귀하께서 하고 계신 일의 종류와 귀하께서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7. 현재 귀하의 일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H. 건강	18. 현재 귀하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9. 현재 귀하의 가족분들의 건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I. 주거	20. 현재 귀하의 규칙적인 운동 여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1. 현재 귀하의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22.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이혼, 사별, 별거
2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2~3년제 대졸 ③ 4년제 대졸 이상
24.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시나요? 만원
25.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취업 ② 미취업 ☞ [25-1번으로 이동]
- 25-1. 귀하는 현재 학생입니까? ① 학생 ② 기타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3. 삶의 질 관련 지표

분야	지표명
인구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혼인율 · 조이혼율 · 조재혼율 · 조출생률 · 조사망률 · 인구성장률 · 인구가동률 · 가구증가율 · 1인 가구비율 · 인구밀도 · 소년소녀가장가구비율 · 한부모 가구비율 · 여성가구주가구 비율 · 국민평균영령 · 인구부양비 · 노령화지수 · 평균조혼연령 · 출생시성비 · 합계출산율 · 이상자녀수 · 기대자녀수 · 남아선호도* · 인공임신중절경험률 · 미혼모출산비율 · 혼인에 대한 태도* · 이혼에 대한 태도* · 재혼에 대한 태도* · 선호하는 가족형태* ·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 이민에 대한 태도*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GDP · 1인당 GNI ·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성별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률 · 소비자 물가지수 · 어음부도율 · 가구당 평균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 도시·농가 평균소득 비율 · 임금수준 및 평균임금지수 · 부채가구비율 · 총저축률 · 총투자율 · 1인당 조세부담액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 1인당 소비지출액 · 가구당 소비재종류별 지출액 · 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흑자율 · 소득 10분위별 분포 · 소득 집중도(지니계수) · 앵겔계수 · 지가 변동률 · 가구당 승용차가용 보유율 · 주민 1만명당 금융기관 수 · 주민 1만명당 유통시설 수 · 주민 1인당 지역총생산 · 사업체 종사자 증감률 · 30인 이상 기업체 비중 ·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기대* · 소득 만족도* · 소비(생활)만족도* · 지역경제에 대한 만족도*
노동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취업자 · 직업별취업자 · 교육정도별 취업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 ·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 월평균 근로일수 · 주당 근로시간 · 노동생산성지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비율 · 재해발생률(산업재해 발생건수) · 산재사망률 · 직업병 유병근로자율 · 교육수준별 평균임금격차 · 직종별 평균임금격차 · 기업규모별 평균임금격차 · 성별 평균임금격차 · 성별 근속년수 격차 · 성별 이직률 · 직업선택요인 · 입법 및 행정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및 기술직 여성비율 · 남성집중직종과 여성집중직종의 임금격차 · 비정규직내의 여성비율 ·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 36시간 미만 근로자 여성비율 · 국회의원중 여성의원비율 · 지방의회의원 중 여성의원 의원 비율 · 시민단체 상근자 중 여성비율 · 정부 각 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 노동조합조직률 · 노사분규건수(근로손실일수) · 일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 · 근로여건 만족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1만명당 평생학습기관 수 · 주민 1만명당 사설학원 수 · 공립유치원 이용률 · 교원1인당 학생수 · 여교사비율 · 학급당 학생수(중, 고)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학생1인당 건물면적 · 컴퓨터 1대당 학생수 · 도서관수(이용자수) · 도서실 장서·좌석수 · 인구만명당 열람석수 · 인구만명당 장서수 · 학업성취도 · 중도탈락률 · 대학교 진학률 · 특수교육대상아동 취학률 · 장애인 취학자수 · 졸업생 취업률 · 평균교육년수 · 교육기회의 충족도* · GDP 대비 교육공비 ·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 학생 1인당 공·사교육비 · 학교단계별 교육공비 비율 ·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교육비 부담률에 대한 인식*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학교수업 만족도(중, 고)*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직원 1인당 주민수 · 보건의료인력 1인당인구수 · 1인당 의사수 · 의료인력수 당 인구수 · 1인당 평균의사방문수 · 인구 10만명당 종합병원 병상수 · 주민 1만명당 의료기관수 · 의료기관 및 병상수, 병상당 인구 · 특수의료시설 및 병상수

분야	지표명
보건	• 병상이용률 • 사망률 • 자살사망률 •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 영아사망률 • 유아사망률 • 모성사망률 • 주민 1천명당 만성질환 보유자 수 •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 주요 성인질환 유병률 • 특성만성질환 치료율 • 전염성질환 발생률 • 유병률 • 암유병률 • 치매 유병률 • 정신질환 유병률 • 정상혈압 비율 • 비만율 • 주요 질병 발생건수 • 주민 1만명당 식중독 발생자수 • 주관적 건강평가* • 스트레스 인식정도 • 건강관리방법 • 활동제한일수 • 외병일수 • 입원율 • 기대여명(평균수명) • 건강기대여명(건강수명) • 흡연율 • 음주율 • 예방접종률 • 건강검진율 • 열량섭취량 • 단백질 및 지방섭취량 • 1인당 1일당 식품소비구성비 •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 총국민의료비 및 1인당 의료비 • 가구당 의료비 지출률 • 공공의료비 지출비율 • 정부예산대비 보건예산비율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 • 보건기관 이용 만족도*
교통	• 자가용 승용차 보급대수 및 보급률 • 가구당 자가승용차 보유대수 •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 주차장 확보율 • 도심지역 평균 자동차 주행속도 • 천연가스버스 보급실적 • 저상버스 운행비율 • 장애인당 특별차량 운행비율 • 버스차량 노후도 • 이용자 대기시간 • 버스 차내 혼잡도 •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 어린이 도로교통 사고율 • 보행자 사고율 • 교통사고 발생건수 •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 교통사고야기 도주검거율 • 고속(화)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 가구당 교통비 및 지출비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서비스 만족도* •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정보통신	• 인터넷 이용률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 가구당 전화보급률 • 이동전화가입자수 • PC 보유가구율 • CATV 가입률 • 위성안테나 설치율
주거	• 주택보급률 • 자가보유율 • 국민임대주택비율 • 자가접유율(보유율) • 주택마련기간 • 현 주택의 상태(주택의 노후도) • 도시가스 보급률 • 도시주택가격지수 • 1인당 주거면적 • 방당 거주인수 •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 주택에 대한 만족도* •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환경	• 상수도 보급률 • 1인 1일당 상수도 급수량 • 가구당 수도요금 평균부과액 • 하수도 보급률 • 폐수 배출업소 환경기준 위반율 • 주요 하천 수질오염도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수 • 대기오염 악화일수 • 도시권내 대기오염도 •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 •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 재활용률 • 유해 폐기물 발생량 •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 도시 녹지율 • 대기오염도 • 수질오염도 • 해수오염도 • 오존 오염도 •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 소음공해도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폐수 발생량 • 하수처리율 • 1인당 오수발생량 • 생활폐기물발생량 • 1인당 에너지 사용량 • 1인당 녹지면적 • 환경 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복지	•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률 • 시설별 평균중사자수 • 긴급복지지원 사업률 •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비율 • 수급자 자활성공률 • 노숙자 • 방과 후 아동보호율 • 아동학대 • 입양률 • 청소년 유해업소수 •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 노인인구 대비 노인시설수용자 • 유료노인시설수 및 입소자수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 • 노인일자리 제공률 • 노인학대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장애인출현율 •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 장애인 취업률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 요보호여성수(미혼모, 가출여성) •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예산 • GDP 대비 공적부조예산 • 정부예산대비 공적부조예산 • 사회예산대비 공적부조예산 •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급여액 • 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 사회보장예산 대비 사회복지서비스예산

분야	지표명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 공적연금 수급률 • 연금급여 건당 평균급여비 • 최저생계비 • 의료보호수혜율
문화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1만명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 주민 1만명당 체육시설수 • 공공체육시설수 •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 주민 1만명당 공공도서관좌석수 • 주민 1만명당 문화시설수 • 박물관 1관당 주민수 • 문화시설 이용률 • 문화예술시설수 • 영화관시설수 • 도서관 열람석수 • 여가활동비 지출률 • 예술행사수 • 평균여가시간 •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 평균행행횟수 • 해외여행 비율 • 여가활용 만족도* •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 공공체육시설 주민 만족도* • 공공문화예술시설관련 주민만족도*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대 1개소당 담당주민수 • 경찰 1인당인구수 • 소방관 1인당 인구수 •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 주민 1만명당 범죄 발생건수(주요 5대범죄) • 외국인에 의한 국내범죄 발생건수 • 국내인에 의한 해외범죄 발생건수 • 주민 1만명당 화재발생건수 • 화재발생건수당 사상자수 • 화재발생건수당 피해액 • 화재보험 가입건수 • 화재신고접수 후 5분내 현장도착률 • 특성소방대상물 중 화재 발생률 • 자연재해로 인한 총 피해액(사상자수및 피해액) • 자연재해 발생횟수 • 주민 1만명당 재난위험시설물의 수 •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사고율 •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 범죄발생건수 • 주요 범죄신고율 • 현행범죄 미신고이유 • 범죄발생부터 범죄자 체포까지의 시간별 분포 • 신고된 주요범죄 체포율 • 주요범죄 재범률 • 강력범죄비율 •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 • 각종 사고에 의한 부상자수 • 개업변호사수 • 주요범죄별 범죄자수 • 주요 범죄자 평균연령 • 주요범죄 초범률 • 주요범죄 재범률 • 교도소 수감자 1인당 교도비 지출액 • 컴퓨터 범죄자수 • 청소년 범죄율 • 학교주변, 교내폭력, 협박 피해학생수 • 공갈, 협박, 전화폭력 경험률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 야간보행시 안전도* •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에 대한인식*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청소년 비행·탈선행동에 대한 인지도* • 치안서비스 만족도*
행정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 공무원 1천명당 비위발생비용 • 청렴도 지수 •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비율 • 자원봉사자 등록률 • 자원봉사 참여율 • 정보공개 신청대비 공개율 • 행정심판 인용률 • 재정자립도 •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사회단체 참여율 • 자원봉사자 비율 • 종교활동 참여도 • 사회적 이동가능성 태도 •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삶의 질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전과 비교한 삶의 질 수준 만족도* • 현재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 주택 만족도* • 친구관계 만족도* • 결혼생활 만족도* • 생활수준 만족도* • 가계소득 만족도* • 건강 만족도* • 학력 만족도* • 직업 만족도* • 동네 만족도* • 치안 만족도* • 환경상태 만족도* • 이웃관계 만족도* • 사회보장제도 만족도* • 민주제도 만족도* • 가족생활 만족도* • 여가생활 만족도* • 삶의 성취 만족도* • 가족관계 만족도*

부록 4. 한국의 사회지표(2007년 기준)

분야	지표명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구 • 인구성장의 구성요인 • 장래추계인구 • 국적별 등록외국인 • 성 및 연령별 인구 • 국민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 성 및 연령별 노인인구 • 성 및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 부양비 및 고령화지수 •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비(15세 이상) • 시·도별 인구구성 및 인구밀도 • 지역별 장래 추계인구 •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 유배우 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지역별 주간인구 • 성 및 연령별 사망률 •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 지역별 전,출입인구 및 순인구 이동률 • 입출국자 현황 • 해외이주 신고자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의 종류별 분포 • 인구의 거주 가구종류별 분포 •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평균 가구원수 • 일반가구 가구의 성구성 및 연령분포 • 혈연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 가족의 종류별 분포 • 인구의 거주 가족종류별 분포 • 가족종류별 평균가구원수 • 평균 초혼, 이혼 및 재혼연령 • 초혼연령별 인구분포 • 이혼연령별 인구분포 • 초혼인율 • 조이혼율 및 재혼진수 • 재혼형태분포 • 특성별 첫 자녀 출산연령 • 모의 첫 자녀 출산연령 분포 • 이상자녀수 • 노인의 연령별 거주가구 형태 분포 • 결혼에 대한 견해 • 이혼에 대한 견해 • 재혼에 대한 견해 • 입양에 대한 견해 •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분산가족(가구주)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NI • GDP • 1인당 GNI • 국민처분가능소득 및 개인처분가능소득 • 지역내 총생산 및 생산구조 •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원천별 구성 • 민간 및 정부 최종소비지출(당해년 가격) • 재화형태별 국내소비지출 구성비(당해년 가격) • 도시가구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 농가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성향 및 흑자율 • 총저축율 및 총투자율 •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 •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 및 노동소득 분배율 • 소득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 • 조세부담률 • 소득탄축도 • 물가지수 •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 소비탄축도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률 •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 5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상태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 • 산업별 월평균 임금수준 • 산업별 평균 임금격차 •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 직종별 평균 임금격차 •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 • 산업별 입·이직률 • 산업별 직업훈련자수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수 • 건강진단 수검률 및 직업병 근로자 비율 • 산업재해도수율·재해강도율 및 재해사망률 • 노동생산성지수 • 노동조합조직률·노사분규건수·근로손실일수 •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 직업선택요인 •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 여성취업 장애요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연령계층별 평균 교육년수 •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 유치원 취원율 • 취학률 • 진학률 • 학업중단율 • 인구 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수 • 연간 평생학습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복수응답) • 학생현황 •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 교원현황 • 교원 세부현황 • 교원 퇴직률 • 사무직원당 교원수 • 학생 1인당 건물·교지 및 체육장 면적 • 학급당 학생수 • 학교도서관 좌석 및 장서수 • 컴퓨터 1대당 학생수 • 교원 1인당 교원용 컴퓨터수 • 급식실시 학교 및 학생비율 • 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 학교교육의 효과 • 졸업생 취업률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비행학생 비율 • 교육정도별 월평균 임금수준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분야	지표명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평균신장, 체중 · 흡위 및 신체중량지수(BMI) · 추정 치매노인수 및 유병률 · 주관적 건강평가 및 스트레스 인식정도 · 1인당 하루의 영양 공급량 · 1인당 하루의 쌀 및 육류 소비량 · 음주(20세 이상 인구) · 주류출고량 · 흡연을 및 1일 평균 흡연량 · 연간 담배 판매량 · 비만율 · 규칙적 운동 실천율 · 하루평균 수면시간 ·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및 암 사망률 · 주요 전염병 발생건수 및 발생률 · AIDS 감염자 현황 · 주요 만성전염병 발생현황 ·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 암 유병률 · 암 발생 현황 · 유병률-유병일수 및 외병일수(조사직전 2주간) · 전염병 예방접종실적 ·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 의료이용 ·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이용 및 병상이용률 · 의료인력 현황 · 의료기관수 · 의료기관 병상수 · 국민의료비 지출 ·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 · 정부예산대비 보건예산 비율 · 건강검진율 및 암 검진율
주거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보급 및 주택투자율 ·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 공공주택 건설 · 주택의 노후도 · 연건평별 주택 분포 · 최초 주택마련시 자금조달방법 · 도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 주택에 대한 만족도 · 주택에 대한 불만이유 · 원하는 주택형태 ·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 주거공간 · 주택당 거주가구수 분포 · 최초 주택마련시기 · 현거주지 선택이유 · 결혼후 내집 마련시까지 이사횟수 ·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거주지역에 대한 불만이유 ·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 시설형태별 가구비율 · 난방방식별 가구분포 · 자동차 차고지 확보유무 · 교통기반시설규모 · 교통수단 보유현황 ·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수송인원, 인·Km) · 자동차 등록현황 · 통근·통학 교통수단 · 통근·통학 소요시간 · 교통문제 · 도로교통 혼잡비용 · 물류비용 · 도로교통 사고비용 ·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
정보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연구개발비 · 정보통신 기술도입액 및 기술수출액 ·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 정보통신산업 수출입액 ·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 · 전화보급률·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여부(인터넷 이용률) · 인터넷 도메인수, 인터넷 접속방식(복수응답) · 전자상거래 규모,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쇼핑 경험 및 구매횟수 · 인터넷쇼핑 구매품목(복수응답) · 유료 인터넷 콘텐츠별 이용 경험(복수응답) · 월평균 인터넷쇼핑 구매금액 · 컴퓨터 이용시간(주 평균) · 인터넷 이용목적(복수응답) · 가구내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비용 · 인터넷 बैं킹 서비스 등록 고객수 · 필요정보 입수경로(복수응답) · 정보화의 영향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폐수발생량 및 1인당 오수발생량 · 폐기물 발생량 · 식량작물 생산량 대비 비료소비량 및 농약출하량 · 화학물질 유통량 · CFCs 사용량 및 1인당 CO2 배출량 · 해양오염 사고현황 · 상수도 보급률 · 지하수 이용현황 · 최종에너지(석유환산) 및 전력소비량 · 경지면적 변화추이 및 도시화율 · 산림지역 및 임목별체 · 대기, 수질 및 해수오염도(SO2, BOD, COD) · 주요 도시의 오존(O3)오염도 · 주요 도시의 빗물의 산도(PH) · 상수도 시설과 식수사용 형태 · 어업형태별 어획량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현황 ·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 주요 도시의 소음공해도 ·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 하수도 보급률 · 폐기물 재활용 · 환경보호지출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환경오염 방지노력 · 제생산업 사업체수 ·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활용 현황 · 지정폐기물 발생 및 감량 ·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부담 의향 · 공해배출 부과금 및 징수액 · 쓰레기 종량제 참여지 불편한 점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 ·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 건강보험부담액 및 건강보험급여액 · 공적연금 가입자 · 공적연금 수급자 · 공적연금 평균 급여액 · 사회복지 전달 공무원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비율 · 연명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일반수급 및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액 · 최저생계비 ·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 · 평균 생활인원 및 평균종사자 · 중별 지역사회복지관 수 · 노인복지 생활시설수 및 생활자 ·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복지시설 생활자

분야	지표명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 여부 •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 지위 •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 •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 60세 이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 • 60세 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 60세 이상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및 살고 싶은 곳 • 부랑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현황 • 자녀 양육실태(복수응답) • 소년소녀가장 가구수 •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 아동임양기관수 및 임양아수 • 장애인등록률 및 의무고용준수율 •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및 장애인 출현율 • 장애인 취업자 및 취업희망 장애인 비율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문화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 문화재 수 • 시도지정 문화재수 • 예술행사수 • 문화예술 시설수 • 영화관 현황 • 영화상영 편수 및 관객수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도서관수 • 장서수 • 이용자수 • 독서인구 비율 • 신간 도서발행현황 • 신문구독 • 신문의 관심부문 • 텔레비전 시청률 • 텔레비전 선호 프로그램 •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 비디오, DVD 시청 • 음악감상 방법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 여가활동 만족여부 및 불만족이유 • 평균 여가시간 • 가구 여가활동비용 지출 •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 국민의 생활시간 • 국내관광 여행 비율 • 휴양시설 이용률 • 해외여행자 비율 • 공공 체육시설수 및 면적 • 생활체육 참여율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 케이블 TV가입가구 • 위성방송 가입가구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수준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형법범 중 주요범죄 발생건수 •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 외국인 범죄자 비율 • 형법범 중 주요범죄별 범죄자수 및 소년범죄자 비율 • 주요 범죄 재범자 비율 • 유형별 범죄자 수 및 여성범죄자 비율 • 교도소 수용인원 • 교도관수 및 교도예산 • 주요 범죄 미신고 비율 및 이유 • GDP대비 경찰지출액 • 경찰관수 및 순찰차량수 •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별 분포 •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 교통수단별 사고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 교통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 고속도로 교통사고 • 총도로연장 및 교통안전시설 • 범규위반별 교통사고 • 화재와 자연재해 • 소방관수 및 소방자동차수 • 주택형태별 화재보험 가입건수 • 가입금액 및 보험료 • 구속영장 발부율 • 소송사건(처리) • 교정시설 수용현황 • 법률구조 • 상담건수 및 개업변호사 수
정부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선거투표율 •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 사회단체 참여율(복수응답)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종교인구 분포 • 후원(기부)인구(복수응답) • 후원방법별 후원횟수 • 해외봉사활동 참가자수 • 재외동포 교육기관 및 단체조직현황 •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태도 •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 • 총 공무원수(정원) • 민원서비스 만족도 • 민원서비스 불만이유(복수응답) • 국민1인당 및 GDP대비 기능별 세출 • 정부세출의 기능별 구성 • 지방재정 자립도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미정
연구 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연구 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미정
연구 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미정
연구 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연구 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신현웅	미정
연구 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식	7,000
연구 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질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영희	6,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08-23-1-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08-23-1-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미정
연구 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미정
연구 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치)	오영호	5,000
연구 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08-27-1	노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08-27-3	노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08-27-4	노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6,000
연구 08-27-5	노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
연구 07-01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박실비아	8,000
연구 07-02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오영호	9,000
연구 07-03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최은진	7,000
연구 07-04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김혜련	10,000
연구 07-05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허순임	8,000
연구 07-07	국민연금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원종욱	7,000
연구 07-08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노대명	6,000
연구 07-09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7,000
연구 07-10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최성은	8,000
연구 07-1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II)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승권	12,000
연구 07-12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강혜규	10,000
연구 07-1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김미숙	7,000
연구 07-14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변용찬	7,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7-15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정영철	7,000
연구 07-16	한국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장영식	6,000
연구 07-17-1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이태진	13,000
연구 07-17-2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	신영석	6,000
연구 07-17-3	2007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7-17-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대명	5,000
연구 07-17-5	미국 Medicaid의 각주별 모니터링 체계 비교 연구	신영석	7,000
연구 07-1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07-17-7	저소득층 의료육구 측정에 관한 연구	신현웅	6,000
연구 07-17-8	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이태진	16,000
연구 07-18-1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i>the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K, US and Korea</i>	강혜규	5,000
연구 07-18-2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홍석표	5,000
연구 07-19-1	국제결혼가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안	이상식	6,000
연구 07-19-2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신윤정	7,000
연구 07-19-3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정경희	7,000
연구 07-19-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 개발 연구	선우덕	9,000
연구 07-19-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조남훈	9,000
연구 07-19-7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공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오영희	6,000
연구 07-19-8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 07-19-9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강유구	7,000
연구 07-20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김미곤	7,000
연구 07-21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2,000
연구 07-22-2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일차년도)-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7-22-3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07-22-4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8,000
연구 07-22-6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 방안	최성은	6,000
연구 07-23	200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9,000
연구 07-24	의료이용 및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1차 예비조사	정영호	9,000